대동강문화

차　　례

머리말 · 5
1. 대동강문화의 력사적전제 · · · · · · · · · · · · · · · · 7
1) 대동강류역의 자연환경 · · · · · · · · · · · · · · · 7
2) 대동강류역은 인류의 발상지, 인류문화의 발원지 · · · 19
3) 대동강류역은 신석기시대문화의 발원지, 중심지 · · · 34
4) 대동강류역은 청동기시대문화의 발원지, 중심지 · · · 55
5) 대동강문화의 사회력사적전제 · · · · · · · · · · · · 81

2. 대동강문화 · 98
1) 대동강류역에서 첫 고대국가—단군조선의 건립 · · · · 98
(1) 단군에 의한 고조선의 건립 · · · · · · · · · · · · 98
(2) 단군조선의 국가적성격 · · · · · · · · · · · · · 103
(3) 대동강류역 고대문명의 창조자 · · · · · · · · · 118
2) 대동강류역 고대문화의 형성발전 · · · · · · · · · · 130
(1) 고대문화의 형성과 고조선 전기문화
(비파형단검문화) · · · · · · · · · · · · · · · · 131
고대문화의 연원 · · · · · · · · · · · · · · · · · · 131
고조선 전기문화(비파형단검문화)의 유적과 유물
(B.C. 3000년기초～B.C. 2000년기 말엽) · · 136

(2) 고대문화의 발전과 고조선 후기문화
(좁은놋단검문화) · · · · · · · · · · · · · · · · · 164
고조선 후기문화(좁은놋단검문화)의 유적유물
(B.C. 2000년기말～B.C. 1000년기말) · · · 164
고조선 후기문화(좁은놋단검문화)의 연원 · · · 175

3. 대동강문화가 차지하는 인류문화사적지위 · · · · 179
1) 대동강류역은 조선의 고대문화의 발원지, 중심지 · · 179
2) 대동강문화는 세계 5대문명의 하나 · · · · · · · · · 201
(1) 대동강류역은 세계최초의 고대국가의
발상지의 하나 · · · · · · · · · · · · · · · · · 202
(2) 대동강류역은 고대인류문화중심지의 하나 · · · 207

그 림

그림 1. 검은모루유적의 석기 · · · · · · · · · · · · · · 221
그림 2. 만달리유적의 석기 · · · · · · · · · · · · · · 221
그림 3. 지탑리유적 1호집자리 · · · · · · · · · · · · 222
그림 4. 신석기시대 전기의 질그릇 · · · · · · · · · · 222
그림 5. 신석기시대 전기의 갈돌과 뿔괭이 · · · · · · · · 223
그림 6. 신석기시대 중기의 농업도구 · · · · · · · · · 223
그림 7. 신석기시대 후기의 질그릇 · · · · · · · · · · 224
그림 8. 침촌형고인돌무덤 · · · · · · · · · · · · · · 224
그림 9. 집자리들의 덧놓인 상태 · · · · · · · · · · · 225

그림 10. 황대성 · 225
그림 11. 황대성의 성벽단면과 성벽우의 고인돌무덤 · · 226
그림 12. 화성동 2 호제단 · · · · · · · · · · · · · · · 226
그림 13. B.C. 3000 년기초의 집자리짜임새 · · · · · · · 227
그림 14. 3 형식의 침촌형고인돌무덤 · · · · · · · · · · · 227
그림 15. 1 형식의 오덕형 및 묵방형고인돌무덤 · · · · · 227
그림 16. B.C. 3000 년기초 돌관무덤 · · · · · · · · · · 228
그림 17. 청동기(비파형단검, 비파형창끝,
청동단추, 청동끌) · · · · · · · · · · · · · · 228
그림 18. 팽이그릇 · · · · · · · · · · · · · · · · · · 228
그림 19. 1 류형의 조롱박형단지 · · · · · · · · · · · · 229
그림 20. 화성동 1 호제단 · · · · · · · · · · · · · · · 229
그림 21. 오덕지구제단 · · · · · · · · · · · · · · · · 230
그림 22. 2 형식의 묵방형고인돌무덤 · · · · · · · · · · · 230
그림 23. 고인돌무덤의 별자리 · · · · · · · · · · · · 231
그림 24. 비파형단검과 비파형창끝 · · · · · · · · · · · 231
그림 25. 3 형식의 오덕형고인돌무덤 · · · · · · · · · · · 232
그림 26. 남양형단지와 팽이그릇 · · · · · · · · · · · 233
그림 27. 오산리고인돌무덤의 유물 · · · · · · · · · · 233
그림 28. 백원로동자구 9 호고인돌무덤의 유물 · · · · · 234
그림 29. 정봉리돌곽무덤 · · · · · · · · · · · · · · · 235
그림 30. 명사리독무덤 · · · · · · · · · · · · · · · · 236
그림 31. 마구류 · 237
그림 32. 수레부속 · · · · · · · · · · · · · · · · · · 238

사 진

사진 1. 검은모루유적의 원경 · · · · · · · · · · · · · · · 239
사진 2. 대현동유적의 《력포사람》머리뼈화석 · · · · · 239
사진 3. 만달리유적의 《만달사람》머리뼈화석 · · · · · 240
사진 4. 지탑리유적 1 호집자리전경 · · · · · · · · · · · 240
사진 5. 신석기시대 전기의 질그릇 · · · · · · · · · · · 241
사진 6. 표대유적 신석기시대 질그릇가마터 · · · · · · 242
사진 7. 신석기시대 중기의 농업도구 · · · · · · · · · · 242
사진 8. 룡산리순장무덤 · · · · · · · · · · · · · · · · 243
사진 9. 황대성전경과 성터 · · · · · · · · · · · · · · · 243
사진 10. 침촌형고인돌무덤 · · · · · · · · · · · · · · · 244
사진 11. 장리 1 호고인돌무덤의 청동 2 인교예장식품과
청동방울 · · · · · · · · · · · · · · · · · · · 244
사진 12. 화성동 1 호제단복원도 · · · · · · · · · · · · · 245
사진 13. 남양리유적의 비파형창끝과 청동단추 · · · · · 245
사진 14. 반천리움무덤에서 나온 잔줄무늬거울 · · · · · 246

머 리 말

조선민족의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에서 형성된 고조선의 문화로부터 시작되였으며 거기에 뿌리를 두고있다.

고조선의 문화는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에서 기원하여 련면히 살아온 조선민족의 선조들이 장구한 세월 원시사회단계를 거치면서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창조한 인류의 고대선진문명의 하나이다.

인류력사에서 문명의 력사는 5 000년이며 사람들은 예로부터 조선을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력사국으로 불리왔다.

그러나 지난 세월 반만년의 유구한 조선민족사는 과학적으로 연구정립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력대 반동사가들에 의하여 조선의 력사와 문화가 심히 외곡말살되여온것과 관련된다. 또한 조선을 강점한 일제침략자들이 조선인민의 민족자주의식을 말살하고 저들의 침략과 식민지예속화정책을 합리화할 불순한 정치적목적으로부터 조선민족의 선천적인 《락후성》과 《후진성》에 대하여 떠들면서 조선의 력사와 문화를 란폭하게 외곡말살하였기때문이다.

조선이 해방(1945년 8월 15일)된 후 력사학자들은 력대 반동사가들과 일제어용사가들의 력사외곡행위로 하여 이지러지고 모독된 민족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연구를 거듭하여왔다. 그러나 3 000년의 력사로 체계화하는데 머물러있었으며 그나마도

《랴오둥중심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조선의 력사학자들은 주체의 력사관을 지니고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력사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특히 가장 혹심하게 외곡날조된 단군과 고조선의 력사를 바로잡는데 큰 힘을 넣었다. 드디여 1993년에 단군릉과 단군유골이 발굴됨으로써 수수천년 력사의 풍운속에 빛을 잃고 흑막속에 가리워져있던 단군이 5 000년전에 실재한 력사적인물로서 고조선의 건국위업을 이룩한 조선민족의 원시조라는것이 밝혀지게 되였다. 또한 련이어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에서 단군조선의 국가적성격을 뚜렷이 확증할수 있는 성과과 노예순장무덤, 왕릉급의 무덤과 제단을 비롯한 가치있는 력사유적과 유물들이 수많이 발굴되게 되였다.

이것은 사실상 조선민족사연구에서 획기적인 전진으로 되였으며 특기할 력사적사변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반만년의 민족사연구에서 공백으로 남아있었으며 옛 기록자료만 가지고서는 해명할수 없었던 단군과 고조선의 력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새롭게 정립체계화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 학회에서는 대동강류역에서 창조된 고대선진문명을 《대동강문화》로 명명하였다.

도서 《대동강문화》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에서 기원하여 문명을 빛내인 고대문화를 《대동강문화》라는 학명으로 명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발생발전하여왔는가 하는것을 고고학적자료에 기초하여 밝히며 《대동강문화》가 인류의 고대선진문명의 하나라는것을 론증하고있다.

고대문화가 이루어지자면 그에 선행한 원시문화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발전된 원시문화가 고대문명의 기초이고 사회력사적전제로 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대동강류역의 문명을 담고있는 고대문화를 론하기에 앞서 그 전제로 되는 대동강류역의 원시문화에 대해서도 얼마간 론하게 된다.

1. 대동강문화의 력사적전제

대동강류역에서는 인류력사의 서막이 열린 첫 시기부터 사람들이 련면히 살아오면서 문화의 씨앗을 뿌리고 꽃피워왔다. 이처럼 일찌기 문화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것은 이 지역의 자연환경과도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따라서 먼저 대동강류역의 자연환경에 대하여 살펴보게 된다.

1) 대동강류역의 자연환경

대동강은 랑림산줄기의 주봉인 랑림산의 남쪽기슭에 시원을 두고 흐르기 시작하여 평양시 중부를 지나 조선서해로 흘러드는 조선의 5대강의 하나이다. 그 길이는 450.3㎞이고 류역의 넓이는 20 247㎢에 달한다. 대동강으로는 비류강(155.2㎞)과 남강(200.5㎞)을 비롯하여 길이가 5㎞이상인 강과 하천이 무려 400여개나 흘러든다. 따라서 하천망밀도가 0.4∼0.5㎞/㎢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대동강류역의 땅생김은 그 대부분이 높지 않은 언덕벌로 되여있다. 대동강상류일대에는 부분적으로 해발 2 000m안팎의 높은 산들이 솟아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해발 500∼1 000m 높이의 산지로 되여있으며 중류류역은 해발 500m아래의 낮은 산지와 언덕벌로, 하류류역은 해발 200m 아래의 언덕과 충적벌들로 되여있다. 그리하여 대동강류역의 중하류류역에서는 평양준평원을 비롯

하여 물결모양의 언덕벌들과 무연하게 펼쳐진 비옥한 충적벌들을 찾아볼수 있다.

대동강류역의 한해 평균기온은 8～10℃이며 강수량은 1 050～1 100㎜에 달한다.

대동강상류일대에는 소나무, 전나무 등의 바늘잎나무와 신갈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넓은잎나무가 섞인 숲이 펼쳐져있으며 중류와 하류일대의 산들에는 소나무, 잣나무, 분지나무, 이깔나무와 같은 나무들과 여러가지 풀식물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면서 자라고있다. 여기에서는 다종다양한 산짐승들과 새들이 살고있으며 강들에는 물고기자원이 풍부하여 조선의 강들가운데서 리용률이 가장 높은 강의 하나로 되고있다.

대동강류역의 암석구성은 주로 고생대와 신생대의 석회암이 높은 비률을 차지하고있으며 따라서 여기에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자연동굴이 많이 형성되여있다.

한마디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은 땅이 비옥하고 기후가 온화할뿐아니라 물산이 풍부하고 수륙교통이 편리하여 인간생활에 더없이 좋은 적지라고 말할수 있다.

대동강류역이 인류의 발상지, 고대문명의 발원지의 하나로 될수 있은 배경에는 바로 대동강류역이 가지고있는 이처럼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도 놓여있다고 볼수 있다.

자연은 인간의 로동대상이고 인간생활과 사회발전의 물질적원천인것만큼 자연환경은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 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자연환경이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들의 창조적능력이 미약하였던 오랜 옛날로 올라갈수록 더더욱 컸다. 인류력사려명기의 사람들의 생활은 자연의 힘에 많이 구속되여있었다. 말하자면 그들의 생활에서는 자연환경이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여있었다.

인류력사려명기에 자연환경이 사람들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은 주로 두가지 생활조건과 관련된다. 그 하나는 자연이 가져다 주는 그대로의것을 거두어들이는 획득경리단계의 사람들이였기때문에 자연적인 식료원천의 보장조건, 다시말하여 동식물상이 어떠하였는가 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변변한 옷이 없이 유기체의 체온조절기능이 자연상태 그대로 방임되여있던 시기였기때문에 따뜻한 기후의 보장조건이 어떠하였는가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 두가지 보장조건과 관련한 측면에서 대동강류역의 제4기 갱신세자연환경을 복원하여보려고 한다.

잘 알려져있는바와 같이 제3기와 제4기로 구분되는 지구력사발전의 맨 마지막단계에 해당하는 신생대에 들어와서도 자연환경은 크게 변화되였다. 그가운데서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기후의 변화이다.

신생대의 가장 이른 시기인 제3기초에 지구상의 기후는 오늘날에 비할바없이 매우 따뜻하였다. 이 시기에는 더운 곳을 즐기는 많은 식물들이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으며 젖짐승류와 조개류가 번성하였다.

그러나 제3기말에 들어서면서 기후는 점차 차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동식물의 종적구성에서나 분포령역에서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던 호온성동식물들은 점차 찬지역에서 잘 성장하는 호한성동식물들에 자리를 내여주게 되였다.

또한 오래동안 생존해오던 많은 동식물의 종들이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사멸되였으며 동시에 현재 지구상에 생존하는 거의 모든 동식물의 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원시적인 젖짐승류들이 점차 흔적을 감추고 지금의것과 류사한 젖짐승류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환경속에서 지질학적으로 제4기라고 부르는 새로운 지질시대가 시작되였으며 이 시기에 인류가 출현하였다. 따라서 지질학적 제4기를 일명 인류기라고도 한다.

제4기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빙하현상이다. 제4기 갱신세에는 북극지대에 중심을 둔 빙하가 남쪽으로 밀려내려와서 대륙의 많은 지역이 빙하로 덮였던 때가 여러번 있었다. 이 빙하의 영향으로 하여 지구상의 온도는 제3기에 비하여 약 10℃정도나 낮아졌다. 그리하여 동식물의 구성과 분포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제 4 기에 들어서면서 일어난 빙하는 지형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기후가 차져 빙하가 발달하기 시작하면 방대한 량의 물이 얼음으로 바뀌여 대륙을 덮게 됨으로써 바다물면의 높이가 낮아지게 된다. 자료에 의하면 2 빙하기때에 빙하의 영향으로 조선반도의 세 면을 둘러싼 바다물은 대략 100m정도나 낮아졌다고 한다.*

* 《금강산과 언진산의 빙하》(조문) 과학기술출판사, 1999 년, 120 페지

이렇게 되면 조선과 주변나라들은 륙지나 내해의 상태로 서로 련결되게 된다.

제4기의 기후는 계속 추워지기만 한것은 아니였다. 일정한 주기를 두고 기후는 다시 더워져 세계대륙의 많은 면적을 덮고있던 빙하는 사라지기도 하였다. 다시말하여 기후가 찬 빙하기는 기후가 비교적 온난한 간빙기와 교체되군 하였다. 이 간빙기에는 바다물면의 높이가 다시 높아지면서 지형이 원래대로 되돌아오고 남쪽으로 이동하였던 동식물들은 멀리 북쪽에까지 옮겨와 자리를 잡게 되였다.

그러나 제 4 기에 들어서면서 발생한 빙하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그 발달정도가 달랐으며 따라서 빙하기에도 빙하에 덮이지

않은 지역이 적지 않았다. 조선에서는 제 4 기 갱신세중부초, 다시말하여 2 빙하기인 민델빙하기까지는 빙하에 덮인 일이 없었으며 3 빙하기인 리쓰빙하기부터 국부적인 산악빙하가 있었던것으로 인정되고있다.

제 4 기 대동강류역의 자연환경은 이 시기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들에서 일어난 기후변화와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부단히 변화되였다. 그것은 이 지역의 각이한 시기에 속하는 구석기시대유적들에서 얻어낸 식물상과 동물상분석자료에 의해 알수 있다.

대동강류역에서 알려진 검은모루유적은 제4기 갱신세하부에 해당하는 100 만년 이전의 구석기시대 전기유적이다. 이 유적에서는 적지 않은 량의 포자화분화석과 집승뼈화석이 발견되였다. 그것들은 당시 대동강류역의 자연환경이 오늘날과는 퍽 달랐다는것을 보여준다.

검은모루동굴유적의 거의 모든 퇴적층에서 감정된 포자와 화분화석가운데서 량적으로 가장 많은 비률을 차지하는것은 례외없이 바늘잎나무의 화분이며 그 다음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넓은잎나무의 화분이다. 그리고 검은모루유적의 동굴퇴적층이 이루어지던 초기에는 바늘잎나무류의 화분이 총 포자화분구성의 약 70％를 차지하고있었으나 점차 그 비률이 줄어들어 나중에는 절반도 못되였다. 반면에 넓은잎나무류의 화분은 점차 증가하였다. 이것은 검은모루유적의 동굴퇴적층이 형성되던 초기에 이 일대에서는 바늘잎나무－넓은잎나무의 혼성림이 무성하게 자라고있었으며 그것이 점차 넓은잎나무－바늘잎나무의 혼성림으로 전환되여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검은모루유적의 동굴퇴적층에서는 40여개의 과와 속에 해당하는 나무류의 화분화석이 감정되였으며 울창한 수림속의 나무밑에서와 숲의 변두리 그리고 강가나 진펄지대에서 잘 자라는 여러가지 류형의 포자식물들과 풀류들의 포자와 화분화석도 적지 않

게 나왔다. 이것은 당시 식물상의 종적구성이 단조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말하여 검은모루유적의 형성시기에 그 주변일대에는 바늘잎나무와 넓은잎나무로 이루어진 혼성림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었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그 숲밑에서는 여러 종류의 이끼류, 고사리류, 풀식물류들이 자랐으며 상원강과 그를 따라 펼쳐져있는 벌과 진펄지대들에는 능쟁이과, 콩과, 벼과, 국화과, 사초과 등의 다양한 풀식물들이 자라고있었다.

검은모루유적에서는 당시에 이루어져있던 이러한 식물상과 잘 어울리는 많은 짐승뼈화석이 발굴되였다. 그가운데는 메돼지, 이리, 큰 곰과 같이 나무가 무성한 지대에 사는 짐승들, 큰꽃사슴, 넙적큰뿔사슴, 상원큰뿔사슴과 같이 산간공지 혹은 구릉지대에 사는 짐승들의 뼈가 많이 포함되여있다. 이 유적에서 알려진 동물화석의 마리수를 보면 설치목과 같은 작은 포유류를 제외한 대형포유류가운데서 많은 수를 차지하는것은 초식동물들인 우제목과 기제목의 종류들이다. 이것은 당시의 상원일대에 오늘날에는 볼수 없는 여러가지 짐승들이 살고있었을뿐아니라 그것들의 먹이로 되여있던 갖가지 식물들이 또한 우거져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검은모루유적에서는 당시 대동강류역의 기후가 오늘날과는 퍽 달랐다는것을 알수 있게 하는 고생물학적자료들도 알려졌다.

이 유적동굴퇴적층의 포자와 화분화석가운데는 열대와 아열대의 기후적조건에 적응된 식물들인 안기오프테리스속, 실고사리속, 풀고사리속, 소철속, 나도삼나무속, 라한송속, 솔송나무속, 수삼나무과, 미르타과, 감탕나무속 등과 아열대성에 가까운 난온대성기후조건에서 잘 자라는 고사리삼속, 봉의꼬리속, 은행나무속, 날개호두속, 나도호두속, 밤나무속, 붉나무속 등의 포자와 화분화석이 포함되여있다. 이것은 검은모루유적의 동굴퇴적층이 형성

될 시기에 대동강류역일대에는 이러한 식물들이 성장하는데 유리한 자연기후조건 즉 지금의 아열대에 가까운 난온대의 기후조건이 이루어져있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유적의 짐승뼈화석가운데는 물소와 원숭이, 큰쌍코뿔소, 코끼리 등과 같이 더운 기후조건에서 사는 전형적인 호온성동물들의 뼈화석도 있다. 그러나 검은모루유적동굴퇴적층의 형성초기에 이 지역에서는 조선의 북부와 중부의 고산지대에서 잘 자라는 호한성식물종들인 전나무와 가문비나무류가 살았다는 자료가 알려져 그 이전시기에 비하여 추워졌음을 추측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제4기 갱신세하부의 대동강류역이 식료원천의 보장조건으로 보나 기후적조건으로 보아 사람이 살기에 더없이 좋은 적지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대동강류역에서는 구석기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력포구역 대현동유적과 덕천시 승리산유적(아래층)이 알려졌다. 이 유적들에서는 제4기 갱신세중부로부터 상부초까지 대동강류역의 자연환경을 복원할수 있는 고생물학적자료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대현동유적의 포자화분분석자료에 의하면 동굴퇴적층이 형성되던 시기에 주변의 야산과 언덕들에는 바늘잎나무－넓은잎나무의 혼성림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었고 수림의 밑바닥과 산계곡, 산간공지 같은데서는 여러가지 포자식물들과 풀식물들이 땅을 덮으며 자라고있었으며 그리고 무진천기슭과 그앞에 펼쳐진 진펄과 벌판들에는 벼과, 국화과, 쑥속 등의 다양한 풀식물들과 여러가지 고사리류로 이루어진 초원이 펼쳐져있었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짐승뼈화석도 식물상과 잘 조화된다. 즉 이 유적의 짐승뼈화석에는 큰쌍코뿔소와 물소, 해리 등과 같이 물이 흐르는 계곡과 진펄이 있는 곳, 말과 같이 개활지대 또는 반개활지대에 사는 전형적인 초원성동물의 화석들이 많다. 그리고 동굴사자, 동굴히에나, 너구리, 삵, 여우, 곰, 메돼지와 사슴과, 소

과의 짐승들과 같이 울창한 밀림이나 구릉성산지들에서 무리지어 사는 짐승들의 화석도 적지 않다.

한편 이 유적에서는 기후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는 전나무, 가문비나무와 같은 전형적인 호한성식물들의 화분은 감정되지 않았으며 반면에 더운 기후에 적응된 식물의 포자와 화분은 적지 않게 나왔다. 여기에서 나온 실고사리속, 풀고사리속, 유삼나무속, 목련속, 미르타과 등의 포자와 화분은 모두 열대와 아열대의 기후에 잘 적응된 식물종들의것이며 나도호두속, 밤나무속, 초피나무속, 팽나무속 등의 화분은 난대성기후에 적응한 나무류들의 화분이다. 이것은 당시의 기후가 매우 온화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현동유적의 식물상에 호온성식물종들의 포자와 화분화석이 검은모루유적에 비하여 종적구성에서나 함량비에서 비교적 적게 들어있고 동물상구성에 열대, 아열대지역에서 퍼져살던 큰쌍코뿔소와 물소, 말과 같은 종들도 들어있지만 해리, 대현땅쥐, 털코뿔이, 동굴사자, 들소 등과 같이 비교적 추운 기후조건에서 사는 종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여있기때문에 대동강류역의 당시 기후가 갱신세하부에 비하여 좀 서늘해졌다는것을 알수 있다.

대동강류역의 자연환경은 갱신세상부를 전후하여 형성된 승리산유적 아래층시기에 이르러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유적 아래층의 포자화분구성에는 나무류의 화분이 79.3%, 풀식물의 화분이 10.1%, 포자식물의 포자는 10.6% 들어있다. 이것은 당시의 식물상이 산림위주의 식물상으로 이루어져있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림구성에서 넓은잎나무류는 전체 나무류구성의 69.8%, 바늘잎나무류는 30.2%의 비률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 아래층의 포자－화분구성가운데서 소나무속의 화분은 17.6%, 참나무속의 화분은 25.8%, 자작나무속의 화분은 12.6%를 차지한다. 이 세 종류의 나무류화분함량을 전체 나무류화분구성함량으

로 환산하면 무려 71%나 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당시 이 일대에 넓은잎나무—바늘잎나무혼성림이 펼쳐져있었으며 그 종적구성이 참나무, 소나무, 자작나무류를 기본으로 하고 여러가지 수종의 넓은잎나무들이 섞여 자라는 혼성림이 이루어져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또한 이 유적 아래층의 포자, 화분구성에는 봉의꼬리속, 부처손속, 고란초과의 포자와 함께 쑥속, 국화과, 벼과의 화분도 적지 않게 포함되여있어 주변일대의 무성한 수림과 산계곡 그리고 대동강을 따라 펼쳐져있는 진펄과 벌들에 초원이 형성되여있었다는것을 가늠할수 있게 한다.

뿐만아니라 이 유적의 아래층에서는 제4기 갱신세중부말～갱신세상부초 즉 리쓰—위름간빙기의 시대적특성을 반영하는 짐승뼈화석도 많이 나왔다.*

* 《덕천승리산유적발굴보고》(조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년, 85페지

여기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것은 산림성동물들인 사슴과짐승, 식육류, 해리, 메돼지 등의 화석이며 개활성 또는 반개활성지대에 사는 짐승들의 화석도 일정한 비률을 차지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유적의 아래층퇴적층이 형성될 시기에 이 일대에는 넓은잎나무—바늘잎나무의 혼성림이 무성한 수림을 이루고있었고 대동강의 흐름을 따라 널려져있는 진펄과 벌들에 초원식물경관이 펼쳐져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승리산유적 아래층의 식물상이 반영하는 기후환경은 제4기 갱신세하부나 중부의 이른 시기에 비하여 크게 변화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 시기의 식물상가운데는 열대나 아열대지역에 분포되여있으면서도 고기형임을 지시하는 식물종류의 화분은 들어있지

않다. 다만 난대성기후에 적응된 날개호두속, 나도호두속, 서어나무속 등의 화분이 얼마간 들어있을뿐이다. 이것은 당시의 기후조건이 현재의 조선의 온대남부의 기후조건과 류사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또한 제4기 갱신세에 들어서면서 해당지역의 동식물상에 큰 영향을 주던 열대, 아열대성기후는 승리산유적 아래층이 형성되던 시기에 이르러 더는 해당 지역의 동식물상형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다시말하여 이 시기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은 온대의 환경조건에 놓이게 되였다는것이다.

대동강류역에서 알려진 승리산유적 가운데층과 만달리유적(가운데층)에서는 제4기 갱신세말기에 있은 마지막빙하기인 위름빙하기를 전후한 시기의 자연환경을 복원할수 있는 많은 고생물자료들이 드러났다.

위름빙하기는 제 4 기 갱신세에 있은 여러 빙하기들가운데서 추위가 가장 엄혹하였던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따라서 이 시기에 조선의 자연환경에서는 큰 변화가 생겼다.

이 마지막빙하기의 개시와 함께 내려가기 시작한 바다물면의 높이는 최성기에 이르러 100여m정도 낮아졌다. 그리하여 조선의 세 면을 둘러싸고있는 바다 특히 조선서해의 대부분은 륙지로 변하게 되였으며 따라서 여기에는 그에 따르는 새로운 환경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그것은 서해분지의 수심 56m깊이에서 나온 수많은 포자화분화석들과 서해바다밑의 여러곳에서 알려진 털코끼리의 화석과 같은 짐승뼈화석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 《과학기술통보》(조문) 1988년 6호
《황해 10만년》(중문) 베이징출판사, 1982년

바다물면의 높이는 마지막빙하의 최성기가 지나가고 빙하로 하여 추워졌던 기후가 서서히 풀리면서 다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빙하기 말엽에 와서 바다물면의 높이는 현재의 바다물면 높이보다도 20여m정도 낮아졌으며 따라서 조선의 자연환경은 현재와 류사한 환경에 놓이게 되였다.

구석기시대 후기에 있은 마지막빙하기의 엄혹한 추위는 대동강류역의 자연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당시에 조선의 북부고산지대뿐아니라 금강산과 언진산을 비롯한 중위도지방 그것도 650～750m의 비교적 낮은 지역에까지 산악빙하가 형성되여있었다는 사실이 잘 말해준다.*

＊《금강산과 언진산의 빙하》(조문) 과학기술출판사, 1999년, 7페지

이 시기의 빙하가 대동강류역의 자연환경에 미친 영향은 승리산유적 가운데층의 포자화분분석자료에 의하여 가늠할수 있다.

이 유적 가운데층의 포자화분구성에는 나무류가 24.8%, 풀류가 67.2%, 포자식물류가 8.0% 포함되여있다.

나무류가운데는 바늘잎나무류가 48.8%이고 넓은잎나무류가 51.2%이다. 나무류의 함량비에서 우세를 차지하는것은 소나무(8.1%), 버드나무(2.3%), 사시나무(2.9%), 참나무(2.9%), 자작나무(1.7%)이며 풀류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국화(27.0%), 꾀두서니(15.5%), 쑥(12.1%), 콩(2.3%), 꿀풀(2.3%), 나리(2.3%)류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우선 만달리유적 가운데층이 형성될 시기에 이 일대에는 초원-산림형의 식물경관이 이루어져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즉 사시나무, 버드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매자나무 등

으로 이루어진 넓은잎나무류가 소나무, 이깔나무, 측백나무류의 바늘잎나무종들과 함께 혼성림을 이루고 만달산과 그 골짜기에 분포되여있었고 동굴앞에 펼쳐져있는 벌과 언덕들에는 국화과, 꼭두서니과, 쑥속의 식물종들을 기본으로 하여 콩과, 꿀풀과, 나리과 등의 다양한 풀식물종들로 이루어진 초원이 형성되여있었다.

그것은 또한 기후가 점차 온화하여지고 대기습도가 올라감에 따라 식물상이 다양화, 풍부화된 사실을 반영한다. 그것은 유적의 식물상에 난대성기후에 적응된 나무종들인 굴피나무속, 나도호두속, 서어나무속 등의 나무종들이 포함되여있고 종적구성이 비교적 풍부한 넓은잎나무류가 섞여있으며 초원식물상이 다종다양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당시의 기후가 온대성기후였다는것은 같은 층에서 알려진 동물상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이 유적 가운데층에서 알려진 동물상은 현재 조선의 서부저평지대의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것으로 특징지어지는데 그가운데는 추운 기후에 적응된 짐승은 단 한종도 없고 사슴, 노루, 복작노루를 비롯한 우제류가 가장 많으며 동굴사자, 범, 너구리, 삵, 곰과 같은 맹수들과 사슴, 노루, 토끼를 비롯한 풀먹이짐승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동물상은 온대성짐승들이 주류를 이루고 아열대성짐승들이 드문 온대성동물상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당시의 동식물상과 기후는 현재와 거의 같았다고 말할수 있다.

이와 같이 제4기 갱신세의 전기간 대동강류역의 자연환경은 식료원천의 보장조건으로 보나 기후조건으로 보아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 유리한 자연환경이였다.

2) 대동강류역은 인류의 발상지, 인류문화의 발원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은 인류력사의 첫 시기부터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문화를 창조하여온 유구한 력사의 성지이다.

대동강류역이 인류의 발상지, 인류문화의 발원지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인류력사의 려명기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하는 유적이 평양중심부가까이에 위치하는 대동강류역에서 발견되였다는데 있다.

1966년에 평양시 상원군 흑우리(당시)에서 발견된 검은모루유적은 조선에서 태여난 사람들의 첫 생활의 발자취가 깃들어있는 가장 오랜 유적이다.(사진 1)

이 유적은 지금으로부터 100만년이전에 해당하는 구석기시대 전기의 이른 시기 유적이다.

검은모루유적은 인류력사의 려명기에 속하는 구석기시대 전기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의 하나이다.

이 유적이 동물계에서 갓 분리된 최초의 사람들이 남긴것이라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유적에서 나온 석기들이 인류가 처음으로 만들어쓴 가장 원시적인 류형에 속하는 조잡하고 투박한 타제석기들이라는데 있다.

유적에서는 주먹도끼형석기, 제형석기, 뾰족끝석기, 쪼각석기 등이 발견되였다. 석기의 종류와 수량이 많지 않지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원시적인 특성을 찾아볼수 있다.(그림 1)

그것은 우선 석기들을 만든 재료에서 나타난다. 석기들의 재질은 모두 청회색이 도는 규질석회암이다. 이처럼 석기들의 재질이 제한되여있을뿐아니라 규질석회암은 전형적인 등방성구조를

가진 암석이라기보다는 이방성구조에 치우치는 특성이 있는 암석이다. 그런것만큼 그것은 깨질 때 조가비모양에 가까운 경향이 있는 평탄한 단구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규질석회암은 전형적인 등방성구조를 가진 암석보다 석기제작에 쓸모가 훨씬 적다고 말할수 있다.

검은모루유적을 남긴 사람들이 전형적인 등방성구조의 암석을 석재로 선택하지 못한것은 그들이 인류최초의 사람이였다는 시대적제한성과 관련된 사유의식의 형성정도를 반영하는것이라고 인정된다.

이 유적에서 나온 돌들가운데는 마치와 같은 용도로 쓴 흔적이 뚜렷한것들도 적지 않은데 그 대다수는 석영질의 강자갈이다. 석영은 대체로 등방성구조를 가진 암석이지만 이 유적을 남긴 사람들은 그것을 석재로 쓰지 않고 석기를 가공하기 위한 공구대용으로 사용하였을뿐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 사람들이 석기의 형태를 조성하는것보다 예리한 날을 얻는데 더 큰 관심을 돌렸던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다음으로 석기들이 일정한 규칙성이 없는 무정형적인 석기제작단계를 갓 벗어날 정도로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석기들이라는데서 나타난다.

구석기시대 전기의 석기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그 어디를 막론하고 일정하게 정형화된 형태를 띠고있는데 그것은 주먹도끼나 찍개와 같은 석기들에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구석기시대 전기의 주먹도끼와 찍개는 그 어디서 발견된것이든지 모두 일정하게 규격화된 석기들이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심리적특징이 이 석기들의 형태선정에 반영되였기때문이다.

인간활동의 특성이 최초의 로동도구인 석기에 가장 잘 반영되고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측면은 의식적인 성격과 관련된것이다.

석기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용도에 의하여 규정되고 도형에 대한 표상에 기초하여 선택되는데 당시에는 도구의 용도와 관련하여서도 그렇고 도형에 대한 표상에 기초하여보더라도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것은 주먹도끼나 찍개와 같은것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그런데 검은모루유적의 석기들은 그러한 형태를 띠고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것만큼 이 유적의 석기들은 정형화되기 시작한 도구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수 있다.

실례로 주먹도끼형석기는 길죽한 돌덩어리를 쪼개서 만든것인데 이 석기의 제작자들은 구석기시대 전기의 가장 특징적인 주먹도끼에 류사한 형태로 만드는데 관심을 돌렸다. 그런것만큼 그 형태에 주먹도끼를 련상시키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아직 주먹도끼처럼 길죽한 복숭아모양의 형태를 조성하고 량면을 의도적으로 손질하여 날을 세우지 못하였다.

주먹도끼와의 류사성은 그 형태와 함께 날과 손잡이부분이 구분되여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날과 같은 작용면이 있어야 로동대상에 필요한 작용을 가할수 있고 손잡이와 같은 작업부가 있어야 사람의 의도를 로동대상에 전달할수 있다. 그것은 로동도구가 자연대상물을 개조변혁하는데 리용되는 수단이라는것과 관련된다.

주먹도끼형석기에서 뾰족한 끌쪽은 날로 리용되였고 그 반대쪽의 넓고 넙적한 부분은 손으로 잡게 되여있는 손잡이부분이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주먹도끼형석기는 주먹도끼와 같은 류형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그 첫 단계의 석기였다고 말할수 있다.

제형석기의 실례도 마찬가지이다. 이 석기는 한쪽면만 가공하여 짝날을 이루게 하고 그 모서리의 날로 무엇을 찍거나 자르

는데 쓰던 석기이다. 따라서 그것은 외날찍개와 류사한 형태를 가진다. 그런데 그 형태는 아직 채 고정화되지 못하여 외날찍개라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제형석기는 구석기시대 전기의 특징적인 석기의 하나인 찍개의 시초형으로 보게 된다.

이밖에 뾰족끌석기도 구석기시대 전기의 특징적인 석기의 하나인 자르개와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있다.

이처럼 검은모루유적의 석기들은 구석기시대 전기의 특징적인 석기들과 류사한것이면서도 그 시초적인 형태를 띤것들이다.

그것은 또한 가장 원시적인 석기제작수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석기들이라는데서 나타난다.

인류가 처음으로 탐구하여 석기제작에 도입한 수법은 검은모루유적의 석기들에서 찾아볼수 있는것과 같은 때려깨기와 내리쳐깨기수법이였다. 제형석기를 만드는데 적용된 때려깨기는 쪼개려는 돌덩이를 돌망치로 때려내는 기법이고 주먹도끼형석기를 만드는데 적용된 내리쳐깨기는 모루처럼 땅바닥우에 놓인 돌에 깨여쓰려는 돌덩이를 들어서 내리쳐깨는 기법이다.

이러한 석기제작법이 가장 원시적인 석기제작기법이였다고 하는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그 하나는 덧손질을 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석기의 형태조성을 위한 덧손질은 말할것 없고 날의 쓸모를 조성하기 위한 덧손질도 하지 않은데서 그 석기가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가장 원시적인 기법을 적용하여 제작하였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주먹도끼형석기 하나만 보아도 원래의 돌덩이의 생김새를 유용하게 쓸 생각으로 모가 난 돌덩이의 모를 그대로 살리면서 석재를 내리쳐서 깨였던것이다. 그러므로 깨뜨려낸 면은 납작하고 또 매끈하지만 반대쪽에는 릉이 생기고 그 량쪽에는 자연히 날이 서게 되였다. 그런데 그 날의 쓸모를 더 유용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덧손질을 하는것이 구석기시대 전기의 경우에도 자주 볼수

있는 현상이지만 이 석기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엿보이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속돌이나 격지로 석기를 만든것이 아니라 쪼각으로 만들었다는데 있다.*

* 쪼각과 격지는 서로 다르다. 길이가 너비의 2배이상인 쪼각을 따로 격지라고 한다.

구석기시대 전기에는 속돌로 석기를 만드는것이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이다. 바로 주먹도끼가 속돌로 만들어진 석기이다. 먼저 돌덩이에서 쪼각이나 격지를 떼내여 속돌을 얻은 다음 그 속돌에 덧손질을 가하여 일정한 형태를 조성하고 뾰족한 끝부분에는 날을 세우고 그 반대쪽의 둥근 부분은 손잡이로 만들었다. 속돌석기를 만드는 경우에 돌덩이에서 떼여낸 격지나 쪼각은 석기제작과정에 나오는 하나의 부산물로 된다. 그리고 구석기시대 전기에 속돌석기가 특징적이였지만 얇은 석기(박편석기)가 전혀 없는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격지로 만든 석기가 쪼각으로 만든 석기보다 더 우세하다.

그런데 검은모루유적의 석기들은 모두 쪼각으로 만든 얇은 석기류형에 속한다고 말할수 있다.

석기들에서 볼수 있는 이러한 원시성은 이 유적이 구석기시대 전기의 유적들가운데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하는것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검은모루유적이 구석기시대 전기의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이라는것은 또한 유적의 동물상에 의해 설명된다. 이 유적에서는 동물분류학적으로 7목 17과 20속에 해당하는 27종의 짐승뼈화석이 발굴되였다. 그가운데서 절반이 넘는 18종에 달하는 많은 짐승들은 이미 지구상에서 없어진지 오랜 사멸종에 속한다. 그가운데서도 상원옛말, 상원큰뿔사슴, 상원갈밭쥐 등은 이 유적

에서 처음으로 알려진 종이다. 또한 큰쌍코뿔소, 상원옛말, 넙적큰뿔사슴, 큰점히에나와 같은 대형동물들과 땅쥐나 간단이발쥐와 같은 몇종의 설치류들은 제4기 갱신세하부와 중부의 특징적인 종들이며 상원큰뿔사슴은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산 종으로 인정되고있다. 그리고 상원옛말은 제3기말～제4기초에 산것으로 보아지는 외발통말과 같은 류형의것이고 큰점히에나는 제4기 이른 시기부터 산것으로 인정된다.

이 유적의 동물상에서 특징적인것의 하나는 상신세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있는 제3기의 잔존형과 제4기의 이른 시기의 동물들이 적지 않은 비률을 차지하고있는 점이다.

고동물학자들은 화석동물상으로 보아 이 유적이 제4기 갱신세하부에 속한다고 한다. 화석동물상이 시사해주는 유적의 지질학적년대는 유적에서 발견된 석기들의 시대적배경과 잘 어울린다고 말할수 있다.

이처럼 검은모루유적은 인류력사의 시원이 열리던 아득히 먼 구석기시대 전기의 이른 시기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에서 원인단계의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펴고 살기 시작하였으며 인류문화의 첫 싹이 움텄다는것을 전하여준다.

대동강류역이 인류의 발상지, 인류문화의 발원지로 되는것은 또한 이 지역에서 인류력사려명기의 전기간에 사람들이 련면히 살아왔다는것을 확증해주는 인류화석과 당시 사람들이 남긴 유적유물들이 집중적으로 발견되였다는데 있다.

고인단계의 인류화석으로서는 우선 1977년에 평양시 력포구역 대현동 동굴에서 발견된 《력포사람》의 뼈화석을 들수 있다. 그 뼈화석으로서는 앞머리뼈, 웃머리뼈, 옆머리뼈쪼각이 있는데 7～8살정도인 어린애의 뼈로 인정되고있다.

《력포사람》의 머리뼈에서 나타나는 원시적인 특징은 눈두덩불룩이가 형성되여있고 앞머리뼈의 경사가 상당히 완만하며 이

마가 뒤로 제껴졌고 코마루가 상당히 넓으며 아래턱뼈마디우묵이가 아주 얇고 그 형태가 비교적 둥근편인데서 나타난다. 또한 젖도드리가 상대적으로 작고 머리뼈의 두께가 전반적으로 얇을뿐아니라 웃머리뼈불룩이에서의 두께가 앞숫구멍점부위에서의 두께보다 두텁다든가 중경뇌막동맥홈에서 그 앞머리가지가 옆머리가지보다 굵은것이 아니라 그 굵기가 대체로 비슷한것, 옆머리뼈의 비늘부위가 상대적으로 얼마간 작은것 등에서도 나타난다. 한마디로 말하여 《력포사람》의 머리뼈화석에서는 한때 고인감별의 기초라고 하던 3대 징표가 인정된다. 그러한 징표로서는 우선 머리뼈천정부의 높이가 낮고 궁륭이 약하게 이루어진것이고 다음은 눈확주름이 발달된것이며 또한 이마가 강하게 뒤로 경사진것이다.(사진 2)

이처럼 원인에 가까운 원시적인 특징이 있는가 하면 신인에 가까운 진보적인 특징도 지니고있다. 그 진보적인 특징은 웃머리뼈불룩이가 발달되고 옆머리뼈비늘부가 높고 그 웃변두리가 둥근것이다.

《력포사람》의 머리뼈화석이 이른 시기의 비전형고인들에서 나타나는 인류학적특징을 지니고있는것으로 보나 갱신세중부초에 살던 사멸종의 짐승뼈들과 함께 나온것으로 보아 이른 시기의 고인으로 인정된다.*

* 《조선사람의 기원》(조문) 사회과학출판사, 1989년, 31페지

고인단계의 인류화석으로서는 또한 1972～1973년에 평안남도 덕천시 승리산동굴에서 발견된 《덕천사람》의 뼈화석을 들수 있다. 그 뼈화석으로서는 2개의 이발과 1개의 어깨뼈가 알려졌다. 그 이발 하나는 오른쪽아래 둘째큰어금이이고 다른 하나는 왼쪽웃 둘째큰어금이이며 어깨뼈는 오른쪽어깨뼈이다.

《덕천사람》의 이발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아래둘째큰어금이의 경우에 뒤꿈치부가 세 도드리부보다 얼마간 더 넓은 점이다. 그것은 이발에 남아있는 원시적인 특징의 하나로서 고인단계의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징표이다.

이발에서뿐아니라 어깨뼈에서도 원시적인 특징이 엿보인다. 그것은 뼈마디오묵이의 형태가 연장된 타원형을 련상시키고 그 깊이가 깊으며 겨드랑이가장자리가 쌍변두리형에 속한다는데 있다.

《덕천사람》의 뼈화석은 동굴히에나와 동굴사자를 비롯한 갱신세중부말—갱신세상부초의 짐승뼈화석들과 함께 발견되였다. 따라서 《덕천사람》은 《력포사람》보다 늦은 시기에 속하는 고인으로 인정된다.

이처럼 각이한 진화발전단계에 있는 고인의 뼈화석이 발견되였을뿐아니라 그들의 생활흔적이 깃들어있는 유적유물들도 적지 않게 알려졌다.

그 대표적인 유적의 하나는 평양시 승호구역 화천동 동굴퇴적층(발굴 당시)속에서 드러난 고인단계의 사람들이 불을 피우던 불무지자리이다. 그 평면형태는 둥그스럼한데 직경 50～60㎝정도이고 남은 재층의 두께는 10㎝안팎이다. 재층속에는 타다 남은 짐승뼈들도 남아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불무지자리는 고인들이 남긴 구석기시대 중기의 유적들에서 종종 발견된다.

불무지자리와 같은 지층에서는 큰쌍코뿔소와 동굴히에나, 사슴, 노루 등 중부갱신세에 산 짐승뼈화석들이 발견되였다.

다른 하나의 유적은 1997년 6월에 평양시 상원군 로동리(당시)에서 발견된 몰이사냥터유적이다.*

* 《조선고고연구》(조문) 1998년 1호, 11～15페지, 3호, 7～10페지

로동리에는 고령산줄기사이의 어구에 높이 6m정도인 석회암 언덕이 있는데 여기에는 석회암균렬을 따라 이루어진 15개의 수직굴이 마치도 하나의 《함정체계》를 이루듯이 한줄로 배렬되여있다. 이 수직굴들은 짐승들이 즐겨 다닐수 있는 길목에 놓여있다. 고인단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수직굴을 함정으로 삼고 몰이사냥을 진행하였다. 그것은 복판에 있는 수직굴안의 퇴적층에서 나온 짐승뼈화석에 의해 증명된다.

복판에 있는 수직굴에서는 2 000여개의 짐승뼈화석이 나왔는데 작은 짐승의 뼈들은 그 해부학적구조에 적응하게 모든 뼈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큰 짐승들의 뼈 경우에는 식용으로 쓰는데 가장 적합한 다리뼈는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 실례로 3개체분에 해당하는 큰쌍코뿔소의 경우에 넙적다리뼈가 6개 있어야 하지만 1개밖에 남아있지 않았으며 32개체분에 해당하는 사슴뼈의 경우에 넙적다리뼈가 64개 남아있어야 하지만 겨우 9개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다리뼈가운데서도 넙적다리뼈는 치밀질이 두텁고 뼈가 견고하여 그 어느 뼈보다도 보존될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런것만큼 다리뼈만 남아있지 않은 현상을 우연하게 이루어진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른 뼈들이 잘 남아있는 조건에서 보존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뼈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것은 사람들의 의도적인 행위와 관련된것으로밖에 달리 설명할수 없다. 그리고 수직굴의 깊이로 가늠해볼 때 한마리당 무게가 평균 2.6t이나 되는 큰쌍코뿔소는 물론 평균무게가 300㎏정도인 큰뿔사슴경우에도 그것을 수직굴에서 통채로 끌어올리기는 어려웠을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사냥군들이 대형동물인 경우에 식용으로 쓰기 좋은 다리부분을 잘라 그것만을 날라갔다고 짐작된다.

수직굴에서 드러난 짐승뼈가운데서 사슴과에 속하는 짐승뼈는 75%의 비률을 차지한다. 사슴과의 짐승들은 무리지어 다니

기때문에 몰이사냥하기도 좋고 또 맛있는 고기와 쓰기 좋은 털가죽을 제공해줌으로 하여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중요한 사냥대상으로 되여왔다.

이 몰이사냥터유적은 대동강류역에 퍼져살던 고인단계의 사람들이 크고 사나운 짐승들까지도 피해를 동반하지 않고 손쉽게 그리고 단번에 여러 마리씩 잡을수 있는 합리적인 사냥방법을 적용하여 짐승사냥을 널리 진행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신인단계의 인류화석으로서는 평양시 상원군 룡곡리(발굴 당시)동굴에서 발견된 《룡곡사람》, 중리동굴에서 발견된 《금천사람》, 대흥리동굴에서 발견된 《대흥사람》, 승호구역(발굴 당시) 만달리동굴에서 발견된 《만달사람》, 평안남도 덕천시 승리산동굴 가운데층에서 발견된 《승리산사람》, 북창군 풍곡리 검은녕동굴에서 발견된 《풍곡사람》, 성천군 금평리동굴에서 발견된 《금평사람》 등을 들수 있다. 그가운데는 시기적인 선후관계가 뚜렷한것들도 있다.

고인단계의 인류화석인 《덕천사람》과 층위를 달리하여 승리산동굴유적에서 발굴된 《승리산사람》의 뼈화석은 35살쯤 되는 남자의 아래턱뼈이다. 턱불룩이를 비롯하여 현대사람의 특징적인 징표들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여있으나 턱불룩이지수, 턱구멍의 위치를 비롯한 일련의 징표에서 고인을 련상시키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것은 《승리산사람》이 시초형의 신인으로서 분류학적으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있으며 고인이 신인으로 전환하는 이행형의 위치에 놓인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와 비슷한 정형은 중리 금천동굴에서 발견된 《금천사람》의 뼈화석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금천사람》의 뼈화석은 아래턱뼈, 이발, 몸뼈 등 5명분에 해당하는것인데 30～35살쯤 되는 남자의것으로 인정되고있다.*

* 《조선고고연구》(조문) 1988 년 4 호, 6~10 페지

《금천사람》의 뼈화석가운데서 인류학적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은 아래턱뼈이다. 거기에서는 턱구멍의 위치가 현대조선사람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진보적인 특징을 보이고있지만 동시에 일련의 원시적인 특징도 나타내고있다. 그것은 턱불룩이가 형성되여있지만 그 발달정도가 상당히 약하고 송곳이의 이발집깊이가 깊으며 턱가시가 뚜렷하지 못하고 두께가 상대적으로 아주 두터운것 등에서 찾아볼수 있다.

《룡곡사람》의 뼈화석은 10여명분에 해당하는것인데 그가운데서 보존상태도 좋고 학술적가치가 있는것은 1호동굴 2문화층에서 나온 7호머리뼈와 3문화층에서 나온 3호머리뼈이다.

인류학적감정결과에 의하면 7호머리뼈는 이른 시기의 신인이고 3호머리뼈는 늦은 시기 신인의 머리뼈라고 한다. 3호가 7호머리뼈보다 발전된 특징으로서 뇌용적이 훨씬 더 크고 웃머리뼈불룩이가 더 뚜렷하게 발달되였으며 앞숫구멍점이 상대적으로 앞에 위치하는것, 머리뼈의 궁륭이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넓은얼굴형, 넓은코형, 넓은잎천정형의 특징을 가진것, 대뇌바가지와 소뇌바가지의 면적비가 훨씬 작은것 등을 들수 있다.

이처럼 한개 유적에서 드러난 신인단계의 뼈화석가운데도 서로 시기를 달리하는것이 있다.

《만달사람》의 뼈화석으로서는 거의 완전한 머리통뼈 1개, 아래턱뼈 2개, 골반뼈 2개, 팔뼈 1개, 넙적다리뼈 1개가 알려졌다.(사진 3)

《만달사람》은 우에서 본 신인들보다도 늦은 시기에 속하는것으로 인정되고있다. 그의 아래턱뼈화석에서는 아래턱뼈가지가 넓고 투박한것을 비롯하여 현대조선사람과 구별되는 원시적인 특징을 찾아볼수 있지만 고인보다는 물론 《승리산사람》보다도 현

대사람에 더 가까운 발전된 모습이 나타났다. 그것은 승리산사람보다 턱불룩이가 훨씬 발달되고 턱구멍위치가 훨씬 높은것 등에 의해 설명된다.

머리뼈화석에서도 물림선의 상태가 아주 단조롭고 단순한것, 눈두덩이 두터운것을 비롯하여 이모저모에서 현대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을 나타내고있지만 이마가 높고 곧으며 머리뼈가 전반적으로 둥그스럼하고 그 높이가 높은 점 등에서 고인단계를 훨씬 벗어난 현대사람에 가까운 발전된 특징을 나타내고있다. 따라서 《만달사람》은 현대사람에 가까운 가장 늦은 시기의 신인이라고 말할수 있다.

한편 《만달사람》의 머리뼈와 아래턱뼈화석에서는 현대조선사람에 잇닿아지는 형태학특징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만달사람》의 머리높이가 높으며 이마가 높고 곧은것과 아래턱뼈의 너비가 길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은것 등의 특징은 조선옛류형사람이나 현대조선사람에게서 볼수 있는 고유한 공통된 특징이다. 이것은 《승리산사람》이나 《만달사람》을 비롯하여 조선에서 살던 신인들로 이루어진 인류학적집단이 조선옛류형사람으로 나아가서는 조선사람으로 되였다는것과 함께 조선사람의 원고향, 그 발원지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이였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룡곡사람》과 《만달사람》을 비롯한 신인단계의 사람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도 알려졌다.

《룡곡사람》의 뼈화석이 발견된 룡곡리동굴유적에서는 여러가지 종류의 석기와 골각기 그리고 짐승뼈화석도 나왔다. 이 유적의 유물가운데서 이채를 띠는것은 4문화층에서 발굴된 조각품이다. 짐승의 다리뼈를 쪼개고 그 한토막을 잘라 납작하게 만든 다음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조성하여 얼굴모습을 나타내였다. 그리고 그안에 선을 새겨 코와 눈, 입을 나타내였다. 그 형상수법

과 표현형식이 아직 째이지 못하여 사람의 얼굴을 나타낸것으로도 볼수 있지만 개대가리를 형상한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만달사람》의 뼈화석이 나온 만달리동굴유적 가운데층에서는 여러가지 종류의 석제품(그림 2 의 1～5)과 골각기, 짐승뼈화석이 나왔다.

석제품의 대부분은 흑요석으로 만든것(9 개)이고 일부 규암으로 만든것(1 개)과 차돌로 만든것(3 개)이 있는데 모두 크기가 자름자름하다. 규암으로 만든것 하나가 길이 7.5 ㎝정도이며 나머지는 모두 제일 긴쪽의 길이가 4.5 ㎝미만인것이다.

이러한 석제품에서 주목되는것은 매우 발전된 석기제작수법을 보여주는것들이 적지 않은 점이다.

그것은 우선 석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속돌들가운데 일정한 형태 즉 쐐기모양으로 정형화된 속돌들이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속돌은 모두 8개인데 그가운데서 원반형에 가까운 속돌 1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쐐기모양의 속돌이다.

쐐기모양의 속돌은 세부생김새에서 서로 다름이 없는것이 아니지만 모두 쐐기모양을 띠고있는 점에서는 공통하다. 즉 때림면은 비교적 평탄하고 리용면(격지를 떼여낸 면)이 우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조개날모양으로 좁아진 점 그리고 량옆면(리용면과 접하고있는 두 옆면)도 밑으로 내려와서는 합쳐져서 날을 이룬 점 등에서는 공통하다.

이처럼 속돌을 쐐기모양으로 만든것은 격지를 떼내는데 편리하도록 그것을 나무나 뼈틈사이 같은데 끼워서 든든히 고정시키기 위한 목적과 관련된것이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쐐기모양의 속돌은 잔돌날속돌들가운데서도 격지를 합리적으로 떼낼수 있는 보다 세련되고 발전된 특성을 나타내는 속돌의 하나로 인정된다. 그것은 다음으로 하나의 속돌에서 쓸모있는 좁고 긴 격지를 여러개

떼여내는 방법이 널리 적용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우에서 본 쐐기모양의 속돌마다에는 한개의 리용면에서 좁고 긴 격지를 떼여낸 자리가 발고랑을 이루듯이 여러개씩 나있다. 흑요석으로 만든 자그마한 쐐기모양속돌의 리용면에 있는 떼낸 자리의 너비는 3～4㎜미만이고 가장 큰 규암으로 만든 쐐기모양속돌의 리용면에 있는 떼낸 자리는 제일 넓은 곳이 1㎝되나마나 하다. 이처럼 좁고 긴 격지는 대고때려떼기수법으로만 얻을수 있다.

실지로 쐐기모양속돌들에 나있는 매개 격지자리들의 한쪽끝에는 예리한 송곳같은 물체에 의하여 더 강한 타격을 받아 격지자리보다 더 깊이 패운 홈자리들이 남아있다. 그것은 예리한 끝을 가진 정이나 끌같은 도구로 대고 때린데서 생긴것이라고 인정된다.

잘 알려져있는바와 같이 대고때려떼기수법은 때리는 힘을 몇배로 증대시켜 정이나 끌같은 도구의 끝부분에 집중시킴으로써 사람의 의도대로 석기를 가공하거나 격지를 떼낼수 있는 보다 우월한 석기제작방법이다.

그런데 여기서 드러난 속돌들에서 잔 격지를 떼여낸 자리는 하나와 같이 규칙적이며 일정한 잔줄무늬를 돋친것과 같은감을 주는것으로서 매우 섬세하고 세련된 석기제작수법을 뚜렷이 보여준다. 그처럼 섬세한 잔격지로 떼여내려면 속돌을 만드는데 쓴 돌재료의 특성을 상당한 정도로 깊이 파악하고있어야 하며 대고 때리는데 쓰던 정이나 끌같은 도구도 잘 만든것이고 또 그것을 묘리있게 쓸줄도 알아야 했을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처럼 숙련된 솜씨로 만든 속돌들이 석제품의 기본을 이룬다는것은 당시 주민들속에서 대고때려떼기수법이 상당한 정도로 널리 보급되였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그것은 또한 석기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실용적이고 경제적으로 리용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한개의 속돌에서 쓸모있는 여러

개의 격지를 떼여낸것도 소재를 합리적으로 리용한 사실을 반영하는것이라고도 말할수 있지만 속돌들가운데 날을 손질하여 긁개로 만들어 쓴것들이 적지 않은데서 재료를 유효하게 리용한 사실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원반형의 속돌도 한변을 손질하여 긁개로 쓸수 있게 만든것이지만 쐐기모양속돌가운데 량옆면이 사귀여 날을 이룬 부분을 눌러뜯기수법으로 손질하여 긁개로 쓸수 있게 만든것이 더 흔히 보인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격지나 쪼각을 떼여낸 자그마한 속돌도 함부로 버린것이 아니라 날을 손질하여 쓸만 한것은 다시 가공하여 긁개로 쓴 일이 종종 있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으로서 잔돌날석기를 많이 만들어쓰던 시기적특성을 반영하는것이다.

이밖에 《조립식도구》를 널리 쓴데서도 로동도구제작기술의 발전수준을 엿볼수 있다. 쐐기모양의 속돌에서 떼여낸 격지들은 작기때문에 직접 손에 쥐고 쓰기보다는 끼움날로 쓰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다. 유적에서 나온 여러가지 종류의 골각기가운데는 《조립식도구》의 손잡이로 인정되는 사슴뿔도 있다. 그것은 사슴뿔의 앞끝쪽을 세로 파내여 홈을 지우게 하고 거기에 돌날을 끼워 쓰게끔 되여있는것이다. 이러한 《조립식도구》가 손으로 직접 쥐고 쓰던 도구보다 작업효률을 몇배로 높일수 있는 우월한 도구라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대동강류역에서는 인류력사의 첫 시기부터 사람들이 줄기차게 살아온 사실을 뚜렷이 확증하여주는 각이한 발전단계의 인류화석과 함께 수많은 유적유물들이 발견되였다. 세계에는 인류의 발상지, 인류문화의 발원지로 알려진 지역들이 없지 않지만 대동강류역에서처럼 각이한 발전단계의 인류화석과 함께 수많은 유적유물들이 알려진 실례는 흔하지 않다. 따라서 대동강류역은 인류의 발상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라고 떳떳이 자랑할수 있다.

3) 대동강류역은 신석기시대문화의 발원지, 중심지

잘 알고있는바와 같이 신석기시대는 질그릇과 마제석기를 쓰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초의 금속기인 청동기를 쓰기 전까지를 포괄하는 고고학적시기이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에서 신석기시대의 문화를 창조한 사람들은 이 고장의 신인인 《승리산사람》이나 《만달사람》등에 연원을 둔 현대조선사람의 직접적선조인 조선옛류형사람들이다. 그들은 수천년동안 대동강류역에 퍼져 살아오면서 수많은 유적유물들을 남겨놓았다. 지금까지 평양일대에서 알려진 신석기시대유적의 수만 하여도 30여개소를 헤아린다. 이러한 유적유물들은 이 지역의 문화가 다른 지역의것과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일뿐아니라 신석기시대문화발전에서 선구자적이며 선도자적역할을 한 특별히 발전된 지역의 문화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사람들의 활동은 구체적인 사회력사적환경과 자연지리적조건에서 진행된다.

신석기시대의 조선옛류형사람들은 오늘의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랴오허류역으로부터 남연해주일대에 이르는 쑹화강이남의 넓은 지역에서 신석기시대의 문화를 창조하여왔다. 조선옛류형사람들은 그 모두가 조선족이라는 하나의 준민족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이였던것만큼 그들의 사상정신적인 지향과 요구, 정서미학적감정이 서로 같았기때문에 그들에 의하여 창조된 신석기시대문화에는 하나로 일관되여 흐르는 공통성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조선옛류형사람들이 넓은 지역에 퍼져살면서 개조변혁하여야할 구체적인 자연환경과 사회력사적조건이 각이하였던것만큼 그

들이 창조한 문화도 지역적특성을 띠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대동강류역의 신석기시대문화에서는 다른 지역의것과 구별되는 문화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대동강류역 신석기시대문화의 특성은 무엇보다먼저 유적과 유물의 총체적인 양상을 가리키는 문화갖춤새의 고유한 모습에서 나타난다. 즉 이 지역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짜임새와 석기갖춤새 및 질그릇갖춤새 등 문화갖춤새를 이루는 모든 요소들에서는 다른 지역의 문화갖춤새와 구별되는 특색있는 문화현상을 찾아볼수 있다.

집자리들의 화독결에 밑창을 뗴낸 독과 같은 큰 질그릇을 거꾸로 묻어 《저장움》을 마련한것이라든지 석기갖춤새에서 마제석기가 기본을 이루며 그가운데는 창끌과 비수를 비롯한 세련된 생김새를 가진것들이 있는것, 질그릇갖춤새에서 키높은 둥근밑그릇이 기본을 이루며 독처럼 큰 그릇이 적지 않은것 등은 대동강류역의 신석기시대유적에서만 볼수 있는 특색있는 문화현상이다.

서북조선이나 동북조선, 랴오허류역과 남연해주일대 및 남부조선 등 대동강류역밖의 지역에서도 신석기시대의 유적유물들이 적지 않게 알려졌지만 이러한 특색있는 문화현상을 찾아볼수 없다.

대동강류역 신석기시대문화갖춤새의 고유한 모습과 관련하여 언급되여야 할것은 청천강이남으로부터 한강류역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되여있는 궁산문화와의 관계이다.

궁산문화를 론한 글들에서 이 문화가 다른 지역의 문화와 구별되는 특색있는 문화현상으로 렬거한 중요한 내용은 모두 우에서 든것과 같이 대동강류역의 신석기시대문화갖춤새에서 볼수 있는것들이였다. 그리하여 궁산문화의 고유한 문화현상들이 가장 짙게 나타나는 고장은 대동강류역이며 그밖의 지역에서는 그러한 문화현상들이 희미하여진다.

례를 들면 청천강류역의 세죽리유적을 비롯한 일부 유적에서

나온 질그릇들에서 독과 같은 큰 그릇은 볼수 없으며 둥근밑그릇과 납작밑그릇이 거의 같은 비률을 차지하는것이라든가 한강류역의 암사동유적에서 집자리들이 적지 않게 알려졌으나 질그릇을 거꾸로 묻어 《저장움》을 만든 집자리를 볼수 없으며 석기갖춤새에서 타제석기가 적지 않은 비률을 차지하고있는것 등은 궁산문화의 고유한 특징이 희미해지고있는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다.

사실 같은 문화가 분포되여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본고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지방 특히 다른 지역의 문화와 접촉하는 고장에 있는 유적들에서는 본고장의 유적에서처럼 해당 문화의 고유한 특색들이 전면적으로 짙게 나타나지 않고 희미해지는것은 그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대동강류역의 신석기시대문화가 다른 지역의 문화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강하게 띠고있는것은 바로 이 지역이 궁산문화가 발생발전한 본고장이며 중심지였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다음으로 강조하여야 할것은 대동강류역에서 궁산문화의 첫 시기부터 마지막시기에 이르는 각이한 시기의 유적들이 다 알려진 사실이다.

궁산문화에 속하는 유적들은 크게 5개의 문화기로 갈라지며 문화발전단계상으로 B.C. 7000년기부터 B.C. 6000년기 전반기까지의 전기에는 1문화기의 유적들이, B.C. 6000년기 후반기부터 B.C. 5000년기 전반기까지의 중기에는 2문화기와 3문화기의 유적들이, B.C. 5000년기 후반기부터 B.C. 4000년기 전반기까지의 후기에는 4문화기와 5문화기의 유적들이 속한다.

그런데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에서는 신석기시대유적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발견되였을뿐아니라 신석기시대의 전기간에 속하는 5개 문화기의 유적유물이 다 발굴되였다. 대표적인

유적의 실례만 들더라도 1문화기에 속하는 유적으로서는 봉산군 지탑리유적 1기층의 1호집자리(사진 4, 그림 3), 2문화기에 속하는것으로서는 봉산군 마산리유적, 3문화기에 속하는것으로서는 증산군 룡덕리유적, 4문화기에 속하는것으로서는 남경유적 1기층, 5문화기에 속하는것으로서는 금탄리유적 2기층 등을 들수 있다. 그리고 남경유적과 표대유적, 남양리유적 등을 비롯하여 한 유적에서 여러 문화기에 속하는 문화층과 집자리들이 알려진 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대동강류역을 벗어난 궁산문화의 분포지역을 포함하여 조선옛류형사람들이 퍼져살던 지역에서 이처럼 여러 시기의 많은 유적들이 밀집되여있는 실례를 찾아볼수 없다.

이것은 대동강류역의 신석기시대문화가 궁산문화의 중추를 이루고있었던 사실과 함께 그것을 남긴 사람들이 이웃지역의 사람들과는 달리 일찍부터 이곳에서 정착생활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문화를 창조하여왔다는것을 보여준다.

대동강류역 신석기시대문화의 특성은 특히 그 어느 지역의 문화보다도 발전된 원시문화라는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잘 아는바와 같이 신석기시대는 질그릇과 마제석기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농사를 처음으로 짓기 시작한 시기로 특징지어진다. 그런것만큼 문화의 발전정도는 그러한 특징적인 문화현상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질그릇제작기술이 발전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신석기시대의 이른 시기부터 여러가지 용도로 세분화된 다양한 종류의 질그릇을 널리 쓴데서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신석기시대 전기에 속하는 지탑리유적 1호집자리에서 30여개체분에 달하는 질그릇이 나왔고 그가운데 독과 단지, 배뚜리, 대접, 바리 등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그림 4) 특히 신석기시대 후기의 집자리들가운데는 한 집자리에서 100개체분이상의 질그릇이 나온 실례들이 적지 않다. 실례로 남경유적 31호집

자리에서는 120여개체분의 질그릇이 나왔고 표대유적 89호집자리에서는 200여개체분, 86호집자리에서는 270여개체분의 질그릇이 나왔다.

이 집자리들에서 나온 질그릇가운데는 독처럼 큰 그릇으로부터 술잔처럼 작은것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크기와 생김새를 가진것이 있다. 이것은 당시의 질그릇들이 각이한 용도를 가진것들로 세분화되여있었던 사실과 함께 질그릇제작기술이 발전하여 여러가지 종류의 질그릇을 대량적으로 생산하였던 사실을 말하여주는것이다.

질그릇제작기술이 발전한것은 다음으로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부터 전통적으로 조화롭게 균형이 잘 잡힌 그릇들을 널리 만들어쓴데서 찾아볼수 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는 독종류의 그릇이다.

지탑리유적 1호집자리에서는 저장움으로 쓰던 독(5개)밖에 5～6개체분에 달하는 독종류의 그릇이 나왔다. 그것들의 크기는 아구리직경 50～60㎝, 높이 60～70㎝정도이고 그릇살두께는 5～6㎜정도이다.(사진 5) 이처럼 큰 그릇들이지만 전반적으로 조화와 균형이 잘 잡혔다. 신석기시대후기에 속하는 표대유적의 집자리에서 나온 질그릇가운데는 높이가 거의 1m나 되는 특대형의 그릇도 있다.

작은 그릇보다 큰것을 만드는것이 더 힘들고 품이 많이 들며 그릇살을 얇게 하면서도 조화로운 균형미를 보장하려면 높은 기술이 요구된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것이다.

다른 실례의 하나로서는 타래무늬그릇을 들수 있다. 타래무늬그릇에 장식되여있는 타래무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 발생지가 평양지방이라는것은 이미 론증되였다.*

* 《조선고고연구》(조문) 1994년 1호, 21～24폐지

그런데 대동강류역에서 알려진 타래무늬그릇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쓰이기 시작한것임에도 불구하고 형태가 다양하고 세련되였을뿐아니라 무늬도 섬세하고 다양하며 그 구도도 잘 째여져있다.

또한 타래무늬그릇의 종류도 다양해진 살림살이의 요구를 충족시켜줄수 있도록 여러가지 종류로 세분화되여있다. 실례로 다른 지역에서는 타래무늬그릇이 주로 목있는 자그마한 단지 한가지 종류에 국한되여있지만 대동강류역에서는 독종류의 큰 그릇도 있고 목있는 단지와 배뚜리 같은것도 있을뿐아니라 아담하고 소담하게 생긴 여러가지 종류의 그릇이 적지 않다.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의 타래무늬그릇들에는 주로 타래무늬 한가지 종류의 무늬로 장식되여있지만 대동강류역의 타래무늬그릇들에는 그와 함께 점선띠무늬, 사선띠무늬, 전나무잎무늬 등이 조화롭게 배합되여 째인 구도로 장식되여있다.

그리하여 대동강류역의 타래무늬그릇가운데는 하나의 세련된 공예품을 련상시킬 정도의것들이 적지 않다. 이것은 질그릇제작기술이 단순히 실용적인 특성을 부여해줄뿐아니라 정서미학적요구와 취미를 충족시켜줄수 있도록 예술적기교를 보장할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질그릇제작기술이 발전한것은 최근에 표대유적에서 발굴된 질그릇가마터에 의해 더욱 뚜렷이 확증된다.

2004 년 6 월 표대유적의 신석기시대문화층에 대한 발굴을 진행하는 과정에 아궁과 연소실, 불고래, 소성실이 나란히 놓인 밀폐식평지가마가 드러났다. 천정부를 제외한 모든 시설이 당시의 모습그대로 잘 남아있다. 가마터의 전체 길이는 300㎝이고 너비(가장 넓은 부분)는 110 ㎝이며 남은 벽체의 높이는 50～60 ㎝ 정도이다. 가마터안에서 나온 유물에는 시기적특징을 뚜렷이 나타내는 번개무늬그릇쪼각도 있다. 따라서 이 가마터는 지금으로

부터 6천년이전인 신석기시대후기의것으로 인정된다.(사진 6)

지난 시기 신석기시대의 질그릇을 론한 일부 글들에서는 질그릇의 소성온도와 굳기, 색갈 등에 대한 분석자료에 기초하여 신석기시대후기에는 민속학적자료에서 볼수 있는 등요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진 밀페된 가마에서 질그릇을 구워내는 일도 있었다고 론하였다.*

* 《조선의 신석기시대》(조문) 사회과학출판사, 1986년, 119～120페지
《조선고고연구》(조문) 2001년 3호, 17페지

이러한 견해의 타당성은 이번에 가마터의 실물자료가 발견됨으로써 더욱 뚜렷이 확증되게 되였다.

가마터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아궁과 연소실, 불고래와 소성실이 다 갖추어져있는것으로서 밀페된 가마로서의 구조적특징을 뚜렷이 보여주는 비교적 세련된 형태의 가마터라고 말할수 있다. 이처럼 세련된 형태의 가마가 돌발적으로 생겨났다고 볼수 없는것만큼 그에 선행하여 보다 단순한 형태의 가마 즉 밀페되지 않은 개방된 형태의 간단한 가마와 같은것도 리용하였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대동강류역에서 가마를 리용하여 질그릇을 구워내기 시작한 시기는 훨씬 더 올려보아야 한다.

로천에서 질그릇을 구워내던것으로부터 밀페된 가마에서 질그릇을 구워내는것으로 넘어가게 된것은 질그릇의 생산과 그 제작기술의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의미한다. 그것은 가마가 질그릇생산의 성과를 담보하며 질그릇의 질적인 개선을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수단인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가마가 질그릇생산에 리용되게 됨에 따라 질그릇생산이 늘어나고 그 질이 훨씬 개선되게 되였을것은 의심할바 없다. 우

에서 이미 신석기시대 후기의 집자리들가운데 각이한 용도를 가진 질그릇들이 100～200여개체분이나 나온 실례가 적지 않은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질그릇이 대량생산되여 널리 리용되게 된것은 질그릇생산에 가마를 리용하게 된것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신석기시대의 질그릇가마터가 알려진 실례는 주변지역에서뿐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하다. 자료에 의하면 중국과 이란에서 신석기시대의 가마터가 알려졌다고 한다. 이것만 보아도 표대유적에서 알려진 가마터가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귀중한 유산이며 그것을 남긴 사람들이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인가 하는것을 뚜렷이 알수 있다. 그러므로 표대유적의 가마터는 대동강류역 신석기시대문화의 발전수준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귀중한 자료로 된다.

마제석기제작기술이 발전하였던것은 무엇보다먼저 대동강류역의 신석기시대유적들에서 알려진 석기갖춤새에서 마제석기가 기본을 이루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신석기시대의 비교적 늦은 시기의 유적들에서 알려진 석기갖춤새는 두말할것 없고 신석기시대 전기에 속하는 지탑리유적 1기층과 궁산유적 1기층에서 알려진 석기갖춤새에서도 타제석기가 드물고 도끼와 활촉, 창끝 등을 비롯하여 갈아서 만든 석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있다.

이렇게 신석기시대의 이른 시기부터 마제석기를 널리 쓴 실례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수 없다. 실례로 서포항유적 1기층이나 신락유적 1기층의 석기갖춤새에서는 마제석기보다 타제석기가 더 많은 비률을 차지한다.

마제석기제작기술이 발전하였던것은 또한 신석기시대의 이른 시기부터 석기제작에 세련된 자르기수법을 널리 적용한 사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신석기시대전기의 집자리인 궁산유적 3호집자

리에서는 사암으로 만든 반달모양의 돌톱과 함께 긴 제형의 형태를 가진 같은 규격의 돌활촉반제품 22개가 나왔다. 아마도 그것은 먼저 석기재료로 긴 장방형의 얇은 편암판대기를 만들고 그것을 돌톱으로 활촉형태에 가깝게 차례로 하나하나씩 잘라낸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귀중한 석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고 석기를 보다 손쉽게 만들수 있게 하는 매우 세련된 자르기수법이 적용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신석기시대의 이른시기부터 마제석기제작기술이 널리 보급활용되였던것만큼 그 이후시기의 석기갖춤새는 마제석기로 거의 일색화되게 된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신석기시대 후기로 오면서 타제석기가 줄어들고 대신 마제석기가 늘어나는것은 사실이지만 대동강류역의 석기갖춤새처럼 마제석기로 거의 일색화된 실례는 찾아볼수 없다.

대동강류역 신석기시대문화의 발전양상은 농업생산활동측면에서 더욱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잘 아는바와 같이 농업의 발생발전여부는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지배력, 창조적재능과 지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징표로 될뿐아니라 문화와 사회의 발전수준을 특징짓는 주되는 징표로 된다. 농업의 발생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오랜 기간의 투쟁에서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인류력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은 채집, 사냥과 같은 생업활동으로 생존을 유지하여왔다. 이러한 생산활동은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것을 거두어들이는 단순한 획득경리형태에 불과하다. 그러나 농업은 아무리 원시적이고 시초적인것이라고 하더라도 작물의 생장법칙을 일정하게 파악한데 기초하여 필요한 식료를 합목적적으로 생산하는 생산경리형태이다. 그런것만큼 농업의 발생여부는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지배력,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반영하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농업은 사람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발전을 촉진시

키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는 생업활동이다. 농사를 짓게 됨에 따라 사람들은 토지의 리용과 절기 및 기후현상, 종의 번식 등 자연법칙과 사물현상에 대한 파악도 더 깊이하게 되고 한 고장에 오랜기간 머물러 살면서 생활을 계획적으로 꾸려나가게 되며 생산로동과 사회생활에서 남성들의 지위가 점차 높아지게 되고 농사와 관련된 풍습을 비롯하여 다양한 풍습이 새로 생겨나게 된다.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물질문화, 사회관계와 생활양식 및 풍습 등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화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농업생산활동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고 볼수 있다.

더구나 세계최초의 고대국가들은 사람들이 문명사회에 들어서고 국가를 세우게 된것도 농업생산의 발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농업의 발전정도는 문화와 사회의 발전수준을 특징짓는 주되는 징표로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농업생산활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론의하게 된다.

생업활동의 견지에서 신석기시대는 농사를 처음으로 짓기 시작한 시기로 특징지어지고있다.

대동강류역에서 살던 신석기시대사람들은 일찍부터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이 창조한 신석기시대문화에서는 그 어느 지역의 문화보다도 농경문화적특성이 짙게 나타나게 된다.

대동강류역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것은 B.C. 7000년기부터이다. 그것은 이 시기의 유적인 지탑리유적 1기층과 궁산유적(온천군 운하리)1기층의 유물들에 의해 설명된다. 이 유적들에서 발견된 유물들가운데는 돌도끼와 뿔괭이, 뿔뚜지개 또는 작대기날, 갈돌과 같은 농업과 관련된 도구들이 있다.(그림 5의 1, 2)

지탑리유적의 한 집자리에서는 예리한 날을 가진 큼직한 돌도끼가 5개나 발견되였는데 그것들은 토지개간에 앞서 진행되던 산림채벌에 유효하게 리용되던것들로 인정된다.

궁산유적 1기층에서는 뿔괭이와 뚜지개가 수십개 나왔는데

뿔괭이는 사슴뿔의 원줄기를 잘라서 그 끝부분을 손잡이로 하고 그루쪽에서 갈라져나온 한쪽 옆가지에 날을 세워 괭이날로 쓰던것이다. 그리고 뚜지개의 대부분은 사슴뿔의 뾰족한 끝을 날로 쓰고 그 반대쪽을 손에 쥐거나 자루끝에 비끄러매여 쓸수 있게 만든것이지만 일부는 전면을 잘 갈아 만든것으로서 끝부분에 쐐기모양의 날을 세운것과 한쪽 끝부분에 구멍을 뚫러 자루끝에 비끄러매기 좋게 만든것도 있다. 이렇게 가공한것들은 나무자루끝에 대고 비끄러매서 쓰던 작대기날이라고 인정된다.

민속학적자료에 의하면 원시농업주민들이 널리 쓴 가장 원시적인 경작도구는 나무의 한쪽끝을 뾰족하게 만든 뚜지개 또는 작대기인데 그것은 점차 개선되여나간다. 즉 나무작대기의 끝이 닳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끝에 돌이나 뿔로 만든 뾰족한 날을 대고 비끄러매서 쓰기도 하고 끝이 땅에 잘 박히도록 하기 위하여 끝부분을 무겁게 만들거나 짤막한 막대기를 가로 대여 발디디개를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 이른 신석기시대의 사람들이 순전히 나무로 만든 뚜지개나 작대기를 리용하여 농사를 지은 말하자면 뚜지개농사를 지은것이 아니라 보다 개선된 작대기와 괭이를 리용하여 보다 발전된 경작방법으로 괭이농사를 지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 시기에 농사를 널리 지은것은 또한 갈돌을 비롯한 그밖의 유물들에 의해서도 설명된다.

지탑리유적 1호집자리에서는 낟알의 껍질을 벗긴다든가 가루를 내는데 쓰던 갈돌이 7조분이나 나왔다. 갈돌로 한개 가족의 하루분 식량을 가루내는데 1시간정도 걸린다는 실험자료를 보면 당시에 생산된 알곡의 량도 적지 않았던 사실을 잘 알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것은 집자리의 화독결에 밑창을 떼낸 독종류의 큰 그릇을 거꾸로 묻은 저장움이 있는것과 질그릇가운데 독종류의 그릇이 적지 않은 점이다.

저장움들은 모두 굳게 다져진 원토층우에 놓여있었고 그안(그릇안)에는 낟알이 썩어서 이루어진것으로 보아지는 회록색의 유기질층이 쌓여있었다. 그리고 궁산유적 4호집자리의 저장움우에는 납작한 판돌이 덮여있었다. 이것을 보면 낟알을 넣고 잘 밀봉하였던 저장움이라고 인정되며 더구나 저장움이 항시적으로 불을 피우던 화독결에 있는것을 보면 그안에 넣은 낟알에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였던 사실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저장움은 종자용낟알을 보관하는곳이라고 볼수 있다.

실험자료에 의하면 건조한 저장움에 보관한 낟알은 68%정도까지 싹틔울수 있고 밀봉한 저장움속의 낟알은 96%까지 싹틔울수 있다고 한다. 이런 자료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종자의 발아현상에 대하여서도 적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있었을뿐아니라 그들이 경작한 경지도, 알곡생산량도 적지 않았던 사실을 잘 알수 있다.

지탑리유적 1호집자리에서는 저장움이 5개나 나왔을뿐아니라 벽가장자리부근에서 5～6개체분에 해당되는 독종류의 큰 그릇이 나왔다.*

* 《지탑리원시유적 발굴보고》(조문) 과학원출판사, 1961년, 8페지

이 그릇들은 흩어지기 쉬운 낟알 같은것을 넣어두는데 쓸모있는것들로서 그 크기는 보통 아구리직경 50㎝, 높이 70㎝정도이다. 그 용량으로 보아 70～80㎏의 낟알을 실히 넣을수 있는 용기이다. 그것들은 저장움과 달리 일상적으로 낟알을 넣어두고 소비하던 용기라고 인정된다.

지탑리유적 1호집자리의 저장움과 독들에 낟알을 넣는다면 단번에 1t정도 넣을수 있다. 그것은 당시에 생산된 알곡의 량이 대단하였던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료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농업생산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면서 농사를 널리 지어왔다는것을 보여준다.

대동강류역에서 농업이 특별히 발전하였던것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일찌기 보습농사가 진행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이 지역에서 보습농사를 지은것은 신석기시대 중기(B.C. 6000년기 후반기)부터이다. 그것은 지탑리유적 2기층과 마산리유적 등에서 나온 돌보습날에 의해 확증된다.

지탑리유적에서는 60여개의 돌보습날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는 오래동안 써서 날부분에 긁히우고 닳은 흔적이 뚜렷한것들이 있다.(그림 6의 1～5)

이 보습날을 메운 보습이 현세기의 가래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것이였다고 인정되지만 그것을 리용하여 땅을 갈아엎게 된것은 갈이농사의 시원을 열어놓은것으로서 경작방법, 농업기술의 발전에서 획기적인 진보를 의미한다.

보습농사를 지은 이 시기에 와서는 농사일에 필요한 여러가지 농업도구들이 요구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유적들에서는 돌보습과 함께 돌삽과 곰배괭이, 낫 등의 새로운 도구들이 나타나게 된다.(사진 7)

지탑리유적 2기층과 금탄리유적 1기층을 비롯한 여러 유적에서 나온 돌삽은 신바닥모양의 생김새를 가진것인데 이 삽날을 끼운 삽은 민속학적자료에서 볼수 있는것과 같은 작대기식나무삽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것으로서 밭고랑을 째며 채뚝을 정리하는 등의 일에 쓰이던것이라고 인정된다.

궁산유적 2기층을 비롯한 여러 유적에서 나온 곰배괭이는 《ㄱ》자로 된 나무자루끌에 대고 비끄러매서 김을 매는데 쓰던 호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던 도구로 인정된다. 원시농업의 발전과정으로 보아도 김매기는 농업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시작된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속학적자료에서도 괭이농사단계에 있

던 사람들이 김매는 법을 모르고 농사를 짓는 실례를 흔히 보게 된다. 따라서 보습농사단계에 이르러 김매기를 진행한것은 농업발전의 합법칙적결과였다고 말할수 있다. 어쨌든 김을 매면서 농사를 지은것은 단위당 면적에서 수확을 높일수 있는 농법이 적용된것을 의미하는것으로서 농업발전에서의 일보전진을 의미한다.

새로 나타난 농업도구의 다른 하나는 낫이다. 지탑리유적 2기층과 연탄군 오덕리유적 등에서는 돌낫이 나왔고 궁산유적 2기층에서는 메돼지이발로 갈아 만든 낫이 나왔다.

재질은 다르지만 모두 날이 곧고 등이 휘였으며 뿌리쪽에 자루를 맞추면 후세의 낫과 같은 생김새를 가지게 되여있는것들이다. 이런 낫은 잡초나 떨기나무 같은것을 베는데도 쓰이였을수 있지만 곡초의 그루를 벤다든가 이삭을 자르는데 주로 쓰이였을것으로 인정된다.

보습농사가 진행됨에 따라 농업생산이 더욱 증대되게 된것은 신석기시대후기에 김매는 도구인 곰배괭이가 더욱 널리 쓰이고 곡식의 이삭을 따는데 쓰던 반달칼이 새롭게 쓰이기 시작하는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지만 표대유적과 남경유적의 집자리들에서 여러쌍의 갈돌과 함께 100∼200여개체분에 달하는 질그릇이 나온 사실에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이 집자리들에서 나온 질그릇가운데 낟알저장용그릇으로 볼수 있는 독종류의 그릇은 각기 10여개체분에 달한다. 그리고 표대유적 89호집자리에서는 7개체분에 달하는 갈돌이 나왔고 남경유적 31호집자리에서는 12쌍의 갈돌이 나왔다.

남경유적 31호집자리에서 많은 제분용도구와 낟알저장용그릇이 나온것을 근거로 하여 이 집자리를 제분소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어쨌든 알곡생산이 증대되고 식생활에 낟알음식을 널리 리용한 사실을 반영하는 귀중한 자료들인것만은 의심할바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대동강류역은 보습농사가 처

음으로 시작된 지역이라고 인정된다. 돌보습은 회령시 검은개봉유적에서, 돌삽은 서포항유적 그리고 돌낫은 룡천군 신암리유적 1기층과 강원도(남) 춘천시 교동유적 등에서도 알려졌지만 이 유적들은 모두 신석기시대 중기의 늦은 시기 또는 신석기시대 후기에 속하는것들이다. 사실상 일찍부터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다른 지역 주민집단의 경우를 놓고보더라도 돌보습이나 돌낫이 널리 류행된것은 퍽 이후시기의 일이다.*

* 《조선신석기시대문화의 단일성과 고유성》(조문) 사회과학출판사, 1998년, 117～118페지

그러므로 대동강류역은 보습농사의 발상지라고 말할수 있다.

대동강류역에서 농업의 발전은 벼를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작물들이 신석기시대 후기부터 재배된것으로 인정되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서 보기로 한다.

이와 같이 대동강류역의 신석기시대사람들은 일찍부터 농사를 널리 지어왔고 농업을 줄기차게 발전시켜온 사람들인것만큼 그들이 남긴 문화갖춤새전반에서는 농경문화적특성이 짙게 나타나게 된다.

대동강류역의 신석기시대문화에서 짙게 나타나는 농경문화적인 특성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신석기시대유적의 자리잡음과 규모에서 나타난다. 대동강류역에 분포되여있는 신석기시대유적들은 우선 그 자리잡음에서 이채를 띤다. 물론 궁산유적을 비롯하여 서해바다가에 위치하고있는 일부 유적들가운데는 자그마한 산꽉대기나 산기슭의 경사면에 자리잡고있는것도 없지 않지만 압도적다수의 유적은 강기슭의 넓고 비옥한 충적벌에 자리잡고있다. 삼석구역 호남리 표대유적과 남경유적, 승호구역(발굴 당시) 금

탄리유적과 리천리유적, 북창군 대평리유적과 덕천시 남양리유적 등은 대동강기슭의 충적벌에, 봉산군 지탑리유적과 마산리유적 등은 서흥천기슭의 충적벌에 자리잡고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알려진 대부분의 신석기시대유적들은 나지막한 산꼭대기나 그 기슭에 자리잡고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서는 스휘산유적이나 허우와유적을 비롯하여 단둥지구에서 알려진 여러 유적을 들수 있다.

유적의 자리잡음은 그것을 남긴 사람들의 생업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따라서 대동강기슭의 넓고 비옥한 충적벌에 신석기시대유적들이 주로 분포되여있는것은 그것을 남긴 사람들의 생업이 농업생산활동과 밀접히 유착되여있었던 사실을 반영하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에서 알려진 30여개소에 달하는 신석기시대의 유적들가운데는 그 규모가 방대한 부락터유적들이 적지 않다. 신석기시대집자리와 유물의 산포범위가 5만㎡이상인 유적의 실례로서는 표대유적과 남경유적, 금탄리유적, 남양리유적 등을 들수 있다.*

*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조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년, 4페지
《조선고고연구》(조문) 1996년 2호, 22페지

이처럼 큰 규모의 부락터유적은 다른 지역에서는 그리 흔하지 않다. 채집이나 사냥에 종사하는 획득경리단계에서는 그렇게 큰 부락을 이룰수 없다. 따라서 그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공고한 정착생활을 한 주민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문화현상이다.

그것은 다음으로 집자리짜임새에서 찾아볼수 있다. 일정한 정도의 깊이로 움을 파고 집을 지은것은 모든 지역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에서 볼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궁산유적이나 지탑리 유적에서 알려진 신석기시대 전기의 집자리들은 대부분 면적이 25㎡이상이고 움의 깊이가 130㎝나 되는것이다. 그리고 이 집자리들에는 우에서 본바와 같이 화독결에 종자용낟알을 넣어두던 《저장움》이 있다. 이런 집을 한채 짓기 위하여 움을 파는데만도 얼마나 많은 품을 들였는가 하는것을 쉽게 짐작할수 있다. 사실상 이런 움집은 떠살이생활을 한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수 없고 공고한 정착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것이다.

그것은 또한 로동도구갖춤새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신석기시대의 이른 시기부터 농업생산에 커다란 힘을 넣은 사람들이 남긴 로동도구갖춤새인것으로 하여 신석기시대 전기의 로동도구갖춤새에도 괭이와 뚜지개 또는 작대기날, 도끼와 갈돌등 농업과 관련된 도구들이 적지 않은 비률을 차지하게 되는것이며 중기의 로동도구갖춤새에는 돌보습과 돌삽, 돌괭이, 돌낫, 갈돌 등 농업과 관련된 도구들이 기본을 이루다싶이 한다.

사실상 마제석기를 주로 쓴것도 농업을 주되는 생업으로 삼은 주민들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인것만큼 대동강류역 신석기시대 전기의 석기갖춤새에 마제석기가 기본을 이루는것도 농경문화적특성을 보여주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또한 질그릇갖춤새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질그릇은 신석기시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만들어 쓰기 시작한 용기인것만큼 질이 낮아 깨지기 쉽고 무겁기때문에 가지고다니기 불편한 물건이다. 더구나 대동강류역에서 전통적으로 널리 쓰인 질그릇은 방바닥을 얼마간 파고서만 세워놓고 쓸수 있게 생긴 둥근밑 또는 뾰족밑그릇이다. 그리고 이 지역의 그 어느 시기의 유적에서나 흔히 발견되는 유물은 낟알을 저장하고 보관하는데 쓸모있는 독처럼 큰 그릇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여러가지 종류의 질그릇이다. 이처럼 질그릇종류가 다양한것은 주로 당시 사람들의 식

생활에 낟알이 널리 리용된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질그릇갖춤새는 그것을 남긴 사람들이 농사를 널리 지으면서 공고한 정착생활을 한 사실을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이다.(그림 7의 1∼13)

짐승사냥이나 물고기잡이를 하면서 떠살이생활을 한 사람들도 질그릇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교역을 통하여 그것을 가져다쓰기도 하였지만 그들의 경우에는 질그릇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대동강류역의 신석기시대문화갖춤새에서는 농경문화적인 특성이 짙게 나타난다.

이상의 사실들은 대동강류역에 퍼져살던 조선옛류형사람들이 고유한 신석기시대문화를 창조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다는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지역이 조선의 신석기시대문화의 발상지, 중심지로서 원시문화발전에서 언제나 중추를 이루고 선구자적이며 선도자적인 역할을 하였다는것을 시사하여준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은 인류의 발상지,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인것처럼 전대에 이룩된 문화발전의 터전우에서 신석기시대문화의 씨앗이 남달리 일찌기 뿌려지고 급속히 개화발전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진 지역이였다.

대동강류역이 조선의 신석기시대문화의 발원지, 중심지라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신석기시대문화의 씨앗이 가장 일찌기 뿌려진 지역이라는데 있다. 지금까지 대동강류역에서 알려진 신석기시대유적가운데서 지탑리유적 1기층과 궁산유적 1기층이 가장 오랜 시기의것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들이 이 지역에서 신석기시대문화의 씨앗이 처음으로 뿌려지던 시기, 말하자면 최초의 신석기시대유적들이라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 유적들에서 알려진 집자리와 유물들에는 신석기시대에서도 일정하게 발전된 특징을 보여주는것들이 적지 않기때문이다. 그것은 마제석기가 널리 쓰인 한가지 실례만 들어도 잘 알수 있다. 그런것만큼 앞으로 그것들보

다 더 오랜 신석기시대유적들이 대동강류역에서 알려지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탑리유적 1기층과 궁산유적 1기층의 집자리와 유물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의 신석기시대유적들가운데서 가장 이른 시기의것이라는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조선의 신석기시대유적가운데서 가장 이른 시기의것으로 인정되고있는 서포항유적 1기층이나 신락유적 1기층의 집자리와 유물과의 비교에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 《조선신석기시대문화의 단일성과 고유성》(조문) 사회과학출판사, 1998년, 37～38페지

따라서 대동강류역은 신석기시대문화의 씨앗이 가장 일찌기 뿌려진 지역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또한 대동강류역의 신석기시대문화가 독자적인 발생발전의 길을 걸어온 고유한 문화라는데 있다. 이 지역의 문화갗춤새가 다른 지역의것과 구별된다는데 대하여서는 우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한편 이 지역에는 신석기시대의 이른 시기로부터 늦은 시기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시기의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여있을뿐아니라 이 유적들에서 알려진 집자리와 유물들에서는 앞선 시기의 문화전통을 이어나가면서 새롭게 개선한 계승과 혁신의 합법칙적발전과정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것은 대동강류역의 신석기시대문화가 그 어떤 다른 지역 주민집단의 《이동》이나 문화적 《영향》에 의하여 생겨나고 발전한 문화인것이 아니라 자기 고장에서 대를 이어 살아온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창조하고 개화발전시켜온 문화라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대동강류역이 조선의 신석기시대문화의 발원지, 중심지라는것은 특히 이 지역의 문화가 당시로서는 가장 발전된 문화였다는

것과 관련된다. 이 지역의 문화가 기술의 측면으로 보나 농업의 발전정도로 보나 당시로서는 가장 발전된 경지에 이른 문화였다는데 대하여서는 앞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원시문화를 포함하여 모든 문화는 발전된 중심지의 문화를 중추로 하여 그 문화의 선구자적이며 선도자적인 역할에 의하여 발전하게 된다.

문화가 발전하는 과정에는 집단간 및 지역간 문화적련계와 교류가 진행된다. 그 과정에 보다 발전된 문화는 보다 덜 발전된 문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 문화적인 영향은 호상교류와 섭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발전된 중심지의 문화가 이웃지역으로 보급확대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문화발전의 보편적인 방식가운데서 확대되는 경우는 더 말할것도 없고 교류와 섭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발전된 문화가 전파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로서 둥근밑그릇의 전파보급과정을 들수 있다.

대동강류역의 신석기시대문화갖춤새에서 가장 특징적인 문화현상의 하나는 둥근밑그릇이다. 그런데 둥근밑그릇이 궁산문화가 분포되여있는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달천강류역인 정주시 대산리 당산유적, 북천류역인 함경남도 단천시 룡대구 금송촌유적 그리고 남쪽으로는 대흑산도를 포함한 조선남해의 여러 섬들에서도 알려졌다. 이것은 대동강류역의 신석기시대문화가 조선의 신석기시대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중추를 이루고있었기때문에 큰 활력을 가지고 주변지역의 문화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였다는것을 실증하여주는 자료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대동강류역의 신석기시대문화가 문화발전에서 선구자적이며 선도자적인 역할을 논것은 특히 신석기시대의 문화발전을 뚜렷이 나타내는 새로운 문화현상, 특징적인 유물들이 다른 지역보다 여

기에서 먼저 나타나는 사실에 의해 뚜렷이 확증된다.

그러한 실례의 하나로서는 발전된 영농방법을 적용한 사실을 보여주는 돌보습이나 돌삽, 돌낫과 같은 농업도구들이 대동강류역에서는 신석기시대 중기의 이른 시기 유적들에서 나타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 중기의 늦은 시기나 신석기시대 후기의 유적들에서 나타나는것을 들수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우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그러한 실례의 다른 하나로서는 타래무늬그릇을 들수 있다. 이 그릇은 조선옛류형사람들이 퍼져 살던 넓은 지역에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유물의 하나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타래무늬그릇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그것이 가장 일찌기 쓰이기 시작한 지역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쓰인 지역도, 그 연원을 뚜렷이 찾아볼수 있는 지역도 다름아닌 대동강류역이라는것을 보여준다.*

* 《조선고고연구》(조문) 1994년 1호, 21～24페지

따라서 대동강류역은 타래무늬그릇이 처음으로 쓰이기 시작한 지역, 그 발상지라고 말할수 있다.

물질문화의 변화발전은 문화가 발전한 선진지역에서 새로운 문화현상들이 먼저 생겨나 주변지역으로 파급되여 보편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만큼 신석기시대의 새롭고도 선진적인 문화현상들이 주로 대동강류역에서 먼저 생겨나 각지로 파급되여 일반화되게 된것은 이 지역의 문화가 신석기시대문화발전에서 중추를 이루고 선구자적이며 선도자적역할을 한 독특한 문화사적 지위를 차지하는 문화였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주는것이다.

이렇듯 발전된 신석기시대문화가 대동강류역에서 창조되였던것만큼 그 터전우에서 동방최초의 금속문화인 청동기시대문화의 씨앗도 이 지역에 먼저 뿌려지게 되였던것이다.

4) 대동강류역은 청동기시대문화의 발원지, 중심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에서 조선옛류형사람들은 전대에 이룩한 문화발전에 토대하여 최초의 금속문화인 청동기시대문화를 창조하는 길에 들어섰다.

대동강류역의 신석기시대문화는 둥근밑그릇을 전통적으로 즐겨 쓴것으로 특징지어진다면 청동기시대와 고조선 전기문화는 팽이그릇을 즐겨 쓴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런것만큼 이 시기의 문화갖춤새를 팽이그릇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문화갖춤새 또는 팽이그릇시기의 문화갖춤새라고도 말할수 있다.

팽이그릇시기 문화갖춤새의 편년체계에 의하면 그것은 크게 4개 시기로 구분되는데 팽이그릇시기 1기의 문화갖춤새는 청동기시대에 해당되며 2기로부터 4기까지의 문화갖춤새는 고조선 전기에 해당된다.

팽이그릇시기 1기의 유적으로는 집자리와 고인돌무덤, 돌관무덤 등이 있는데 봉산군 신흥동유적의 집자리에서는 단추모양의 청동기가 나왔고 사리원시 상매동돌관무덤에서는 청동활촉이 발견되였다. 그런데 팽이그릇시기 1기의 집자리들은 고조선전기의 특징적인 유물로 널리 알려져있는 1류형 조롱박형단지(미송리형단지)가 나온 팽이그릇시기 2기의 집자리밑에 놓여있었다. 이것은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문화가 단군조선국가성립 이전시기에 존재하였던 사실을 의미하는것이다. 표대유적에서 발굴된 팽이그릇시기 1기의 집자리인 8호집자리의 측정년대는 지금으로부터 5283±777년전이고 12호집자리의 측정년대는 지금으로부터 5206±696년전(핵분렬흔적법)이다. 따라서 대동강

류역의 청동기시대문화는 B.C. 4000년기 후반기에 해당되는 문화라고 말할수 있다.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문화는 그 어느 지역의 문화보다도 독자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주되는 특성이 있다. 그것은 두가지 측면 즉 하나는 문화의 기원에서 독자성이 뚜렷한것과 다른 하나는 주변지역문화와의 비교에서 개성적특성이 뚜렷한것에 의해 설명된다. 먼저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문화가 선행한 시기의 신석기시대문화인 궁산문화를 그대로 계승하여 기원한 문화라는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문화의 계승성은 무엇보다먼저 집자리유적의 분포상태와 집자리의 층서관계에서 찾아볼수 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궁산문화의 분포범위는 청천강이남으로부터 한강류역에 이르는 중서부조선일대이다. 그런데 팽이그릇시기 집자리유적의 분포범위도 신통히 일치한다. 이것은 신석기시대이래로 사람들이 대를 이어 같은 지역에서 련면히 살아오면서 문화를 줄기차게 발전시켜왔다는것을 보여준다.

또한 팽이그릇시기의 유적들도 궁산문화의 유적들과 마찬가지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여있으며 따라서 팽이그릇시기의 문화갖춤새의 고유한 특성도 대동강류역의 유적유물들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이것은 궁산문화의 발원지, 중심지가 대동강류역이였던것과 마찬가지로 팽이그릇시기 문화갖춤새의 발원지, 중심지도 대동강류역이라는것을 시사하여주는것이다. 뿐만아니라 팽이그릇시기 집자리유적은 궁산문화의 유적과 같이 강기슭의 넓고 비옥한 충적벌에 주로 분포되여있다. 이것은 두 시기의 집자리를 남긴 사람들의 생산활동과 생업의 공통성도 동시에 반영하는것이다. 또한 한개 유적에서 두 시기의 집자리들이 층서적인 선후관계를 이루고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 남양리유적에서는 신석기

시대 집자리인 7호집자리우에 팽이그릇시기의 집자리인 6호집자리가 겹놓여있었고 남경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집자리인 32호집자리를 팽이그릇시기의 집자리인 10호집자리와 33호집자리가 각기 자른 상태로 드러났는데 32호집자리는 신석기시대의 늦은 시기의것이고 33호집자리는 이른 시기의 팽이그릇집자리이다.*

*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조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년, 50, 82페지

이것은 층서관계를 달리하는 두 시기의 집자리들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그리 심하지 않았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인 동시에 팽이그릇을 쓰던 사람들이 앞선 시기 사람들의 부락터를 그대로 리용하면서 부락을 이루고 살았던 사실을 보여주는것이다.

그것은 다음으로 집자리짜임새를 이루는 여러가지 요소와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우선 집자리의 평면형태에서 찾아볼수 있다.

대동강류역에서 알려진 팽이그릇시기 1기의 집자리들가운데는 벽선이 얼마간 곧지 못하거나 모가 죽은것도 있지만 모두 평면형태가 장방형인것들이다. 그 평면형태가 정방형인것은 룡연군 석교리유적 2호집자리를 비롯하여 대동강류역을 벗어난 지역의 일부 집자리에 보인다.

그런데 대동강류역에서 신석기시대집자리들의 평면형태는 후기로 오면서 점차 장방형인것이 늘어나고 정방형인것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천되여 후기에 이르러서는 장방형인것이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된다.*

* 《조선 신석기시대문화의 단일성과 고유성》(조문) 사회과학출판사, 1998년, 46페지

이것을 보면 팽이그릇시기 1기에 이르러 집자리의 평면형태가 장방형인것으로 단일화된것은 선행한 시기 집자리짜임새변천의 련속적인 과정에 산생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다음으로 집자리의 움깊이에서 찾아볼수 있다. 팽이그릇시기 1기의 집자리들의 움깊이는 대부분 40㎝미만이다. 실례로 남양리유적 1기층과 신흥동유적의 집자리들은 모두 움깊이가 40㎝미만인것들이다.

궁산문화의 집자리들의 움깊이는 후기로 오면서 점차 낮아져 그 마지막무렵에 이르러서는 30～50㎝정도의 깊이로 된다.*

＊ 우와 같은 책, 44페지

이것은 청동기시대 집자리의 움깊이가 신석기시대 후기로 오면서 점차 낮아져온 움깊이변천의 련속적인 과정의 결과라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또한 기둥을 세워 웃설미를 마련하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팽이그릇시기 1기의 집자리들가운데는 벽가나 방안바닥에 기둥구멍이나 그루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집자리도 있고 벽가에만 가는 기둥그루의 흔적이 있는 집자리도 있다. 그러나 벽가장자리에 기둥그루의 흔적이 있는 집자리들도 집안에 기둥그루나 구멍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집자리와 마찬가지로 벽가를 따라가면서 다진 바닥우에 그냥 기둥을 세워 웃설미를 마련한것들이라고 볼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탄리유적이나 남경유적을 비롯한 신석기시대 후기의 유적들에서 알려진 집자리들의 대부분은 벽가나 방안에 기둥그루나 구멍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집자리들이다.*

＊ 우와 같은 책, 151페지

이것은 두 시기의 집자리들에 다같이 다진 바닥우에 그대로 기둥을 세워 웃설미를 마련하는 수법이 주로 적용된 사실을 보여주는것이다.

그밖에도 두 시기의 집자리들사이에는 진흙을 펴고 다져서 방바닥을 만든것이라든가 방바닥을 우묵하게 파고 만든 화독이 다같이 보이는것 등에서도 공통성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동시에 집자리짜임새에 의해 복원되는 집의 겉모양에 있어서도 같은 집자리들이 적지 않았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잘 아는바와 같이 집의 겉모양은 집자리의 평면형태와 움깊이, 기둥상태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그런것만큼 이러한 측면들에서 공통성이 짙게 나타난다는것은 집의 겉모양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그것은 또한 유물갖춤새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우선 팽이그릇시기 1기의 집자리들에서 알려진 로동도구갖춤새에는 갈돌판과 갈돌대, 그물추, 가락바퀴, 도끼, 자귀, 대패날, 끌을 비롯하여 신석기시대 후기의 유적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것과 같은 생김새를 가진것들이 적지 않다. 남경유적 팽이그릇시기 1기층의 집자리들에서 나온 자귀, 대패날, 끌 등이 신석기시대 집자리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것과 다름없는것들이라는데 대하여서는 이미 론의된바가 있다.*

*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조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년, 74페지

얼마전까지는 대동강류역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에서 반달칼이나 달도끼가 나온 실례가 없기때문에 그것들이 청동기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쓰이기 시작한것으로 간주되여왔다. 그러나 최근에 표대유적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에서 등이 곧고 날이 휘인

생김새의 반달칼과 함께 달도끼와 그 반제품이 나왔다. 이렇게 놓고보면 팽이그릇시기 1기의 집자리들에서 나온 로동도구의 대부분은 앞선 시기부터 쓰이던것들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또한 질그릇갖춤새에서도 계승성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 계승성은 질그릇의 섞음재와 색갈, 종류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지만 여기서는 질그릇생김새만을 들어 살펴보려고 한다.

잘 아는바와 같이 팽이그릇시기 1기의 질그릇갖춤새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팽이그릇이다. 그런데 이 그릇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질그릇에서 주류를 이루는 둥근밑그릇과의 공통성이 짙게 나타난다. 다시말하여 팽이그릇과 닭알의 한쪽끌을 잘라버린것과 같은 생김새를 가진 신석기시대의 둥근밑 또는 뾰족밑그릇은 그것들의 형태를 이루는 륜곽에서 다름이 없다. 둥근밑그릇의 아구리끌부분을 겹싸넘겨 두겹으로 만들고 그 밑창에 혹처럼 도드라진 밑굽을 달아준다면 팽이그릇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처럼 질그릇의 륜곽에서 공통성이 있을뿐아니라 팽이그릇가운데는 둥근밑그릇과 팽이그릇의 과도적특징을 보여주는 생김새를 가진것들도 있다. 남양리유적 1 기층의 19 호집자리에서 나온 팽이그릇가운데는 아구리끌부분의 일부 부위를 겹싸넘겨 두겹으로 만들기도 하고 일부 부위를 외겹으로 만들기도 한 팽이그릇이 있다. 이것은 결국 아구리끌을 외겹으로 만들던것으로부터 두겹으로 만드는데로 넘어가던 과도적특성을 반영하는것이라고 인정된다.

특히 남양리유적 19호집자리와 남경유적 7호집자리에서는 둥근밑그릇과 다름없는 밑창을 가진 팽이그릇이 나왔고*[1] 또 신흥동유적 3호집자리에서는 둥근밑그릇과 납작밑그릇에 가까운 밑창부분만 남은것이 각각 1개씩 나왔다.*[2]

*[1]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조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년, 97 폐지

*[2] 《고고민속》(조문) 1964 년 3 호, 40 페지

팽이그릇과 목이 달린 팽이그릇에서 특징적인것은 아구리끝을 두겹으로 겹싼것과 거기에 선무늬를 새긴것 그리고 혹처럼 도드라진 밑굽이 달린것인데 이러한 특징적인 점들은 신석기시대 질그릇변천의 련속적인 과정으로 생겨난것들이다.

우선 아구리끝을 두겹으로 만들고 거기에 선새김을 한것은 신석기시대 겉면장식변천과정의 일환으로 생겨난것이라고 인정된다.

잘 아는바와 같이 대동강류역의 신석기시대 질그릇겉면장식의 변천과정은 여러가지 무늬를 그릇겉면에 가득 새기던데로부터 단순한 한가지 종류의 무늬를 질그릇 겉면의 일부 부위에 새기거나 무늬를 새기지 않는 방향으로 변천되여온 과정이다. 그리하여 신석기시대 후기의 질그릇갖춤새에는 민그릇이 적지 않은 비률을 차지하게 되고 한가지 종류의 단조로운 무늬를 그릇 웃부분에 치우쳐 새긴 무늬그릇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그것은 남경유적 2기층이나 금탄리유적 2기층의 질그릇갖춤새에서 찾아볼수 있다.*

* 《조선 신석기시대문화의 단일성과 고유성》(조문) 사회과학출판사, 1998 년, 87 페지

바로 이러한 겉면장식변천의 련속적인 과정으로 팽이그릇시기에 이르러서는 겉면에 무늬장식을 하지 않게 되고 아구리끝부분에 덧띠를 돌리듯이 하여 두겹으로 만든 다음 거기에 선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새김무늬를 장식하였던것이다.

아구리끝을 두겹으로 두텁게 만들고 거기에 선새김장식을 한것은 신석기시대 후기의 질그릇에 보이는 덧띠무늬장식수법의 계승이라고 볼수 있다. 금탄리유적 2기층에서 나온 질그릇가운데는

몸체의 복판부분에 덧무늬띠를 돌리고 그우에 세로선을 새긴것도 있고 또 남경유적 1기층에서 나온 번개무늬그릇에는 몸체부분에 덧무늬띠를 돌리고 그우에 톱날식의 선을 새긴것이 있다. 물론 이런 걸면장식은 장식적효과를 나타내기 위한데 주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런데 이런 장식수법이 팽이그릇시기에 이르러서는 아구리끝부분을 장식하는데로 옮겨졌다. 그것은 아구리끝부분을 두텁게 한것이 본질에 있어서 덧무늬장식수법과 같은 수법이고 덧무늬우에 새겨진 새김무늬에도 서로 같은것이 있기때문이다. 즉 남경유적 1기층이나 석탄리유적 1기층에서 알려진 팽이그릇가운데 겹싸넘긴 아구리끝부분에 짧은 사선으로 이루어진 여러가지 무늬가 새겨져있는것이 있다.

덧무늬장식이 몸체로부터 아구리끝부분의 장식에로 옮겨지게 된것은 아구리쪽웃부분에 치우쳐 걸면장식을 주로 하는데로 변천되여온 과정의 결과에 생겨난것일뿐아니라 깨여지기 쉬운 아구리부분의 두께를 두텁게 함으로써 질그릇의 견고성과 실용성을 더 잘 보장하려는 의도에서 산생된것이라고 볼수 있다. 때문에 겹싸넘긴 부분의 너비는 신석기시대 덧무늬띠의 너비에 비하여 훨씬 넓으면서도 또 납작하다.

이러한 자료로 보아 팽이그릇이나 목이 달린 팽이그릇의 아구리끝부분을 두겹으로 만들고 거기에 새김무늬장식을 하게 된것은 선행한 시기의 질그릇이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되여나가는 과정에 생겨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대동강류역의 신석기시대 조선옛류형사람들은 신석기시대 전기간 전통적으로 둥근밑그릇을 널리 썼다. 그런데 둥근밑그릇은 낟알을 담거나 음료수 같은것을 담아 리용하든 관계없이 방바닥을 일정하게 파고서야 세워놓고 쓸수 있게 되여있다. 때문에 이 시기의 집자리들에서는 질그릇을 세워놓았던

구멍자리들을 흔히 보게 된다.

한편 이 지역 신석기시대 질그릇의 생김새변천에서 주목되는 것은 후기로 오면서 밑창부분의 두께가 두터워지는 경향을 띠는 것이다. 그것은 질그릇에서 깨지기 쉬운 부위인 밑창부분의 두께를 두텁게 함으로써 그 파손을 막기 위한 의도와 관련된것일수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질그릇의 중력중심을 밑창부위에 가게 함으로써 세워놓고 쓰기에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와 관련된것으로 인정된다.

이처럼 밑창부위의 두께를 두텁게 만들어 그릇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오다가 팽이그릇시기에 이르러서는 밑창부분의 두께를 두텁게 만들면서도 거기에 혹처럼 도드라진 밑굽을 달아줌으로써 그릇의 안정성을 더 잘 보장할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이와 같이 팽이그릇과 목이 달린 팽이그릇에서 특징적인 점들은 선행한 신석기시대의 질그릇을 더욱 쓸모있게 개선하여나가는 과정에 생겨난 문화현상들이라고 볼수 있다.

이상의 자료들은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 문화갗춤새 즉 팽이그릇시기 문화갗춤새가 이 지역 신석기시대 문화갗춤새에 연원을 두고 자체발전의 합법칙적과정으로 독자적으로 생겨난 사실, 다시말하여 팽이그릇시기 문화갗춤새가 그 어떤 다른 지역 주민집단의 《이동》이나 문화적《영향》에 의하여 생겨난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선행한 시기의 문화를 창조한 사람들의 직접적인 후손들에 의하여 창조된것이라는것을 확증하여주는것이다.

또한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문화는 주변지역의것과 뚜렷이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있는 독자적인 문화의 하나이다. 그것은 집자리와 거기서 나온 유물에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무엇보다먼저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 집자리들은 대부분 큰 규모의 부락을 이루고 강기슭의 넓고 비옥한 충적벌이나 평탄한 등판에 자리잡고있는데서 이채를 띤다. 집자리의 분포범위가

5만㎡이상인 부락터유적의 실례로서는 표대유적과 남경유적, 금탄리유적, 석탄리유적, 고연리유적 등 여러 유적을 들수 있는데 모두 대동강과 그 가지흐름기슭의 충적벌이나 넓은 등판에 자리잡고있는 유적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알려진 집자리유적들가운데는 정주시 석산리 당터산유적을 비롯하여 산기슭의 경사면이나 구릉등성이에 자리잡고있는것들이 적지 않다. 특히 한강류역을 비롯하여 남부조선지역의 집자리유적들은 대부분 강하천이나 해안가까이에 있는 구릉등성이나 그 경사면에 자리잡고있는것으로 특징지어지고있다.*

* 《조선 원시 및 고대집자리가 일본에 준 영향》(일문) 유잔가꾸, 1993년, 229페지

이러한 차이는 집자리를 남긴 사람들의 생업과 생산활동에서의 차이를 동시에 반영하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다음으로 대동강류역의 집자리들은 그 짜임새를 이루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른 지역의것과 구별되는 점들이 나타난다.

그것은 우선 집자리의 평면형태에서 찾아볼수 있다. 팽이그릇시기 1기의 집자리들은 그 평면형태가 장방형으로 단일화된것으로 특징지어진다는데 대하여서는 우에서 이미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보아온 다른 지역의 집자리들에서는 정방형, 원형, 타원형의 평면형태를 가진 집자리들이 상당한 정도로 늦게까지 류행되였다. 강계시 공귀리유적의 집자리들가운데는 장방형과 정방형인 집자리가 같은 비률을 차지하며 남부조선지역의 유적들인 휴암리와 송국리, 대곡리등에서 드러난 집자리들가운데는 원형, 타원형, 정방형, 장방형, 부정형의 평면형태를 가진것들이 있는데 그가운데서도 많은 수를 차지하는것은 원형의 집자리들이다.*

* 우와 같은 책, 304～309페지

랴오둥지방에서 알려진 집자리들가운데도 정방형이나 부정형의평면형태를 가진것이 적지 않다. 실례로 상훠쯔유적 3기층에서 드러난 집자리에는 장방형인것보다 정방형이나 부정형인 집자리가더 많다.*

* 《우리 나라 원시집자리에 관한 연구》(조문) 사회과학출판사, 1975년, 60페지

정방형이나 원형, 타원형의 평면형태를 가진 집자리는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흔히 볼수 있다. 그런것만큼 그런 집자리가 흔히 보이는것은 앞선 시기의 낡은 유습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었다는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대동강류역 청동기시대 집자리들이 장방형인것으로 단일화된것은 집의 짜임새가 더욱 쓸모있게 개선된 선진적인 문화현상의 한 측면을 반영하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것은 다음으로 집자리의 움깊이에서 찾아볼수 있다. 팽이그릇시기 1기의 집자리들의 움깊이가 대부분 40㎝미만이라는데 대하여서는 우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알려진 집자리들의 움깊이는 대체로 50～80㎝이상이며 지어는 100㎝를 훨씬 넘는것도 있다. 랴오둥반도 남단의 상훠쯔유적 3기층의 1호와 3호집자리의 움깊이는 70～75㎝이고 17호집자리는 80㎝, 6호집자리는 108㎝이다. 라선시 서포항유적 2호, 4호, 24호집자리와 회령시 오동유적 2호, 4호, 8호집자리의 움깊이는 평균 80～90㎝이고 무산 범의구석유적 2기층의 4호, 15호, 20호, 35호집자리의 움깊이는 평균 160～170㎝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것은 얼마간 늦은 시기에 속하

는 한강류역을 비롯한 남부조선지역의 집자리들가운데 움이 깊은 것들이 적지 않은 점이다. 미사리유적과 교하리유적, 역삼동유적을 비롯한 한강류역의 집자리들에도 움길이가 60～70㎝정도인것이 흔하지만 송국리유적을 비롯한 남부조선지역의 집자리들에도 움길이가 100㎝이상인것이 적지 않다.*

* 《조선 원시 및 고대집자리가 일본에 준 영향》(일문) 유잔가꾸, 1993년, 206, 307페지

지금까지 집자리의 움길이가 기후의 차이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는것으로 간주되여왔지만 대동강류역의 집자리들보다 시기적으로 늦은 한강류역에 분포되여있는 집자리들의 움길이가 훨씬 더 깊은것들이 있는것을 보면 그것이 단순히 기후적차이에만 기인된것이 아니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잘 아는바와 같이 움의 깊이는 땅우로 드러나는 벽체의 높이와 반비례적인 관계를 가진다. 다시말하여 움의 깊이가 깊으면 땅우로 드러나는 벽체의 높이가 작아지고 반대로 움의 깊이가 얕아지면 땅우로 드러나는 벽체의 높이가 커진다. 그런것만큼 팽이그릇시기 집자리들의 움길이는 당시의 집이 지상가옥에 가까운 벽체를 가진것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움이 깊은 집일수록 드나들기도 불편하고 방안에 습기와 연기가 더 많이 차기마련이며 환기와 채광도 잘 안될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지상가옥에 가까운 벽체를 가진 팽이그릇시기의 집자리들은 다른 지역의것보다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 건강에 보다 유리하고 문화적인것이였다고 보게 되는것이며 바로 여기서도 보다 선진적인 문화현상을 찾아보게 된다.

그것은 또한 방바닥을 만든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 집자리들에는 진흙을 펴고 다져서 방바닥을 만

든것도 있지만 그렇게 한 다음 불에 태워 굳혀서 방바닥을 마련한것이 더 흔하다. 실례로 석탄리유적 1기층의 집자리들은 모두 불에 구워서 방바닥을 만든 집자리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집자리들에서는 불에 구워 방바닥을 만든것은 극히 드물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 남부조선의 송국리유적에서 드러난 집자리가운데서 불에 구워 방바닥을 만든것은 한두개뿐이며 휴암리유적에서 알려진 집자리가운데는 불에 구운것은 찾아볼수 없고 진흙을 펴고 다져서 방바닥을 만든것도 극히 드물다.*

* 우와 같은 책, 305, 307페지

진흙을 펴고 다지거나 그렇게 한 다음 다시 불에 구워서 방바닥을 굳게 만든것은 밑으로부터 스며나오는 습기나 랭기를 막으려는데 목적이 있었던것만큼 불태워 굳힌 방바닥이 다른 방바닥보다 더 효과적일것은 명백하다. 이런 측면으로 보아도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 집자리들은 보다 더 쓸모있는 집이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또한 집자리들에서 알려진 유물갖춤새도 이채를 띤다.

우선 유물갖춤새에 무기류가 적지 않은 비률을 차지할뿐아니라 무기류가운데 독특한 생김새를 가진것들이 적지 않은데서 다른 지역의것과 뚜렷이 구별된다.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 집자리에서 알려진 유물갖춤새에서 가지수와 수량상에서 적지 않은 비률을 차지하는것은 무기류이다. 그가운데는 활촉, 창끝, 단검, 달도끼, 별도끼 등이 있는데 그것들의 생김새도 각이한것은 물론이고 석탄리유적 14호집자리에서와 같이 한 집자리에서 단검 2개, 창끝 5개, 활촉 11개가 나온 실례도 있다.

이처럼 무기류가 다종다양한 실례는 다른 지역의 유물갖춤새에서는 찾아볼수 없다. 유물들이 상당한 정도로 많이 나온 상퉈쯔유적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2기층과 3기층에서 나온 무기류의 종류는 두세가지뿐이다.*

* 《중국 동북지방의 유적발굴보고》(조문) 사회과학출판사, 1966년, 34, 48폐지

이러한 무기류가운데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수 없거나 보기드문 생김새를 가진것들이 적지 않다.

여기서 흔히 볼수 있는 활촉은 가로자름면이 릉형인 뿌리나래활촉과 독사대가리모양의 활촉이지만 상퉈쯔유적 2기층이나 무산 범의구석유적 2기층에서 나온 활촉에는 그런 생김새를 가진것은 볼수 없고 모두 2등변3각형이거나 밑이 오무라든 2등변3각형의 활촉이다.

또한 여기서 나온 창끝은 뿌리나래활촉이나 독사대가리모양의 활촉을 크게 만든것과 같은 생김새를 가진것이 대부분인데 이런 생김새의 창끝을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범의구석유적 2기층이나 상퉈쯔유적 2기층에서 알려진 창끝은 3각형을 이루는 몸체에 긴 뿌리가 달린 생김새이다.

뿐만아니라 여기서 나온 단검의 대부분은 긴 2등변3각형의 생김새를 가진 몸체의 밑부분에 짧고 좁은 뿌리가 달려있는것인데 청천강류역과 한강류역의 일부 유적들에서도 그런 생김새의 단검이 더러 발견되지만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강이남의 남부조선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단검은 긴 손잡이가 달린것이다.

특징적인 무기류의 하나인 달도끼의 분포범위는 비교적 넓은것으로 인정된다. 그것은 상퉈쯔유적 2기층에서도 나온 일이 있

고 또 한강이남지역에서도 더러 알려졌기때문이다. 그러나 별도끼의 분포범위는 매우 제한된 지역이라고 인정된다.

대동강류역에서 흔히 보이는 별도끼는 방사상으로 뻗은 날이 여러개 달려있는 매우 세련된 생김새를 가진것인데 이런 생김새의것은 청천강류역이나 한강류역에서도 아직 알려진 일이 없다. 석산리 당터산유적에서 알려진 별도끼는 2중으로 6개의 날이 달려있는것인데 공귀리유적에서도 이와 꼭같은 생김새의 별도끼와 함께 치차모양으로 날을 낸 별도끼가 나온 일이 있다. 이와 비슷한 생김새의 별도끼가 동북조선의 일부 유적에서도 나온 일이 있지만 그 어느것이나 다 날이 예리하지 못하고 훨씬 둔하게 생긴것인데서 구별된다.

한강이남의 집자리유적가운데서 별도끼(치차모양인것)가 나온 유적은 오직 얼마간 늦은 시기에 속하는 옥석리유적뿐인데 그 이남지역에서는 아직 별도끼가 알려진 실례가 없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 집자리에서 발견된 무기류의 양상이 다른 지역의것과 뚜렷이 구별된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다음으로 유물갖춤새에 공구류들이 적지 않은 비률을 차지할뿐아니라 그가운데 독특한 생김새를 가진것도 있는데서 다른 지역의것과 구별된다.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 집자리들에서 알려진 공구류에는 턱자귀와 자귀, 도끼, 대패날, 끌, 숫돌 등이 있는데 이런 공구들이 집자리들에서 흔히 발견되는것은 물론이고 침촌리유적 2호집자리에서와 같이 한 집자리에서 그것들이 일식으로 발견된 실례도 있다. 이처럼 유물갖춤새에 공구류가 적지 않은 비률을 차지하는 실례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턱자귀와 그것을 작게 만든것과 같은 생김새를 가진 끌은 청천강이남으로부터 한강류역에 이르는 중서부조선일대에서

흔히 발견되는 특징적인 유물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들이 례외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즉 턱자귀는 금야읍유적에서, 턱자귀의 축소형인 끌은 상뤄쯔유적 3기층과 통천군 신대리유적에서 알려졌을뿐이다.

유물갖춤새에서 특별히 이채를 띠는것은 질그릇과 돌돈과 같은 유물들이다.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 질그릇갖춤새에서 주류를 이루는것은 팽이그릇과 목이 달린 팽이그릇이며 그런 질그릇이 중서부조선일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알려진 일이 없다는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청동기시대에 일반적등가물로 리용된것으로 인정되고있는 돌돈이 팽이그릇시기의 집자리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특징적인 유물이라는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문화는 다른 지역의것과 뚜렷이 구별되는 문화로서 개성적특성이 뚜렷한 독자적인 문화이다.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문화는 또한 당시로서 가장 발전된 지역의 문화인것으로 하여 이채를 띤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청동기를 처음으로 만들어쓴 사실에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지금까지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유적에서 알려진 청동제품은 단추모양의 청동기와 청동활촉뿐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동, 석, 연 등 3대원소합금으로 만들어진것으로서 동기에 비하여 비할바없이 우월한 질좋은 청동제품이다.

이러한 청동제품을 생산하는 청동야금업은 석기나 질그릇을 만드는것과 같은 수공업분야보다 훨씬 힘들고 복잡한 기술공정을 요구하는 수공업분야였던것만큼 청동기시대 초기에 청동기가 희귀한것은 그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이였다. 그런것만큼 청동기의 종류가 비교적 단순하다고 하더라도 그

것들은 앞선 시기 문화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청동기시대 문화를 특징짓는 주되는 징표로 될뿐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사람들의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확증하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된다.

사실상 고대문명의 발상지의 하나로 공인되고있는 중국의 황하류역에서의 청동기생산은 B.C. 3000년기 말경에 이르러 비로소 시작된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대동강류역은 동방최초의 금속문화의 발원지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다음으로 농업이 매우 발전된 수준에 이르렀던 사실에서 찾아볼수 있다.

이미 널리 알려져있는바와 같이 B.C. 4000년기 후반기에 속하는 남경유적 36호집자리에서는 종자로 소중히 보관해두었던 오곡(불에 탄 벼와 조, 기장, 수수, 콩)이 한곳에 소북이 쌓여있는채로 발견되였다. 이 오곡은 생물학적특성과 생육조건이 서로 다른 작물들이다. 조와 기장, 콩과 같은 발작물은 생육기간이 비교적 짧으면서도 추위에도 잘 견디지만 벼는 그것들과 반대이다. 내한성이 강한 작물들은 높고 건조한 지대에서도 재배할수 있지만 벼나 수수와 같은 습지성작물은 그런 지대에서는 재배하기 어렵다. 특히 벼는 다른 작물들과는 달리 온열조건과 물, 비료에 대한 요구성이 매우 높은 작물이다.

이처럼 생육조건이 서로 다른 여러가지 작물들을 재배하였다는것은 당시에 그에 알맞는 경작지들이 개간리용된 사실과 함께 거름주기와 그루바꿈, 관수체계의 도입과 같은 발전된 농법들이 적용되고있었던 사실을 말하여주는것이다.

무산 범의구석유적과 회령시 오동유적, 송국리유적, 흔암리유적을 비롯하여 조선각지의 여러 유적들에서 불에 탄 여러가지 종류의 낟알이 발견되였지만 모두 남경유적보다 훨씬 늦은 시기에 속하는 유적이다.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각이한 적지와 생육조건을 요구하는 오곡을 영농기의 특성에 맞게 재배하였다는것은 그들의 창조적지혜와 재능, 높은 문화발전수준을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주되는 자료의 하나이다.

여기서 대동강류역에서의 벼를 포함한 오곡농사가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시작된것이 아니라는것을 간단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선 남경유적 36호집자리에서 나온 벼나 콩 등의 낟알들이 매우 고르롭게 형태화된 품종들이라는데 있다. 실례로 남경유적의 벼알은 긴알종류와 뚜렷이 구별되는 짧은알품종이다. 모든 벼알들은 크기에서 1㎜미만의 차이 즉 길이에서는 0.16～0.25㎜, 너비에서는 0.10～0.17㎜사이의 편차를 가진것들이고 길이와 너비의 비례가 2배를 넘지 않는것들이다. 70알의 벼알을 계측한 수치는 평균길이 4.20～4.50㎜이고 평균너비는 2.50㎜로서 길이와 너비의 비례가 1.7～1.8:1이다.*

* 《일본야요이문화의 조선적성격과 그 변천》(조문) 조선미술출판사, 1991년, 184페지

이처럼 짧은알품종으로 고르롭게 형태화되여있는것은 그것이 이미 대동강류역의 기후풍토에 적응한 품종으로 순화되여있었던 사실을 확증하여주는것이다.

식물의 새 품종의 형성과 해당 지역의 기후풍토에 적응한 순화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것만큼 남경유적의 벼알들이 고르롭게 형태화된 품종이라는것은 이 지역에서 벼재배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였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그것은 또한 남경유적에서 발견된 오곡이 서로 다른 생물학적특성과 생육조건을 가진 작물들이라는데 있다. 이러한 작물들

을 재배하기 위하여서는 우에서 본것과 같은 농업기술발전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의미하는 발전된 농법들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발전된 농법들이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돌발적으로 생겨났다고 볼수는 없다.

이러한 자료들로 보아 대동강류역에서 벼를 비롯한 여러가지 작물들을 재배하기 시작한 시기는 늦잡아도 B.C. 4000년기 전반기인 신석기시대 후기경부터였다고 말할수 있다. 이것은 결국 대동강류역이 벼농사, 오곡농사의 발상지의 하나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그것은 또한 석기제작기술이 가장 높은 발전수준에 이르렀던 사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우에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청동기시대 초기에 청동기들이 제한되여있는것만큼 대다수의 무기류와 로동도구는 돌로 만든것들이다. 그러므로 석기제작기술의 발전정도는 문화의 발전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 된다.

석기제작기술이 발전한 사실을 여러가지 자료를 들어 설명할수 있지만 여기서는 보다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구멍뚫기법이 널리 활용된 사실자료만 들어 설명하려 한다.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구멍뚫기법이 널리 활용된것은 각이한 용도를 가진 석기들에 구멍을 뚫은것이 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즉 구멍이 뚫린 석기에는 반달칼이나 가락바퀴와 같은 로동도구도 있고 달도끼와 별도끼와 같은 무기류도 있으며 굽은구슬이나 대롱구슬과 같은 치레거리도 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에 리용되는 석제품의 제작에 구멍뚫기법이 널리 활용된 사실을 말하여주는것이다.

구멍이 뚫려있는 석제품의 재질과 굳기가 각이한것은 물론이고 구멍의 굵기가 0.5㎝미만인것으로부터 2㎝정도나 되는것도 있다. 더우기 달도끼나 별도끼와 같이 3㎝안팎의 두께를 가진

몸체의 복판에 직경 2㎝정도의 구멍이 뚫려있는것도 있는데 그가운데는 구멍이 수직을 이룰뿐아니라 구멍벽에 나사줄기와 같은 줄이 돌려져있는것도 있다. 이것을 보면 회전속도가 매우 빠른 위력한 활비비로 구멍을 뚫렸던것으로 인정된다. 어쨌든 그처럼 두터운 돌에 넓은 구멍을 정교하게 뚫렸다는것은 매우 발전된 석기제작기술을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특히 석탄리유적 7호집자리에서 나온 방사상으로 뻗은 18개의 날이 달려있는 별도끼와 같은것은 자르기법과 구멍뚫기법, 갈기법 등 모든 마제수법을 다 동원하여 정교하게 만든것으로서 하나의 공예품을 련상시키는 걸작품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이밖에도 문화갖춤새의 여러 측면에서 문화의 발전양상을 엿볼수 있다. 사실상 우에서 론한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문화에서 나타나는 다른 지역의것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문화현상들은 주로 이 지역의 문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한계단 더 높이 발전된 문화인것에 기인하여 산생된 문화현상들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문화가 당시로서 가장 발전된 지역의 문화인것만큼 청동기시대문화의 발생발전에서 중추를 이루고 선구자적이며 선도자적인 역할을 한 문화였다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청동기시대의 새로운 선진적인 문화현상들이 이 지역에서 먼저 생겨나 다른 지역으로 널리 파급된 사실자료에 의해 뚜렷이 확증된다.

사회력사발전과정으로 놓고볼 때 부락의 규모는 후시기로 오면서 점점 더 커지는 경향성을 띤다.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 집자리유적에서 볼수 있는것과 같은 큰 규모의 부락터유적은 앞선 시기에는 물론이고 같은 시기 주변지역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그처럼 규모가 큰 부락터유적은 충청남도 부여군 송국리유적과 경상남도 거창군 대곡리유적을 비롯하여 이후시기의 유적들에서 더러 보인다.

집자리짜임새의 변천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나타나지만 평면형태와 움깊이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그 변천의 일반적경향은 평면형태가 원형 또는 정방형인것으로부터 장방형인것으로 변천되며 움의 깊이가 점차 얕아지는것이다.

그런데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 집자리들은 평면형태가 장방형인것으로 단일화되였고 움깊이는 지상가옥에 가까운것으로 얕아졌던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집자리들이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것은 퍽 이후시기의 일이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서는 함경남도 금야군 금야읍유적과 북청군 중리유적의 집자리를 들수 있다.*

* 《고고민속》(조문) 1965년 2호, 35～38페지

이것은 집자리짜임새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는데서 대동강류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말하여주는것이다.

대동강류역 청동기시대 집자리들에서 나온 유물들가운데는 이 지역에서 먼저 생겨나 다른 지역으로 파급된것이라고 인정되는것들이 적지 않다. 그러한 유물로서는 가로자름면이 릉형인 뿌리나래활촉, 짧은 뿌리가 달린 단검, 턱자귀와 그것을 작게 만든 생김새의 끌, 달도끼와 별도끼, 겹아구리그릇 등 여러가지를 들수 있다. 그가운데서 달도끼와 별도끼, 겹아구리그릇에 대해서만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유적에서 발견된 달도끼와 별도끼는 무기로서의 실용성과 군사지휘봉으로서의 사명이 뚜렷이 안겨오게 세련된 생김새를 가진것들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그것들이 알려진 실례는 드물고 알려진 경우에도 시기적으로 늦거나 생김새가 세련되지 못한것이다.

공귀리유적 2기층에서는 정주시 석산리유적에서 나온것과 같은 2중식으로 된 별도끼와 함께 치차모양의 별도끼, 달도끼가 나왔지만 별도끼의 날들은 예리하지 못하고 투박한 생김새이며 달도끼도 변두리에 날을 세우지 않은것이다.

함경북도일대의 유적들인 창효리와 봉산리 월봉산무덤에서 나온 별도끼도 치차모양인것이고 무산 범의구석유적에서 나온 달도끼는 변두리에 날을 세우지 않은 고리모양인것인데 시기적으로 늦은것일뿐아니라 그 어느것이나 투박한 생김새이다.*

* 《고고민속론문집》 2권(조문) 사회과학출판사, 1970년, 6페지

강원도 통천군 내평리에서도 2중식별도끼가 알려졌지만 시기를 제대로 알수 없는것이다.

별도끼는 한강이남지역에서 아직 알려진 일이 없지만 달도끼는 얼마간 알려졌다. 그러나 시기적인 소속관계는 제대로 알수 없는것들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놓고보면 대동강류역에서 알려진 달도끼와 별도끼는 가장 전형적인 형식의것들이라고 볼수 있으며 그밖의 지역에서 알려진것들은 변형된 형식의것들로서 대동강류역의 문화적영향에 의하여 그 이후시기에 비로소 쓰인것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겹아구리그릇도 마찬가지이다. 대동강류역 청동기시대질그릇의 주류를 이루는 팽이그릇과 목이 달린 팽이그릇의 주되는 특성은 아구리끝을 겹싸넘겨 겹으로 만든것이다. 이러한 겹아구리그릇이 룡천군 신암리유적, 회령시 오동유적, 김해시 회현리유적, 제주도의 대흑산도유적 등을 비롯하여 조선각지의 유적들과 툰쟈춘 난샤유적, 상퉈쯔유적 등을 비롯한 랴오둥지방 그리고 일본 야요이시기의 유적들에서도 알려졌다. 여기의 겹아구리그릇들은 밑창과 몸체부분의 생김새를 비롯하여 세부의 생김새에서는 팽이

그릇과 얼마간 양상을 달리하는 점들이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동강류역의 특징적인 겹아구리그릇이 이후시기에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면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얼마간 변형되였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문화발전에서 선구자적이며 선도자적인 역할을 한 사실은 농업생산과 관련한 측면에서 더욱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대동강류역에서 벼농사, 오곡농사가 B.C. 4000 년기 전반기부터 진행되였다는데 대하여서는 우에서 이야기되였다. 사실상 이처럼 벼농사, 오곡농사를 일찌기 지은 실례를 조선의 그 주변지역에서 찾아볼수 없는것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정도이다. 그런것만큼 대동강류역은 벼농사, 오곡농사의 발상지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여기서 대동강류역이 벼와 콩의 원산지라는데 대해서만 좀 더 강조하려고 한다.

남경유적에서 벼가 발견되기 이전에 조선에서의 벼재배의 기원과 보급에 대하여 론한 글들에서는 그것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남쪽에서 시작되여 북쪽으로 보급된것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런것만큼 남경유적에서 발견된 벼는 지난날의 낡은 견해를 극복하고 벼재배의 기원 및 보급문제를 새롭게 해명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자료로 되였다. 최근에 단군조선초기에 해당되는 표대유적 3호와 23호집자리［3호집자리의 년대측정수치는 4980±540년전(열형광), 4668±649년전(핵분렬)이다.］에서 다시금 벼와 콩이 발견됨으로써 남경유적의 오곡자료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라는것을 더욱 뚜렷이 확증할수 있게 되였다.

남경유적과 표대유적의 벼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조선각지에서 발견된 벼알들은 하나와 같이 긴알종류와 뚜렷이 구분되는 짧은알종류라는데 주되는 특성이 있다. 지금까지 조선의 원시 및 고대유적들에서 알려진 벼알의 계측치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원시 및 고대유적들에서 알려진 벼알의 계측표

구분 / 유적명	길이 (㎜)	너비 (㎜)	비례	비고	자료출처
남경유적	4.50 4.20	2.50 2.50	1.8:1 1.7:1	20알의 평균치 53알의 평균치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년, 201페지 《력사과학》 1983년 2호, 36페지
표대유적	4.57	2.45	1.86:1	50알의 평균치	《표대유적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2003년, 141페지
송국리유적 54지구 1호집자리	4.20	2.37	1.79:1	395알의 평균치	《한국사론》13, 《한국의 고고학》Ⅱ 상, 1984년, 178페지
흔암리유적 12호집자리, 14호집자리	3.72	2.23	1.56:1 1.62:1	26알의 평균치	《력사공론》 1982년 1호, 105페지
김해조개무지유적	4.18 4.4	2.22 2.70	1.88:1 1.63:1	1937년 계측 1969년 계측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년, 201페지
부여유적	4.10	2.71	1.53:1	1969년 계측	〃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선의 여러 유적들에서 알려진 벼들은 형태학적특징은 물론 그 크기까지도 거의 비슷하다. 그것은 조선의 원시 및 고대시기의 벼들이 형태학적으로 단일한 품종이였을뿐아니라 그 생물학적특성도 같았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벼가 나온 남부조선지역의 유적들가운데서 년대가 비교적 오래다고 하는 유적은 경기도 려주군 점동면 흔암리유적인데 B.C. 1000년초로 편년되고있다. 최근에 경기도 김포와 충청남도 서산, 전라북도 익산 등지에서 B.C. 2000년경의 탄화미가 알려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 년대도 남경유적이나 표대유적의 벼년대에 비길바 못된다. 따라서 대동강류역에서 기원한 벼농사가 남부조선지역을 비롯한 각지로 파급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조선의 주변지역 유적들에서 알려진 벼알은 모두 짧은알종류이며 긴알종류는 찾아볼수 없다. 특히 서북규슈를 비롯한 일본의 죠몽문화 말기 및 야요이문화시기의 유적들에서 알려진 벼알들의 계측치를 보면 길이가 너비의 1.53～1.94배로서 2배를 넘지 않는 짧은알종류이다. 이것은 조선사람이 일본에 건너가 벼농사법을 배워주었다고 주장하고있는 일본학자들의 견해의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확증하여주는 자료의 하나라고 볼수 있다. 이처럼 대동강류역에서 기원한 벼농사법은 바다건너 일본에까지 보급되여 동방문화를 꽃피우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던것이다.

남경유적과 표대유적에서 발견된 콩도 세계적으로 콩재배의 력사가 가장 오랜 콩의 원산지가 다름아닌 대동강류역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지금까지 조선의 원시 및 고대유적에서 콩이 알려진 유적은 오동유적과 양근리유적을 비롯하여 여러곳이 되지만 남경유적이나 표대유적의것처럼 년대가 오랜것은 찾아볼수 없다. 따라서 콩재배가 처음으로 진행된 지역도 대동강류역이라고 말할수 있다.

콩의 생태와 진화과정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콩재배의 적

지는 북위 30～44° 사이이며 콩의 진화는 야생콩으로부터 반재배콩, 재배콩으로 진화되였는데 야생콩의 분포범위는 조선과 중국의 일부 지역, 로씨야의 원동(북위 56° 까지)지역, 일본 혹가이도지역에 국한되여있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 조선이 콩재배의 적지일뿐아니라 야생콩분포권의 중심지라고 말할수 있다.

재배콩단계에서 콩은 조선아종, 만저우아종, 중국아종, 인디아아종 즉 4개 아종으로 분화되였는데 그가운데서 조선아종이 품질이 제일 좋은 가장 발달한것으로 세계학계가 공인하고있다.

사실상 세계적으로 17세기전까지 콩을 재배한 나라는 조선과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몇개 나라에 불과하였다. 중국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 700년전에 고대조선족들이 활동하던 지역에서 콩을 가져다가 재배하면서 널리 퍼뜨렸으며 일본에서는 2 000여년전부터 조선이주민들에 의해 콩재배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인디아에서는 18세기말～19세기초에 이르러 비로소 콩재배가 시작되였다.

이러한 자료를 보면 대동강류역에서 발원한 콩농사법이 주변나라는 물론 세계각지로 보급된 사실과 함께 대동강류역의 신석기시대 및 청동기시대문화를 창조한 사람들이 인류의 문화발전과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이와 같이 대동강류역의 발전된 청동기시대문화는 남하, 북상하는 방식으로 전파확대되여 이웃지역의 문화에 뚜렷한 자욱을 남길 정도로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문화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바로 여기에서 문화의 발원지, 중심지로서의 대동강류역 청동기시대문화가 차지하는 독특한 문화사적지위가 과시된다.

대동강류역의 발전된 청동기시대문화는 세계 최초의 고대문명국가인 고조선문화의 전제로, 대동강문화의 기틀로 되였다.

5) 대동강문화의 사회력사적전제

대동강류역 원시문화의 발전과정은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증대됨에 따라 물질문화적재부가 더 많이 창조되고 풍부화되여온 과정이였을뿐아니라 사람들의 사회적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여온 과정이였다. 여기서는 구석기시대 후기에 발생한 모계씨족제도가 어떤 변천과정을 거쳐 원시공동체사회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였는가 하는것만을 밝히려고 한다.

구석기시대 후기이래로 수만년을 헤아리는 장구한 기간 유지되여오던 모계씨족제도의 부계씨족제도에로의 이행은 순식간에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모계씨족제도의 태내에서 부계제적인 요소가 움트고 자라나 지배적인 현상으로 되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야 하였기때문이다.

모계씨족제도의 태내에서 부계제적인 요소가 움트게 된 중요한 요인은 사회생활에서 남성의 사회적지위가 높아진데 있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창조적능력이 미약하고 생산력발전수준이 낮았던 원시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주되는 관심이 물질적부의 창조에 돌려지고 경제생활이 사회생활의 전면에 나서고있었다.

원시사회의 물질적부창조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먹는 문제해결을 위한 식료품의 획득이였다. 따라서 먹는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활동 즉 생업이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원시사회에서 채집과 사냥, 물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삼고있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것은 생산활동에서 획기적인 전진이였으며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변화를 가

져온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씨족집단의 먹는 문제해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농업의 주되는 담당자가 점차 공동체생활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다.

모계씨족제도의 태내에서 부계제적인 요소가 싹트게 된것도 농업의 주되는 담당자가 녀성으로부터 남성으로 바뀌여지고 경제생활에서 남성의 생산로동이 차지하는 비률이 커지게 되였으며 그에 따라 사회생활에서 남성의 사회적지위가 높아진것과 관련되여 있었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대동강류역에 퍼져살던 신석기시대 전기의 사람들은 괭이농사의 발전단계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런것만큼 농업의 생산성도 그리 높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유적들에서 알려진 유적유물들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에서 농업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생업으로 되여있었던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러 민속학적실례는 괭이농사단계에서 농업의 주되는 담당자는 녀성이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신석기시대 전기에 이르러 공동체생활을 경영하여나가는데서 녀성들이 여전히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있었으며 따라서 공동체생활에서 녀성들의 사회적지위가 높았고 모계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있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그러나 신석기시대 중기에 이르러 사람들의 창조적능력은 앞선 시기보다 훨씬 증대되였으며 농업에서 획기적인 진보가 이룩되였다. 그것은 이 시기에 괭이농사보다 비할바없이 우월한 보습농사, 갈이농사를 짓기 시작한것과 관련된다.

갈이농사에 의한 농업생산의 확대발전에서 남성은 결정적인 역할을 놀게 되였다. 갈이농사가 진행되면서 땅을 개간하여 부침땅을 마련하고 보습을 장만하여 밭갈이를 하는 등 농사일은 어렵고도 복잡한것으로 되였으며 남성로력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원시적인 농사에 종사하는 주민들과 관련한 많은 민속학적자료에

의하면 나무를 찍고 뿌리를 뽑으며 큰 돌을 치운다든가 밭갈이를 하는 일을 비롯하여 힘든 농사일은 전적으로 남성들이 감당하고 있었다.

기본생업인 농사일뿐아니라 짐승사냥과 물고기잡이는 이 시기에 와서도 여전히 남성들이 담당수행하였던것이다.

이와 같이 집단의 먹는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활동에서 남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생산의 조직과 지휘를 비롯하여 공동체의 관리운영에서 남성들의 발언권이 커지게 되였다. 다시말하여 생산에서 남성의 우위적역할은 그들의 사회적지위를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던것이다.

공동체생활에서 남성의 사회적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혼인풍습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많은 민속학적실례는 이 시기의 혼인풍습이 남성이 녀성이 있는 곳으로 가던 종전과는 달리 녀성이 남성이 있는 곳으로 오는 풍습으로 바뀌여진 사실을 전한다. 그리하여 발전된 모계씨족제도에서 특징적인 대우혼적가족관계는 점차 일부일처제로 넘어가게 되였다. 그것은 늘어난 살림과 재부를 생산에서 주되는 역할을 하는 남성편으로 물려주어야 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일어난 현상이였다.

이와 같이 녀성이 높은 사회적지위를 차지하고있던 모계제적인 사회관계는 뒤흔들리게 되고 부계제의 싹이 움트게 되였던것이다.

대동강류역에서 신석기시대 중기에 싹트고있던 부계제적인 요소가 사회생활전반에 보편화되여 부계씨족제도가 이루어진것은 신석기시대 후기였다고 인정된다.

남경유적과 표대유적, 금탄리유적을 비롯한 신석기시대 후기의 여러 유적에서 발굴된 자료들은 당시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가일층 발전하였으며 그들이 창조한 사회적재부가 앞선 시기보다 훨씬 증대된 사실을 보여준다.

신석기시대 후기의 사람들도 다양한 생산활동을 벌리였으나 그들의 기본생업은 여전히 농업이였다. 이 시기에 농업생산이 증대된 사실은 우에서 본바와 같이 표대유적 86호, 89호집자리, 남경유적 31호집자리 등에서 여러 개체분의 갈돌과 함께 100여개체 또는 200여개체분에 달하는 질그릇이 나온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뿐만아니라 여러 유적에서 나온 질그릇가운데는 술과 같은 주류나 음료를 만들어 리용하는데 쓴것으로 인정되는 용기들도 있다. 실례로 남경유적 37호집자리에서 나온 목이 있는 항아리(높이 42㎝)라든가 금탄리유적 10호집자리에서 나온 물따르개가 달린 그릇(높이 36.4㎝)은 술과 같은 음료를 담아두거나 만드는데 리용된것으로 보아진다.*

* 《조선고고연구》(조문) 1999년 2호, 8페지

그리고 남경유적 31호집자리에서 나온 고뿌나 잔같은 자그마한 그릇들은 술이나 음료를 따라 마시는데 쓰이였다고 볼수 있다. 당시 사람들이 주류같은것을 만들어먹게 된것은 알곡생산이 늘어나 살림에서 여유가 생기게 된것과 관련된다고 말할수 있다.

농업과 함께 사회적부를 늘이기 위한 이 시기 사람들의 생산활동에서 주목되는것은 질그릇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늘어나 질그릇을 많이 생산하게 되면서 질그릇생산이 하나의 분업으로 분화되였다고 인정되는 사실이다.

이 시기에 질그릇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된것은 농업의 발전으로 하여 많은 낟알이 생산되게 됨에 따라 그것을 허실함이 없이 보관할수 있는 부피가 큰 저장용그릇이 많이 요구되였으며 또한 사람들의 식생활이 풍족해지면서 질적으로 만들어진 다종다양

한 식기류들이 더 많이 요구되게 된것과 관련된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길은 로동의 전문화에 의하여 로동생산능률을 장성시킬수 있는 분업에 의한 대량생산이였다.

우에서 이미 본바와 같은 표대유적에서 발견된 질그릇가마터는 당시의 질그릇생산이 자급자족을 위한 부업적성격을 띤 소규모의 생산이 아니라 질그릇제작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수공업자들이 있어 질그릇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고있었던 사실을 반영한다.

신석기시대 후기에 농업생산이 증대되고 질그릇제작이 분업화된것은 이 시기에 잉여생산물의 축적이 이루어졌으리라는것을 가늠할수 있게 한다. 사회적재부의 증대에 따르는 잉여생산물의 출현은 공동체생활에서 부계씨족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였다.

부계씨족공동체의 사회관계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늘어난 재부와 살림살이를 남성이 주관하고 그 상속도 남성편으로 이루어지게 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부계씨족제도의 확립으로 모계씨족공동체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있던 녀성의 사회적처지는 전혀 달라지게 되고 녀성은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되였다. 녀성은 가부장적가족의 살림살이에서 예속적인 존재로 되였으며 가족안에서 처와 아이들은 가장인 남성의 관할하에 들어가게 되였다.

한편 부계씨족공동체의 살림살이에서 가족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하나의 생활단위로 되였다. 그리하여 모계씨족공동체에서는 공동체생활이 씨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였으나 부계씨족공동체에서는 생활단위가 가부장가족으로 분화되게 되였다.

이러한 생활단위의 분화는 앞선 시기보다 생산력이 발전되여 가족단위의 로동으로 집단의 생활수단을 보장할수 있게 된것과 관련되여있었다. 신석기시대 후기의 사회적부의 증대정형은 당시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능히 생활수단을 생산할수 있는 생산력발전수준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말할수 있다.

부계씨족공동체의 생활단위로 된 초기의 가부장적가족은 규모가 비교적 큰 가족집단으로 이루어져있었다. 일반적으로 부계씨족사회의 초기에는 공동체생활이 가부장적세대공동체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였다. 민속학적자료에 의하면 세대공동체는 한사람의 아버지로부터 생겨난 자식들과 손자들, 그들의 처와 아이들, 때로는 사위와 그 가족이 망라되는 2～3세대의 가까운 친척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였다.

씨족안에서 분화된 세대공동체는 부계씨족공동체의 생산 및 소비의 기본적인 세포로 되였으며 점차 독자적이고도 경제력을 가진 생활단위를 이루게 되였다. 세대공동체살림살이의 기초를 이룬것은 씨족으로부터 분할받은 토지와 기본적인 생산도구의 집단적소유였으며 집체적인 생산과 소비였다.

세대공동체의 성원이 늘어나 규모가 확대되면서 세대공동체는 소가족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갈라져나온 가족집단은 하나의 생활단위로 되고 그것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게 되였다. 실례로 금탄리유적 2기층의 집자리 4개 가운데서 11호집자리는 공동체의 공동목적에 리용되던 장소였고 나머지 집자리(5호, 9호, 10호집자리)들은 가족집단들이 나뉘여 살던 살림집이였다고 인정된다.

세대공동체에서 갈라져나온 가족집단은 점차 하나의 경제적 및 사회적집단을 이루게 되였다. 세대공동체는 씨족공동소유지의 일부를 분할받아 농사를 지었는데 경작은 모든 가족들이 공동으로 하였지만 수확물의 분배는 분가한 가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였다.

이와 같이 대동강류역에서는 구석기시대 후기에 발생한 모계씨족제도가 신석기시대 전기에는 그 발전의 절정에 이르게 되고 신석기시대 중기에는 부계적인 사회관계의 새로운 요소가 발생하여

그것이 후기에 이르러 점차 지배적인 관계로 되였다.

대동강류역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들은 이 시기에 원시사회제도의 붕괴를 초래한 기본요인과 객관적조건들이 이루어져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생산력의 발전에 따르는 잉여생산물의 축적, 사회적분업의 형성, 교환관계의 발전 등 원시공동체적인 관계를 허물게 하는 객관적조건들이 성숙되여있었다.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사회적재부가 증대된것은 무엇보다도 생육조건이 서로 다른 오곡을 널리 재배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당시의 농업생산이 매우 높은 발전수준에 이르렀던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이다.

그것은 또한 수공업이 사회적분업을 이루게 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신석기시대 후기에 이미 질그릇생산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수공업자들이 있어 그 생산을 큰 규모로 진행하였다는데 대하여서는 우에서 살펴보았다. 그런것만큼 청동기시대에 이르러서도 질그릇생산은 전문수공업자들에 의해 진행되였다고 보아야 한다.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새롭게 나타난 청동제품들은 전문화된 기술집단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공업제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대동강류역에서는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청동야금업이 독자적인 하나의 수공업분야로 되였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잉여생산물의 증대는 교환관계가 발전한 사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조선에서 상품화폐관계는 오래전부터 발생발전하여왔다.

대동강류역의 팽이그릇시기 집자리들에서 발견된 돌돈은 석기제작을 위한 석재이면서 동시에 물물교환에서 등가물로 리용되던 원시돈의 하나였다고 인정되고있다. 이런 돌돈이 신흥동유적에서는 거의 모든 집자리에서 나왔을뿐아니라 지어 표대유적

1기층의 한 집자리에서는 무려 20여개나 나온 실례도 있다.

돌돈이 나타나는것은 이 시기에 사유재산이 형성되는데 따라 물물교환이 더욱 발전되여 교환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원시공동체적인 사회관계를 허물게 하는 객관적조건의 성숙을 보여주는 이러한 자료들은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사람들이 원시사회제도를 허물것을 요구하게 되였으리라는것을 짐작할수 있게 한다.

원시사회제도의 붕괴를 초래한 보다 중요한 요인은 공동로동으로 물질적부를 생산하여 균등분배하고 공동으로 소비하는 제도를 허물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그들이 우세한 세력을 이루게 된데 있다.

민속학적자료에 의하면 부계씨족사회형성초기에 사회생활의 기본단위를 이루고있던 세대공동체는 생산활동의 확대와 다양화 및 물물교환의 발전에 따라 점차 생활단위로서의 의의를 상실하게 되였으며 원시사회말기에 이르러 생활단위는 가족, 소가족으로 분화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들에 의하면 대동강류역에서 가부장적세대공동체로부터 소가족으로의 분화과정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일찍 진행되였을뿐아니라 청동기시대에는 그것이 이미 완성단계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한 사람이 차지하는 거주공간을 3㎡로 보고 몇개 대표적인 부락터유적에서 드러난 집자리들의 가족수를 추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황주군 침촌리 유적의 집자리

1호집자리 22.65㎡ 7명

2호집자리 20.59㎡ 6명

3 호집자리 약 24 ㎡ 8 명

② 무산 범의구석유적 2 기층의 집자리

15 호집자리 46.75 ㎡ 15 명
20 호집자리 18.8 ㎡ 6 명
35 호집자리 46.64 ㎡ 15 명
40 호집자리 약 60 ㎡ 20 명

③ 강계시 공귀리유적 1 기층의 집자리

2 호집자리 71.52 ㎡ 23 명
3 호집자리 63 ㎡ 21 명
6 호집자리 70 ㎡ 23 명

* 《조선전사》 1 (조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1 년, 263～264 페지

침촌리유적의 집자리들은 한쌍의 부부와 그들의 자식들로 이루어진 소가족이 살던것이지만 범의구석유적이나 공귀리유적의 집자리들은 여러쌍의 부부와 그들의 자식들로 이루어진 가부장적세대공동체가족이 살던것이라고 볼수 있다.

세대공동체의 소가족으로의 분화는 원시사회말기에 가족단위의 개별적로동으로 생활수단을 능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을뿐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리익을 자각하고 개인적인 물질적관심성을 가지게 된것과 관련되여있었다.

처음에 세대공동체안의 소가족은 자기의 살림과 재산을 가지고 생활하는 소비단위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로동생산성에서 개인들의 역할의 차이가 현저해지고 개인적인 물질적관심성을 가지게 된 조건에서 역할에 따라 분배몫에서 차이를 두는데로 나갈것

을 요구하게 되였다. 역할에 따라 차이를 두는 분배가 실현되면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에서의 차이를 가져왔다.

부모와 그 자식들로 이루어진 소가족은 경리활동의 독자성뿐아니라 생산수단인 토지를 비롯한 모든 재산을 소유한 사회생활단위로 되였다. 사회관계개선의 견지에서 볼 때 사유재산의 최초의 형태는 토지의 사적소유였으며 그것은 기본적인 생산도구와 원료, 재료 등을 모두 사유재산으로 만들어버리게 하였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유재산이 만들어지는 파정은 매개의 가족이 공동체에서 분여받은 토지의 재분할을 반대하여 그것을 틀어쥐고 내놓지 않으며 가족의 사유재산으로 만드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가족살림살이의 관리자인 가장은 자기의 사회적지위를 리용하여 가족이 소유하고있는 재산전부를 사유재산으로 만들고 가족전원을 복속시켜 가족안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가장의 이러한 지향은 공동체적 집단적원리에 의한 생활단위였던 세대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실현될수 없었다.

이러한 낡은 사회관계와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지향사이의 모순은 전 재산의 분할을 동반하는 소가족으로의 분렬, 세대공동체의 분해에 의하여 해결될수 있었다. 그리하여 소가족은 독자적인 경리활동단위로 되였을뿐아니라 사유재산의 직접적인 소유자로 되였다.

가족을 단위로 하여 생산수단이 점유되고 그에 기초하여 물질적부가 생산되게 되자 사유재산을 더 많이 가진 가족과 적게 가진 가족이 생기게 되였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에서의 차이는 빈부의 차이를 낳게 하였고 앞선 시기에는 볼수 없는 재산상불평등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사회는 부유한자와 가난한자로 분화되게 되였다.

씨족의 테두리안에서 발생한 부유한자와 가난한자의 분화는

씨족의 운명에 반영되지 않을수 없었으며 공동체적인 관계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부자로 된자들은 자기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그 소유권을 옹호하여나섰으며 가난한자를 예속시키고 착취하는데로 나갔다. 결국 사적소유권은 불로소득을 얻는 경제적특권으로 되였으며 사회성원들은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청동기시대 집자리와 무덤들에서는 당시 사람들사이에 빈부의 차이가 현저하였던 사실을 찾아볼수 있다. 이 시기의 집자리들에는 면적이 40～50㎡정도인 큰 집자리도 있고 15～20㎡정도인 자그마한 집자리도 있는데 큰 집자리에서는 여러가지 유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작은 집자리에서는 유물도 적게 나오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 《팽이그릇시기 집자리유적에 관한 연구》(조문) 사회과학출판사, 2003년, 207～208페지

또한 이 시기의 무덤에는 많은 품과 로력을 들여서만 만들수 있는 고인돌무덤도 있고 보다 손쉽게 만들수 있는 돌관무덤이나 움무덤 같은것도 있다. 이것은 이 무덤에 묻힌자들의 재력의 차이를 반영하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민속학적자료에 의하면 이 시기에는 부유하고 권세를 가진자들이 씨족의 상층을 이루고있었다. 종전에는 씨족의 상층을 이루는데서 년장자순위가 기본표징으로 되고있었으나 이제와서는 재부가 그것을 대신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씨족의 종전 장로는 밀려나게 되고 부유한자가 장로로 된다. 그리고 지난날 씨족적전통, 씨족적집단주의 및 민주주의의 대변자였던 씨족평의회와 씨족장은 모두 씨족의 부유한 상층부에 소속되여 저들의 사적소유의 리익을 대변하게 되였다.

씨족의 테두리안에서 본것과 같은 원시공동체적관계의 붕괴

및 새로운 계급관계는 종족적인 범위에서도 나타나게 되였다. 사회의 경제적분화는 종족안의 씨족들사이에서도 형성되였다. 씨족들은 부유한 씨족과 가난한 씨족으로 갈라졌고 부유한 씨족의 우두머리들이 종족의 상층을 이루게 되였다. 그들은 종족평의회의 성원으로 되여 종족의 추장을 선출하였다. 종족의 우두머리로 된 추장은 모든 수단을 다하여 자기자신과 자신의 근친자들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이 종족의 모든 토지의 소유자이며 씨족장은 씨족에 분할된 토지에 대한 관리자라고 선포하였다.

한편 원시공동체사회의 말기에는 경제적특권과 함께 정치적특권이 생겨나게 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업이 독자적인 사회적기능으로 갈라져나오고 공동생활을 보장하는데서 공동체의 지휘와 관리를 맡은 추장의 역할이 커지게 되였다. 추장의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그의 권한도 커지게 되였으며 그의 지휘권은 점차 사람들에 대한 지배권으로, 정치적특권으로 전환되였다. 그리하여 추장을 중심으로 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통치계급 즉 정치적지배계급이 형성되고 사회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갈라지게 되였던것이다.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종족들사이에는 경제적원인을 기본으로 하는 반목이 발생하고 증대되였다. 부유한 종족의 상층은 자기의 재부를 늘이려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남의 재물을 략탈하는데서 찾게 되였으며 략탈을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였다.

종족들간의 략탈전쟁이 벌어지기 전에도 씨족들사이에서 충돌은 자주 있었다. 그러나 그때에는 씨족의 자체방위가 자기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였으며 밖으로부터의 침습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형태이기도 하였다. 씨족의 불가침성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으로 굳어져온것만큼 침해는 피해자측의 극심한 반항을 야기

시켰다. 비록 씨족성원가운데 한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복수에는 전 씨족이 참가하였다. 씨족의 자체방위는 흔히 《피의 복수》형태를 띠고있는데 그것은 《영예》롭고도 《신성》한 의무로 되고있었다.

민속학적실례는 《피의 복수》를 진행할 때 《동해보복》형태를 취하고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씨족성원이 부상을 입거나 살해되였을 경우에 대방도 그에 맞게 피를 흘리거나 살해되여야 한다는것이 당시 사람들사이에 지배하고있던 관념이였다.

부유한자들이 씨족상층을 이루게 되면서 토지를 쟁탈하며 씨족의 경유지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충돌도 일어나게 되였으며 씨족의 자체방위를 위한 피의 복수와는 구별되는 무장충돌이 벌어지게 되였다.

종족들간에 벌어진 무장충돌들은 씨족들간에 벌어졌던 충돌과는 그 규모와 성격이 판이한 략탈전쟁이였다. 종족들간에 벌어진 전쟁은 치부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것이였던것만큼 지극히 략탈적이였으며 대방을 파멸시키는 엄혹한 성격을 띠고있었다. 전쟁에서 승리한 종족은 패배한 종족의 재물을 모조리 략탈하고 포로는 노예로 삼거나 죽였을뿐아니라 촌락을 모두 초토화하고 병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대동강류역 청동기시대 부락터유적의 집자리들이 대부분 불탄것들이라는 점이다. 표대유적과 남경유적, 석탄리유적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청동기시대 부락터유적의 집자리들은 대부분 불에 탄것들이다. 그것은 종족집단들사이의 전쟁으로 하여 촌락전체가 초토화된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것은 청동기시대의 집자리들에서 알려진 유물갖춤새에 무기류가 많은 비률을 차지하고있는 점이다. 이 시

기의 집자리들에서 나온 활촉이나 창끝, 단검 등 무기류들은 짐승사냥에 쓰이던것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생김새를 가진것들로서 그 어느것이나 다 전투전용의 실용성을 가진것들이다.

집자리에 따라 발견되는 무기의 종류가 얼마간 다른것은 사실이지만 그 어느 집자리에서나 한두가지 이상의 무기류가 발견된다. 이것은 빈번히 벌어지는 전쟁의 요구에 맞게 집집마다 무기류가 갖추어져있었던 사실과 함께 전쟁에 참가하는것이 집단전체 성인남자들의 의무로 되여있었던 사회상을 반영하는것이라고 인정된다.

또한 주목되는것은 무기류가운데 달도끼와 별도끼와 같은 군사지휘봉이 보인다는 점이다. 표대유적과 석탄리유적을 비롯한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 유적들에서는 우두머리들의 상징적이면서 실용적인 무기류인 달도끼와 별도끼가 발견되였다. 그것은 당시에 벌어진 전쟁이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군사적력량과 군사들을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하는 군사령관에 의해 수행되였다는것을 가늠할수 있게 한다.

민속학적자료에 의하면 이 시기의 씨족과 종족의 최고지도기관은 전투력을 가진 모든 성인남자들이 참가하는 민회였다.

이처럼 군사행동과 전쟁을 위한 조직이 사람들의 생활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씨족 및 종족제도의 민주주의적요소가 보존되여있는 원시사회말기의 이 시기를 군사민주주의단계라고 한다.

군사민주주의단계의 사회생활에서 특히 지적하여야 할것은 정치활동이 뚜렷해진것이다.

이 시기의 사회생활에서 보게 되는 정치활동가운데서 무엇보다먼저 들어야 할것은 공동체를 관리하기 위한 추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조직의 활동이다. 그것은 고조선의 건국설화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

설화의 환웅에 대한 이야기는 고조선국가성립 이전단계의 사회상의 일단을 반영한다.*

* 《조선전사》 2 (고대편) (조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년, 21페지

설화에 남성인 하늘신으로 등장한 환웅은 하늘신을 믿던 종족의 추장을 형상한것으로 인정되는데 그가 무려 3 000명을 거느렸다는것은 추장으로서 많은 수의 공동체성원을 통솔하고있었던 사실을 표현한것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풍백, 우사, 운사들로써 곡식, 생명, 질병, 형벌을 맡게 하고 360여가지의 일을 맡아보며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는것은 위계에 따르는 정치조직에 의하여 공동체가 관리운영되였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풍백, 우사, 운사들은 공동체의 일반성원들과 구별되는 씨족, 종족의 우두머리들로서 추장인 환웅의 지휘밑에 공동체의 관리운영에 참가하고있었던것이다.

한편 군사행동이 종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종족조직이 출현하여 그것이 일종의 군사조직으로 전환되였다. 빈번한 전쟁에서 공격과 방어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종족간에 서로 통합하는것이 유리하였다. 친족적인 종족들은 동맹을 형성하였고 비친족적인 종족들은 련합을 이루었으며 그렇지 못한 종족들은 산산이 흩어져 자기의 존재를 끝마쳤다.

처음에는 종족동맹이나 종족련합체안에서 종족들사이의 관계가 평등하였다. 행사할수 있는 권리와 수행하여야 할 의무도 대체로 비슷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종족동맹은 점차 위계제의 구조를 가지게 되였다. 종족련합은 물론 종족동맹의 경우에도 그 동맹에서 맹주의 역할을 노는 종족을 중심으로 하고 그 종족에 예

속된 《손아래》 종족들로 하나의 정연한 위계제의 구조가 이루어졌다.

대동강류역에서 국가성립전야에 종족동맹이 이루어져있었던것은 고조선 건국설화와 고고학적자료에서 찾아볼수 있다.

건국설화에 나오는 곰과 범은 고조선족을 이루고있었던 일부 씨족들의 이름이라고 볼수 있으며 그들이 한 굴에서 살았다고 하는것은 두 씨족이 하나의 종족을 이루고있었다는것을 표현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리고 녀인으로 된 곰이 환웅과 혼인을 맺었다는것은 곰씨족이 속한 종족과 환웅이 추장이였던 종족이 련합하여 동맹을 형성한 사실을 표현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우에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종족동맹을 형성하는 경우에 동맹에서 맹주의 역할을 논 종족과 그에 예속된 종족사이에는 위계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설화에 반영된 종족동맹에서 맹주의 역할을 논것은 환웅이 추장을 한 종족이였으며 곰씨족이 속한 종족은 그의 지휘밑에 놓인 예속된 종족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추장인 환웅밑에는 여러 씨족, 종족의 우두머리들이 그 휘하에 위계를 이루고있었다. 그러므로 곰씨족이 속한 종족과 씨족의 우두머리들은 환웅의 휘하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었을것이다.

그런데 지난날에는 한개 종족의 씨족우두머리로서 대등한 지위에 있었으나 환웅의 밑에서는 곰씨족이 범씨족보다 우위에 있었을것이라고 짐작된다. 그것은 하늘신에게 사람이 될것을 함께 빌었으나 사람(녀인)으로 된것은 곰이였으며 그가 환웅과 혼인을 맺어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추측할수 있다. 말하자면 하나의 종족인 곰씨족과 범씨족의 우두머리들은 다같이 하늘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환웅이 추장을 하는 종족과 련합할것을 원하였으나 거기서 보다 적극성을 보인것은 곰씨족이였으며 그 우두머

리는 마침내 환웅의 측근자로 되였다고 해석된다.

이처럼 고조선국가성립직전의 사회적배경을 전하여주고있는 설화는 당시 고조선족이 위계제를 갖춘 전문적인 정치조직에 의하여 사회가 관리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대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중서부조선일대에 분포되여있는 팽이그릇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청동기시대문화는 이 지역의 선행한 신석기시대문화인 궁산문화를 직접 계승한 문화로서 이웃지역의 문화와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하고 이채를 띠는 문화이다. 이 문화에서는 페쇄적이라고 할 정도로 공고하게 자기의 고유한 문화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확대전파되기만 한 문화의 특성이 짙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문화는 단군조선을 건립하는데서 주도적역할을 한 박달종족이 창조하였고 박달종족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종족동맹의 고유한 문화였다고 말할수 있다.

이와 같이 종족동맹이 출현하고 군사위계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권력기구를 비롯한 문명사회의 고유한 정치조직, 사회의 상층구조가 형성될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던것이다. 이것은 결국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에서 국가성립의 사회력사적 전제가 충분히 마련되여있었으며 따라서 이 지역에서 첫 고대국가 단군조선이 건립된것은 결코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체발전의 필연적인 결과라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2. 대동강문화

1) 대동강류역에서 첫 고대국가—단군 조선의 건립

(1) 단군에 의한 고조선의 건립

평양에 태를 묻고 출생한 단군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에 있던 박달종족을 중추로 하고 이웃의 여러 종족들을 흡수통합하여 형성된 박달종족동맹에 기초하여 고조선을 세웠다.

단군에 대한 자료들은 그의 출생과 건국활동에 대한 사실들을 전하여주고있다.

단군이 출생하기 이전시기부터 오늘의 평양일대에는 하늘신을 최고의 신, 조상신으로 숭배한 종족이 동물을 신성한 존재로 믿고있었던 종족을 통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있었다. 이 공동체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한것은 하늘신을 조상신으로 믿고있던 종족이였으므로 이 종족의 우두머리가 공동체의 추장으로 되였다. 그 마지막의 추장을 《삼국유사》나 《웅제시주》에 인용된 《고기》의 단군신화에서는 환웅으로 전한다.

신화에서 환웅을 하늘에서 내려온것으로 묘사한것은 당시 그가 속한 종족이 하늘(해)신을 조상신으로 믿었던데로부터 자기들의 우두머리를 하늘이 낸 사람으로 숭배한 사실을 신비하게 표현한것이였다.

환웅은 동물을 조상신으로 숭배하면서 이웃부락에 살고있었던 종족의 우두머리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이들사이에 태여난것이 바로 단군이였다.

단군은 이처럼 그 당시로서는 가장 권위있고 명망높은 가문에서 태여났다. 단군무덤에서 드러난 단군뼈의 년대측정에 의하면 그가 태여난것은 지금(1994년 당시)으로부터 5011±267년전이였다.

단군이 태여난 곳은 오늘의 평양이였다.

평양이 단군의 출생지였다는것은 우선 평양시 강동군에 단군릉이 있다는 사실이 잘 말해준다. 예로부터 조선의 선조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고향에 묻는것을 하나의 풍습으로 여겨왔다.

평양에 단군릉이 있는것도 바로 단군이 평양에서 태여났다는것을 전하는 산 증거로 된다고 볼수 있다.

평양이 단군의 출생지였다는것은 《삼국지》나 《후한서》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삼국지》나 《후한서》의 예전에는 《예》지방에서 《락랑단궁》이 생산되였다고 전하고있는데 《락랑단궁》의 《락랑》은 고조선의 중심지인 오늘의 평양일대를 가리키던 지명으로서 지금까지도 평양시 락랑구역이란 행정구역명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그리고 단궁이란 글자그대로 해석하면 박달나무활이란 말인데 박달나무는 옛날에 활재목으로 쓰이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박달나무를 흔히 박달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박달은 단군의 출신종족명이다. 그러므로 고구려에서 생산된 유명한 활을 족명을 달아 맥족이 만든 활이란 뜻에서 맥궁이라고 하였던것과 같이 단궁도 박달종족이 만든 활이란 뜻에서 쓰인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렇다면 《락랑단궁》은 평양지방에서 산 박달종족이 만든 활이란 뜻으로 해석할수 있으므로 박달종족이 평양지방에서 살았다는 증거를 얻게 된다.

그런데 평양지방의 강동땅에는 고려때에 박달곶촌이란 지명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대박산으로 불리는 산이 있다. 박달곶은 박달종족이 산 고장을 이르는 지명이고 대박산의 박산은 산의 옛 조선말이 달이였으므로 옛날에는 박달로 불리웠을것인데 그것역시 단군이 태여난 종족명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박달곶촌이나 대박산의 이름에서 박달종족이 평양근교의 강동땅 대박산일대에서 살았다는것을 알수 있다. 단군이 박달종족의 태생이였으니 그가 태여난곳도 바로 이 고장이였다.

민족의 시조 단군이 평양에서 태여났으므로 평양이야말로 조선민족의 성지라고 할수 있다.

단군이 태여나고 성장하던 때는 종족간의 전쟁이 빈번하던 시기였다. 이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여 다른 종족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술에 능해야 하였다.

그때문에 단군도 유년시절과 청년시절에 활쏘기와 창쓰기, 칼쓰기 등 무술을 련마하는데 열중하였다. 묘향산의 향로봉에 단군이 무술훈련을 하였다는 단군대와 활쏘는 과녁으로 삼았다는 천주석에 관한 전설이 있고 구월산에 단군이 도를 닦았다고 하는 단군대와 관련한 전설들이 있는것은 단군의 행적을 유명한 산들의 기묘한 바위와 관련시켜 전한것이였다.

단군의 생애와 활동에서 특기할만한 사변은 그가 건국위업을 수행한것이다.

이 력사적사변은 결코 하루이틀에 이루어진것이 아니였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사회의 리치를 알기 위해 애써온 단군에게 있어서 청년시절에 특별한 관심사로 된것은 공동체가 안고 있는 일련의 심각한 사회적문제들이였다.

단군이 성장하던 시기 사회성원들은 공동체의 추장(환웅), 씨족적귀족들(풍백, 우사, 운사)과 일반공동체성원들(무리 3천)로 구분되여있었다.

공동체추장과 씨족적귀족들은 일반공동체성원들우에 군림한 특권층들이였으며 공동체추장은 제사와 정치를 겸행하였다.

당시 사회는 정착농업을 기본으로 한 농경사회였으므로 농업이 생산의 기본분야를 이루고있었다. 보다 많은 재부를 얻기 위한 종족간의 정복전쟁과정에서 전리품을 독점하여 부유해진 특권층과 일반공동체성원들사이의 빈부의 차이는 커졌고 그에 따라 종족간의 대립이 격화되였으며 전쟁포로들이 노예로 전락되였다.

그리하여 종래의 혈연적뉴대대신 지배하는 종족과 지배받는 종족, 부유한 특권층과 노예를 비롯한 가난한 공동체성원들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점차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여갔으며 이와 같은 대립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벌이 비록 맹아적형태로나마 적용되였다. 이제는 원시적인 공동체가 더는 유지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이르렀다.

공동체추장의 아들로 태여나 성장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사회현실을 목격하면서 출로를 탐색하던 단군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추장이 된 후 공동체의 정치기구들을 계급간, 종족간의 대립을 억제하기 위한 폭력기구로 점차 변형, 발전시켜나갔다.

단군은 지금까지 공동체추장이 사회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던 중요한 일(곡식, 생명, 병, 형벌, 선악)들을 분담하여 《곡식을 주관하는 벼슬, 병을 주관하는 벼슬, 형벌을 주관하는 벼슬, 선과 악을 주관하는 벼슬과 관리들을 맡아보는 벼슬》을 두었다.

이와 함께 공동체추장이 직접 거느린 부대를 골간으로 하여 지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군대를 새로이 창설하고 군사를 맡아보는 벼슬을 두게 하였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것을 비롯한 신앙행사들을 종래에는 공동체추장이 주관하였지만 후세에 천군과 같은 인물이 이제와서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맡아보게 되였고 신앙행사들도 지배계급의

통치에 유리하게 리용되였다.

이러한 사회적변혁에 기초하여 단군은 B.C. 3000년기초에 도읍을 평양성에 정하고 동방에서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다. 나라의 국호를 옛 기록에서는 《조선》이라고 하였고 건국자를 《박달(배달)임금》이라고 하였는데 후세에 와서 한자로 옮겨쓰면서 《단군》이라고 하였다.

원래《박달》이란 단군의 아버지켠종족이 오래전부터 자기의 종족명으로 불러온 명칭이였다. 하늘의 해를 이글이글타는 불덩어리로 생각한 이 종족의 원조상들은 해를 가리키는《불(발, 박)》을 종족명으로 하였던것인데 그후 자기들이 살고있던 고장을 가리키는 산의 옛 조선말 《달》을 덧붙여 자기들을 《박달》족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불(발,박)》이나 《박달》이란 말이 지금에 와서는 《밝음(광명)》, 해가 솟는《밝은 산》이라는 극히 평범한 의미로 해석되지만 당초 이 종족명이 뜻하는 의미는 우리의 조상은 해(불)이고 자기들(종족)자신은 해의 후손이므로 천하에서 으뜸가는 종족이라는 강한 자부심에 뿌리를 두고 생겨난것이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단군》이란 그 명칭속에 조선의 건국시조는 하늘이 낸 임금이라는 보다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고 볼수 있다. 이후 《불(발,박)》, 《박달(배달)》은 조선민족을 총칭하는 명칭으로 쓰이게 되였다.

나라를 세운 후 단군은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거나 길쌈, 집짐승기르기와 같은 생업에 열중하게 하였고 지난날의 락후한 생활방식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문명생활을 하도록 가르쳤다. 옛 기록에서 단군이 사람들에게 머리를 땋는 법을 배워주고 음식을 먹거나 옷을 입고 집을 짓고 사는데서 임금과 신하, 남자와 녀자사이에 구별이 있도록 례의를 가르쳐주었다고 한것은 그러한 사실의 일단을 전한것이였다.

이러한 변혁을 통하여 나라의 경제력을 키우고 문화를 발전시켜 국력을 강화한 단군은 주변종족들을 통합하면서 령토를 넓혀나갔다. 《고려사》나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옛 기록들에서 강화도 마리산(미니산)에 단군이 하늘제를 지냈다고 하는 참성단이 있고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삼랑성이 있다고 한 전설자체는 단군시대에 고조선의 령역이 확장되였던 사실에 기초하여 꾸며진것이였다고 인정된다.

원래 평양일대를 기본으로 한 그리 넓지 않은 지역에서 작은 나라로 발족한 고조선은 단군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광대한 령토를 가진 국가로 장성하기 시작하였다.

단군의 한생은 조선민족사의 전기간에 비하면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가 동방에서 처음으로 국가를 세움으로써 조선에서 장구한 원시시대는 끝나고 조선민족은 국가시대, 문명시대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것은 단군이 민족앞에 이룩한 최대의 공적이였고 조선민족사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2) 단군조선의 국가적성격

B.C. 3000년기초에 단군에 의하여 세워진 고조선이 조선에서 최초의 고대국가였다는것은 최근에 새로 발견된 고고학적자료와 옛 문헌사료에 의하여 확증된 력사적사실이다.

국가가 원시사회의 사회조직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폭력과 결합된 특수한 사회조직, 폭력에 기초한 권력기구라는데 있다.

국가는 그 관할령역안에 있는 전체 사회성원들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폭력에 기초한 권력기구를 가지게 된다.

사회가 적대되는 계급으로 갈라져있고 국가주권이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조건에서는 국가주권이 폭력에 의거하

는 강압적인 방법으로만 피지배계급을 자기의 의사에 복종시킬수 있다.

전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는 그것을 통치기구와 관료체계를 통하여 실현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징표의 하나는 통치기구와 관료체계이다.

물론 통치기구와 관료체계는 고고학적유물로 남지 않기때문에 문헌사료를 통하여 돌이켜볼수밖에 없다.

고조선의 첫 왕조인 단군조선의 국가형태는 세습적인 군주제였다.

단군조선시기에 나라의 최고통치권은 군주(임금, 왕)에게 속해있었다. 군주는 최고의 재판관, 지상의 립법자, 하늘신숭배의 주재자, 군대에 대한 최고통솔자로서 정치, 경제, 군사, 대외관계 등 전반에서 전제권력을 행사하였다.

단군조선시기에 최고통치자 단군의 권한과 지위는 대대로 세습되였다.

옛 기록에는 1대 단군으로부터 47대 고령가에 이르는 단군조선시기의 47대 임금의 이름과 왕세계가 전해오는데 그에 의하면 단군이후의 력대 임금들은 다 건국시조인 단군왕검의 후손들로 되여있다. 단군왕조가 1 500년이상 존속된것을 고려한다면 단군조선은 한 가문에 의한 왕자리세습제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오랜 기간 유지된 왕조였다고 볼수 있다. 이것은 단군조선에서 왕권이 상당히 공고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군주밑에는 비교적 째인 중앙관직과 통치기구가 정비되여있었다.

단군왕조에는 그 첫 시기인 시조 단군때에 이미 《가(加)》라고 불리운 여러명의 대신급 중앙관료들이 있었다. 그가운데는 나라의 모든 관료들을 총괄할 임무를 맡고있는 호가, 임금의 명

령을 아래에 전달하고 지방과 각 관청에서 올라오는 문서들을 임금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있는 마가, 농업생산을 주관하는 우가, 나라의 군사를 담당한 웅가, 형벌을 담당한 응가, 나라의 도덕규범과 각종 의례 등을 맡은 학가, 보건 등을 담당한 로가, 지방행정을 장악하는 구가 등 8가가 있었다. 단군조선에는 8가 외에도 수공업, 치산치수 등을 담당한 중앙관직이 더 있었다고 한다. 일부 문헌기록들에 의하면 단군때 치산치수의 직무는 중앙관직들가운데서도 매우 중시되였다고 한다.

단군때 정해진 중앙관직은 그후 수석가인 호가의 이름이 룡가로 바뀌우고 2대 부루임금때 조세징수를 맡은 봉가가 더 설치된것 이외에는 큰 변동이 없이 계속 유지되였다.

이렇듯 단군조선시기의 중앙관료체제, 관직제도는 비록 원시사회의 토템의 유제를 외피로 하여 범, 곰, 소, 매, 개 등 동물의 이름을 달고있었으나 내용적으로는 나라의 령토와 주민전반을 폭넓게 또 통일적으로 다스려나갈수 있는 기본적인 관직과 기구체계를 갖춘 상당히 발전된것이였다.

단군조선시기 중앙관직들의 지역적관할범위와 기능은 단군조선의 강성과 더불어 일정한 변화를 거쳤다. 호가, 마가를 비롯한 단군조선의 중앙관직들은 단군때 정해진것만큼 초기에 그의 지역적관할범위는 건국당시의 령역이였던 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볼수 있다. 이것은 단군때 정해진 중앙관직의 기본직능이 임금을 도와 직할지를 관할하는데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국력의 강성과 더불어 나라의 령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임금의 직할지가 늘어났을뿐아니라 직할지밖의 후국들이 적지 않게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추진되면서 호가, 마가, 우가 등 중앙관직들의 기능과 역할이 높아지고 그의 관할범위가 직할지를 벗어나 후국들에까지 일정하게 미치게 되였다.

단군조선에는 제가평의회가 있었다. 제가평의회는 중앙의 대

신급《가》들을 기본으로 하고 그밖의 고위귀족들을 망라한것으로 추측되는 귀족들의 민주주의적평의기구였다.*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학술발표회토론집》(조문) 사회과학출판사, 1996년, 100∼111페지

이렇듯 단군조선의 임금들은 호가를 비롯한 중앙의 대신급관료들을 거느리고 제가평의회에 의거하여 나라를 다스려나갔다.

단군조선의 국가기구에는 중앙관료체제와 함께 지방통치체계도 갖추어져있었다.

중앙통치기구가 최고통치자의 의사와 지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의 최고기관들과 관료들로 이루어진 지배체제라면 지방통치체계는 직접 인민들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명령, 지시를 관철하는 지배와 복종의 체계였다. 그것들은 모두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국가의 관료체제이며 통치질서였다.

단군조선의 지방통치령역안에는 임금의 직할지, 후왕들이 다스리는 후국, 각이한 발전단계에 있는《소국》들과 속령들, 고을과 마을들이 있었다.

후국이란 소여나라의 최고통치자가 종주국으로부터 후왕으로 책봉받은 제후국을 말한다. 후국제는 국가가 새로 점령한 지역을 직접 통치할 힘이 없거나 린접한 소국이 자원적으로 투항, 귀속하였을 때 그 지역 또는 나라를 간접적으로 다스리는 통치형식이였다.

일반적으로 고대, 중세의 지방통치형식에는 후국제를 도입하는 간접통치형식과 군현제를 적용하는 직접통치형식이 있다. 여기서 어느 형식을 택하는가 하는것은 주로 종주국왕권의 강약정도에 달려있는데 군주의 전제권력이 강하면 직접통치형식을 취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간접통치형식을 적용하였다.

단군조선에서 후국제도는 국가의 령토확장과정에 발생하였다.

단군조선은 국가형성초기에 그 령역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중서부조선일대에 국한되여있었다. 그러나 점차 국력이 강화되면서 림진강, 한강이남, 압록강이북으로 령토를 확장하여나갔다.

단군왕조의 령토확장은 고대그리스나 로마처럼 해외에 나가 정복전쟁으로 《식민지》를 설치하거나 새로운 도시국가를 형성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주요하게는 린근《소국》(또는 부락, 종족)들을 포섭, 흡수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이것은 린접《소국》세력들이 동족이였던 사정과 관련되였다. 물론 일정한 시기, 일정한 지역에서 노예와 집짐승, 사냥터와 부침땅획득을 위한 정복전쟁이 동반되였을것임은 의심할바 없다.

당시 박달족의 중심거주지역이였던 중서부조선일대를 제외한 조선반도의 다른 지역과 만저우지역에는 예, 맥, 구려, 부여, 옥저,한 등 동족들이 거주하고있었다. 랴오둥반도일대와 지린, 창춘지역에는 이미 신석기시대이래로 조선옛류형사람들이 살고있었다. 이 주민들은 거주지역이 다를뿐 언어와 풍습이 중서부조선일대의 박달족과 기본적으로 같았으며 문화도 같은 류형의것을 창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변지역들의 사회발전수준은 중서부조선일대보다 뒤떨어져있었다.

옛기록에 전하는 예, 맥, 부여, 구려, 옥저에 관한 자료들과 해당 지역의 고고학적자료들을 종합하여보면 주변지역주민들은 단군조선의 성립당시까지 원시사회말기 군사민주주의단계에 있었고 그 이후에 단군조선의 문화적영향밑에 점차 계급사회에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단군조선은 바로 이러한 사회발전단계에 있는 주변《소국》또는 지역들을 포섭, 정복하여 후국으로 만들었다.

《제왕운기》에 단군조선이 구려, 옥저, 부여, 예, 맥 등을 다

스리였다고 기록한것은 바로 단군조선과 주변《소국》과의 후국적종속관계를 반영한것이고 평양지방에서 발원한 고조선 전기문화 즉 《비파형단검문화》가 서북조선을 거쳐 랴오둥, 랴오시지방의 넓은 지역에 분포된 사실은 단군조선의 세력팽창관계를 보여주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단군조선과 후국과의 관계는 본질상 지배와 종속관계였다. 후국들은 종주국에 대하여 얼마간의 공납과 필요한 시기에 요구되는 병력제공과 군사장비 및 군량보장 같은 군사적임무를 걸머져야 하였다.

공납과 군사적의무를 진 대신 《소국》들은 평양의 단군왕조와 중앙정부의 보호를 받을수 있었다. 그리고 후왕의 통치권이 담보되였으며 외세의 침략을 받거나 국가적위기가 조성되였을 때 종주국의 군사적지원이 약속되였다.

후국제도는 단군조선이 급속히 령토를 확장하고 군주정치의 안전을 담보한 공간으로 되였다.

종주국과 후국의 관계는 그들간의 혈연적관계에 의해 더욱 믿음직한것으로 담보되였다. 이런 호혜성과 혈연적뉴대가 주변의 정치세력들로 하여금 강력한 단군조선에 항거해나서기보다 후국으로 자기 존재를 유지하는것이 유익할것이라는 인식을 주었을것이고 이런 인식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후국이 되게 하였을것이다.

단군왕조의 통치자들은 바로 이런 리해관계를 적절히 리용함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큰 저항이 없이 강토를 반도의 남쪽끝과 만저우의 광활한 지역으로 넓혀나갈수 있었으며 흩어진 동족을 하나의 주권밑에 결합시킬수 있었고 소국들을 왕조의 안전을 지키는 방벽으로 되게 할수 있었다.

단군조선의 판도에는 정부의 직할지도 있었다. 직할지란 국왕의 직접통치가 실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후국에 대해서는 군주

의 권리가 일정한 제한을 받았으나 직할지에 있어서는 단군의 명령, 지시가 직접 백성들에게 미치였고 그 집행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였다.

단군조선에서 직할지는 왕조의 발상지인 평양을 중심으로 한 중서부조선일대였다. 직할지에 대한 통치는 지방통치를 담당한 《구가》가 맡아보았다.

이렇게 단군조선의 국가기구에는 중앙관료체제와 지방통치체계가 정연하게 갖추어져있었다.

단군조선의 국가적성격을 보여주는 징표는 고고학적자료들에 의해서도 확증되였다.

계급적지배의 필수적수단으로서의 국가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폭력기구가 단군조선성립시기에 생겨났다는것은 군사민주주의단계의 무기무장과 구별되는 새로운 형의 청동무기가 출현한 것을 통하여 알수 있다.

청동기시대(팽이그릇시기 1기)의 유적들에서는 전투전용의 무기로서 이전시기에는 볼수 없던 피홈이 있는 단검과 치명상을 입도록 뽑지 못하게 만든 뿌리나래활촉이 있었는데 단군조선성립시기에는 그것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위력있는 청동제무기가 새롭게 제작리용되였다. 그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비파형단검과 비파형창끝이다. 비파형단검은 호신용방어무기로서 위력이 있고 비파형창끝은 전투용공격무기로서 쓸모가 있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런데 비파형단검은 석제무기보다 비할바없이 우월한 실용적인 측면과 함께 위용을 과시하고 권위를 상징해주는 의례장식용특성도 가지고있다. 그것은 공예사의 세련된 솜씨로 도안화된 비파모양의 형태, 장식적효과를 나타내게 만든 검집과 거기에 새긴 번개무늬를 놓고도 말할수 있다.

이러한 청동제무기는 매우 값비싼 물건이였던것으로 하여 일반사람들은 소유할수가 없었다.

그것은 이 시기의 유적들에서 돌단검은 흔히 볼수 있지만 청동제무기는 흔하지 않은데서 알수 있다. 후시기의 유적이기는 하지만 노예순장무덤인 강상무덤과 루상무덤에서 그것이 나오는 사실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청동제무기가 주로 노예주의 측근으로 인정되는 무덤칸에서 발굴되고 순장당한 노예들의 무덤칸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값비싼 무기는 재부를 독점하고있는 부유한 상층의 사람들만이 가질수 있었으며 또한 위용을 파시해주는 위풍있는 의례장식용 무기는 대오를 거느리는 군지휘관의 권위를 높이는데 필요한것이였다.

따라서 청동제무기가 새로 출현하였고 또 급속히 늘어났다는것은 당시의 사회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군사위계제가 확립되여 관등급에 따르는 군통치체계가 세워진 새로운 폭력기구가 태여났다는것을 증시해주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단군조선이 국가로서 B.C. 3000년기초에 건립되였다는것을 전해주는 가장 믿음직한 증거의 하나는 평양시 강동군 남강로동자구에서 발견된 황대성이다.(사진 9)

성은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어시설물인것만큼 그것은 국가의 존재를 실증해주는 물질적자료의 하나라고 볼수 있다.

물론 방어시설물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부락두리에 물도랑과 같은것을 깊이 파놓은 해자나 울바자모양으로 마을주변에 나무기둥을 촘촘히 세워놓은 목책도 있고 지어 흙으로 쌓은 담장도 있다. 해자와 같은 방위시설물은 이미 신석기시대부터 알려졌고 흙으로 쌓은 담장과 목책과 같은 방위시설물도 원시사회에서 자주 볼수 있는것이였지만 돌을 리용한 공고한 방위시설은 국가의 형성과 때를 같이 하여 새롭게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은

국가의 존재를 립증해주는 고고학적자료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황대성을 국가의 징표로 보는것은 그 성이 든든하고 규모있게 쌓은 토석혼축의 성이였다는데도 있지만 그보다는 요새의 역할을 한 산성이였다는데 있다.

요새는 정치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나 대상을 방위할 목적으로 구축한 군사대상물이며 방위시설물이다. 그런것만큼 요새의 역할을 한 성이 있었다는것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문제를 전제로 한다. 그 하나는 항시적으로 성을 차지하고 부과된 군사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상비군이 있어야 한다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 성으로 방위하여야 할 중요한 대상물이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상비군은 국가의 기본징표이며 또 요새의 역할을 하는 성까지 구축하고 항시적으로 방어하여야 할 중요한 대상은 국가의 성립과 함께 생겨났다.

국가의 도읍까지 적들이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게 선제타격을 가하여 유생력량을 소멸하고 침입하는 적들을 미리 견제하기 위하여 고대국가들은 중요한 길목마다에 요새의 역할을 하는 방위시설물로 성을 쌓게 된다. 따라서 요새의 역할을 하는 성은 국가의 발생과 함께 생겨난 방위시설물이라고 말할수 있다.

황대성이 요새의 역할을 하는 산성의 하나였다는것은 그 성의 위치를 보아서도 알수 있다. 평양시 강동군 남강로동자구 황대마을앞산에 위치하는 황대성의 성터는 남강의 물면으로부터 약 50m높이에 있는 산정에 있다. 비교적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있는 이 성의 동쪽, 북쪽, 서쪽으로는 남강이 반원형으로 감돌아흐르고 남쪽은 높고 험준한 산봉우리들로 막혀있다.*

*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학술발표회토론집》(조문) 사회과학출판사, 1996년, 40페지

이 산성은 강하천을 끼고 험준한 산발을 등지고 위치하기때문에 남강을 따라 그 상류쪽에서 강동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하는데서는 더없이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있다. 따라서 황대성은 단군조선의 도읍인 평양성으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에서 이웃종족집단들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쌓은 첫 관문이며 전방요새의 하나였다고 말할수 있다.

황대성과 함께 청암동토성(아래성벽)도 단군조선의 국가적성격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청암동토성의 둘레의 길이는 거의 4㎞로서 그 길이가 1~2㎞정도인 그 주변의 일반고대성곽들에 비하여 그 규모가 클뿐아니라 방어력도 다른 대동강류역의 고대성곽들보다 비할바없이 높다. 성의 동쪽과 남쪽면은 대동강과 합장강으로 막혀있고 북쪽에는 합장강과 보통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강이 있어 사실상 이 성은 세면이 강으로 막혀있고 동쪽과 남쪽성벽은 대동강과 합장강변의 층암절벽을 리용하였으므로 방어력이 대단히 높다.

지탑리고성과 성현리고성들도 단군조선이 국가였다는 증거를 제공해주고있다.

지탑리고성은 황해북도 봉산군 지탑리에 있는 토성으로서 그 남쪽과 서쪽으로는 서흥강이 감돌아흐르고 동쪽과 북쪽으로는 서흥강의 가지줄기가 있어 사실상 성의 네면은 강으로 둘러막혀있어 방어력이 매우 높을뿐아니라 주변에 무연하고 기름진 재령벌이 펼쳐져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유리하였다.

평안남도 온천군 성현리토성 역시 그 동쪽과 남쪽은 오석산줄기의 작은 가지줄기들로 막혀있고 서쪽으로는 온천벌이 펼쳐져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있다.

지탑리토성과 성현리토성은 그곳에서 신석기시대문화를 발전시켜오던 주민들이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큰 하나의 주민집단으로 발전하였으며 단군이 고조선국가를 형성하던 시기에

는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고 토성과 같은 튼튼한 방어시설을 갖추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리고 평양으로부터 100여리 떨어진 지역들에 이러한 토성들이 축성되였다는것은 당시 수도성을 보위하기 위한 위성체계가 확립되여있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 《조선고고연구》(조문) 1995년 2호, 20페지

단군조선의 국가적징표는 고인돌무덤을 통하여서도 찾아볼수 있다.

착취사회에서 지배계급은 현세의 호화로운 생활을 죽은 후에도 연장하려는 욕망과 저들의 권위를 시위하기 위하여 무덤을 크게 만들었다. 고대국가의 제왕들도 례외없이 자기의 특권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하여 무덤을 크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수만명의 인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축조할수 없는것이였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일대에는 여러 류형과 형식의 고인돌무덤이 1만 4 000여기가 분포되여있는데 그가운데는 그 크기가 매우 웅장한 《특대형고인돌무덤》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상원군 장리 2호고인돌무덤, 연탄군 오덕리 1호고인돌무덤, 룡강군 석천산 1호고인돌무덤, 황해남도 안악군 로암리 1호고인돌무덤, 은률군 관산리고인돌무덤 등을 들수 있다. 평양일대에는 이러한 《특대형고인돌무덤》이 16기나 있다.*

* 《조선고고연구》(조문) 1999년 1호, 12페지

로암리 1호고인돌무덤의 뚜껑돌은 많이 깨여져나가고 일부만 남아있는데 남은 뚜껑돌의 크기는 길이 778㎝, 너비 572㎝, 두

께 70㎝이다. 온전하게 남아있는 북쪽과 동쪽의 나래의 길이를 대칭시켜보면 본래의 크기는 길이 910㎝, 너비 640㎝였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고임돌 1개의 크기는 너비 550㎝, 높이(무덤칸바닥으로부터) 270㎝, 두께 55㎝이다.

장리 2호고인돌무덤은 뚜껑돌이 깨여져나가고 남아있지 않지만 고임돌 1개의 크기는 너비 620㎝, 높이 240㎝, 두께 55㎝이다.

뚜껑돌과 고임돌의 크기는 대체로 정비례관계를 가지는것만큼 고임돌의 크기로 보아 장리 2호고인돌무덤의 뚜껑돌은 로암리 1호고인돌무덤보다 훨씬 더 큰것이였다고 보아진다.

이처럼 대형고인돌무덤을 만드는 과정은 그리 간단한것이 아니였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뚜껑돌을 산에서 채취하여 벌판한가운데나 낮은 언덕우에 있는 장지에까지 날라오는 작업, 높이 2.7m나 되는 고임돌우에 그것을 올려놓는 작업은 수많은 노예들의 힘겨운 고역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였다. 이렇게 많은 노예들을 힘겨운 역사에 내몰아 채찍으로 부려먹으면서 축조한 그 대형고인돌무덤의 주인공이 국가권력을 장악한 지배계급에 속하는 인물이거나 나아가서 왕급의 인물이였을것은 짐작할수 있는 일이다.

오덕형고인돌무덤에서 50t정도 되는 판돌부재는 반드시 통나무받침들을 리용하여서만 운반할수 있는데 그 판돌을 하루 평균 35m정도 운반하는데도 700공수의 로력이 들며 고임돌, 막음돌을 포함하여 고인돌무덤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돌부재를 날라오는데는 약 1 000여공수의 로력이 소모된다고 한다. 거기에 또한 채석, 가공, 조립공정의 로력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대형오덕형고인돌무덤 하나를 축조하는데 약 2 000~2 300공수의 로력이 요구된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의 전 공정은 중량물을 다루는 힘겨운 일인데다

가 기술수단이 별로 없이 락후한 수준의 로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극히 악조건에서 죽음도, 위험도 고려하지 않고 횡포하게 강요하는 강제로동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실현될수 없는것이였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2가지이다. 그 하나는 사적목적을 추구하는 공사에 동원시킬수 있는 인원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횡포한 강제로동을 강요할수 있는 조건문제이다.

이렇게 대형고인돌무덤은 적어도 70여명이상의 노예를 소유한 노예주들만이 만들수 있는 축조건물인것만큼 그 무덤의 출현은 사회성원들이 노예와 노예주로 분화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처럼 큰 규모의 오덕형고인돌무덤이 B.C. 30세기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급격히 많아졌다는것은 사회의 계급신분관계에서 노예와 노예주가 급격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국가형성과 직접 관련되여있다.

단군조선시기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사이에 존재하였던 대립과 모순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것은 순장무덤이다.

대동강류역일대에서 알려진 대표적인 순장무덤은 단군조선 초기의 룡산리순장무덤이다.(사진 8)

하부구조가 11칸으로 되여있는 이 무덤의 한가운데에는 하나의 큰 무덤칸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두리에 10개의 작은 무덤칸이 있기때문에 작은 무덤칸들은 마치 중심에 있는 칸을 호위하듯이 배치되여있다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 무덤칸들의 배치상태는 주종관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중심에 자리잡은 무덤칸과 그 두리에 놓여있는 무덤칸사이의 주종관계는 그 배치상태뿐아니라 무덤칸들의 크기에서도 나타난다. 중심의 큰 무덤칸은 길이가 217㎝로서 길이가 108㎝인 변두리의 작은 무덤칸에 비하여 배나 된다.

또한 중심에 자리잡은 무덤칸바닥돌은 작은 칸의 바닥과 같

이 여러장의 작은 판돌을 깐 다음 그우에 한장의 판돌을 덧깔아 한단 높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있는 작은 무덤칸들의 바닥돌은 여러개의 판돌쪼각들로 이루어져있고 중심무덤칸 바닥보다 한단 낮게 되여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심무덤칸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의도를 반영하며 거기에 묻힌 사람은 주위의 작은 무덤칸들에 묻힌 사람과 동격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배와 복종의 관계는 장법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중심의 큰 무덤칸은 주위에 있는 작은 무덤칸에 비하여 그 크기가 거의 배에 달하지만 거기에는 2개체분의 유골이 안치되여 있었을뿐이다.

그러나 두리에 배치되여있는 작은 무덤칸들에는 3～4개체의 유골이 들어있었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길이가 108㎝이고 너비가 98㎝밖에 안되는 작은 무덤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4개체의 유골이 드러났는데 그것들은 무질서하게 겹놓여있었다. 이와 같이 중심무덤칸과 달리 작은 무덤칸들에 어른, 아이할것없이 여러 사람을 되는대로 묻은 장법은 중심에 자리잡은 무덤칸이 이 무덤의 주인공인 노예주가 묻힌 무덤이고 그 두리에 배치되여있는 무덤칸들은 무덤주인공에게 예속된 노예들이 묻힌 무덤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순장은 노예주의 특권적지위를 보장해주는 폭력기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폭력기구는 계급적대립이 첨예한 국가시대에 생겨나기때문에 순장제도도 나오게 되였던것이다.

국가의 중요한 징표의 다른 하나는 많은 경우에 최고통치자인 왕을 우상화하고 신성화한데 있다.

왕을 우상화하고 신성화하는것은 그의 권위를 높이고 그 지위를 공고히 하며 세습화하려는데 있으며 또한 왕에 대한 굴종사상을 가지도록 하여 인민들에 대한 통치를 실현하는데 있다.

《건국설화》들에서는 례외없이 거의 모두가 건국시조인 왕

을 뛰여난 인물로 묘사하고 그의 존재를 신성화하였다. 그것은 《단군설화》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단군을 신비한 존재, 뛰여난 인물로 내세움으로써 고조선왕조의 권위를 높일 목적에서 편찬된 《단군설화》는 옛 문헌들인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지리지, 《응제시주》 등에 기록되여있다.

《단군설화》의 내용을 웅설화, 단군의 출생설화, 단군의 건국기사로 구분하고 그 해당기사에 반영된 력사적사실을 추정복원하여 실제 있었던 사실로 현실화하기도 하였지만 내용전반을 자세히 따져보면 그 설화가 주제내용에 따라 여러가지 요소로 구분된다기보다 모두가 단군을 뛰여난 인물로 묘사하는 하나의 목적에 복종되여있다고 말할수 있다.

실례로 웅설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웅을 하늘신으로 묘사한 것은 단군의 출신을 신격화하려는데 있었으며 그가 또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인간살이의 360여가지 일을 주관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고 한것은 부계상속이 기본생활기풍으로 되여있던 당시에 웅의 아들 단군을 만능의 능력을 가진 뛰여난 인물로 형상하려는데 지향되여 서술된 내용이라고 말할수 있다.

《단군설화》의 경우와 같이 세계 어느 나라의 력사에도 자기 시조왕을 우상화하고 첫 국가의 창립과정을 신화처럼 엮지 않은 기록은 거의 없다. 이것은 건국시조를 내세워 최고통치자로서의 지위를 신성화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단군설화》의 존재자체도 단군조선이 국가였다는것을 실증해주는 근거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B.C. 3000년기초에 형성된 단군조선은 종족동맹에 대응되는 그 어떤 《부족국가》나 《소국》이 아니라 고유한 의미에서 고대국가였던것이다. 따라서 단군조선 성립이후에 대동강류역에서 창조된 문화는 당당히 고대문명에 속하는 문화였다.

(3) 대동강류역 고대문명의 창조자

세계의 4대문명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그 어느 지역의 고대문명도 민족에 의하여 창조된 례는 없었다. 4대문명이 창조될 당시에는 아직 그 지역에서 민족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 문명의 창조자, 그 문명의 담당자는 원시상태에서 갓 벗어난 종족집단이나 준민족단계에 있던 주민집단이였다.

단군조선의 성립으로부터 시작된 대동강류역의 고대문명은 조선민족에 의하여 창조되였다.

대동강문화가 세계의 다른 4대문명과 달리 한 민족에 의하여 창조되였기때문에 그 문화에서는 독특한 민족적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대동강문화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조선사람들의 민족성이 남달리 공고한것도 그 민족성의 형성력사가 유구하다는것과도 관련되여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면 단군조선의 성립과 더불어 어떻게 조선민족이 그토록 일찌기 형성되기 시작하여 대동강류역의 고대문화를 창조하였고 그 문화의 담당자로 되였는가 하는것을 보기로 한다.

조선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오로지 하나의 피줄을 줄기차게 이어오면서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한 강토에서 련면히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단군릉발굴사업을 통하여 단군이 민족의 원시조라는것이 밝혀짐으로써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이라는것이 확증되였다.

조선민족의 형성문제를 밝히기 위하여서는 먼저 민족의 형성시기와 그 징표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난 시기에 민족은 그 어느 나라의 경우에나 다같이 인류력사발전사상에서 오직 한 시기에만 형성될수 있다고 보았으며 민족의 징

표도 그 형성시기와 결부하여 제나름으로 각이하게 설정하였기때문이다.

먼저 민족의 형성시기에 대하여 보려고 한다.

로동계급의 선행리론에서는 민족을 대두하는 자본주의시대에 비로소 발생한 력사적범주로 보면서 인류사회에서 처음으로 형성된 민족을 부르죠아민족이라고 인정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의 형성시기를 자본주의시대로 보았다. 자본주의이전시기에는 민족이 없었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고 하였다.

민족의 기본징표가 자본주의시대이전에 이미 점차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맹아적상태로 생겨났을뿐이며 유리한 조건이 성숙될 때 민족을 형성할수 있는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방적페쇄성이 극복되고 하나로 통합된 국민시장이 형성되고 경제적 및 문화적중심지가 생겨나는 자본주의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민족형성의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전환되였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치는 페쇄적이며 분산적인 봉건사회의 력사적경험을 체험한 지역의 민족 그리고 주민의 이동이 심하여 국가를 단위로 민족이 형성될 때 여러개의 족에 기초하여 민족이 형성되지 않을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되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 선행로동계급의 민족형성리론에서 민족의 형성시기문제는 보편적타당성을 가지지 못하며 심각한 력사적제한성을 가지고있다.

민족의 형성시기는 민족의 기본징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왜냐하면 민족의 징표가 형성될수 있는 력사적시기가 바로 민족의 형성시기로 되기때문이다.

민족의 징표는 오직 자본주의시대에만 생겨날수 있는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력사적조건에 따라 그 이전시기에도 충분히 형성될수 있다는것이 오늘의 견해이다.

민족의 징표가 완전히 형성되는 시기가 민족형성시기인것만큼 민족의 형성시기는 그 민족의 구성상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수 있다. 력사적으로 단일민족은 민족의 징표가 쉽게 형성되고 복합민족은 그것이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 민족형성의 계기가 마련되기만 하면 단일민족의 경우에는 그 이전시기부터 형성되고 계승되여오던 민족의 징표가 곧 형성되지만 복합민족의 경우에는 그때 비로소 민족의 징표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민족의 형성시기가 단일민족은 오래고 복합민족은 오래지 않다.

다음으로 민족의 징표에 대하여 보려고 한다.

민족의 징표는 민족형성의 기초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민족의 징표가 형성될 때 비로소 민족이 생겨나게 된다.

민족의 징표는 민족이 지니고있는 모든 징표들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민족으로 될수 없는 필수적인 중요표징, 본질적인 특성을 띠고있는 그러한 표징을 말한다.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조선민족은 단군조선이 건립된 5 000여년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단군조선의 건립과 함께 민족의 기본징표로 되는 피줄과 언어, 문화생활과 지역의 공통성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데 있다.

국가의 성립은 민족형성에서 가장 중시되는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국가가 령토안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으로 살수 있게 하는 지역적공통성을 이룩함으로써 피줄의 공통성을 이루게 하는 필수적전제, 언어의 공통성을 이루게 하는 객관적조건, 문화의 공통성을 이루게 하는 외적요인의 하나로 된다는데만 있지 않다. 국가는 그 자체가 민족의 공통성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인 지역의 공통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피줄, 언어, 문화생활의 공통성과 같은 민족의 징표들을 형성할수 있게 하는 추동력으로 작용한다. 국가는 전 령토에 대한 주권행사를 통하여 지역적인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사람들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강화하여 전통과 관습을 통일시키고 생활양식의 단일화를 추진시키며 언어와 사고방식 및 정서심리학적감정의 일체화를 촉진시킨다. 또한 국가는 민족에 대한 자주, 자위의식을 배양하고 고취함으로써 겨레의 감정을 심화시켜 민족자주의식을 가지게도 한다.

국가의 성립이 민족형성의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여 그것이 모든 경우에 민족형성을 담보하는 요인, 민족형성의 추동력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고대나 중세의 유럽에서와 같이 국가의 흥망성쇠로 국경이 부단히 변화하는데 따라 주민구성의 교체가 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가의 성립이 곧 민족형성을 추진시키지 못하며 또한 국가가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봉건적분권주의가 특징적이였던 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주권이 전 령토에 통일적으로 행사되지 못하여 민족형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

조선에서 첫 고대국가 단군조선의 성립과 때를 같이하여 민족형성문제가 상정되는것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조건과 관련된다.

그것은 단군조선이 하나의 족에 기초하여 형성된 국가이고 다른 하나는 단군조선의 통치체계가 민족형성에서 전환적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있다.

단군조선의 건립이 조선민족형성에서 중요한 계기로, 민족형성의 담보를 마련해주는 력사적사변으로 되는것은 그 국가가 민족의 기본징표인 혈연적, 언어적, 문화적공통성을 형성할수 있게 하는 바탕을 마련하고 그 공통성의 형성과정을 추동함으로써 족을 민족으로 전환시킬수 있게 하였다는데 있다.

지금 족과 민족을 같은 개념으로 혼돈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그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종전에는 어느 민족이나 그것이 자본주의시대와 더불어 형성된 력사적범주로 본 조건에서 족이 민족의 구성요소로 포섭되기때문에 그것이 민족에 선행하여 원시시대말로부터 중세에 이르는

일정한 력사적시기에 존재한 사회적집단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량자는 시간적으로만 구별되는 개념으로 리해하였다. 그런가 하면 지금 어떤 사람들은 족을 특징짓는 징표들에는 언어, 문화, 동족이라는 자의식을 포함한 심리적특성 등 여러가지 사회적공통성이 있지만 여기에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기초하는 피줄의 공통성이기때문에 족이란 다름아닌 민족에서 피줄의 공통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쓰는 용어라고 하면서 민족에 내포되는 개념이라고까지 하고있다.

그렇지만 족과 민족은 엄연히 구별된다. 물론 족이 민족에 선행하였기때문에 그 존재시기가 서로 다르다는데서도 구별되지만 량자사이의 차이는 피줄의 공통성에서도 나타난다. 족의 경우에는 피줄의 공통성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례외없이 기원의 공통성을 반영한 같은 갈래의 집단이라는것을 의미한다. 피줄의 공통성이 족의 경우에는 주로 생물학적측면에서 유전학적 친연성을 표현하지만 민족의 경우에는 선대가 체현한 유전학적 특성을 물려받은 인간집단이라는 내용과 함께 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새롭게 형성되고 통일된 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간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렇게 민족의 경우에는 피줄의 공통성에 생물학적측면과 함께 사회적내용이 아주 짙게 포함되여있다.

족과 민족과의 차이는 지역적공통성에서도 나타난다. 족의 경우에는 대체로 지역의 공통성이 뚜렷하게 형성되여있지 않다. 일정한 류형의 문화가 분포되여있는 지역이 족의 분포령역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그 분포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분포령역안으로 다른 종족집단의 이주,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되여있지 않다. 이렇게 족의 경우에는 대체로 지역적공통성이 뚜렷하게 이루어져있지 않지만 민족의 경우에는 그와 달리 국경을 통하여 그 민족의 분포령역이 확정되여있는 경우가 많으며 (물론 다민족국가의 경우에는 례외로 된다.) 국가주권이 행사되

는 판도안에서 지역적공통성이 이루어져있다.

로동계급의 선행리론의 창시자들은 이른바 《민족대이동》이라고 부르는 주민집단의 대이주를 체험한 유럽의 현실에 기초하여 민족형성문제를 론하였기때문에 민족을 여러 갈래의 족들로 이루어진 복합민족으로 리해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에는 조선민족처럼 하나의 족에 기초하여 형성된 단일민족도 적지 않다.

따라서 민족을 구성상특성에 따라 2개의 류형으로 구분할수 있다. 그 하나는 단일민족이며 다른 하나는 복합민족이다.

첫 국가의 성립이 민족형성에서 노는 역할은 단일민족과 복합민족의 경우에 서로 다르다. 조선민족은 조선족 하나에 기초하여 형성된 단일민족이라는것은 이미 잘 알려져있다. 조선민족과 같은 단일민족은 하나의 족에 기초하여 형성되였기때문에 그 민족에 선행한 족단계에서 이미 통일적인 혈연적, 언어적, 문화적공통성이 적지 않게 이루어져있었다. 그러므로 단군조선과 같은 국가의 성립으로 령토적통일이 보장되여 민족적공통성을 이룩할수 있는 일체화가 추진되기만 하면 족단계에서 이미 형성되여있던 공통성에 기초하여 곧바로 민족으로 발전하게 되고 따라서 민족이 곧 형성완성된다. 그렇지만 복합민족의 경우는 그와 다르다. 복합민족은 여러 갈래의 족들이 뒤섞이는 과정에 혼혈되여 형성된 민족이기때문에 국토의 통일을 보장한 첫 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비로소 혈연적, 언어적, 문화적공통성이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복합민족의 경우에는 민족적공통성이 전혀 이룩되여있지 않은 빈터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비로소 민족적공통성이 새롭게 형성되기때문에 민족의 형성과정이 오래고 또 복잡하다.

이렇게 통일적인 첫 국가의 성립은 단일민족의 경우에는 민족이 형성완성되는 계기로 되지만 복합민족의 경우에는 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한 계기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할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경향인것이다. 하나의 국가를 이룬 다음에도 매개의 족, 민족들이 그 국가의 판도안에서 수백, 수천년간을 헤아리는 오래동안 융합되지 않고 독자성을 고수하며 존재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또한 조선민족과 같은 단일민족은 하나의 족에 기초하여 형성된 민족이기때문에 민족과 그에 선행한 족사이에는 차이가 크지 않으며 혁신보다 계승의 측면이 우세하다. 따라서 단일민족에서는 첫 국가의 성립과 같은 민족형성의 계기에 따라 족이 쉽게 민족으로 이행한다. 그렇지만 복합민족은 여러개의 족에 기초하여 형성된 민족이기때문에 그 민족을 이룬 족들과 민족들사이에는 엄연한 질적차이가 존재하며 량자사이에는 계승보다 혁신의 측면이 결정적으로 우세하다. 따라서 복합민족의 경우에는 민족형성이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게 된다.

이와 같이 민족형성문제를 론할 때에는 그 민족의 구성상특성과 같은 사회력사적조건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조선민족은 단군조선을 세운 박달족의 선도적역할에 의하여 형성된 단일민족이다.

지금 력사학자들은 박달족이 정치, 경제, 문화의 측면에서 이웃한 고대의 예, 맥, 부여, 구려, 한족들에 영향을 주면서 포섭하는 과정에 그들간의 뉴대가 강화되여 결국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결합되게 되였다고 보고있다.*

* 《력사과학》(조문) 1996년 2호, 50페지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역이 다른데로부터 력사기록에는 각이한 명칭으로 불리우는 동족들이였지만 후에는 다같이 박달(배달)민족으로 통칭된 하나의 겨레였다고 하고있다. 력사학자들이 박달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족이 조선민족이 형성되기 이전

단계의 겨레였기때문에 조선족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고조선, 부여, 구려, 고구려의 주민들은 《예》, 《맥》으로 이루어져있고 옥저와 한도 고조선, 고구려와 같은 겨레의 주민들이였다. 그리고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한의 5, 10월가무 등 풍속이 같은것도 그들이 같은 겨레였다는 하나의 실례로 된다.

고고학적자료에 의하면 이미 신석기시대에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대륙 동북쪽의 넓은 지역에서 문화적공통성이 이루어져있었다. 신석기시대문화를 창조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조선옛류형사람들이였는데 그들은 혈연적으로도 통일되여있었다.*

* 《조선사람의 기원》(조문) 사회과학출판사, 1989년, 110～167페지
《조선고고학전서》(조문)(원시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0년, 92～181페지

이처럼 조선에서는 신석기시대이래로 혈연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하나의 족, 동족이 형성되여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루고 산 종족이나 종족동맹과 같은 정치조직이 이웃주민들에게 명칭이 서로 달리 불리운 까닭에 력사기록에 다른 이름으로 전해지기는 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겨레를 이루고있은 하나의 조선족이였다.

이와 같이 조선민족은 하나의 족에 기초하여 형성된 단일민족이기때문에 국가의 성립과 함께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은 국가의 성립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르기때문에 조선민족의 형성시기는 오래다.

조선민족은 그 형성시기가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민족의 하나일뿐아니라 민족징표가 남달리 공고하고 민족성이 특별히 강하

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조선민족과 같은 단일민족에서는 이미 족단계에서 형성된 혈연적, 언어적, 문화적공통성이 더욱더 공고발전되여 그것이 그대로 민족의 징표로 전환되였기때문에 민족징표가 비할바없이 공고하고 민족성이 강하게 이루어진다.

그것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의 하나인 혈연적공통성을 들어보아도 잘 알수 있다. 피줄갈래를 반영하는 인류학적특징이 혈연관계의 객관적기초를 이루는데 그것이 단일민족인 조선사람의 경우에는 아주 단조롭지만 복합민족인 유럽민족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프랑스민족은 갈리아인, 로마인, 브리텐인, 게르만인 등 여러 족들이 결합되여 형성되였는데 그 민족의 혈연적기초를 이루는 북부프랑스인과 프로완쓰인은 인류학적으로 뚜렷이 구별된다.*

* 《력사학제문제》(로문) 1953년 9호, 78～95페지

이딸리아민족도 로마인, 게르만인, 그리스인, 에트루리아인, 아라비아인 등 여러 갈래의 사람들의 혼혈로 이루어진 복합민족이다. 여러 갈래의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있기때문에 혈연적으로 공통성이 형성되여있다고는 하지만 이딸리아 북부지역주민들과 그 남부지역의 토착민은 인류학적으로 서로 구별된다. 북부지역주민들은 남부지역주민들보다 키가 훨씬 크고 머리는 짧으며 눈동자와 머리칼의 색갈이 한결 더 밝다.

조선에서 첫 국가, 단군조선의 건립이 민족형성에서 중요한 계기로, 민족형성의 추동력으로 된것은 그 국가가 하나의 족으로 이루어졌을뿐아니라 처음으로 중앙집권적인 통치체계가 세워져있었다는데 있다.

민족은 국가와 같은 사회정치적조직을 통하여 족들과 지역을

하나로 통일시킨 사회적집단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개개의 지방과 지역, 거기에 분포되여있는 집단과 집단을 하나의 통일체로 결합시키는것은 국가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민족이 국가의 범위로 묶어지는 사회적집단이라고 하여 모든 국가조직이 그 령역안의 주민을 하나의 통일체 즉 민족으로 결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유럽나라들에서 볼수 있었던 봉건왕국의 경우와 같이 국가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거의 완전한 독자성을 가진 극도로 페쇄적인 봉건귀족들의 지방할거적인 제후국들로 이루어져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주민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결속시키지 못한다.

그러한 국가는 비록 국토안에 있는 주민이 하나의 족, 하나의 겨레로 이루어진 동족의 경우에도 그 동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결속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동족을 페쇄적이며 고립적인 단위로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국가가 국토와 인민을 인위적으로 갈라놓는 인공적인 장벽을 없애고 국토안의 주민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관리체계가 세워져있어야 한다. 그러한 국가만이 동족과 령토를 통일시켜 국토안의 주민 즉 그 국가를 이루고있는 족들을 민족으로 결속시킬수 있다.

고조선은 중앙집권적인 권력에 의하여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정치생활단위로 결속시켰으며 경제와 문화발전의 중심지인 수도를 거점으로 하여 통일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하나의 국가주권밑에서 사람들이 호상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생활하게 하였다. 이것은 결국 이미 형성되여가던 고조선주민들의 혈연적, 언어적, 문화적공통성을 더욱 강화하여 그 일체화를 촉진시켰으며 그에 기초하여 하나의 공고한 사회적집단인 민족으로 단합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것은 고조선의 국가기구와 조직체계에 의하여 확증되였다.*

* 《고조선력사개관》(조문) 사회과학출판사, 1999년, 25~30페지

고조선시기에는 정연한 조직체계를 가진 중앙정치기구와 지방의 통치기구를 통하여 그리고 일정한 법률적규범에 따라 지배계급의 의사를 통일적으로 관철해나갈수 있었으며 여러 지역 주민들사이의 래왕을 거쳐 민족적공통성을 이룩하고 그것을 더욱더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었다.

고조선은 원래 단일한 주민집단 즉 조선족갈래인 동족들을 더욱더 단일하게 결속시켰으며 다른 족들의 침입을 막고 자기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민족적단결을 강화하여 국토를 지켜냈다.

북방계 외적의 침입과 이주가 그야말로 빈번하였던 고대 전기간에 거쳐 막강한 국력으로 령토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원시시대부터 조선에서 하나의 족으로 형성되여온 사람들로 하여금 혈연적단일성을 고수하고 단일민족으로 발전할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조선민족은 첫 고대국가인 고조선의 건립으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그 시대에 조선민족의 원형, 기틀이 마련되였다. 이것은 대동강류역에서 발생발전한 고대문명의 창조자, 그 문명의 담당자가 다름아닌 조선민족이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조선민족이 대동강류역에서 창조된 고대문명의 담당자로 될수 있은것은 그 민족이 단군조선의 성립과 더불어 생겨난 단일민족일뿐아니라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에서 형성되였다는데 있다.

민족은 많은 경우에 일정한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형성되기 시작하고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완성된다. 민족의 기본징표로 되는 피줄, 언어, 문화, 지역의 공통성은 언제나 일정한 집단,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민족적공통성은 자연사적과정으로 형성되는것이 아니라 사회력사적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공통성이 사회력사적과정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전통을 고수계승하고 통일적인 발전을 지향하여 주동적으로 작용하는 정치세력, 사회적집단이 존재하며 선도적인 작용으로 통일적인 발전을 추동하고 보장하는 발원지, 그 중심지가 있게 된다. 그것은 중세 세나라시기 조선민족문화의 고유한 전통이 형성발전되는 과정을 들어보아도 알수 있다.

물론 세나라문화의 공통성이 고대문화의 공통성에 그 기초를 두고있고 그 고대문화를 세나라가 직접 계승하여 이루어진것이기는 하지만 세나라문화의 공통성에 대하여 말할 때 고구려문화의 선구자적이며 선도자적인 역할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그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유적유물들에 아주 잘 반영되여있다. 세나라의 유적유물에 반영된 공통성은 그 어느것이나 다 고구려에서 먼저 생겨난것이며 그것이 백제, 신라에 보급되여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졌기때문에 구태여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문화적공통성뿐아니라 피줄의 공통성을 생리적으로 담보해주는 겨레의 동질성을 비롯하여 족이나 민족을 특징짓는 기본징표들은 어느 시대에서나 일정한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형성되는데 그 지역적거점은 일정한 사회정치생활단위와 관련되여있다.

민족형성의 사회정치생활단위는 많은 경우에 국가인데 국가를 단위로 하여 민족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그 민족형성의 중심은 수도에 해당된다.

조선에서는 민족의 원시조 단군이 첫 고대국가, 고조선을 세우고 도읍으로 정한 평양이 조선민족의 발원지, 민족형성의 중심지이다.

단군조선은 그 전성기에는 조선반도의 전 지역을 포함하여 방대한 지역을 차지하였지만 고조선의 수도는 단군왕조는 물론 그후 후조선과 만조선의 두 왕조시기에도 변함없이 평양이였다.

평양은 조선민족의 원시조 단군이 태여나 활동한 지역이며 처음으로 건국위업을 완성한곳일뿐아니라 민족의 넋이 깃들어있고 그것이 발산되는 조선민족의 발원지, 그 중심지였다.

조선민족의 고유한 문화적특성이 대동강문화에서부터 뚜렷이 나타나는것은 그 문화가 조선민족에 의하여 이룩된데 있다.

2) 대동강류역 고대문화의 형성발전

조선민족의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전통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에서 건립된 단군조선시기부터 시작되였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에서 건립된 단군조선은 조선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에 의하여 B.C. 3000년기초에 세워진 조선의 첫 고대국가이다.

고대문화는 고대국가의 문화이며 그것은 고대국가의 건립과 더불어 창조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의 고대문화는 단군조선의 건립시기인 B.C. 3000년기초에 발생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지금까지 발굴된 고고학적자료에 의하면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일대의 고대문화는 B.C. 30세기초부터 B.C. 2세기 말경까지 약 3 000년간 존재하면서 자체의 발전과정을 거치였다.

대동강류역의 고대문화는 크게 2개 시기 즉 고조선 전기문화(비파형단검문화)와 고조선 후기문화(좁은놋단검문화)로 구분하여 볼수 있다.

(1) 고대문화의 형성과 고조선 전기문화 (비파형단검문화)

고대문화의 연원

B.C. 3000년기초에 대동강류역에서 형성된 고대문화는 집자리, 고인돌무덤, 돌관무덤, 돌곽무덤, 성곽 등 유적들과 비파형단검과 비파형창끝, 팽이그릇, 조롱박형단지 등의 유물들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매우 독특하고 특색있는 문화이다.

대동강류역의 고대문화는 B.C. 4000년기 후반기에 창조된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결과로 이루어진 문화이다.

그것은 두 문화의 유적과 유물들이 실증해주고있다.

먼저 집자리의 분포범위에서 공통성을 찾아볼수 있다.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 대집자리들은 대동강류역을 중심으로 하여 청천강이남과 한강이북의 중서부조선일대에 분포되여있다. 바로 이 지역은 단군조선 초기(B.C. 3000년기초～중엽)의 집자리인 팽이그릇과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가 동반되는 집자리의 분포령역이다. 특히 대동강류역에서는 단군조선초기의 집자리들이 청동기시대의 집자리와 한 지역에 밀집되여있으면서 서로 자르거나 겹놓인 관계에 있는것이 적지 않다.

실례로 평안남도 덕천시 남양리유적에서는 단군조선 초기의 집자리들인 1호 및 15호집자리와 청동기시대의 집자리들인 2호 및 14호집자리와 자르거나 겹놓인 관계에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표대유적 11호집자리와 12호집자리의 겹놓인 관계, 남경유적 4호집자리와 30호집자리의 자르고 잘리운 관계 등에 의해서도 립증된다.

두 문화는 집자리의 분포범위에서 공통할뿐아니라 집자리짜임새에서도 공통성을 가진다.

고조선 전기 가장 이른시기(팽이그릇시기 2기)인 B.C. 3000년기초～중엽의 집자리는 화독이 1개 있는 장방형의 반움집으로서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유적 5호집자리와 황해북도 황주군 고연리유적 3호집자리처럼 방의 가장자리에만 기둥그루의 흔적이 있는것과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표대유적 3호, 5호, 7호, 11호, 17호 등의 집자리, 남경유적 3호, 4호, 10호, 11호, 16호, 18호, 19호, 35호집자리, 평안남도 덕천시 남양리유적 1호, 5호, 14호, 30호집자리, 황해북도 송림시 석탄리유적 38호집자리들처럼 방의 가장자리와 방안바닥에 기둥그루나 구멍의 흔적이 있는것 2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이밖에 청동기시대에 주류를 이루었던 장방형의 집자리평면테두리가 고조선 초기에 와서는 네모방정한 장방형의 평면테두리로 단일화되고 이 시기 집자리마다 취사 및 난방을 위한 필수적요소인 화독이 여전히 1개인것은 선행한 청동기시대의것을 그대로 계승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처럼 두 문화의 집자리짜임새가 서로 공통한것은 두 문화사이의 직접적인 계승성을 보여주는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대동강류역의 이른 시기의 고대문화의 집자리들이 이곳 청동기시대의 집자리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결과로 이루어졌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두 문화사이의 공통성과 계승성은 고인돌무덤에서도 볼수 있다.

단군조선 초기인 B.C. 3000년기초～중엽 대동강류역에는 침촌형고인돌무덤과 오덕형고인돌무덤이 있었다.

그가운데서 침촌형고인돌무덤은 청동기시대인 B.C. 4000년기 후반기에 대동강류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무덤의 하나이다.

물론 청동기시대의 침촌형고인돌무덤은 1형식의 침촌형고인

돌무덤과 2형식의 침촌형고인돌무덤으로 되여있고 단군조선시기의 침촌형고인돌무덤은 3형식의 침촌형고인돌무덤과 4형식의 침촌형고인돌무덤으로 되여있어 세부짜임새에서의 차이는 있으나 그것은 고인돌무덤자체의 발전과정에서 생긴 시기적인 차이이고 공통성은 두 문화사이의 계승성을 보여주는것이다.

따라서 단군조선 초기의 침촌형고인돌무덤은 청동기시대의 침촌형고인돌무덤(사진 10, 그림 8)을 직접 계승하고 발전시킨 결과로 이루어진 무덤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리고 단군조선 초기에 새로 나타난 1형식의 오덕형고인돌무덤은 청동기시대 2형식의 침촌형고인돌무덤으로부터 파생된 무덤이라고 볼수 있다.

두 문화사이의 공통성과 계승성은 또한 돌관무덤에서도 볼수 있다.

단군조선 초기 대동강류역의 돌관무덤들은 압도적다수가 얇은 판돌을 Ⅱ형으로 조립한것으로서 거기에는 한사람의 주검을 굽혀묻었다.

이러한 구조형식과 장법의 돌관무덤은 이미 청동기시대부터 이 고장에서 널리 류행되였다.

대동강류역의 고대문화가 이 고장의 청동기시대문화를 계승발전시킨 결과로 이루어진 문화라는것은 유적뿐아니라 유물들에서도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단군조선 초기 대동강류역의 고대유적들에서 드러난 특징적인 질그릇은 팽이그릇과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이다.

이 시기의 팽이그릇은 아구리가 밖으로 겹싸지고 몸체와 밑굽이 팽이처럼 생긴 팽이그릇과 목이 달린 팽이그릇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그런데 이 2가지의 팽이그릇은 B.C. 4000년기 후반기에 해당되는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 집자리들에서 흔히 볼수 있다.

다만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가 B.C. 3000년기초～중엽에 해당되는 대동강류역의 고대유적들에서 새롭게 보일뿐이다.

유물에서 계승관계는 석기들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단군조선초기에 대동강류역에서는 B.C. 4000년기 후반기보다 청동기생산이 가일층 발전되였으나 석기를 종국적으로 구축할 정도에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청동기생산의 특성과 관련된다. 청동기를 만들자면 그 원료인 동광과 주석광의 채취로부터 주조에 이르기까지의 기술공정을 파악하여야 하며 광석을 녹이기 위한 로와 풀무, 용해된 금속을 다루는 도가니와 거푸집 등 일련의 기술수단들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이처럼 청동기생산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으며 오직 집단적인 협업과 여러가지의 기술수단들을 통하여서만 실현될수 있다.

청동기는 또한 청동야금기술과 숙련된 경험을 소유한 전문수공업자가 아니고서는 만들수 없으며 그 원료도 제한되여있다.

이와는 달리 석기는 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재료를 어디서나 쉽게 얻을수 있으며 누구나 다 혼자서 만들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발전된 청동기문화단계에 들어선 경우에도 석기는 여러 분야에 적지 않게 남아있게 되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나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현상이였다.

이로부터 B.C. 3000년기초～중엽에 해당되는 대동강류역의 고대유적들에는 돌단검, 돌창, 돌활촉, 별도끼, 달도끼 등의 무기류와 돌도끼, 돌자귀, 돌대패날, 돌끌, 돌반달칼, 돌가락바퀴, 돌그물추 등의 로동도구를 비롯한 석기들이 남아있었다.

이와 같은 석기들은 B.C. 4000년기 후반기에 해당되는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유적들에서 흔히 볼수 있으며 그 개개의 형태도 거의 같다.

다만 B.C. 4000년기 후반기의 청동기시대유적들에서 나온

석기들보다 B.C. 3000년기초～중엽의 고대유적들에서 나온 석기들이 형태적으로나 제작상보다 세련되고 정형화된것이 다를뿐이다.

유물에서의 계승관계는 석기와 청동기의 생김새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대표적으로 비파형단검과 돌단검의 실례만을 들어보면 단군조선 초기에 해당되는 황해북도 신평군 선암리돌관무덤에서 드러난 비파형단검은 량쪽 날에 돌기가 없는 조기형의 비파형단검으로서 검몸의 생김새가 돌단검의 생김새와 매우 비슷하며 그 길이도 22.5㎝로서 돌단검의 길이와 비슷하다.

또한 뿌리가 짧고 검자루가 없는것으로 보아 나무자루에 조립하여 썼던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B.C. 4000년기 후반기에 해당되는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유적들에서 드러난 돌단검도 뿌리가 짧고 검자루가 보이지 않는것으로 보아 나무자루에 조립하여 썼던것으로 보아진다.

결국 비파형단검과 청동기시대의 돌단검은 재질에서 차이가 있을뿐이고 형태에서 서로 비슷하며 특히 조립식단검이라는 점에서 서로 공통하다.

조립식으로 된 단검은 조선에서 돌단검으로부터 청동비파형단검, 좁은놋단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전통적으로 쓰인 고유한 단검이며 그것은 검몸, 검자루, 검자루맞추개 등이 하나로 직접 련결되여있는 고대중국이나 고대북방계의 단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대동강류역의 비파형단검은 이 고장의 청동기시대 돌단검을 모체로 하여 그것을 계승발전시킨 결과로 생겨난 최초의 청동단검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대동강류역의 가장 이른 시기의 고대문화와 청동기시대문화사이에는 유적과 유물에서 공통성과 계승성이 있다.

이것은 대동강류역의 초기고대문화가 그 어떤 다른 지역에서

흘러들어온것이 아니라 B.C. 4000년기 후반기에 대동강류역에서 창조된 청동기시대문화에 그 연원을 두고 계승발전된 문화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고조선 전기문화(비파형단검문화)의 유적과 유물 (B.C. 3000년기초~B.C. 2000년기 말엽)

대동강류역의 고조선 전기문화는 B.C. 3000년기 초엽부터 B.C. 2000년기 말엽까지 근 2000년간 존재하면서 크게 3개 단계에 걸쳐 자체의 변화발전과정을 거치였다.

이것은 단군조선의 대표적인 유적의 하나인 팽이그릇집자리들의 층서관계와 집자리짜임새, 거기에서 드러난 유물갖춤새에 의하여 확증된다.

실례로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표대유적과 남경유적, 평안남도 덕천시 남양리유적, 북창군 대평리유적 등에서 드러난 집자리들은 그 층서관계와 집자리짜임새, 거기에서 드러난 유물갖춤새의 특징에 의하여 크게 4개 시기로 나누어지는데 1기는 화독이 1개 있고 벽가장자리에만 촘촘히 세웠던 기둥그루가 있는 집자리와 팽이그릇만 쓰인것으로 특징지어지고 2기는 화독이 1개 있고 벽가장자리와 함께 움바닥 긴축중심선상에도 기둥그루나 구멍이 있는 집자리가 주류를 이루고 팽이그릇과 함께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미송리형단지)가 쓰인것으로 특징지어지며 3기는 화독이 2개 있고 벽가장자리 혹은 움바닥에 기둥그루나 구멍이 있는 집자리가 주류를 이루고 팽이그릇과 함께 2류형의 조롱박형단지(묵방형단지)가 쓰인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리고 4기는 주추돌이 있는 집자리와 3류형의 조롱박형단지(남양형단지)가 쓰인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층서관계와 집자리짜임새, 질그릇갖춤새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현상은 그것들사이의 련면한 계승성과 시기적차이를 보여주는것이다.(그림 9)

이러한 시기적차이는 삼석구역 표대유적의 측정년대에 의하여 검증된다. 즉 이 유적의 집자리들에서 나온 질그릇을 핵분렬흔적법과 열형광년대측정방법으로 년대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1기에 속하는 8호집자리의 측정년대는 지금으로부터 5283±777년전(핵분렬흔적법)이고 4기에 속하는 13호집자리의 측정년대는 지금으로부터 3180±410년전(열형광년대측정법)이다. 그러므로 1문화기는 B.C. 4000년기 후반기로, 4문화기는 B.C. 2000년기 말경으로 편년되며 2문화기와 3문화기는 그것들사이에 차례로 놓이는것으로 편년된다.

※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에 토대하여 최근 조선학계에서는 1문화기는 B.C. 4000년기 후반기에 해당되는 청동기시대문화기이고 2문화기로부터 4문화기까지는 고조선 전기문화기이며 2문화기는 B.C. 3000년기초부터 중엽에 해당되는 고조선 전기문화 1기로, 3문화기는 B.C. 3000년기말~B.C. 2000년기 초엽에 해당되는 고조선 전기문화 2기로, 4문화기는 B.C. 2000년기 중엽~말엽에 해당되는 고조선 전기문화 3기로 편년하였다.

고조선 전기문화 1기(B.C. 3000년기초~중엽)의 유적과 유물

① 유 적

고조선 전기문화 1기의 유적으로서는 성곽, 제단, 집자리, 무덤 등이 있다.

성 곽

성곽으로서는 황대성, 성현리토성 아래성, 지탑리토성 아래

성, 청암동토성 아래성 등이 있다.

황대성은 평양시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약 100여리(직선거리) 떨어진 평양시 강동군 남강로동자구 황대마을 앞산에 위치하고있다.

이 성은 1993년 10월에 처음으로 알려진 조선에서 가장 오랜 고대성곽의 하나이다.(그림 10)

성벽은 강돌과 흙으로 쌓은 토석혼축형식으로 되여있으며 지금은 300m정도의 성벽이 남아있다. 현재 잘 남아있는 성벽의 밑너비는 10m이고 웃너비는 1m정도이다.

성안의 동남쪽에서 직경 3m, 길이 1.5m이상되는 구뎅이에 강돌을 채워넣은 돌구뎅이시설이 발굴되였는데 그것은 성안에 고이는 비물을 뽑기 위한 배수구뎅이로 인정된다.

이 성곽에서 볼수 있는 특이한 현상은 동북쪽성벽우에 고인돌무덤 하나가 자리잡고있고 북쪽성벽의 안쪽에 다른 하나의 고인돌무덤이 자리잡고있는것이다. 이 무덤들은 모두 구조형식상 1형식의 오덕형고인돌무덤에 속하는것이다.

성벽우의 고인돌무덤은 석회암판석을 동쪽과 서쪽에 마주세워 고임돌로 하고 북쪽에 막음돌을 세운 다음 그우에 뚜껑돌을 덮어서 무덤칸을 만들었다.

무덤칸이 열려진 남쪽의 동쪽 절반부분은 판돌을 고정시켜 막았고 서쪽 절반부분은 여닫을수 있게 판돌을 그냥 세워놓았다. 이 서쪽 절반부분은 무덤칸으로 드나들수 있는 무덤문자리로 인정된다.

무덤칸의 크기는 남북길이 2.2m, 동서너비 1.45m, 높이 1.55m이다.

이 고인돌무덤은 성벽우에 설치되여있는 문루나 각루, 녀장(성가퀴)과 같은 성벽시설물들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것으로서 이러한 현상은 고인돌무덤이 성이 페성된 다음 오랜 세월이 지

난 후에 축조된 무덤이라는것을 말해준다.(그림 11)

성벽우에 자리잡고있는 고인돌무덤과 구조형식이 류사한 평양시 상원군 룡곡리(발굴 당시) 방울뫼 4호고인돌무덤에서 나온 사람뼈의 측정년대는 지금으로부터 4539±167년전이다.

따라서 고인돌무덤보다 훨씬 이전에 축조된 성은 지금으로부터 5 000년전에 쌓은것으로 볼수 있다.

성현리토성은 평양에서 서쪽으로 100여리 떨어진 평안남도 온천군 성현리 소재지에 위치하고있다.

성은 벌방지대이면서도 전망이 좋은 그리 높지 않은 둔덕에 자리잡고있는 평지성이다.

본래는 성벽의 둘레가 500여m에 달하는 네모난 성이였는데 지금은 동쪽과 북쪽의 성벽이 흔적으로 남아있다.

이 성은 이전에 고조선 말기에 축조된것으로 알려져있었으나 최근에 성벽구조를 밝히기 위한 발굴과정에 현재 남아있는 성벽아래에서 먼저 쌓았던 밑성벽이 새롭게 발견되였다.

먼저 쌓은 아래성벽은 굳은 석비레생땅을 기초로 하고 그우에 판축방법과는 달리 석비레와 진흙을 엇바꾸어가면서 그냥 다져쌓았다. 때문에 석비레층과 진흙층의 두께는 고르롭지 못하였다.

후세에 쌓은 웃성벽은 아래성벽의 바깥경사면을 그대로 리용하면서 약 3m정도 성바깥쪽을 겹쌓는 방법으로 쌓았다. 이 성벽은 아래성벽과 같이 석비레생땅을 그대로 기초로 하였으나 축성방법에서는 아래성벽과는 달리 석비레와 진흙을 엇바꾸어가면서 수평으로 다져쌓은 판축형식으로 쌓았다.

아래성벽에서는 돌도끼와 돌가락바퀴 등의 유물들이 드러났고 웃성벽에서는 회색기와 쪼각, 검은회색기와 쪼각, 배부른단지 쪼각 등 고조선후기의 유물들이 나왔다.

이처럼 성현리토성은 축성방법과 드러난 유물에 의하여 서로 시

기를 달리 하여 쌓은 아래성벽과 웃성벽으로 나누어지는데 아래성벽의 축조시기에 대하여서는 이미 단군조선 초기로 확증되였다.*

*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학술발표회토론집》(조문) 사회과학출판사, 1996년, 57～62페지

지탑리토성은 평양에서 남쪽으로 100리 떨어진 황해북도 봉산군 지탑리에 위치하고있다.

이 성은 오래전에 파괴되였기때문에 완전한 면모는 찾아볼수 없으나 지금은 북벽이 약 180m, 동벽이 약 150m정도의 길이로 남아있다.

지탑리토성도 지난 시기 성현리토성처럼 아래성벽과 웃성벽으로 이루어진것으로 보아왔지만 최근 이 성의 성격을 해명하기 위한 발굴 및 연구과정에 시기를 달리하여 쌓은 3개의 성벽으로 갈라지는 현상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단군조선시기에 해당되는것은 토성의 맨 아래성벽이다.

현재 남아있는 아래성벽의 밑너비는 6m정도이고 높이는 3m정도이다.

성벽은 이 지역에 흔한 진흙과 자갈이 섞인 진흙으로 쌓았다.

성을 쌓을 때 흙을 놓고 다지였으므로 매우 굳으며 지층자름면은 막쌓기방법으로 쌓았으므로 검은 진흙층, 붉은 진흙층, 자갈모래가 섞인 진흙층으로 갈라져 서로 곡선을 이루고있다.*

*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학술발표회토론집》(조문) 사회과학출판사, 1996년, 52페지

아래성벽에서는 조선의 신석기시대의 유적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새김무늬그릇쪼각들과 석기들이 수백점 발굴되였다.

발견된 질그릇쪼각들가운데서 대부분은 전나무잎무늬가 새겨진 둥근밑창그릇이고 석기로서는 돌도끼, 돌활촉, 돌망치, 갈돌판, 석기반제품 등이 있다.

축성방법에서 후세에 쌓은 웃성벽을 먼저 쌓은 아래성벽의 바깥경사면에 겹쌓은것이라든가 아래성벽은 규칙성이 없이 쌓고 웃성벽은 판축형식으로 쌓은것에 이르기까지 성현리토성의 축성방법과 같다.

그러므로 지탑리토성의 아래성벽은 성현리토성의 아래성벽과 같은 시기에 쌓은것으로 볼수 있다.

청암동토성은 자연지세가 기묘하고 산수수려한 평양시 대성구역의 대동강기슭에 자리잡고있다.

청암동토성지역의 자연지리적조건을 보면 남쪽으로는 대동강, 동쪽으로는 합장강, 북쪽으로는 합장강과 보통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강줄기들이 흐르므로 세 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성방어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성의 북쪽면은 산릉선과 련결되여 모란봉에 잇닿아있다.

청암동토성은 대체로 반달모양과 비슷한 《반월성》인데 그 둘레는 약 3 450m이다.

청암동토성에서 북문부근과 서문부근의 성벽을 각각 1개 지점씩 발굴한데 의하면 그 구조가 일치하며 성벽은 흙으로만 쌓은 아래성벽과 돌과 진흙을 섞어 여러번 다시 쌓은 웃성벽으로 구분된다.

청암동토성 아래성벽은 단군조선시기에 해당되는것으로서 진흙으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쌓았다. 성벽은 황갈색의 진흙을 기본으로 하면서 붉은 갈색의 진흙과 섞어쌓았는데 쌓은 진흙층이 서로 곡선을 이루고있다. 황갈색의 진흙에는 작은 잔돌들이 일부 섞여있다. 이 아래성벽의 제일 높은 곳은 약 2.5m이고 밑너비는 약 10m정도이며 성벽의 안쪽은 약 20° 정도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있다.

성벽은 사암으로 된 암반우에 쌓았는데 성안쪽과 중심부분을 일정한 깊이로 암반을 파고 성벽을 올려쌓았다.

성벽과 성안에서는 돌단검, 돌창끝, 반달칼, 돌도끼, 별도끼, 팽이그릇쪼각 등 단군조선 초기의 유물들이 발견되였다.

최근 학계에서는 청암동 토성이 단군조선시기에 축조되여 고조선 전기간 쓰인 성이라는것과 고구려가 수도를 처음 옮길 때 성을 새로 쌓지 않고 청암동토성을 증축보수하고 왕궁으로 리용한 사실, 성의 지세와 자연조건, 성의 규모와 방어력이 수도성 수준에 있었다는것, 토성주변인 화성동에서 큰 제단유적이 발견된 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성을 단군조선시기의 수도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조선고고연구》(조문) 1998년 2호, 15페지

이 청암동토성을 중심으로 우에서 본 여러 성곽들이 100여리를 사이에 두고 하나의 위성체계를 이루고 동쪽과 서쪽, 남쪽에 배치되여있다.

이것은 당시 대동강류역에 평양을 수도로 한 단군조선이 존재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위력한 물질적증거로 된다.

제 단

고조선전기문화 1기의 제단시설로서는 평양시 룡성구역 화성동 2호제단시설을 들수 있다.

이 제단시설은 대성산서쪽의 평탄한 벌판에 자리잡고있다.(그림 12)

제단시설은 먼저 땅을 평탄하게 고루고 동서길이 16m, 남북길이 14m범위에 진흙을 날라다 1m정도로 흙을 복토한 우에 큰 돌들을 네 면에 원반형으로 둘러놓아 만든것이다.

이 제단은 돌을 2줄로 둘러놓았는데 안에 둘러놓은 돌줄바깥에 2～2.5m 너비의 회랑 비슷한것을 돌리고 돌을 깔아놓았으며 그 바깥에 4～4.5m 간격으로 큰 돌들을 놓아 보강하였다. 이 제단시설은 고조선의 건국시조인 단군에 대한 제사를 지내던 시설로 볼수 있다.

지난 시기 단군제사는 리조봉건국가와 사회적관심속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리조실록》을 비롯한 력사기록들에서는 왕궁과 평양단군사, 강동의 단군릉, 구월산의 삼성사, 강화도 마니산의 참성단 등지에서 단군제사가 큰 규모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는것을 전하고있다.

단군제사는 고려, 삼국시기, 고대로 올라가면서 더 성행하였으리라는것은 명백하다.

17세기에 편찬된 《규원사화》에는 《대개 하늘에 제사를 지내여 근본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례의는 단군에서 시작된것이며…》, 《단군이 나라를 순행하며 음력 10월에 하늘에 제사지내는것이 만대의 례법이 되였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하늘에 제사지냈다는것은 곧 하늘이 낸 임금이였던 단군에게 제사를 지냈다는것과 같은것으로 볼수 있다.

단군제사풍습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생겨났고 그것은 근대까지 그대로 전승되여왔다.

그러므로 우에서 본 화성동 2호제단시설은 그것이 고조선의 수도였던 오늘의 평양에 위치하고있으므로 궁중에서 진행한 단군제사터였다고 말할수 있다.

집자리

고조선전기문화 1기에 해당되는 대동강류역의 집자리로서는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표대유적 3호, 5호, 7호, 11호, 17호, 20호, 21호, 23호, 25호, 27호, 29호, 40호, 48호집자리, 남경유적 1～5호, 10호, 11호, 13호, 16호, 18호, 19호, 35호집

자리, 평안남도 덕천시 남양리유적 1호, 5호, 14호, 30호집자리, 황해북도 송림시 석탄리유적 2호, 8호, 35호, 38호, 39호, 40호집자리, 황주군 룡천리유적의 집자리, 평양시 사동구역 금탄리유적 3호, 8호집자리, 황해북도 봉산군 마산리유적 11~14호, 17호집자리, 평양시 력포구역 무진리(현재 룡산리)집자리 등을 대표적으로 들수 있다.(그림 13)

이 집자리들은 모두 대동강이나 그 가지흐름의 충적지대에 자리잡고있는데 많은 경우 B.C. 4000년기 후반기에 해당되는 청동기시대의 집자리 일부를 자르거나 그우에 겹놓인 상태로 드러났다.

표대유적의 7호집자리가 8호집자리우에 겹놓인것, 남경유적 4호집자리가 30호집자리의 일부를 자른것, 대평리유적 101호집자리가 102호집자리의 일부를 자른것, 남양리유적 14호집자리가 15호집자리우에 겹놓인것 등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이 시기의 집자리들은 모두 장방형의 반움집이며 방바닥의 넓이는 작은것이 28~30㎡이고 큰것이 45~50㎡이다.

움의 깊이는 대체로 40~45㎝이다. 방바닥은 진흙을 펴고 굳게 다졌으며 화독은 1개만 보인다.

집자리짜임새의 특징은 벽가장자리에 또는 벽가장자리와 방안바닥에 기둥그루나 기둥구멍의 흔적이 있는것이다.

남경유적 4호집자리의 방바닥 한복판에서 불에 탄 삿자리쪼각이 드러났는데 남은 흔적에 의하면 너비 1.7~2㎝정도로 날파씨를 격자로 엮은 삿자리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것은 조상들이 단군조선초기부터 방바닥에 삿자리를 펴고 문화위생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무 덤

고조선 전기문화 1기의 무덤으로서는 고인돌무덤과 돌관무덤이 있다.

B.C. 3000년기초～중엽에 속하는 고인돌무덤은 3형식(그림 14)과 4형식의 침촌형고인돌무덤과 1형식의 오덕형고인돌무덤 및 1형식의 묵방형고인돌무덤이다.(그림 15)

대표적인 고인돌무덤으로서는 황해북도 황주군 침촌리 신대동 2호, 3호고인돌무덤, 평양시 순안구역 석암야영소 2호고인돌무덤, 상원군(발굴 당시) 장리 1호, 2호고인돌무덤을 들수 있다.

이 시기의 고인돌무덤에서 주목되는것은 우선 조선의 그 어느 지역의 고인돌무덤들보다 규모가 매우 큰 무덤들이 존재하고 있는것이다.

장리 1호고인돌무덤은 뚜껑돌의 크기가 길이 630㎝, 너비 405㎝, 두께 72㎝이고 고임돌 1개의 크기가 너비 430㎝, 높이 255㎝, 두께 30㎝인 대형고인돌무덤일뿐아니라 거기에서는 청동 2인교예장식품과 청동방울(2개), 청동끌, 돌활촉(44개), 별도끼쪼각, 조롱박형단지와 팽이그릇쪼각 등의 많은 유물이 나왔다.

장리 2호고인돌무덤은 뚜껑돌은 남아있지 않지만 고임돌의 크기로 보아 뚜껑돌의 크기가 900㎝ 훨씬 넘는것이였을것이라고 보아진다.

그리고 이 무덤에서도 돌도끼, 가락바퀴, 반달칼, 별도끼쪼각, 돌활촉(74개), 팽이그릇쪼각 등 많은 유물들이 나왔다.

이러한 특대형고인돌무덤들은 대동강류역일대에서 고대국가성립의 초시기에 벌써 강력한 노예소유자적체제가 확립되여 있었으며 높은 건축술을 소유한 주민집단이 존재하고있었다는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묵방형고인돌무덤은 고조선 전기문화 1기에 와서 출현한 새로운 류형의 고인돌무덤이다.

이 시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1형식의 묵방형고인돌무덤으로서는 평양시 순안구역 석암야영소 2호고인돌무덤을 들수 있다.

이 고인돌무덤은 긴축이 동북—서남방향으로 놓여있는데 무

덤칸의 동, 남, 북벽은 길이 40～50㎝, 너비 20～30㎝정도의 다듬은 돌들을 차곡차곡 올려쌓아서 만들었다. 서벽은 문돌로 인정되는 넙적한 판돌 1장을 세워 만들었던것인데 뚜껑돌이 내려누르는 힘을 받아 깨여져있었다.

이 판돌밑에 벽체를 쌓은 돌보다 더 큰 길쭉한 돌들이 서로 잇대여 놓여있었는데 이것은 문턱과 같은 돌들우에 문돌을 세웠다는것을 보여준다. 무덤칸의 크기는 길이 176㎝, 너비 150㎝, 높이 50㎝이다.

무덤칸우에는 거북등모양으로 가공한 뚜껑돌을 덮었다.

무덤칸바닥에서는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쪼각이 나왔다.

이 시기의 고인돌무덤에서 주목되는것은 당대 사람들의 천문지식이 반영되여있는 별자리들이 새겨져있는것이다.

고인돌무덤의 뚜껑돌우에 새겨진 술잔모양의 홈구멍들의 크기는 별의 밝기와 거리를 반영하고있는데 북두칠성, 자미원, 태양수 등 별자리들이 구체적이면서도 과학성을 띠고 새겨져있다.

이처럼 B.C. 3000년기초～중엽에 해당되는 대동강류역의 고인돌무덤들에 별자리들이 새겨져있는것은 이 지역의 단군조선시기의 사람들이 건국초기부터 천체에 대한 관찰을 널리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 깊은 천문지식을 소유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돌관무덤으로서는 황해북도 신평군 선암리 1호, 2호돌관무덤과 황해남도 배천군 대아리돌관무덤,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유적 1호돌관무덤, 사동구역 미림쉴바위돌관무덤 등 여러기가 있다.

여기에는 선암리와 대아리돌관무덤과 같이 얇은 판돌로 돌관을 조립한것으로서 구조형식에서나 크기에서 청동기시대의 돌관무덤과 비슷한것도 있지만(그림 16의 1～4) 남경 1호돌관무덤이나 미림쉴바위돌관무덤과 같이 돌관의 견고성을 보장하려

는 의도로부터 좌우의 세움돌과 앞뒤의 막음돌, 바닥돌, 뚜껑돌 등을 조립함에 있어서 사개물림을 적용한것 등 무덤축조에서 새로운 전진이 보인다.

사개물림방법을 적용한 대표적인 돌관무덤으로서는 평양시 삼석구역 남경1호돌관무덤을 들수 있다.

남경1호돌관무덤은 무덤구뎅이바닥을 동실동실한 자갈을 한두벌 고르롭게 편 후에 보드라운 흙을 한벌 깔아 반듯하게 한 다음 그우에 길이 112㎝, 너비 52～57㎝, 두께 3㎝정도의 바닥돌을 깔았다.

활등선을 이룬 바닥돌의 동서 두 변의 중간쯤에는 길이 5㎝, 너비 3㎝정도의 사개물림홈이 나있었다.

무덤구뎅이안에는 또한 세움돌과 막음돌을 보강하기 위해 박아두었던 돌시설들도 발견되였다.*

*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조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년, 203페지

② 유 물

이 시기의 유물로서는 청동기, 석기, 질그릇이 있다.

청동기는 무기, 공구, 장식품 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그림 17)

청동무기에서 가장 주목되는것은 비파형단검과 비파형창끝이다.

비파형단검은 황해북도 신평군 선암리돌관무덤과 황해남도 배천군 대아리돌관무덤에서 나왔다.

이 비파형단검들은 지난 시기 날부분이 우로부터 아래로 밋밋하게 넓어졌다고 하여 후기비파형단검으로 간주하면서 가장 늦은 시기의것으로 보아왔었다.

그러나 비파형단검의 전반적생김새를 자세히 보면 결코 늦은 시기의것이 아니며 오히려 가장 이른 시기의것으로 볼수 있다.

이미 알려져있는바와 같이 종전에는 비파형단검을 초기, 중기, 후기의 3가지 형식으로 나누었다. 즉 단검의 길이가 28.8㎝미만이며 비파모양의 형태가 가장 뚜렷하고 조롱박형단지와 함께 나오는것을 초기비파형단검으로, 길이가 초기비파형단검보다 조금 길고 형태가 비파모양이지만 날부분의 너비가 약간 좁아져서 날씬하게 생긴것을 중기비파형단검으로, 청동으로 만든 검자루가 있고 길이가 32㎝이상이며 비파모양의 형태가 뚜렷하지 않고 밋밋하게 된것을 후기비파형단검으로 보았었다.*

* 《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조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년, 9～11페지

그러나 종전에 알려진 비파형단검가운데는 우에서 지적된 3가지 형식에 포함시킬수 없는 단검들도 있다.

신평군 선암리돌관무덤에서 나온 비파형단검도 종전에는 그것을 비파모양의 형태가 뚜렷하지 않고 날부분이 우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밋밋하게 넓어졌다고 하여 후기비파형단검에 포함시켰었다.

그러나 이 단검에는 《후기비파형단검》의 가장 중요한 징표인 청동검자루가 없고 길이도 22.5㎝로서 32㎝이상 되는 《후기비파형단검》과 공통성이 없으며 《초기비파형단검》의 길이와 같다.

또한 선암리돌관무덤에서 나온 비파형단검은 평안남도 덕천시 남양리유적 1기층을 비롯한 청동기시대의 집자리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2등변3각형의 밑이 오무러든 활촉과 몸체의 가로자름면이 릉형인 뿌리나래활촉과 함께 나왔다.

《초기비파형단검》은 비파형단검가운데서 비파모양의 형태가 가장 뚜렷한 단검이다. 그러나 중기나 후기의 비파형단검은 《초기비파형단검》에 비하여 비파모양의 형태가 점점 희미해지는 상태를 보여준다. 즉 비파모양의 형태는《초기비파형단검》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런 완성된 형태의 단검이 그 이전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번에 이루어졌다고 볼수 없으며 고도로 전형화된《초기비파형단검》은 반드시 그 선행단계를 거쳐서 완성되였다고 인정된다.

선암리돌관무덤과 대아리돌관무덤에서 나온 비파형단검을 바로 이러한 선행단계의 비파형단검 즉 가장 오랜 비파형단검으로 볼수 있다.

청동비파형창끝으로서는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표대유적 10호집자리에서 나온것이 1개 있다.

이 비파형창끝은 지금까지 알려진 비파형창끝들가운데서 가장 이른 시기의것인데 길이가 11.2㎝, 몸체의 너비가 2㎝로서 짧은데 비하여 몸체가 넓으며 그 제작상 매우 고졸한감을 주는것이다.

주머니부분의 가로자름면은 모죽은 장방형에 가까운 타원형인데 한쪽에 자루를 고정시키기 위한 구멍이 뚫어져있다. 이 자루주머니속에 탄화된 나무자루쪼각이 남아있었다.

청동공구로서는 금탄리유적 8호집자리와 장리1호고인돌무덤에서 나온 청동끌을 들수 있다.

금탄리유적 8호집자리에서 나온 청동끌은 등부분이 부러져나가고 현재 남은 길이 5.6㎝, 너비 1㎝, 두께 0.4㎝인데 등부분에서 날쪽으로 가면서 너비가 좁아지고 두께가 얇아졌다. 날은 짝날을 이루었다.

장리1호고인돌무덤에서 나온것은 겉면에 푸른 녹이 덮여있는데 네모난 몸체의 앞부분에는 예리한 짝날을 세우고 대가리부

분은 모를 죽여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끌의 자름면은 모가 난 직4각형을 이루고있다.

전체적인 모습은 금탄리유적의 청동끌과 비슷하다. 크기는 길이 6.6㎝, 너비 0.6㎝, 두께 0.3㎝이다.

청동장식으로서는 장리1호고인돌무덤에서 나온 2인교예청동장식을 들수 있다.(사진 11)

2인교예청동장식은 한쪽 손으로는 서로 어깨를 겯고 한쪽 발목은 서로 붙인 두 교예사가 2개의 둥근 륜우에 올라서서 바깥손에 각기 둥근 륜을 1개씩 쥐고 재주를 부리는 장면을 형상한것이다.

두 교예사는 몸에 착 달라붙는 번개무늬를 돋친 바지와 저고리를 입었으며 얼굴에는 입, 코, 귀가 생동하게 묘사되여있다.

비록 장식품은 크지 않지만 당시로서는 세련된 청동주조기술과 정교한 세공술을 잘 보여준다.

또한 교예를 비롯한 예술이 사회활동의 한 형태로 분화되여있었으며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밖의 청동기로서는 청동방울을 들수 있다.(사진 11)

청동방울은 2인교예장식과 함께 장리 1호고인돌무덤에서 2개 나왔다. 이 2개의 청동방울은 생김새와 크기가 꼭 같은것으로서 아구리가 넓고 꼭대기가 좁은 길죽한 종모양으로 생겼다. 꼭대기에는 반원형의 고리손잡이가 붙어있고 울림통안에는 추가 달려있다. 특징적인것은 울림통에 세로 긴 구멍을 네등분점에 내고 번개무늬를 돋친것이다.

이 청동방울은 2인교예장식과 같이 나온것으로 보아 단순한 방울이 아니라 당시 교예나 무용, 음악 등 예술공연을 할 때 소리기재로 리용된 악기의 한 종류로 인정된다.

또한 룡곡리 4호고인돌무덤에서는 두께 1㎜, 직경 4㎝되는 원판을 웃면이 불룩하게 주조하고 우묵한 뒤면중심에 직경 1.5㎜

인 고리가 있어 패용하게 되여있는 단추모양의 청동기가 1개 나왔다. 고리의 굵기는 1.5㎜이다. 겉면은 방부제를 사용하여 광택이 돌고있었다.

석기로서는 단검, 창, 과, 별도끼, 달도끼, 활촉 등의 무기류와 도끼, 턱자귀, 대패날, 끌, 송곳, 자귀, 반달칼, 갈돌판, 갈돌대, 숫돌 등의 농공구류, 대롱구슬, 굽은구슬 등의 치레거리, 그밖에 돌돈, 가락바퀴, 그물추, 발화석 등이 있다. 그가운데서 과를 제외한 그밖의 석기들은 그 생김새에서 청동기시대의 집자리와 무덤들에서 나온 석기들과 큰 차이가 없으며 다만 형태상 좀 더 세련된것이 다를뿐이다.

돌과는 이 시기에 나타나는 특색있는 기마전투용무기이다.

별도끼도 고대시기의 특징적인 무기의 하나이다. 별도끼는 내려치는 무기로도 사용되였겠지만 주로 전투시 군사지휘관들의 전투지휘무기로 리용되였다.

질그릇은 이 시기 문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의 하나로서 집자리들과 무덤들에서 수많이 나왔다.

질그릇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팽이그릇과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이다.

팽이그릇은 청동기시대의 팽이그릇과 마찬가지로 목이 없는 팽이그릇(전형의 팽이그릇)과 목이 있는 팽이그릇 2가지가 다 있다.(그림 18의 1～11)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는 이 시기에 처음으로 보이는 특징적인 질그릇의 하나이다.(그림 19의 1～4)

※ 조롱박형단지는 그 생김새와 무늬형식에 따라 1류형, 2류형, 3류형의 조롱박형단지로 구분된다. 즉 조롱박의 아래우를 잘라버린 생김새의 몸체에 여러개의 줄띠무늬장식과 손잡이가 있거나 그것이 없는 단지를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미송리형단지)

라고, 몸체의 생김새와 바탕흙, 색갈은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와 비슷하나 몸체의 중간부분에 두돌기의 묶음식줄띠를 돌린 다음 그 사이에 톱날식으로 여러줄의 묶음선을 새겨 바로 또는 거꾸로 선 3각형무늬가 련속 이루어지게 한 무늬를 새긴 단지를 2류형의 조롱박형단지(묵방형단지)라고, 몸체의 중간부분에 새긴 두돌기의 묶음식줄띠무늬사이에 일정한 사이를 두고 바로 또는 거꾸로 선 3각형무늬가 일정한 사이를 두고 련속 이루어지게 한 다음 3각형만을 윤기나게 잘 닦아 더 돋보이게 한 단지를 3류형의 조롱박형단지(남양형단지)라고 한다.

대동강류역일대에서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가 나온 유적들을 보면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표대유적 3호, 5호, 7호, 11호, 17호, 25호, 27호, 29호, 40호, 48호, 57호, 65호집자리, 남경유적 3호, 4호, 5호, 16호, 18호, 19호집자리, 평양시 사동구역 금탄리유적 36구획, 평안남도 덕천시 남양리유적 5호, 14호집자리, 황해북도 황주군 룡천리유적 등을 들수 있다.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는 대동강류역뿐아니라 이웃지역에서도 발견되는 고대시기의 특징적인 질그릇이다. 그러나 대동강류역에서 알려진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는 이웃지역의것들과 생김새와 겉면장식에서 뚜렷이 구별된다.

대동강류역의 1류형 조롱박형단지들은 서북조선 및 랴오둥지방의것과는 달리 목의 길이가 긴편이다.

쐉팡고인돌무덤의 조롱박형단지를 비롯하여 이웃지역 1류형조롱박형단지들의 목의 길이는 대부분 2～4㎝정도로서 매우 짤막하지만 대동강류역 1류형조롱박형단지의 목길이는 6～8㎝정도이다.

또한 대평리유적과 고연리유적에서 나온것과 같이 아구리쪽으로 가면서 안으로 살짝 오무라든 생김새를 가진 1류형 조롱박

형단지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른 지역의 1류형 조롱박형단지는 대체로 아구리끝쪽으로 가면서 밋밋이 벌어진것들이다.

또한 쐉팡고인돌무덤이나 일도허쯔돌관무덤을 비롯하여 랴오둥지방에서 알려진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가운데도 몸체의 밑부분이 얼마간 넓어 밑으로 처진감을 주는것도 있지만 남경유적이나 표대유적에서 나온것처럼 심히 처진감은 주지 않는다.

대동강류역에서 나온 1류형조롱박형단지에는 혹처럼 도드라진 밑굽이라던가 둥근 밑 또는 뾰족밑을 강하게 련상시키는 밑창이 달린것들이 적지 않지만 랴오둥지방에서는 이러한 밑창을 가진것들을 볼수 없다.

또한 대동강류역 1류형 조롱박형단지에는 손잡이가 달린것이 많지 않다.

물론 손잡이가 달린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는 남경유적이나 표대유적에서 간혹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단지들에 달려있는 손잡이에는 꼭지모양인것이 많고 입술모양의 손잡이도 있는데 그것들이 쌍을 이루고 함께 달려있는것도 있고 꼭지모양의것만이 대칭으로 달려있는것도 있다.

그러나 랴오둥지방에서 알려진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에서는 손잡이가 달려있지 않은것을 찾아보기 어려울뿐아니라 손잡이가 4개 달린것이 흔하고 드물기는 하지만 쐉팡고인돌무덤에서 나온것처럼 손잡이가 3개 달린것도 있다.

뿐만아니라 겉면장식에서도 평양지방의 1류형 조롱박형단지는 자기의 특색을 나타내고있다.

대동강류역의 1류형 조롱박형단지들에서는 몸체에 무늬가 없거나 혹은 2～3돌기의 묶음식줄띠무늬가 새겨져있는것만 볼수 있지만 랴오둥지방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1류형 조롱박형단지 가운데는 일도허쯔돌관무덤에서 나온것처럼 몸체에 4돌기의 묶음식

줄띠무늬가 새겨져있는것도 있고 미송리동굴유적에서 나온것처럼 1돌기의 묶음식줄띠무늬가 새겨져있는것도 있다.

고조선 전기문화 2기(B.C. 3000년기 말엽~B.C. 2000년기 초엽)의 유적과 유물

① 유 적

이 시기의 유적으로서는 성곽과 제단, 집자리와 무덤이 있다.

성 곽

고조선 전기문화 2기에 해당되는 성곽유적으로서는 새로 발굴된 덕산토성과 지탑리토성(중간성)을 들수 있다.

덕산토성은 평양시 은정구역 광명동과 과학1동을 포함한 지역에 있는데 청룡산줄기에서 뻗어내린 가지줄기와 이어진 릉선에 동서로 길게 자리잡고있다.

덕산토성의 북쪽에는 청룡산줄기의 동쪽에서 발원한 사수천(평성천)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동쪽에는 국사봉의 서쪽경사면에서 발원한 배산천이 사수천으로 흘러든다. 이 두 물줄기는 덕산토성의 자연해자를 이루고있다. 이와 같이 덕산토성은 지형학적으로나 수문학적으로 방어에 매우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갖추고있었다고 볼수 있다.

덕산토성은 동서로 긴 장방형의 평면생김새를 가졌다. 제일 긴 북쪽성벽의 길이는 540m이고 제일 짧은 서쪽성벽의 길이는 약 240m이며 성의 총 둘레는 약 1 560m이다.

이 토성은 3개의 문화층을 이루고있는데 맨 아래층이 단군조선시기의 문화층이다.

본래의 생땅을 깊이 80㎝, 너비 340㎝로 내려파고 거기에 모래가 섞인 검은 진흙을 다져넣어 그것을 성벽기초로 하였다. 그 우에는 붉은 진흙을 60㎝가량 쌓고 다졌다. 여기에는 기초층

의 폭과 거의 같은 너비로 5∼10 ㎝ 크기의 돌을 섞어넣어 성심의 견고성을 더욱 높이였다. 맨 아래성벽의 높이는 1.4m이다.

성안에서는 가락바퀴, 돌단검, 청동장식품쪼각 등이 나왔다.

지탑리토성(중간성)은 앞에서 본 고조선 전기문화 1기에 해당되는 지탑리토성 아래성벽우에 겹쌓은것으로서 규칙이 없이 쌓아진 아래성벽에 비해 비교적 견고하고 규모있게 축성하였다.

제 단

이 시기의 제단시설로서는 화성동 1호제단과 황해북도 연탄군 오덕지구에서 알려진 3개의 제단이 있다.

화성동 1호제단은 2호제단으로부터 북쪽으로 800m정도 떨어진 당모루둔덕에 자리잡고있는데 먼저 둔덕을 평탄하게 고루고 동서길이 20m, 남북길이 18m의 범위에 빨간 진흙을 다른 곳에서 날라다가 1∼1.5m 두께로 쌓고 다진 다음 그 네 변두리에 길이 2∼3m, 너비 1.2m, 두께 0.9m 정도의 큰 돌을 각각 8∼10 개씩 련이어 둘러놓았다.

네 변두리에 둘러놓은 돌들은 모두 밖으로 곡선을 이루도록 바깥면을 다스렸다.

제단은 남북방향으로 놓여있었는데 그 남쪽에는 넓은 마당이 있다.(사진 12, 그림 20)

제단안에서는 팽이그릇쪼각들과 2 개의 돌활촉이 드러났다.

오덕지구에서 알려진 3 개의 제단시설은 길이 1.3m, 너비 약 1m, 두께 0.8m정도의 큰 돌들을 빙 둘러놓고 그안에 강돌을 한벌 깔고 그우에 돌무지를 쌓은것이다.

이 제단시설들 역시 고조선의 건국시조인 단군에 대한 제사를 지내던 시설들로 볼수 있다.(그림 21)

집자리

이 시기의 대표적인 집자리로서는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표대유적 4호, 10호, 24호, 30호, 41호, 45호, 46호, 53호집자

리, 남경유적 14호, 15호집자리, 승호구역 립석리유적 2호집자리(발굴 당시), 평안남도 덕천시 남양리유적 8호, 13호, 16호, 18호, 20호, 21 호, 26호, 28호집자리, 황해북도 송림시 석탄리유적 23호, 26 호, 27호, 31호, 32호, 37호집자리, 황주군 고연리유적 6호집자리, 봉산군 마산리유적 4호집자리, 신흥동 유적 3호집자리 등을 들수 있다.

이 시기의 집자리들가운데서 적지 않은 집자리들은 B.C. 3000 년기 초엽~중엽에 해당한 시기의 집자리일부를 자르거나 그우에 덧놓인 상태에서 드러났다.

실례로 표대유적의 6호집자리가 7 호집자리의 일부를 자른 상태에서 드러난것, 남경유적의 14호집자리가 16호집자리의 많은 부분을 자른 상태에서 드러난것, 대평리유적의 3 호집자리가 4호집자리의 일부를 자른 상태에서 드러난것, 남양리유적의 13 호집자리가 14 호집자리의 일부를 자른 상태에서 드러난것, 고연리유적의 6 호집자리가 7 호집자리우에 겹놓인 상태에서 드러난것 등을 들수 있다.

이 시기의 집자리들은 짜임새에서 B.C. 3000 년기초~중엽의 집자리와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있지만 화독이 2개 있는것이 특징이며 질그릇갖춤새가 팽이그릇과 2 류형의 조롱박형단지(묵방형단지)로 이루어져있는것이 또한 특징이다.

2 류형의 조롱박형단지가 1 류형조롱박형단지의 후신이라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무 덤

고조선 전기문화 2 기(B.C. 3000 년기말~B.C. 2000 년기 초엽)에 와서도 고조선 전기문화 1기에 만들어 쓰던 고인돌무덤과 돌관무덤이 계속 류행되였다.

그러나 무덤의 짜임새에서는 일련의 새로운 요소들이 보인다.

먼저 고인돌무덤을 보면 이전 시기에 흔히 볼수 있었던 침촌

형고인돌무덤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2형식의 묵방형고인돌무덤이 류행되였다.(그림 22) 그러한 대표적인 실례로서는 묵방리 4호, 17호고인돌무덤을 들수 있다.

묵방리 4호고인돌무덤은 반듯한 뚜껑돌주위에 2~2.5m 범위에는 막돌로 무져놓은 묘역시설이 있고 이 묘역바깥(돌관주위 2.5m)에는 드문드문 땅속에 큰 돌들이 박혀있다. 이것은 묘역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강한 받침돌로 인정된다.

뚜껑돌밑에 있는 주검칸은 판돌쪼각으로 벽돌쌓듯이 동, 서, 북벽을 쌓고 개방된 남벽에는 2장의 판석으로 전면을 막은 문이 있다. 돌관바닥에는 판석쪼각을 이어서 전면을 깔고 그우에 잔자갈을 한벌 폈다.

또한 고조선 전기문화 1기에 새로 나타났던 1형식의 오덕형고인돌무덤대신에 2형식의 오덕형고인돌무덤이 널리 류행되였다.

1형식의 오덕형고인돌무덤이 주검칸의 높이에 관계없이 4장의 판돌로 주검칸을 뭇고 그중 한켠의 막음돌을 문돌로 쓴것이라면 2형식의 고인돌무덤은 문턱돌이 있고 고임돌을 둥글게 다듬었으며 기초홈을 파고 고임돌을 견고하게 세운것이다.

2형식의 오덕형고인돌무덤으로서는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3호고인돌무덤, 황해북도 연탄군 오덕리 10호고인돌무덤 등 여러 고인돌무덤들을 들수 있다.

이 시기의 고인돌무덤들에서는 뚜껑돌우에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것이 더 흔히 보인다.

대표적인 실례로 은천군 남산리 24호고인돌무덤에는 북두칠성, 오제, 간원, 자미원, 관삭, 칠공, 초요, 경하, 대각 등의 별자리가 새겨져있다.(그림 23)

다음으로 돌관무덤으로서는 강서구역 태성리 20호돌관무덤, 황해북도 송림시 석탄리돌관무덤 등 많은것들을 들수 있다.

이 시기에 와서 태성리 20호돌관무덤과 같이 길이 165㎝, 너비 45~57㎝로서 크기가 매우 큰 전신장돌관무덤도 새롭게 나타난다.

② 유 물

이 시기의 유물가운데서도 석기들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종류와 생김새에서는 앞선 시기의 석기들과 큰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 시기의 문화적특징을 잘 보여주는 비파형단검과 비파형창끝, 단추모양의 청동기, 질그릇을 위주로 하면서 그밖의 새로운 유물들에 대해서만 보기로 한다.(그림 24)(사진 13)

이 시기 유물가운데서 가장 주목을 끄는것은 비파형단검이다. 물론 정식 발굴과정에 드러난 비파형단검은 없지만 이 시기의 비파형단검으로 볼수 있는것이 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는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동에서 드러난 비파형단검이다. 이 비파형단검은 야산의 남쪽경사면 중턱에서 발견되였는데 거기에 돌들이 널려져있었던것으로 보아 무덤자리였던것 같다.

이 비파형단검은 지난 시기 후기비파형단검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돌기부와 우묵이, 불룩이가 뚜렷한것이라든가 돌기부의 위치가 검날의 한가운데서 약간 웃쪽으로 치우쳐있는것, 단검의 전체 길이가 28㎝정도의것으로서 후기비파형단검보다 현저히 짧은것 등 그 전반적인 생김새와 크기에 있어서 중기비파형단검과 다를바가 없다.

후기비파형단검의 형태상특징은 돌기부가 없고 밑의 불룩이가 좁아졌으며 그 길이가 32㎝이상으로서 비파형단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부터 많이 변모된것이다.

그리므로 전형적인 비파형단검의 모습을 갖추고있는 서포동의 비파형단검은 중기비파형단검으로 보는것이 타당하고 합리적

인것이다. 이 시기의 비파형창끝은 남양리유적 16호집자리와 룡곡리 5호고인돌무덤에서 각각 1개씩 나왔다.

남양리유적 16호집자리와 룡곡리 5호고인돌무덤에서 나온것은 몸체의 길이가 12.7~13㎝로서 고조선 전기문화 1기에 해당되는 표대유적의것에 비해 창끝이 뾰족하고 날이 예리할뿐아니라 돌기부가 뚜렷하여 매우 세련된 느낌을 주는것이다. 그러므로 어느모로 보나 늦은 시기의 형식으로 인정되는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 표대유적의것이 이른 시기의것이고 그밖의것들은 늦은 시기의것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고조선 전기문화 2기의 집자리인 남양리유적 20호집자리에서는 단추모양의 청동기 5점이 나왔는데 원반형의 생김새를 가진것으로서 한쪽 면은 볼록하게 나오고 그 반대면은 오목하게 들어갔다.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의 복판에는 달아맬수 있는 고리가 붙어있다.

볼록하게 나온 면은 놋거울처럼 잘 연마되였다. 한 거푸집에서 부어낸것이여서인지 모두 직경이 5.5㎝인것이다.

이 시기의 질그릇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팽이그릇과 2류형의 조롱박형단지이다.

2류형의 조롱박형단지는 조롱박의 아래우를 잘라버린 생김새의 몸체에 두돌기의 묶음식줄띠를 돌린 다음 그 사이에 톱날식으로 여러줄의 묶음선을 새겨 바로 또는 거꾸로 선 3각형무늬가 련속 이루어지게 한 무늬를 새긴 단지이다. 이러한 단지는 평안남도 개천시 묵방리고인돌무덤과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표대유적 4호, 10호, 30호, 57호집자리를 비롯하여 고조선 전기문화 2기의 여러 유적들에서 나왔다.

이것은 B.C. 3000년기말에 들어서서도 전통적인 팽이그릇을 계속 만들어쓰면서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대신에 2류형의 조롱박형단지를 새롭게 만들어썼다는것을 보여준다.

고조선 전기문화 3기(B.C. 2000년기 중엽～말엽)의 유적과 유물

① 유 적

이 시기의 유적으로서는 성곽, 집자리, 무덤이 있다.

성 곽

이 시기의 성곽유적으로서는 평양성 아래성을 들수 있다.

아래성벽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석비레암반을 기초로 삼고 그우에 막돌과 진흙을 섞어서 다지면서 쌓는 방법으로 축조되였다. 성벽축조에 쓰인 막돌의 크기는 직경 15㎝이하의 작은 깬돌들이다. 성벽의 크기는 밑너비 11m, 높이 1.5m이며 성안팎으로 밋밋하게 경사졌다.

아래성벽에서는 고조선 전기의 유물들인 반달칼, 가락바퀴, 팽이그릇쪼각들이 나왔다.

집자리

이 시기의 대표적인 집자리로서는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표대유적 9호집자리, 남경유적 8호집자리, 평안남도 덕천시 남양리유적 3호, 4호, 9호, 11호, 22호, 32호집자리, 북창군 대평리유적 2호, 105호집자리, 황해북도 송림시 석탄리유적 41호집자리, 황주군 고연리유적 10호집자리 등을 들수 있다.

이 시기의 집자리들도 고조선 전기문화 2기의 집자리를 자르거나 그우에 겹놓인 상태에서 드러난 경우가 적지 않다.

남양리유적 22호집자리가 21호집자리 일부를 자른 상태에서 드러난것, 표대유적 13호집자리가 9호집자리의 일부를 자른 상태에서 드러난것, 대평리유적 2호집자리가 3호집자리의 일부를 자른 상태에서 드러난것 등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이 시기의 집자리들은 화독이 2개 있는 장방형의 반움집으로서 이전 시기의 집자리와 공통하지만 주추돌이 있는것이 다르며 질그릇갖춤새에서 팽이그릇과 3류형의 조롱박형단지로 이루

어져있는것이 특징적이다.

무 덤

이 시기의 무덤으로서는 그 이전시기와 마찬가지로 고인돌무덤과 돌관무덤, 돌곽무덤이 있다.

이 시기에 류행된 고인돌무덤은 3형식의 오덕형고인돌무덤과 3형식의 묵방형고인돌무덤이다.

3형식의 오덕형고인돌무덤으로서는 황해남도 안악군 로암리 1호고인돌무덤, 은률군 관산리 1호고인돌무덤, 평안남도 성천군 거흥리 1호고인돌무덤, 황해남도 은천군 정동리 3호고인돌무덤, 남산리 1호고인돌무덤 등을 대표적으로 들수 있다.(그림 25)

3형식의 오덕형고인돌무덤들은 무덤칸 한켠 모서리에 나들문이 있는것으로서 치밀한 건축력학적타산밑에 기초홈을 파고 거기에 고임돌을 세우되 안기울임도 주었고 쐐기돌과 받침돌까지 배합하였을뿐아니라 다양한 기하학적도형으로 뚜껑돌을 가공하여 만든것으로서 장구한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상에 거연히 솟아있다.

3형식의 묵방형고인돌무덤으로서는 평양시 순안구역 석암야영소 1호, 10호고인돌무덤, 개천시 묵방리 25호고인돌무덤, 증산군 석다리 고인돌무덤을 대표적으로 들수 있다.

3형식의 묵방형고인돌무덤들은 1형식의 묵방형고인돌무덤과는 달리 세 벽만 쪼각돌로 쌓은것이 아니라 네 벽체를 기본적으로 판돌로 겹쳐 쌓았고 한켠 벽모서리에 나들문을 만든것이다. 나들문에는 판돌로 문을 만들어 막아놓은것도 있고 시체를 안치한 다음 밖에서 다른 벽체와 같이 아귀를 맞추어 쪼각돌로 쌓아 문을 막은것도 있다.

이 시기의 고인돌무덤들에도 별자리들이 새겨져있다.

정동리 3호고인돌무덤에 북두칠성, 북극5, 구진, 자미원, 천리, 천률, 남산리 1호고인돌무덤에 북극5, 정수, 삼수, 하고, 직

녀, 천률, 자미원, 구진별자리가 새겨져있는것은 그러한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평양시 순안구역 신성동돌곽무덤은 후기의 비파형단검이 나온것으로 하여 이목을 끄는 고조선 전기문화 3기의 대표적인 돌곽무덤이다.

이 무덤은 무덤구뎅이를 파고 그안에 돌을 쌓아서 남북으로 길게 놓인 장방형의 무덤칸벽을 만든 다음 그우에 뚜껑돌을 덮은 남북길이 160㎝, 동서너비 90㎝, 동쪽벽의 높이 66㎝인 돌곽무덤이다.

무덤에서는 비파형단검 1개, 번개무늬거울 1개, 검자루맞추개 1개, 돌활촉 2개, 목긴 배부른단지 1개가 나왔다.

② 유 물

이 시기의 유물로서는 청동기, 청동방울거푸집, 석기, 질그릇 등이 있다.

그가운데서 대부분의 유물은 그 이전시기의 유물과 같으나 비파형단검과 질그릇에서는 일련의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의 비파형단검들은 종전에 후기형식의 비파형단검으로 보아오던것과 같이 날폭이 좁고 돌기부와 우묵이가 희미한것으로서 비파형단검이 좁은놋단검으로 넘어가는 과도적특징을 나타내는 형태의 단검들이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서는 평양시 동대원구역과 개천시 삼봉리 등에서 알려진 비파형단검을 들수 있다.

이 단검들의 형태에서는 중기형식의 단검들의 퇴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동시에 에임과 마디가 없는 초기 좁은놋단검과 류사한 점들도 나타난다.

질그릇은 팽이그릇과 3류형 조롱박형단지가 질그릇갖춤새에서 주요구성요소를 이루고있는것이 특징이며 또한 목이 달린 팽이그릇인 경우에도 아구리가 나팔처럼 벌어지고 그밑에 가로 줄

을 그어서 겹싸넘긴 아구리처럼 보이게 한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것이 주목된다.(그림 26의 1～3)

우에서 본바와 같이 대동강류역의 고조선 전기문화(비파형단검문화)는 B.C. 3000년기초부터 B.C. 2000년기 말엽까지의 근 2000년간에 걸쳐 존재한 문화이다.

이 문화는 조선민족사의 첫머리인 고조선의 력사와 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로 된다.

그것은 첫째로, 조선이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5천년 력사국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그것은 황대성을 비롯한 5 000년전에 축조된 고대성곽들과 화성동 1호제단시설, 장리 1호고인돌무덤을 비롯한 대형고인돌무덤, 비파형단검을 비롯한 청동무기 등이 실증해준다.

둘째로, 대동강류역이 고조선문화의 발원지, 중심지라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단군조선 초기에 해당되는 대동강류역의 고인돌무덤과 돌관무덤 그리고 집자리들에서 비파형단검과 비파형창끝이 드러난 사실은 고대문화의 발원지, 중심지가 랴오둥지방이 아니라 바로 대동강류역이라는것을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셋째로, 대동강류역에서 발생한 고대문화가 당시로서는 매우 발전된 청동기문화였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대동강류역에서는 고조선의 건국초기부터 청동으로 만든 장식품은 더 말할것도 없고 여러가지 무기와 공구들까지 만들어썼다.

이렇게 발전된 청동기문화를 일찌기 창조한 례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다.

대동강류역에서 그처럼 일찌기 청동기문화가 발전할수 있은것은 평양을 수도로 한 고조선국가가 신석기시대 말기나 석동기시대에 건립된 다른 지역의 국가들과는 달리 청동기시대에 형성되였기때문이다.

넷째로, 조선에서는 B.C. 3000년기초부터 이미 밤하늘의 별들을 관측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력서와 절기를 만들어놓고 농업생산활동에 널리 리용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2) 고대문화의 발전과 고조선 후기문화 (좁은놋단검문화)

고조선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로동에 의하여 B.C. 3000년기초에 대동강류역에서 발생한 고조선 전기문화(비파형단검문화)는 B.C. 2000년기 말경에 들어서면서 고조선 후기문화(좁은놋단검문화)로 발전되였다.

고조선 전기문화(비파형단검문화)가 고조선 후기문화(좁은놋단검문화)로 발전된것은 주로 철기의 보급에 기인된다.

고조선사람들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에서는 이미 B.C. 2000년기 말경부터 청동기보다 우월한 철기가 생산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물질문화발전에서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다.

고조선 후기문화(좁은놋단검문화)의 유적유물 (B.C. 2000년기말~B.C. 1000년기말)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의 고조선 후기문화는 지금까지 발굴된 자료에 의하면 B.C. 2000년기 말경에 고조선 전기문화로부터 형성되였으며 그것은 B.C. 1000년기말까지 존재하면서 크게 2단계를 걸쳐 자체의 발전과정을 걸어왔다.

1기는 B.C. 2000년기말~B.C. 1000년기 전반기에 해당되며 2기는 B.C. 1000년기 후반기초부터 말경(B.C. 108년)까지에 해당된다.

고조선 후기문화 1기의 유적과 유물

① 유 적

이 시기의 유적으로서는 성곽과 집자리, 무덤이 있다.

성곽유적으로서는 황주군 고연리토성, 봉산군 지탑리토성 웃성, 온천군 성현리토성 웃성 등을 들수 있다.

이 토성들은 모두 벌방지대의 전망이 좋은 그리 높지 않은 둔덕에 자리잡고있다.

성곽의 평면생김새는 대체로 장방형이며 성벽의 높이는 평지에서 대체로 1.5～2m이다. 토성안에서는 기와와 벽돌 등 건축부재들과 함께 질그릇쪼각들이 발견되였다.

집자리는 비교적 적게 알려졌으며 그것도 파괴되여 온전하게 남아있지 못하였다. B.C. 2000년기 말경의것으로 볼수 있는 황해북도 황주군 고연리유적 2호집자리의 남은 상태로 보아 당시의 집들이 지상가옥이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지상가옥이 반움집보다 발전된 건축물인것은 더 말할것 없다.

그리고 고연리유적 2호집자리는 많은 부분이 파괴되고 일부분만 남아있었기때문에 본래의 규모는 잘 알수 없으나 발굴당시 남아있는 한변의 길이가 7m이상인것으로 보아 당시의 집자리들은 이전시기의 집자리들에 비하여 규모가 큰 집이였던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조선 후기의 건축물들이 전기의 건축물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발전되여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이 시기의 무덤으로서는 고인돌무덤과 돌관 및 돌곽무덤, 돌돌림무덤, 움무덤, 독무덤 등이 있다.

고인돌무덤으로서는 평양시 순안구역 오산리 1지구 2호고인돌무덤과 평안남도 성천군 백원로동자구 9호고인돌무덤 등을 대표적으로 들수 있다.

오산리 1지구 2호고인돌무덤은 묵방형고인돌무덤이고 백원

로동자구 9호고인돌무덤은 오덕형고인돌무덤이다. 오산리 1지구 2호고인돌무덤에서는 고조선 전기에 흔히 볼수 있었던 돌단검과 돌활촉, 대롱구슬과 함께 좁은놋단검이 드러났고(그림 27의 1∼8) 백원로동자구 9호고인돌무덤에서는 목이 있는 납작밑배부른단지와 좁은놋단검, 놋비수, 청동장식품 등이 발굴되였다.(그림 28의 1∼5)

오산리 1지구 2호고인돌무덤과 백원로동자구 9호고인돌무덤은 무덤형식이 고조선 전기의 무덤형식과 같고 거기서 고조선 전기의 유물들과 좁은놋단검이 함께 나온것으로 보아 가장 이른 시기의 초기 좁은놋단검문화유적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돌관무덤으로서는 대표적으로 황해북도 서흥군 천곡리돌관무덤을 들수 있는데 돌관의 바닥에 판돌대신 강자갈과 흙, 모래를 깔고 굳게 다진 무덤이다.

대표적인 돌곽무덤으로서는 황해북도 신계군 정봉리돌곽무덤을 들수 있는데 이 무덤은 장방형의 무덤구뎅이를 파고 그안에 납작한 강돌들을 깐 다음 그우에 길죽한 돌들을 세워서 돌곽을 만들고 돌곽과 무덤구뎅이벽사이와 돌곽뚜껑우에 막돌을 채운것이다.(그림 29)

돌돌림무덤으로서는 황해북도 봉산군 송산리 솔뫼골돌돌림무덤을 대표적으로 들수 있다.

이 무덤은 무덤구뎅이안에 네모나게 강돌을 두세번 쌓아올린 무덤이다.

움무덤으로서는 평안남도 평원군 신송리움무덤, 대동군 연곡리움무덤, 반천리움무덤, 황해남도 재령군 고산리움무덤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움무덤들은 무덤구뎅이를 우에서부터 장방형으로 곧추 내려파고 그안에 아무런 시설도 마련하지 않은채 널과 껴묻거리를 넣은 다음에 흙으로 무덤구뎅이를 채우고 그우에 무덤무지를 마련하였다.

움무덤은 례외없이 하나의 무덤무지안에 오직 하나의 무덤구뎅이를 마련하였으며 무덤구뎅이 하나에는 역시 하나의 주검만을 넣었다.

독무덤으로서는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 1～5호독무덤과 황해남도 신천군 명사리독무덤을 대표적으로 들수 있다.

남경유적의 5기 독무덤은 모두 3개의 화분형단지를 맞붙여서 하나의 관을 만든것이다. 그런것만큼 가운데질그릇에는 밑창이 없다. 이 가운데 질그릇들은 북쪽에 놓인 질그릇과 아구리를 마주대고 있었고 밑창부분은 남쪽질그릇의 아구리속으로 얼마간 들어가있다.

명사리독무덤은 화분형단지와 소뿔형손잡이가 있는 배부른단지의 아구리를 서로 맞대놓은 이른바 《합구식》독무덤이다. (그림 30의 1～3)

② 유 물

이 시기의 유물은 청동제품, 철제품, 돌제품, 질그릇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청동제품으로서는 좁은놋단검과 좁은놋창끝, 청동도끼, 청동비수, 청동팔찌, 청동가락지, 청동장식품 등이 있다.

좁은놋단검은 오산리 1지구 2호고인돌무덤, 백원로동자구 9호고인돌무덤, 천곡리돌관무덤, 솔뫼골돌돌림무덤, 신송리움무덤, 연곡리움무덤, 고산리움무덤 등에서 나왔다.

오산리 1지구 2호고인돌무덤에서 나온 좁은놋단검은 량쪽검날의 중간부위에 어임이 있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등대부위에 마디가 있으며 등날은 마디의 웃부분에만 세운 전형적인 좁은놋단검이다.

백원로동자구 9호고인돌무덤과 정봉리돌곽무덤에서 드러난 좁은놋단검은 오산리 1지구 2호고인돌무덤의 좁은놋단검과 같이 량쪽검날의 중간부위에 어임이 있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등대부

위에 마디가 있으나 등날은 마디의 웃부분과 아래부분까지 세운것이다.

천곡리돌관무덤에서 나온 좁은놋단검은 검날의 량쪽 중간부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치우친 곳에 어임이 있고 그 부위에 해당되는 등대에 마디가 있으며 등날은 마디웃부분에만 세운것이다.

솔뫼골돌돌림무덤과 반천리움무덤에서 나온것은 그 형태가 천곡리돌관무덤에서 나온것과 같으나 마디아래부분까지 등날을 세운것이다.

신송리움무덤과 연곡리움무덤, 고산리움무덤에서 나온 좁은놋단검은 량쪽의 검날이 거의 직선으로 되여있고 거기에 어임이 없으며 등대에도 마디가 없는것이다.

좁은놋창끝은 정봉리돌곽무덤에서 나왔는데 좁은 창몸의 한가운데에 세로 굵은 등대가 세워져있는 전형적인 좁은놋창끝이다.

놋비수는 솔뫼골돌돌림무덤과 반천리움무덤에서, 청동자귀는 솔뫼골돌돌림무덤과 고산리움무덤에서, 청동끌과 청동괭이는 솔뫼골돌돌림무덤에서, 청동도끼는 정봉리돌곽무덤에서 나왔다.

이 시기의 청동기에서 특별히 주목되는것은 솔뫼골돌돌림무덤과 반천리움무덤에서 나온 잔줄무늬놋거울이다.(사진 14)

이 거울들의 앞면전체와 뒤면의 볼록한 테두리는 매끈하게 연마되여 윤기가 나며 뒤면의 테두리안에는 매우 가늘고 섬세한 선으로 기하학적선무늬들이 장식되여있다.

솔뫼골돌돌림무덤에서 드러난 거울의 무늬구성은 테두리안을 2개의 동심원으로 나누어서 바깥쪽에는 긴 톱날무늬를, 안쪽에는 여러가지의 3각형무늬를 돋치였다. 그리고 톱날무늬와 3각형무늬안에는 평행되게 잔줄을 가득 채웠다.

반천리움무덤의 거울은 테두리안을 4개의 동심원으로 나누고 거기에 긴 톱날무늬와 여러가지의 3각형무늬띠를 두번 반복하여 돋쳤다.

두 거울의 뒤면에는 가락지모양의 꼭지 2개가 중심에서 테두리쪽으로 약간 치우쳐 나란히 붙어있다.

철제품으로서는 솔뫼골돌돌림무덤에서 나온 쇠도끼가 있다. 이 쇠도끼는 등쪽보다 날쪽이 약간 좁은 장방형의 주머니자루도끼이다.

이 시기의 질그릇들은 팽이그릇의 전통과 화분형단지의 특징이 결합된 조형의 화분형단지와 소뿔형손잡이가 달린 목있는 단지, 목이 달린 배부른 납작밑단지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고조선 후기문화 2기의 유적과 유물

① 유 적

이 시기의 유적으로서는 성곽과 집자리, 돌곽무덤, 움무덤, 나무곽무덤 등이 있다.

성곽유적으로서는 평양시 락랑구역 락랑토성, 황해남도 은률군 운성리토성, 신천군 청산리토성 등을 들수 있다.

이 토성들은 대부분이 벌방지대의 전망이 좋은 그리 높지 않은 둔덕에 자리잡고있다.

성벽의 둘레는 400～500m 정도이고 그 평면륜곽은 장방형으로 되여있다.

성벽의 높이는 평지에서 1.5～2m, 낭떠러지부분에서 3～4m 정도이다.

토성안에는 기와쪼각, 벽돌, 주추돌들이 널려져있어서 당시 이곳에 관청이나 지배계급의 살림집이 있었던것으로 보아진다. 또한 토성안에서는 기와, 벽돌을 비롯한 건축부재와 함께 화분형단지, 배부른단지, 손칼, 활촉 등이 나왔으며 특히 청산리토성에서는 좁은놋단검이 드러났다.

무덤으로서는 돌곽무덤, 나무곽무덤, 독무덤, 움무덤 등이 있다.

대표적인 돌곽무덤으로서는 평양시 강남군 룡포리돌곽무덤을 들수 있다.

이 돌곽무덤은 무덤구뎅이안에 바닥, 벽, 뚜껑을 모두 한장씩의 판돌로 조립하여 만들었다. 편암종류의 판돌들을 네모가 방정하게 잘 다듬어 만들었기때문에 모서리들이 잘 맞물리여 짜임이 매우 정연하다.

이 시기의 움무덤으로서는 황해북도 황주군 천주리움무덤, 황해남도 배천군 석산리움무덤, 평양시 락랑구역 정백동 448호, 535호무덤을 들수 있다.

나무곽무덤으로서는 평양시 락랑구역 정백동 528호, 538호, 524 호, 547 호무덤, 락랑 202 호무덤, 남포시 강서구역 태성리 10 호, 11호, 13 호, 15호무덤을 들수 있다.

나무곽무덤들은 장방형의 무덤구뎅이를 파고 그안에 두께 약 5㎝의 판자로 장방형의 곽을 만들고 그안에 주검을 넣은 나무관 1개와 껴묻거리들을 넣고 묻은 무덤이다.

독무덤은 3개 또는 2 개의 단지를 서로 맞무어서 독널로 한 무덤이다.

대표적인 독무덤으로서는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유적 6호, 7 호, 8 호, 9 호무덤, 락랑 47호, 50 호무덤, 안악군 복사리 1～6 호무덤 등을 들수 있다.

남경유적 6 호, 7 호, 8 호, 9 호독무덤들은 3개의 질그릇으로 무어 널로 쓴것은 이전시기와 같지만 한쪽끝의 질그릇은 아구리가 해바라지고 목이 달린 배부른 회색질의 노끈무늬그릇이고 다른 2개는 화분형단지이기는 하지만 아구리가 해바라진듯한 느낌을 주는것이 다르다. 화분형단지들의 아구리직경은 대체로 25～30 ㎝이고 노끈무늬를 새긴 그릇은 아구리직경이 28 ㎝, 높이가 50 ㎝인 큼직한것이다.

락랑 47 호, 50 호독무덤처럼 두 단지의 아구리를 서로 맞대

놓은 《합구식》독무덤도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② 유 물

유물로서는 쇠단검과 쇠장검, 쇠창끝, 쇠가지창, 쇠낫, 쇠도끼, 쇠괭이와 같은 철기류들과 좁은놋단검과 좁은놋창끝, 놋과 청동거울을 비롯한 청동기류, 마구와 수레부속, 화분형단지와 배부른단지, 회색단지 등 질그릇들이 있다.

이 시기의 유적들에서 나온 유물들은 이전시기에 비하여 일련의 새로운 특징을 보여준다.

우선 무기와 농공구에서 철기가 압도적다수를 이루고있는것이다.

특히 태성리 8호무덤과 운성리 3호무덤에서는 여러가지의 무기와 농공구들이 나왔는데 모두 철기로 일색화되여있다.

정백동 1호무덤과 태성리 10호무덤을 비롯한 그밖의 무덤들에서도 전통적으로 오래동안 쓰인 좁은놋단검과 좁은놋창끝을 내놓고 보면 그 나머지의 무기와 농공구들은 거의 모두가 철기로 이루어져있다. 이것은 당시 제철제강기술의 높은 발전수준의 반영으로서 철기문화가 절정에 달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 시기 유물에서의 특징은 또한 놋과, 쇠뇌, 쇠단검, 긴쇠칼, 쇠가지창, 쇠찰갑 등 새로운 무기와 무장이 보급된것이다.

놋과는 몸체가 넙적하고 량쪽 날은 밑부분에 이르러 심히 퍼졌으며 한쪽은 다른쪽보다 약간 길다. 몸체의 한가운데에 세로 길게 등대를 세웠고 그 좌우에 넓은 피홈이 패워져있으며 밑의 한가운데에 짧고 넙적한 뿌리가 달려있다. 몸체와 뿌리사이에는 약간 경사진 턱이 있으며 턱우에 2개의 구멍이 뚫려있다. 이 놋과는 이웃 나라들에서는 볼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무기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고대조선식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쇠뇌는 긴 나무팔에 활과 발사장치가 설치되여있는 《기계활》로서 당시로서는 매우 위력한 무기의 하나였다.

쇠단검은 검몸의 한가운데에 세로 두드러진 등대와 마디, 량쪽 날의 어임이 없으나 좁은놋단검처럼 검몸이 좁고 검몸, 검코, 검자루, 검자루맞추개 등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조립하여 쓰게 되여있다. 특히 검코, 검자루, 검자루맞추개 등은 재질과 형태에서 좁은놋단검과 꼭 같으며 검집의 생김새와 장식도 좁은놋단검의 검집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따라서 이런 쇠단검을 일명 좁은쇠단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쇠장검은 쇠단검보다 긴것으로서 그것의 출현은 무기발전에서 일보전진이다. 장검은 단검보다 위력한 무기였으나 그것은 무르고 부러지기 쉬운 청동이나 선철로는 만들수 없으며 오직 굳고 탄력성이 강한 강철로 만들어야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그러므로 쇠장검의 출현은 당시의 무기발전수준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철제강기술발전의 반영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쇠장검은 좁은놋단검이나 쇠단검처럼 검몸, 검코, 검자루, 검자루맞추개 등을 하나로 조립하여 쓰게 되여있다.

긴 쇠칼은 한쪽에만 날을 세운 외날칼이며 이것은 주로 베는 무기로 사용되였다.

쇠가지창은 창과 과가 하나로 결합된 ┤모양의것으로서 창과 같이 찌르기도 하고 과와 같이 걸어당기기도 하는 무기로 사용되였다.

쇠찰갑은 2가지 형태이다. 하나는 정백동 1호무덤에서 나온것과 같이 장방형의 얇은 쇠판으로 만든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백동 97호무덤의것과 같이 타원형의 얇은 쇠판으로 만든것이다.

이러한 쇠찰갑으로 만든 쇠갑옷은 무사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면서도 신변을 보호하는 매우 위력한 방어무장이였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무기들이 많이 출현하였을뿐아니라 기성의 무기들도 보다 쓸모있게 개선되였거나 의례적인 무기로 전환되였다.

좁은놋단검은 많은 경우 청동으로 만든 검코, 검자루, 검자루맞추개 등과 같이 일식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여러가지의 청동부속금구들로 이루어진 좁은놋단검은 이전 시기에 나무부속금구들로 조립되여있은 좁은놋단검보다 견고하고 품위가 높은것으로서 당시 지배계급들의 위엄을 돋구었다.

그리고 태성리 10호무덤에서 나온것과 같이 금도금하여 장식한 좁은놋단검은 실전용무기로서의 기능과 함께 지배계급의 사치와 위엄을 돋구기 위한 하나의 의례적인 무기로 리용되였다.

이 시기 좁은놋창끝은 상대적으로 길이가 길어지고 너비가 좁아져서 매우 날씬하고 예리해졌다. 그리하여 찌르는 무기로서 보다 쓸모있게 개선되였다.

이 시기에는 종래의 청동비수 대신 쇠비수를 만들어썼다.

고조선 후기문화 2기에 와서 대동강류역에서는 새로운 무기와 무장이 많이 나타났으며 기성의 무기들도 보다 쓸모있게 개선되였다.

이것은 당시 무기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따라서 나라의 무장장비가 더욱 개선강화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이 시기의 유물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마구와 수레부속이 무덤의 껴묻거리갖춤새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로 되여있는것이다.

마구로서는 말관자, 말자갈, 말자갈멈추개, 말방울, 말굴레장식, 가죽끈고리 등이 있고(그림 31의 1～7) 수레부속으로서는 굴대끝, 굴대끝씌우개, 멍에대끝장식, 청동방울(동탁), 삿갓모양장식, 삿갓모양멍에꾹지장식, 을(乙)자형동기, 양산, 멍에대 등이 있다.(그림 32의 1～15)

마구와 수레부속품들은 거의 모두가 청동으로 만든것인데 그 가운데는 금도금한것이 적지 않다.

특히 수레부속들은 형태가 독특하고 우아한 조형예술적미가

나는 청동공예품으로서 장식적효과가 크다.

이러한 수레부속들로 장식한 당시의 수레는 지배계급들이 리용한 승용수레였다.

당시 마구와 수레부속들이 무덤의 중요한 껴묻거리로 되여있는것은 중앙과 지방을 련결하는 도로망이 발달되여있었다는것도 보여준다.

이 시기의 유물에서 특징적인것은 몸치레거리의 종류와 수량이 늘어나고 그것이 무덤의 껴묻거리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로 되여있는것이다.

몸치레거리로서는 귀걸이, 목걸이, 팔찌, 가락지, 띠고리 등이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구슬공예가 더욱 발전된것이다. 구슬에는 옥돌, 수정, 마노, 호박, 유리 등으로 만든 각양각색의 크고 작은 구슬이 있다.

그가운데서 처음 보이는것은 유리구슬인데 이 시기의 무덤들에서 대단히 많이 나왔다. 색갈은 주로 람색이며 크기는 좁쌀알만 한것으로부터 앵두알만 한것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이다.

이 유리구슬은 옥돌, 수정, 마노, 호박 등으로 만든 구슬과는 달리 그 재료를 자연계에서 그대로 얻을수 없는것으로서 반드시 화학, 물리적가공공정을 거쳐야 얻을수 있다.

또한 유리는 다른 재질보다 매우 굳은편이다.

그런데 좁쌀알만큼 작은 유리구슬에도 모두 머리칼이나 겨우 들어갈수 있을 정도의 작은 구멍이 뚫려있다. 이것은 당시의 구슬공예가 매우 발전되여있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고조선 후기문화 2기에 와서 여러 분야에서 현저한 발전과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제철제강기술이 발전된 결과 무기류와 농공구류에서는 철기가 압도적다수를 차지하거나 철기로 일색화되였다. 물론 이

때에도 마구류와 수레부속을 비롯한 장식품들에서는 철기보다 청동기로 되여있는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이것은 장식품을 만드는데서 쇠보다 청동이 장식적효과가 큰것과 관련된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발전된 철기문화시기에도 장식품은 여전히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이에 따라 청동야금기술은 더욱 발전하게 되였다.

당시 제철제강기술과 청동야금기술의 발전은 그밖의 여러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켰을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고조선 후기문화(좁은놋단검문화)의 연원

고조선 후기문화(좁은놋단검문화)는 철기문화이고 고조선 전기문화(비파형단검문화)는 청동기문화이다. 이처럼 두 문화사이에는 질적차이가 있다.

이것으로 하여 두 문화사이의 무덤의 형식도 꼭같지 않으며 단검을 비롯한 여러가지 유물의 형태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 바로 이러한 차이로 하여 두 문화를 갈라보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고조선 전기문화와 후기문화가 아무런 공통성도 없고 계통을 달리하는 별개의 문화인것은 아니다. 얼핏 보면 두 문화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량자사이에는 여러면에서 공통성이 있는것을 볼수 있다. 두 문화의 공통성은 우선 무덤의 종류와 짜임새에서 찾아볼수 있다. 고조선 후기에는 고인돌무덤, 돌관 및 돌곽무덤, 돌돌림무덤, 움무덤, 나무곽무덤, 독무덤이 있었다. 한편 고조선 전기의 무덤을 보면 이 시기에는 고인돌무덤과 돌관무덤, 돌곽무덤 등이 있었다. 고조선 전기보다 후기에 무덤종류가 더 다양한것은 사실이지만 고인돌무덤과 돌관 및 돌곽무덤이 다 같이 있는점에서는 공통하다. 특히 두 문화의 고인돌무덤의 짜임새가 서로 공통하다. 즉 고조선 전기의 마지막시기에

쓰인 오덕형고인돌무덤과 묵방형고인돌무덤이고 고조선 후기의 초시기에 와서도 계속 존재하였다. 돌관무덤과 돌곽무덤의 짜임새에서도 별로 큰 차이가 없다. 두 문화의 공통성과 계승성은 또한 유물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먼저 비파형단검과 좁은놋단검사이의 공통성을 들수 있다. 비파형단검과 좁은놋단검은 다같이 검몸, 검자루, 검자루맞추개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조립하여 쓰게 된 조립식단검으로서 고대중국의 청동단검이나 고대북방계의 청동단검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그것은 오직 비파형단검과 좁은놋단검에서만 볼수 있는 특징이다.

최근 평양시 순안구역 신성동에서는 고조선 전기 늦은 시기의 돌곽무덤이 발견되였는데 거기에서는 후기형의 비파형단검과 번개무늬거울, 검자루맞추개, 목긴배부른단지 등이 나왔다.

특히 후기형의 비파형단검은 맨 마지막시기의 비파형단검을 대표하는것으로서 생김새전반에서 좁은놋단검을 많이 닮고있다. 이 비파형단검은 번개무늬거울과 함께 고조선 전기문화(비파형단검문화)와 고조선 후기문화(좁은놋단검문화)의 계승관계와 두 문화의 공통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순안구역 오산리 1지구 2호고인돌무덤에서 발굴된 좁은놋단검을 비롯하여 전형적인 좁은놋단검들에는 비파형단검의 잔재들이 다분히 남아있다. 즉 량쪽 검날의 중간부위에 있는 어임은 비파형단검의 날에 있는 돌기아래의 우묵이의 흔적이며 마디아래부분이 약간 둥글게 되여있는것은 비파형단검의 날에 있는 우묵이아래의 불룩이잔재이다.

이처럼 좁은놋단검은 비파형단검시기부터 내려오는 검몸의 형태상특징을 가지고있는데 그것은 두 단검의 계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비파형창끝과 좁은놋창끝사이의 계승성에서 볼수 있다.

비파형창끝은 비파형단검과 비슷하고 좁은놋창끝은 좁은놋단검과 비슷한데서 붙인 이름이다.

그러므로 비파형단검과 좁은놋단검사이에 계승성이 있듯이 두창끝사이에도 계승성이 있다. 다만 창날의 량쪽에 돌기가 있고 없는 차이가 있을뿐이다.

두 문화의 유물에서의 공통성은 활촉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B.C. 2000년기말 고조선 후기 초시기에는 뿌리나래활촉과 밑이 오무러든 2등변3각형의 돌활촉이 많이 쓰이였는데 이런 형태의 돌활촉은 이미 고조선 전기에 널리 류행된것들이였다.

두 문화의 계승성은 질그릇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고연리유적 2호집자리의 질그릇에서 뚜렷이 볼수 있다.

거기에서 나온 질그릇은 동체와 밑창은 고조선 전기의 질그릇을 대표하는 팽이그릇의 고유한 전통을 보존하고있고 아구리는 고조선 후기의 질그릇을 대표하는 화분형단지의 특징을 가지고있는 《파도형의 화분형단지》이다.

이 단지들의 형태적특징은 고조선 전기의 질그릇과 고조선 후기의 질그릇사이의 계승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상의 공통성과 계승성은 고조선 후기문화가 고조선 전기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결과에 이루어진 문화라는것을 확증해준다.

다시말하면 고조선 후기문화의 창조자는 고조선 전기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킨 단군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이였으며 고조선 후기문화(좁은놋단검문화)는 철기사용의 새로운 조건에 맞게 고조선 전기문화(비파형단검문화)를 더욱 발전시킨것이다.

이처럼 대동강류역에서는 B.C. 3000년기초에 단군조선의 건립과 더불어 고조선 전기문화가 형성되여 B.C. 2000년기 말엽까지 자체의 발전과정을 거쳐 B.C. 2000년기말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고조선 후기문화에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B.C. 2000년기말에 형성된 고조선 후기문화는 B.C. 1000년기 후반기까지 존재하면서 자체의 련면한 발전과정을 거치였다.

이것이 바로 대동강류역에서 이루어진 고대문화의 형성과 발전과정이다.

이러한 모든 자료들은 우선 대동강류역이 고대문화의 발원지, 중심지라는것을 보여주며 또한 일찌기 대동강류역에서 형성된 고대문화는 그 어떤 다른 지역문화의 침습과 영향으로 좌절되거나 중단됨이 없이 근 3 000년동안 자기의 전통을 끗끗이 이으면서 독자적으로 개화발전된 고유하고 특색있는 금속문화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따라서 대동강류역은 동방최초의 금속문화, 고대문화의 발상지이며 고조선문화의 발원지, 중심지이다.

3. 대동강문화가 차지하는 인류문화사적지위

1) 대동강류역은 조선의 고대문화의 발원지, 중심지

일반적으로 문화의 발생발전은 지역과 주민집단의 밀접하고도 활발한 련관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문화적련관관계는 문화가 특별히 발전한 선진지역의 문화를 중추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다시말하여 문화가 발전된 지역에서 새로운 선진적인 문화현상들이 먼저 생겨나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여 일반화되는 과정으로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바로 대동강류역에서 먼저 발생한 고대문화—단군조선문화는 가장 선진적인 문화로서 조선의 전반적고대문화발전에서 선구자적이며 선도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고대조선사람들이 퍼져살던 오늘의 조선반도와 랴오둥지방, 지린지방에 분포되여있는 독특한 건축구조물의 하나인 고인돌무덤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지금까지 고대조선사람들이 퍼져살던 지역에서 알려진 고인돌무덤을 종합분석하여 보면 고인돌무덤의 발원지, 중심지가 다름아닌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이라는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우선 고인돌무덤이 가장 조밀하게 분포되여있는 지역도, 큰 규모의 고인돌무덤떼가 많이 분포되여있는 지역도 평양지방이라는데 있다.

조선의 고인돌무덤 분포지역가운데서도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남북도일대는 고인돌무덤이 가장 조밀하게 분포되여있는 지역이다. 초보적인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사방 40㎞범위안에 14 000여기의 고인돌무덤이 분포되여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출판물들에 의하면 랴오둥지방에 210여기, 지린지방에 130여기의 고인돌무덤이 분포되여있는것으로 보아진다.*

* 《고조선지역의 고인돌연구》(조문) 백산자료원, 1999년, 1폐지

대동강류역은 수십 또는 수백기의 고인돌무덤으로 이루어진 큰 규모의 무덤떼가 특별히 많이 분포되여있는것으로서도 이채를 띤다. 룡강군 석천산일대와 사리원시 정방산일대, 연탄군 오덕리와 두무리일대에 300～500여기의 고인돌무덤이 떼를 이루고 분포되여있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최근 조사자료에 의하면 상원군 전산리와 룡곡리, 은천군 정동리 등지에도 100～200여기로 이루어진 무덤떼가 있다. 그리하여 100기이상으로 이루어진 무덤떼의 수는 30여개소, 200기이상으로 이루어진 무덤떼의 수는 15개소에 달한다.*

* 《조선의 고인돌무덤연구》(조문) 사회과학출판사, 1998년, 8폐지

이처럼 큰 규모의 무덤떼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남부조선지역에서는 경상남도 밀양군 남정리와 충청북도 제천군 황석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30～50기정도의 고인돌무덤이 분포되여있을뿐이다.

그리고 랴오둥지방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무덤떼는 33기의 무

덤으로 이루어진 평청현 둥산고인돌무덤떼뿐이며 지린지방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무덤떼는 24기의 무덤으로 이루어진 류허현 타이핑거우 고인돌무덤떼뿐이다.*

* 《고고》(중문) 1985년 2기, 108～109페지
《북방문물》(중문) 1995년 3기, 78～79페지

사실상 랴오둥과 지린지방의 고인돌무덤가운데는 1～2기씩 분산적으로 분포되여있는것이 대다수를 차지하는것만큼 그 분포밀도와 무덤떼의 규모에 대해서는 더 론의할 여지가 없다.

나라의 중심지에 인구밀도가 높고 무덤이나 건축물이 집중분포되여있기마련인것만큼 평양지방에 고인돌무덤이 집중분포되여있는것은 바로 이 지역이 고대문화의 중심지라는것을 확증하여주는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 된다.

그것은 또한 초기형식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류형과 형식으로 구분되는 고인돌무덤이 대동강류역일대에서 알려졌다는데 있다.

조선력사학계에서는 지금까지 고인돌무덤을 그 축조방법과 구조형식에 따라 3가지 류형 즉 침촌형과 오덕형, 묵방형으로 구분하고있다. 최근에는 고인돌무덤에 대한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석천산형(무덤칸이 움식으로 된것), 룡악산형(막돌고임식인것)까지 포함하여 5개 류형으로 구분하고있다.

이러한 류형의 고인돌무덤가운데서 가장 이른 시기 즉 B.C. 4 000년기 후반기부터 쓰이여온것은 침촌형고인돌무덤이다. 이 류형의 고인돌무덤은 황해북도 황주군 침촌리 긴동, 천진동, 극성동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알려졌다. 그것을 가장 이른 시기의것으로 보는 근거는 뚜껑돌이나 무덤칸의 크기도 작고 석재의 가공수법과 축조방법이 세련되지 못한것과 함께 거기에서 나온 유물가운데 가로자름면이 렌즈형인 단검과 버들잎형활촉을 비롯한 이른

팽이그릇시기(팽이그릇 1기)의 특징적인 유물들이 주류를 이룬다는데 있다.

B.C. 4 000년기 후반기에 평양지방에서 처음으로 축조되기 시작한 침촌형고인돌무덤은 그 이후시기에 규모도 커지고 무덤칸조립에 사개물림수법을 적용하는 등 구조적으로 더욱 완성됨과 동시에 거기에서 오덕형과 묵방형고인돌무덤을 비롯한 여러가지 류형의 고인돌무덤이 파생되여 축조되게 되였다.

B.C. 30세기초부터 평양지방에서 오덕형과 묵방형고인돌무덤을 비롯한 여러가지 류형의 고인돌무덤이 널리 쓰이여온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남부조선지역에서 다양한 류형과 형식의 고인돌무덤이 알려졌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모두 평양지방의것과 같은 형식에 속하는것들이며 그 양상에서 차이가 일부 존재할뿐이다. 실례로 평양지방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것은 오덕형고인돌무덤이고 그 다음은 묵방형고인돌무덤이지만 남부조선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것은 묵방형고인돌무덤이다. 그것은 한강류역에는 오덕형이나 묵방형고인돌무덤이 주로 분포되여있지만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오덕형고인돌무덤은 드물어지고 묵방형고인돌무덤이 흔해져 조선반도 남단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주류를 이루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오덕형고인돌무덤이 드물게 보이는 동시에 평양지방의것과 얼마간 양상을 달리하는 변형된 형태의 오덕형고인돌무덤 즉 판돌이어대기식으로 고임돌을 만들거나 뚜껑돌의 두께가 1m를 훨씬 넘는 무덤이 흔해진다. 평양지방의 고인돌무덤가운데는 뚜껑돌의 두께가 1m안팎인것이 봉산군 토성리고인돌무덤에서만 보이지만 남부조선지역 특히 전라남도를 비롯한 남해안지역의것가운데는 130㎝이상, 지어 200㎝이상인것도 있다.

이러한 문화현상들은 평양지방의 고인돌무덤이 남쪽으로 파급되면서 이 지역의 지대적특성에 맞게 변형된 측면을 반영하는것이다.

랴오둥과 지린지방의 고인돌무덤은 수적으로 적을뿐아니라 그 류형과 형식도 단순하다. 이 지역 연구자들이 말하는 《지석묘》나 《석붕》은 오덕형고인돌무덤, 《대석개묘》나 《대석개석묘》는 묵방형고인돌무덤이나 석천산고인돌무덤에 해당되는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고인돌무덤에는 그 3가지 류형의것만이 존재하며 침촌형이나 룡악산형고인돌무덤은 아직 알려진 일이 없다.

이와 같이 평양지방의 고인돌무덤에는 다른 지역의것과는 달리 시초적인 형식의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류형과 형식의것이 다 있다. 바로 이것은 고인돌무덤의 발생지, 중심지 나아가서 고대문화의 발원지, 중심지가 평양지방이라는것을 확증하여주는 다른 하나의 근거자료이다.

그것은 또한 많은 권력과 재부를 가진자들만이 쓸수 있는 대형고인돌무덤이 평양지방에 집중분포되여있다는데 있다.

고인돌무덤에 있어서 뚜껑돌과 무덤칸의 크기는 대체로 정비례적인 관계를 가지며 뚜껑돌은 묘 표식물인 동시에 권력과 재부의 상징물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것만큼 뚜껑돌의 크기는 무덤의 규모와 피장자의 권력과 재부를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뚜껑돌의 길이가 480㎝이상인것을 대형고인돌무덤으로 보고 그런 규모의것이 알려진 정형을 보면 평양지방에서는 50여기나 알려졌지만 남부조선과 랴오둥지방에서는 각각 10기정도 알려졌고 지린지방에서는 알려진 일이 없다.

뿐만아니라 뚜껑돌의 길이가 700㎝이상인 특대형고인돌무덤도 평양지방에서는 9기나 알려졌지만 남부조선지역에서는 1기, 랴오둥지방에서는 2기가 알려졌을뿐이다.

그런데 우에서 본것과 같은 대형고인돌무덤의 축조공사는

혈연적인 뉴대와 관습에 의하여 결합된 공동체성원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고 노예주들의 무자비한 채찍밑에 사역된 장정노예들의 강제로동에 의해서만 가능한것이다. 그런것만큼 특대형 고인돌무덤은 무제한한 권력과 재부를 가진 왕과 같은 특권계층의 인물들이 묻힌 왕릉으로 보는것은 결코 무리한 해석이 아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평양지방에 왕릉급의 특대형고인돌무덤을 비롯한 대형고인돌무덤이 집중분포되여있는것은 이 지역에 권력과 재부를 독차지하고있던 특권계층을 비롯한 지배층들이 집중되여 살았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나라의 중심지에 특권계층의 인물들이 집중되여있고 그들의 무덤도 많기마련인것만큼 이것 역시 문화의 중심지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밖에 고인돌무덤축조에 적용된 치석술과 건축술, 고인돌무덤의 뚜껑돌에 새겨진 별자리 등 무덤축조자들의 슬기와 재능, 높은 문화발전수준이 집약적으로 반영되여있는 고인돌무덤이 평양지방에 집중분포되여있는 사실 역시 이 지역이 고대문화의 발원지, 중심지라는것을 다시한번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대동강류역의 고대문화가 조선의 전반적고대문화발전에서 선구자적이며 선도자적인 역할을 하였다는것은 다음으로 당시 사람들의 생활의 보금자리이며 활동의 거점인 집자리의 짜임새를 이루고있는 기본요소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집자리짜임새를 이루고있는 구성요소들가운데서 평면테두리나 움깊이, 기둥구멍배치상태 이 3가지 요소는 집짓기기술발전을 특징짓는 기준으로 되며 따라서 그것들은 문화발전정도를 규정짓는 중요한 측면들이라고 볼수 있다.

신석기시대로부터 고대시기에 이르는 시기에 이러한 집자리짜임새요소들의 변천의 일반적경향은 평면테두리가 원형 또는 정

방형인것으로부터 장방형으로 단일화되고 움깊이가 후시기로 올수록 점차 낮아지며 기둥구멍 혹은 기둥그루의 배치상태가 질서정연해지면서 동시에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러 주추돌이 발생하는것이다.

앞에서도 본바와 같이 대동강류역일대에서 집자리의 평면테두리는 청동기시대에 벌써 장방형인것으로 거의 단일화되다싶이 한다. 물론 평면테두리가 정방형이거나 네모서리가 얼마간 호선을 이룬것 그리고 어깨선이 곧지 못하고 밖으로 휘인것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극히 드물다.

고대시기에 들어서서 집자리의 평면테두리는 장방형으로 일색화되게 된다.

이렇게 대동강류역일대에서처럼 고대 초시기에 집자리의 평면테두리가 장방형으로 일색화되는 지역은 찾아보기 드물다.

지금까지 대동강류역에서 알려진 100여개에 달하는 단군조선시기의 집자리 거의 모두가 장방형의 집자리들이다.

이와는 달리 같은 시기 압록강 및 두만강류역일대에서는 평면테두리가 방형 또는 그에 가까운 집자리들이 기본을 이루며 남부조선의 금강, 영산강류역에서는 원형의 집자리가 류행되는 지역적특징을 나타낸다.

조선과 가깝게 이웃한 일본의 경우에도 죠몽시대는 물론이고 야요이시대까지도 집자리의 평면테두리에서 주류를 이룬것은 원형의 집자리였으며 4각형의 집자리는 고분시대초기에 와서야 일반화되였다.*

* 《고대주거의 이야기》(일문) 길천홍문관출판사, 1995년, 64페지

대동강류역일대의 고대집자리들은 평면테두리가 장방형을

이루면서도 그 비례 또한 매우 합리적인 형태를 취하고있다. 표대유적이나 석탄리유적의 고대집자리들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분석자료에 의하면 그 비는 1.3:1～1.8:1 정도 되는것들이다. 말하자면 이 유적들의 고대집자리들에서는 길이와 너비의 비례가 《금강비($\sqrt{2}$:1)》와 《황금비(1.618:1)》 또는 그에 가까운 비례의것들이 기본을 이루고있는것이다. 장방형의 정수비(옹근수비)와 무리수비의 여러 비례가운데서 《금강비》나 《황금비》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비례는 없다. 그런것만큼 대동강류역의 고대집자리들에 리상적인 《황금비》나 《금강비》에 가까운것들이 많다는것은 이곳 주민들이 길이와 너비를 정하는데서 생활에 편리하고 눈에 보기도 좋은 비례를 구성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대동강류역 고대집자리들의 움깊이는 거의나 지상가옥에 가까운 움깊이로 단일화되다싶이 된다.

움깊이가 40㎝이상 되는것은 거의나 례외적인 현상이며 깊이가 30㎝이하인것들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이것은 대동강류역의 고대집자리들이 사람들의 생활에 보다 편리하고 건강에도 좋으며 《문화적》인 집이였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대동강류역의 고대집자리들에서 드러나는 주추돌시설도 이 지역 주택구조의 발전상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앞에서 본것처럼 청동기시대의 집자리들은 맨바닥을 고루고 다지거나 진흙을 얇게 깔고 불에 구워 딴딴하게 한것이 고작이였다. 그러나 고조선 전기문화 3기에 이르러 그것이 널리 일반화되고 주추돌시설자체도 상당히 질서정연하고 합리적으로 설치된것을 볼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살림집구조요소의 발전완성과정을 반영한것으로서 고조선 전기문화 3기에 이르러 지붕구조가 이전 시기에 비해 보다 복잡해지고 기둥이 받는 힘이 훨씬 커지는데 따라 당시 주민들이 기초구조해결에도 깊은 주의를 돌렸던 사실을 보여준다.

살림집과 같은 건축물의 기초구조에서 주추돌과 지반은 밀접한 련계에 있으며 이는 지붕시설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사실 원시시대에는 살림집의 지붕시설이 비교적 단순하여 기둥에 실리는 무게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따라서 기둥밑의 지반조건이 웬만한 정도이면 별로 문제될것이 없었다. 그러나 살림집의 지붕구조가 기둥—서까래식으로부터 기둥—도리식, 기둥—보식으로 발전하면서 천정부의 구조는 훨씬 복잡해졌으며 이에 따라 기둥이 받는 힘도 비할바없이 커졌을것이다. 이런 경우 집의 기초지반조건이 원만하지 못하면 기둥이 놓인 부분의 바닥이 침하되면서 집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것은 물론이고 살림집의 유지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당시 주민들은 이 어려운 기술적문제를 힘을 많이 받는 기둥밑에 큼직한 판돌을 받쳐놓는것으로써 해결하였던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추돌의 리용은 당시의 집짓는 기술에서 새로운 혁신이며 지상건물에서 기초시설과 기단시설의 시원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주추돌시설이 같은 시기 어느 지역의 집자리에서나 볼수 있었던 보편적인 시설물은 아니였다. 다시 말하여 고대시기의 주추돌집자리가 모든 지역에서 같은 양상을 띠고 류행된것은 아니였던것이다.

지금까지 조선반도지역에서 주추돌시설이 있는 집자리가 알려진 유적을 보면 대동강류역일대에서 표대유적, 남경유적, 남양리유적, 석탄리유적, 고연리유적, 대평리유적 등 여러 유적이지만 압록강류역에서는 심귀리유적, 두만강류역에서는 무산 범의구석유적, 룡흥강류역에서는 북청군 중리유적뿐이다.

대동강류역의 주추돌시설이 있는 집자리들은 량적으로 많기도 하거니와 그 변천이 또한 뚜렷하다. 그리고 주추돌자체가 매우 합리적으로 설치되여있고 그 배렬도 상당한 정도로 질서정연한것으로 하여 이채를 띤다. 표대유적 팽이그릇시기 4기의 집자

리들이 천정부의 무게를 가장 많이 받는 집자리 긴축중심선상의 바닥에 주추돌을 일정한 깊이로 묻어주어 밀려나지 않게 설치하였을뿐아니라 집자리의 크기에 맞게 3개 혹은 4개의 주추돌을 설치하여 집의 전반적인 균형을 보장하도록 한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이처럼 주추돌시설이 있는 집자리들이 많을뿐아니라 주추돌배치자체가 합리적으로 정연하게 되여있는 실례를 이웃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집자리짜임새를 이루는 기본구성요소들만 놓고보더라도 대동강류역의 고대집자리들은 다른 지역의것들보다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 건강에 보다 쓸모있고 합리적이며 위생문화적인것이였으며 보다 높은 집짓기 기술이 안받침되여있는것이였다. 그런것만큼 그것은 다른 지역의것보다 한단계 더 높이 발전된 형식의 집이였다고 볼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남긴 사람들은 살림집을 개선해나가는데서 선구자적이며 선도자적인 역할을 한 재능있는 사람들이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할수 있다.

다음으로 대동강류역일대에서 알려진 단군조선시기의 유물갖춤새는 이 지역의 문화가 조선의 고대문화발전에서 선구자적이며 선도자적인 역할을 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조선의 고대문화의 발원지, 중심지를 랴오둥지방으로 보아온데로부터 조롱박형단지와 비파형창끝, 비파형단검, 파를 비롯한 고조선 전기의 특징적인 유물들이 랴오둥지방에서 먼저 발생하여 여러 지역으로 파급된것으로 간주되여왔었다.

그러나 최근에 알려진 자료들은 고조선 전기의 특징적인 유물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일대에서 먼저 발생하여 각지로 파급된 사실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우선 조롱박형단지를 통하여 잘 알수 있다.

대동강류역일대에서는 고대시기 특징적인 유물의 하나인 조

롱박형단지의 연원이 뚜렷이 나타날뿐아니라 여러 류형과 형식의 조롱박형단지들이 다 존재하고있다.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가 고조선 전기문화 1기의 특징적인 유물인것만큼 그 연원은 마땅히 청동기시대의 질그릇갖춤새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청동기시대나 고조선 전기문화 1기의 질그릇갖춤새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팽이그릇이며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는 고조선 전기문화 1기부터 새롭게 쓰이기 시작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팽이그릇갖춤새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조롱박모양의 생김새를 가진 단지에 줄을 달고 팽이그릇갖춤새변천의 합법칙적과정으로 생겨난것이다.

남경유적과 표대유적, 금탄리유적, 소정리유적에서 알려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속하는것으로 알려진 1류형 조롱박형단지들은 청동기시대의 질그릇갖춤새에서 그 연원을 찾을수 있는 근거를 주고있다. 이 유적들에서 알려진 1류형 조롱박형단지가운데는 신석기시대의 둥근밑그릇의 밑창을 강하게 련상시키는것도 있고 혹처럼 도드라진 밑굽이 달린것으로서 팽이그릇밑굽과 다름없는 생김새를 가진것도 있다.

이런 밑창을 가진 1류형 조롱박형단지는 다른 지역의것에서는 찾아볼수 없다. 그것은 이 1류형 조롱박형단지들에 신석기시대로부터 청동기시대에 이르는 시기 질그릇생김새의 고유한 특징이 반영되여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특히 금탄리유적과 소정리유적에서 알려진 1류형 조롱박형단지는 무늬도 없고 팽이그릇의 밑창을 강하게 련상시키는 밑창이 달린것인데 이와 같은 생김새를 가진 단지가 청동기시대에 속하는 석탄리유적 첫째 류형의 집자리인 7호집자리에서 나왔다.*

* 《석탄리유적발굴보고》(조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년, 33폐지

이것은 청동기시대의 질그릇갖춤새에도 조롱박모양에 가까운 생김새를 가진 단지종류가 있으며 바로 여기에 줄을 달고 그 후신으로 1류형 조롱박형단지가 생겨난 사실을 보여주는것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 고대문화의 발원지, 중심지를 랴오둥지방으로 보아온데로부터 1류형 조롱박형단지의 연원을 무늬수법과 손잡이의 생김새를 근거로 하여 이 지방의 퉈터우돌무지무덤과 랴오양현 지예관중돌관무덤에서 나온 질그릇에서 찾으려고 시도한 바도 없지 않다.*

* 《조선고고연구》(조문) 1989년 3호, 7페지

거기서는 황팡고인돌무덤에서 나온것과 같은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를 가장 이른 시기의것으로 보면서 그것의 몸체에 2~3줄로 된 묶음식줄띠무늬를 4돌기 돌린무늬수법과 그것에 달려있는 초생달모양의 덧무늬식손잡이(입술형손잡이)가 다리엔시 위쟈춘상층에 속하는 퉈터우돌무지무덤에서 나온 단지에 보인다는 것과 우로 뻗은 고리손잡이가 랴오양현 지예관중돌관무덤에서 나온 단지에 보인다는것을 근거로 하여 그 연원을 찾았던것이다.

그런데 황팡고인돌무덤에서 나온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나 그와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본 신암리유적의 1 류형 조롱박형단지는 비슷한 모양의 손잡이가 4개 달려있는데서는 같다고 볼수 있지만 황팡고인돌무덤의것은 묶음식줄띠무늬가 4돌기 돌려져있는 것이고 신암리유적의것은 2돌기 돌려져있는것이기때문에 같은 시기에 속하는것이라고 볼수 없다. 그리고 이 단지들은 생김새와 겉면장식의 세련성정도로 보아 도저히 이른 시기에 속하는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1류형 조롱박형단지의 연원으로 본 퉈터우돌무지무덤의 목이 달린 단지는 들린굽을 가진것일뿐아니라 거기에 돋쳐진 초생

달모양의 덧무늬손잡이는 손잡이인것이 아니라 띠를 두르듯이 2줄로 배렬되여있는 단추모양의 덧무늬와 같은 겉면장식이라고 볼수 있다.*

* 《문물》(중문) 1983년 9기, 39～50페지

그리고 지예관중돌관무덤에서 나온 단지는 우로 뻗은 물동이 손잡이 모양의것이 달려있는 점에서는 쌍광고인돌무덤에서 나온 단지와 같다고 볼수 있지만 그릇의 생김새와 겉면장식은 판이하다. 즉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와는 달리 목이 달려있지 않고 꺾음식으로 휘여든 몸체의 복판에 손잡이가 2개 붙어있고 밑창은 들린굽이다.*

* 《고고》(중문) 1983년 1기, 72～74페지

이처럼 극히 일부 측면에서 나타나는 공통성을 근거로 하여 조롱박형단지의 연원을 찾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것은 조롱박형단지의 연원을 랴오둥지방에서는 대동강류역일대에서처럼 뚜렷이 찾아볼수 없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대동강류역일대의 조롱박형단지는 순차적이며 축차적인 변화발전로정을 거치면서 일찌기 그리고 오랜 기간 쓰인데서 이채를 띤다.

학계에서 새롭게 정립한 팽이그릇시기의 편년체계에서는 B.C. 3000년기초～중엽으로 편년되는 2기의 특징적인 유물은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미송리형단지)이고 B.C. 3000년기말～B.C. 2000년기 초엽으로 편년되는 3기의 특징적인 유물은 2류형의 조롱박형단지(묵방형단지)이며 B.C. 2000년기 중엽～말엽으로 편년되는 4기의 특징적인 유물은 목이 달린 납작밑의 배

부른 단지라고 하였다.*

* 《조선고고연구》(조문) 1996 년 2 호, 21 페지

그런데 그 이후에 팽이그릇시기 4 기에 속하는 평안남도 덕천시 남양리유적의 주추돌이 있는 집자리에서 2류형 조롱박형단지의 직접적인 후신이라고 볼수 있는 3류형의 조롱박형단지(남양형단지)가 새롭게 알려지게 됨으로써 그것을 팽이그릇시기 4기의 특징적인 유물로 보게 되였다.*

* 《조선고고연구》(조문) 1998 년 2 호, 2 페지

따라서 대동강류역일대에서는 1 류형 조롱박형단지와 그 후신의 단지들이 팽이그릇시기 2 기로부터 4기에 이르는 오랜 기간 쓰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랴오둥지방에서도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가 적지 않게 알려졌지만 그것들은 모두 늦은 시기의 형식들이며 더우기 이 지역에서는 1류형 조롱박형단지의 후신인 2 류형 및 3류형의 조롱박형단지를 찾아볼수 없다.

대동강류역일대에서는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가 여러 유적에서 발견될뿐아니라 그것이 나온 유적들이 매우 조밀하게 분포되여있다.

대동강류역에서는 1 류형의 조롱박형단지가 팽이그릇관계유적들인 집자리와 고인돌무덤, 돌관무덤에서 발견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묵방리와 대평리의 고인돌무덤, 남경돌관무덤을 비롯한 무덤들에서도 적지 않게 알려졌지만 집자리유적에서 더 흔히 발견된다. 사실상 남경유적과 표대유적, 금탄리유적, 고연리유적, 남양리유적 등 지금까지 진행된 고조선 전기문화 1

기의 집자리유적발굴에서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가 나오지 않은 유적은 거의나 없다.

그러나 랴오둥지방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가 적지 않게 알려졌지만 그 압도적다수는 무덤에서 나온것들이고 집자리에서 나온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놓고보면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가 랴오둥지방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주로 무덤의 껴묻거리로나 쓰인데 불과하지만 대동강류역일대에서는 그것이 무덤의 껴묻거리로서뿐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쓰인 생활필수품의 하나였다는것을 뚜렷이 알수 있다.

이처럼 대동강류역일대에서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되였다는것은 이 지방이 그것이 생겨난 본고장이라는것을 말하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사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일대에서는 남경유적, 금탄리유적, 표대유적을 비롯하여 1류형 조롱박형단지가 나온 팽이그릇시기집자리유적들이 촘촘히 분포되여있으며 1류형 조롱박형단지나 그와 동반되는 유물들이 자주 발견되는 고인돌무덤도 1만 4 000여기나 된다.

랴오둥지방에서도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가 적지 않게 알려졌지만 그것이 나온 유적의 분포밀도는 대동강류역의것에 비할바가 못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가 비교적 많이 알려진 지역은 랴오닝성 푸순시와 칭위엔현일대인데 거기서 알려진 유적의 수는 각기 2～4개소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조선 전기문화를 특징짓는 주요유물의 하나인 조롱박형단지가 대동강류역에서 먼저 발생하여 다른 지역에로 파급된 사실을 보여주고있다.

고조선 전기의 특징적인 유물의 하나인 비파형창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비파형창끝이나 비파형단검형식변천의 일반적경향성은 늦은 시기로 올수록 그 길이가 길어지고 돌기부의 위치도 몸체중간부분 또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갈뿐아니라 날부분의 너비가 좁아지면서 전체 륜곽이 비파형창끝이나 비파형단검의 후신인 좁은놋창끝이나 좁은놋단검의 형태에 가까와지게 된다.

크기와 생김새의 견지에서 볼 때 대동강류역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늦은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각이한 형식의 비파형창끝이 다 발견되였다.

현재까지 조선반도를 포함한 랴오둥반도 및 지린, 창춘지구에서 발견된 비파형창끝가운데서 가장 이른 시기의것으로 인정되고있는것은 삼석구역 호남리 표대유적 10호집자리에서 나온 비파형창끝이다.*

* 《조선고고연구》(조문) 2000년 4호, 7페지

이 비파형창끝은 길이가 11.2㎝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비파형창끝들가운데서 크기가 가장 작고 몸체의 너비가 넓으며 그 제작상 매우 고졸한감을 주는것이다.

그러나 남양리유적 16호집자리와 룡곡리 5호고인돌무덤에서 나온것은 몸체의 길이가 12.7∼13㎝로서 표대유적의것에 비해 창끝이 뾰족하고 날이 예리할뿐아니라 돌기부가 뚜렷하여 매우 세련된 느낌을 주는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모로 보나 늦은 시기의 형식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 표대유적의것이 이른 시기의것이고 그밖의것들은 늦은 시기의것이라는것을 알수있다.

랴오둥지방에서는 비파형창끝이 1∼2점 나온것이 있기는 하지만 불을 심하게 맞아 녹아내리다싶이 한것으로서 그 형식을 가늠하기가 어려운것이다.*

* 《중국동북지방의 유적발굴보고》(조문) 사회과학출판사, 1966년, 75페지

남부조선지역에 알려진것들가운데서 나온 곳이 명백한것은 전라남도 보성군 봉릉리유적에서 나온것 1점뿐이고 모두 수집품들이다. 봉릉리유적에서 나온것은 길이가 15㎝정도인것으로서 늦은 시기의 특징을 나타내는것이며 다른 수집품들도 크기가 이것과 비슷한것들이다.*

* 《한국의 청동기문화》(조문) 범우사, 1992년, 21페지

지린, 창춘지구에서는 칭위엔현 리쟈부유적, 융지현 싱싱사오유적, 창서산유적, 다샤수이춘유적, 지아오허 바상디유적을 비롯하여 여러 유적들에서 비파형창끝이 알려졌지만* 대부분이 길이가 17.8～20㎝안팎인것들로서 길이가 길뿐아니라 돌기부의 곡면도 느릿하게 퍼져서 전체적인 륜곽이 좁은놋창끝에 가깝다.

* 《고고》(중문) 1978년 3기, 145 페지, 1982년 2기, 211페지, 1989년 2기, 139페지

대동강류역의 비파형창끝은 여러 유적들에서 발견되는것으로서 이채를 띤다.

대동강류역에서 비파형창끝은 표대유적 10호집자리와 남양리유적 16호집자리의것처럼 집자리에서 나온것도 있고 상원군 룡곡리 5호고인돌무덤의것처럼 고인돌무덤에서도 발견되였다.

이처럼 대동강류역에서는 비파형창끝이 집자리와 무덤을 비롯하여 여러 유적들에서 나왔지만 랴오둥지방이나 지린, 창춘지방에서는 비파형창끝이 무덤에서만 나왔을뿐이다.

그리고 분포밀도의 견지에서 보아도 지린, 창춘지방에서 나온 비파형창끝이 수적으로는 좀 많다고 하더라도 지린, 칭위엔, 융지 등지에서 나온것으로서 대동강류역의 분포밀도에는 대비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은 대동강류역이 비파형창끝의 발원지, 보급지라는것을 실증하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일대에서 알려진 다양한 형식의 비파형단검들도 그 발원지, 중심지가 다름아닌 대동강류역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앞에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지만 크기와 세부생김새의 견지에서 보나 그리고 동반유물로 보나 선암리돌관무덤과 대아리돌관무덤에서 나온 비파형단검은 당연히 가장 이른 시기의 비파형단검형식에 속한다.

대동강류역일대에서는 돌기부와 우묵이, 불룩이가 뚜렷한 전형적인 형태의 단검 즉 중기형의 비파형단검들도 알려졌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서는 형제산구역 서포동과 대동군 연곡리, 개천시 룡흥리, 연안군 부흥리 등지에서 알려진 종전에 초기 및 중기형식으로 보아오던것들을 들수 있다.

이 단검들가운데 일정한 선후관계를 가진것들이 있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한가지 실례만 들어보아도 연곡리와 부흥리에서 알려진 비파형단검은 길이도 짧고(길이가 연곡리의것은 19 ㎝, 부흥리의것은 24.4㎝이다.) 길이에 비해 날폭이 넓은 생김새를 가진것들인데 룡흥리의것을 비롯한 다른 단검들보다 이른 시기에 속하는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다 같이 비파모양의 형태적 특징을 뚜렷이 나타내는 단검들이라는 의미에서 중기형의 비파형단검으로 구분하였다.

뿐만아니라 대동강류역에서 알려진 비파형단검가운데는 평양시 동대원구역과 개천시 삼봉리 등지에서 알려진 종전에 후기

형식의 단검으로 보아오던것과 같은 날폭이 좁고 돌기부와 우묵이가 희미한것으로서 비파형단검이 좁은놋단검으로 넘어가는 과도적특징을 나타내는 형태의 단검들도 있다.

이 단검들은 날폭이 중기형식의 단검에 비하여 훨씬 좁을뿐아니라 돌기부와 우묵이가 잘 알리지 않는다. 최근에 삼봉리에서 알려진 비파형단검에는 돌기부와 우묵이는 전혀 찾아볼수 없고 불룩이는 잔존적으로 약간 남아있다.

이 단검들의 형태에서는 중기형식의 단검들의 퇴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동시에 에임과 마디가 없는 초기좁은놋단검과 류사한 점들도 나타난다.

바로 이러한 형식의 비파형단검이 후기비파형단검이다.

이와 같이 평양지방에서 알려진 비파형단검이 여러가지 형식으로 구분되는것은 이 지역에서 비파형단검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쓰이여 온 사실을 반영하는것이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에서는 비파형단검이 여러 단계의 형식변천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 쓰이였을뿐아니라 쓰이기 시작한 년대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훨씬 이르다.

그것은 초기형식의 비파형단검이 나온 선암리돌관무덤의 규모와 짜임새, 동반유물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선암리돌관무덤은 그 규모가 매우 작은것으로서 크기는 길이 140㎝, 너비 50～60㎝정도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있는바와 같이 대동강류역에서 돌관무덤은 B.C. 4000년기 후반기인 청동기시대로부터 널리 쓰이여온 무덤의 하나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돌관무덤은 이른 시기의것일수록 규모가 작은것이 특징이다. 청동기시대의 무덤으로 간주되고있는 연산군 공포리 1호돌관무덤을 비롯하여 길이가 100㎝미만인것도 적지 않지만 연탄군 신천동돌관무덤을 비롯하여 비교적 큰 축에 속하는것이라고 하더라도 길이가 140～

150㎝안팎인것들이다. 이러한 규모와 짜임새의 무덤들에 남아있는 사람뼈들을 보면 모두 굽혀묻기를 하였다. 따라서 크기가 서로 비슷한 선암리돌관무덤도 굽혀묻기를 한 무덤이였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 선암리돌관무덤은 크기로 보나 장법상으로 보나 B.C. 4000년기 후반기에 속하는 돌관무덤들과 별로 다름이 없으며 따라서 그것들사이에 시간적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볼수 있다.

선암리돌관무덤에서는 비파형단검과 함께 돌로 만든 가로자름면이 릉형인 뿌리나래활촉과 가로자름면이 6각형이고 밑이 오무라든 긴 2등변3각형의 활촉, 둥근 구슬과 대롱구슬이 나왔다.

여기에서 나온 비파형단검과 같은 크기와 생김새를 가진 돌단검이 청단군 소정리유적에서도 알려졌다.

소정리유적의 돌단검의 길이는 21.5㎝인데 선암리돌관무덤의 비파형단검보다 1㎝정도 짧다. 단검의 두 면에는 등날이 서있고 그 량옆에는 피홈이 나있다. 두날의 중간부분이 안쪽으로 휘여들어 비파모양의 생김새를 강하게 련상시킨다.

이것을 보면 크기와 생김새에서 선암리돌관무덤의 비파형단검과 별로 다름없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선암리돌관무덤에서 나온 가로자름면이 릉형인 뿌리나래활촉과 가로자름면이 6각형이고 밑이 오무라든 2등변3각형의 활촉들은 표대유적과 남경유적, 남양리유적의 팽이그릇시기 1기 및 2기의 집자리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자료들로 보아 선암리돌관무덤의 비파형단검을 비롯한 초기형식의 단검들은 B.C. 3000년기 초엽인 단군조선 초기부터 쓰이였다고 볼수 있다.

비파형단검은 고대조선사람들이 퍼져 살던 조선반도와 랴오둥지방, 지린, 창춘지방에서는 물론 이웃한 지역인 랴오시지방과 일본의 규슈지방에서도 알려졌다. 이처럼 비파형단검의 분포범위

는 매우 넓지만 평양지방에서 알려진것과 같은 년대적으로 오랜 초기형식의 비파형단검이 알려진 례는 찾아볼수 없다.

종전에 초기형식의 비파형단검으로 간주되여온것들은 랴오둥지방과 지린, 창춘지방에서 적지 않게 알려졌다. 랴오둥지방에서 알려진 대표적인 실례로서는 신진현 쐉팡고인돌무덤과 랴오양현 일도허쯔돌관무덤의 비파형단검 등을 들수 있고 지린, 창춘지방에서 알려진 실례로서는 융지현 싱싱사오돌관무덤과 판스현 샤오시산돌관무덤의 비파형단검 등을 들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것이나를 막론하고 모두 돌기부와 우묵이, 불룩이가 뚜렷한것으로서 대동강류역의 비파형단검과 대비해볼 때 중기형식에 속하는것이다. 이것은 대동강류역에서 초기비파형단검이 먼저 생겨나 중기형식의 비파형단검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여 쓰이게 된 사실을 반영하는것이다.

여기서 과가 고조선 전기의 특징적인 무기의 하나이며 그것이 처음으로 발생하여 전통적으로 쓰인 지역도 대동강류역일대라는데 대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과는 고대중국의 특징적인 무기로 간주되여왔다.

지금까지는 청동과가 조선반도의 그 어느 지역에서나 다 나왔고 그 수도 상당한 정도에 달하지만 그것이 움무덤에서 주로 발견된다는것을 근거로 하여 《중기좁은놋단검시기》에만 쓰인 무기이고 단군조선의 문화갖춤새인 팽이그릇시기 문화갖춤새에서는 볼수 없는것이라고 인정해왔다.

그러면서 과는 서주, 동주시기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고대중국의 특징적인 무기이며 본래 날이 휘인 씨비리의 안드로노브식 청동칼과 인연이 있는 무기라고 하였다.*

* 《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조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년, 63폐지, 85폐지, 108폐지

그러나 남양리유적이나 석탄리유적을 비롯한 대동강류역의 단군조선시기의 여러 집자리들에서는 돌과가 종종 발견된다.

그리고 남양리유적에서는 11호집자리를 비롯한 단군조선시기의 집자리들에서 돌과가 나왔고 남경유적에서는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를 쓰던 시기의 집자리인 11호집자리에서 나왔으며 석탄리유적에서는 화독이 2개인 37호집자리에서 나왔다.

이러한 자료들은 돌과가 대동강류역일대의 청동기시대 및 단군조선시기의 집자리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무기일뿐아니라 이 지역에서 오랜 력사적기간에 걸쳐 전통적으로 쓰이여온 특징적인 무기의 하나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일부 론자들은 과의 연원을 안드로노브식청동칼에서 찾고있지만 사실상 남양리유적을 비롯한 여러 유적들에서 발견된 돌과의 형태적특징을 대동강류역일대의 신석기시대유적들에서 나온 돌낫에서 찾는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된다.

돌과는 몸체의 량쪽 변두리에 예리한 날을 세운데서 돌낫과 다르지만 비대칭을 이루는 전체적인 륜곽성이 같을뿐아니라 몸체의 밑부분에 자루를 비끄러매서 낫과 꼭 같은식으로 후려쳐서 쓰게 되여있는 무기이다. 돌과처럼 량쪽에 날을 세운것은 창끝이나 활촉을 비롯하여 돌과보다 앞선 시기부터 쓰인 도구나 무기류에서 흔히 찾아볼수 있다.

그런것만큼 돌과는 낫에 시원을 두고 무기로서의 용도에 맞게 날의 생김새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형태의 무기라고 말할수 있다.

이처럼 돌과가 돌낫에서 기원한 특징적인 무기의 하나였던것만큼 그 후신인 청동과가 대동강류역을 비롯한 조선반도 여러 지역의 좁은놋단검관계유적들에서 흔히 발견되는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실상 청동과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것이 한

때 널리 류행된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선행한 시기의 유적들에서 청동과의 전신인 돌과가 나온 실례는 없다.

지린, 창춘지구에서 돌과가 간혹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시기적으로 늦은것들이다. 이것은 과의 시원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지역도, 고대로부터 철기시대의 청동과에 이르기까지 과가 전통적으로 쓰인 지역도 바로 대동강류역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상의 모든 사실들은 대동강류역의 고대문화가 가장 발전된 선진문화로서 조선의 전반적고대문화발전에서 선구자적이며 선도자적인 역할을 한 문화라는것을 확증하여주는 동시에 고대문명의 요람이며 그 전성기가 펼쳐진 대동강류역이 문화의 발원지, 중심지로서의 독특한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있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2) 대동강문화는 세계 5대문명의 하나

세계의 모든 민족은 다 자기의 고유한 민족문화를 가지고있듯이 자기 문명의 요람지도 가지고있다. 그러나 매개 민족의 문명의 요람지가 다 인류문명의 발상지로 되는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전의 4대문명보다 이른 시기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원시사회로부터 고대문명에로의 이행이 완성되여야 하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이 시기에 원시사회의 비교적 발전된 정치구조와 경제관계, 문화 등에 기초하여 계급의 분화와 대립, 사회의 대분렬이 이루어지고 지배계급의 권력기관, 통치기구로서의 국가가 형성되여야 하며 자기의 고유한 물질, 정신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 미개로부터 문명사회에로의 이행을 완성하여야 하기때문이다.

고고학적유적유물에 의하여 표현되는 이러한 사회관계의 변화가 가장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곳이 곧 세계문명의 발상지로 공인되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문명에로의 이행이 고대동방나라들보다 2천수백년이나 뒤진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아무리 찬란한 노예소유자적문명을 창조하였어도 아테네, 로마를 세계문명의 발원지라고 하지 않는것이다.

이와는 달리 조선민족이 창조한 《대동강문화》는 세계문명의 발상지의 문화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징표들을 다 갖추고 있을뿐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고전적의의를 가지고 있다.

잘 알려진바와 같이 세계최초의 고대문명으로는 서남아시아의 《량강문화》, 에짚트의 《닐강문화》, 고대인디아의 《인다스문화》, 중국의 《황하문화》이며 그것들을 세계 4대문명이라고 일러왔다.

《대동강문화》는 그 형성시기로 보나 문화의 발전수준에서 세계 4대문명과 대등하거나 보다 앞선 문화사적지위를 차지하는 문화이다.

지금까지 발굴된 고고학적유적유물자료들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이 첫 고대국가, 고조선의 중심지이며 조선민족의 발상지이고 나아가서 세계최초 고대문명발상지의 하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위력한 물질적증거로 된다.

(1) 대동강류역은 세계최초의 고대국가의 발상지의 하나

고대문명의 가장 중요한 징표의 하나는 국가의 건립이다.

국가는 미개시대와 문명시대를 가르는 기본척도이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먼저 국가가 건립된 지역이 바로 세계최초의 고대문명발상지라고 말할수 있다.

대동강류역은 세계최초 고대국가의 하나인 단군조선, 고조선이 건립된 국가발상지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단군릉발굴에 의하여 확증되였다.

1993년에 평양시 강동군에서 조선민족의 원시조의 무덤인 단군릉이 발굴되였다.

단군릉의 발굴에 의하여 오랜 기간 신화적, 전설적인물로 전해오던 단군이 지금으로부터 5000년전에 고조선을 세운 실재한 조선민족의 건국시조이며 따라서 조선은 명실공히 5 000년 력사국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지금으로부터 5 000년전이라면 세계의 대부분지역이 아직 국가이전의 미개상태에 있었던 시기였다.

노예소유자국가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다고 자랑하는 고대로마는 B.C. 8세기경에 이르러서야 《전설적왕정기》에 들어섰고 일본의 력사에서 신화시대를 국가시대로 만들어도 그것은 고조선의 건국시기보다 2천수백년이나 늦다.

그리고 고대문명발상지로 인정받고있는 중국의 황하류역에서 신석기시대 말기인 룡산문화기(B.C. 2800년～B.C. 2000년)에 국가가 형성되였다고 하더라도 고조선의 건립시기보다 수백년이나 뒤지며 인다스강류역에서 국가발생은 지금으로부터 4 500년전경에 불과하다. 다만 에짚트의 닐강류역과 서남아시아의 량강류역에서만 국가발생시기가 대동강류역과 거의 대등할뿐이다.

따라서 5 000년전에 첫 고대국가 고조선이 건립된 대동강류역이 세계최초의 국가발상지, 고대문명발상지의 하나로 되는것은 너무나 응당하며 자연스러운것이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은 세계최초의 고대국가발상지의 하나일뿐아니라 세계최초 고대국가 고조선을 세운 조선민족

의 건국시조 단군이 출생한 고장이며 고조선의 중심지이다.

예로부터 조선의 선조들은 죽은 후 자기 고향에 묻히는것을 하나의 풍습으로 여겨왔으며 력대왕조들의 왕릉들도 수도주변에 쓰는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여있었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일대에 왕릉급의 고구려벽화무덤들이 집중되여있는것이라든가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부근에 고려왕릉들이 집중되여있는것, 리조시기의 수도였던 서울부근에 리조왕릉들이 집중되여있는것 등은 바로 그러한 관례에 따르는것이다. 그러므로 평양의 강동땅에 단군릉이 있고 거기에서 단군의 유골이 발견된것은 바로 단군이 평양에서 태여나 평양에 수도를 정하고 고조선을 세웠다는것을 보여주는 위력한 증거로 된다.

이처럼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은 세계최초의 고대국가발상지의 하나일뿐아니라 고대국가의 중심지이고 건국시조의 출생지이다.

이것으로 하여 대동강류역은 세계최초의 고대국가발상지의 하나라는것이 더욱 확고히 담보된다.

대동강류역이 세계최초의 고대국가발상지의 하나라는것은 다음으로 단군제단(단군신전)에 의하여 확증된다.

평양시 룡성구역 화성동의 대성산기슭에서 발굴된 단군제단은 단군이 사망한 직후 단군조선사람들이 자기의 건국시조였던 단군을 하늘이 낸 임금으로 간주하면서 그를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여 매해 음력 10월마다 단군제를 지내던 제단(신전)이다.

고대문명발상지들인 닐강류역의 고대에짚트와 량강류역의 고대메소포타미아에서도 통치계급들은 인민들로 하여금 국왕을 《태양신》으로 숭배하고 그에게 절대복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대한 규모의 신전들을 건설해놓고 《태양제》를 지냈다. 이로부터 일부 력사가들은 《신전》과 같은 공공시설물을 고대국가, 고대문명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 보고있다.

《규원사화》를 비롯한 옛 기록들에 의하면 조선에서 단군제는 단군이 사망한 후 생겨났고 그것은 근대까지 그대로 전승되여왔다. 이것은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이 단군을 실재한 고조선의 건국시조로, 조선민족의 원시조로 숭배하여왔으며 대규모의 단군제단이 있는 대동강류역이 세계최초 고대국가발상지, 고대문명발상지의 하나이라는것을 확증해주는 또 하나의 물질적증거로 된다.

대동강류역이 세계최초 고대국가발상지의 하나라는것은 다음으로 고대성곽들에 의하여 확증된다.

성은 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위시설물의 하나로서 그 존재는 곧 국가의 존재를 의미한다.

대동강류역에서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5 000년전경에 축조된 황대성, 청암동토성(아래성), 성현리토성(아래성), 지탑리토성(아래성) 등이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100여리를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 남쪽에 배치되여있다. 이것은 당시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에 세계최초 고대국가의 하나인 단군조선이 존재하고있었다는것을 실증해주는 또 하나의 위력한 근거로 된다.

대동강류역이 세계최초 고대국가발상지의 하나라는것은 또한 이 지역에서 발굴된 고대도시를 방불케 하는 대규모의 부락터들에 의하여 확증된다.

고대도시의 존재는 고대문명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량강류역을 고대문명발상지의 하나로 보는 근거의 하나가 이 지역에서 B.C. 3000년기초부터 슈메르인들에 의하여 세워진 고대도시들이 건설된것이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에서는 B.C. 3000년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의 부락터들이 여러곳에서 발굴되였는데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표대유적과 남경유적, 평안남도 덕천시 남양리

유적, 북창군 대평리유적, 황해북도 송림시 석탄리유적, 황주군 고연리유적 등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 유적들에서는 100～150여호의 팽이그릇집자리들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부락터들이 드러났다. 이 부락터들은 하나의 고대도시터자리라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대동강류역에 고대도시터자리로 인정되는 대규모의 부락터들이 집중되여있는것은 당시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세계최초 국가발상지의 하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대동강류역이 세계최초 고대국가발상지의 하나라는것은 또한 이 지역에서 발굴된 비파형단검, 비파형창끝과 같은 청동무기들에 의하여서도 확증된다.

무기는 권력기구의 상징이며 국가존재의 기초이다.

대동강류역에서는 이미 B.C. 3000년기초부터 청동제무기나 석제무기보다 훨씬 우월한 비파형단검이나 비파형창끝과 같은 청동무기들을 만들어썼다.

그것은 고조선 초시기에 해당되는 황해북도 신평군 선암리돌관무덤과 황해남도 배천군 대아리돌관무덤에서 비파형단검이 나온것이라든가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표대유적 10호집자리에서 비파형창끝이 발굴된 실례가 잘 보여준다.

비파형단검과 비파형창끝은 그 모양이 옛날악기인 비파와 비슷하게 생긴것으로서 고조선의 고유한 청동무기이다.

고조선의 비파형단검이나 비파형창끝과 같은 오랜 청동무기는 대동강류역을 제외하고는 세계의 그 어느 지역에서도 아직 알려진 례가 없다.

그러므로 B.C. 3000년기초에 세계최초의 청동무기들이 출현한 대동강류역을 세계최초 고대국가발상지의 하나로 보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2) 대동강류역은 고대인류문화중심지의 하나

고대문명의 발상지는 고대인류문화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고대문화의 중심지로서의 표징까지 갖춘 지역이여야 고대문명발상지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

대동강류역이 고대인류문화중심지의 하나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이 지역이 청동기문화가 세계적으로 가장 일찌기 발생발전한 청동기문화의 발원지이고 중심지이기때문이다.

청동기는 고대문명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대동강류역에서는 B.C. 4000년기 후반기에 벌써 청동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B.C. 3000년기 초엽부터는 비파형단검과 비파형창끝, 청동활촉과 같은 청동무기들과 청동공구, 청동장식품 등 여러가지 청동기들을 생산하여 생활의 여러 분야에 널리 쓴 발전된 청동기문화, 《비파형단검》문화가 창조되였다.

이것은 청동기문화의 발원지, 중심지가 중국의 랴오둥지방이 아니라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에서 먼저 발생하여 그곳으로 보급되였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공인된 고대문명발상지들의 청동기생산력사를 더듬어보아도 청동기생산의 시작은 대동강류역보다 훨씬 떨어진다.

※ 1982년 이전 민주도이췰란드 과학원출판사에서 발행한 도서 《지난날의 과거를 거슬러보면서》에 의하면 고대에짚트에서는 B.C. 1750～B.C. 1600년경, 고대메소포타미아에서는 B.C. 2700～B.C. 2600년경, 고대인디아에서는 B.C. 2000년경, 고대중국에서는 B.C. 1700～B.C. 1650년경에 와서야 청동기를 생산하기 시작한것으로 되여있다.

그러므로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은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청동기를 생산한 청동기문화의 발상지이고 중심지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을 고대문화중심지의 하나로 볼수 있는것은 다음으로 대동강류역이 일찍부터 농업이 발생발전하여온 농경문화의 중심지이기때문이다.

인류문화사에서 농경문화의 창시는 세계의 주인,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사람이 자연에 대한 지배능력을 끊임없이 확대하여온 장구한 력사적로정에서 이룩한 하나의 거대한 변혁이였다.

농업의 발전은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풍부히 하였으며 나아가서 당대의 사회관계와 생활방식에서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게 하였다.

대동강류역이 세계최초 고대국가의 발상지, 고대문명발상지의 하나로 될수 있은것은 바로 대동강류역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농업이 일찍부터 발생발전하여온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여있었다.

대동강류역은 산수수려하고 대동강을 젖줄기로 하여 넓고 비옥한 대지가 펼쳐져있으며 유리한 기상기후조건을 가지고있는 고장이므로 예로부터 농업생산의 적지로 되여왔다.

신석기시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옛류형사람들은 대동강류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항구적인 정착생활을 하면서 농업을 기본생업으로 삼고 농업발전에 큰 힘을 집중하여왔다. 결과 신석기시대 중기부터는 당시로서는 발전된 돌보습에 의한 갈이농사를 하였으며 B.C. 4000년기 후반기부터는 벼, 조, 기장, 수수, 콩 등 여러가지의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옛류형사람들의 혈통을 직접적으로 이은 단군조선, 고조선사람들에 의하여 대동강류역의 농업은 획기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단군조선시기의 농업발전수준이 매우 높은 경지에 올라있었다는것은 우선 농업도구가 개선되고 갈이농법, 휴경농법이 더욱 발전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대동강류역의 고조선주민들은 이전시기에 리용되던 돌로 만든 경작도구대신에 보다 능률적이고 만들기 쉬운 목재경작도구를 많이 리용하였다.

이것은 대동강류역의 단군조선시기 유적들에서 돌로 만든 경작도구가 보이지 않는 반면에 청동과 돌로 만든 다양한 종류의 목재가공공구들이 발견되는 사실에 의하여 립증된다.

청동의 출현으로 이 시기의 공구류들은 종래보다 가지수와 량이 훨씬 많아지고 그 질도 높아졌다.

평양시 사동구역 금탄리유적 8호집자리와 상원군 장리1호고인돌무덤에서는 종래에는 볼수 없던 청동제끌이 나왔다.

이 청동제끌은 길고 납작한 몸체에 예리한 날이 달린것으로서 끌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전시기에 비하여 공구의 가지수와 량도 훨씬 많아졌다.

실례로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유적의 고조선 전기문화 2기의 집자리들에서 나오는 공구수는 호당 평균 5.5개인데 이것은 같은 유적의 청동기시대집자리들에서 나오는 공구수(호당 평균 2.1개)보다 더 많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청동이나 돌로 만든 도끼와 끌, 자귀와 턱자귀, 대패날 등 공구들을 가지고 나무를 가공하여 석제농구보다 훨씬 발전된 갈이도구, 경작도구를 많이 만들어썼다.

대동강류역 고대주민들은 발전되고 다양한 농업도구로 부침땅의 지력을 부단히 높이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평안북도 염주군 주의리니탄층속에서 발견된 나무후치와 수레바퀴를 통하여 잘 알수 있다.

물론 주의리가 지리적으로 대동강류역에 속하는 지역은 아니

다. 그러나 그 고장이 대동강류역과 직접적으로 린접하고있는 고조선령역의 한 부분이고 거기에서 드러난 나무평후치와 달구지바퀴가 고조선시기의것이므로 고조선의 중심지이고 그 어느 지방보다도 농업이 먼저 발전하여온 대동강류역에서 다른 변방지대들보다 일찌기 나무후치와 달구지를 농업생산에 리용하였으리라는것은 쉽게 짐작할수 있다.

당시 나무후치는 가지가 둔각으로 뻗은 참나무로 만든것이였다. 굵은 원대의 한쪽면을 평탄하게 깎고 그 끝을 깎아서 보습날을 만들었으며 보습날이 달린 대사이의 경사진턱에는 술(갈이할때 흙밥이 한쪽으로 뒤집히게 하는 장치)을 달아 고정시켰다. 후치에는 또한 모로리를 박아서 멍에를 고정시키기 위한 3개의 구멍이 뚫어져있으며 대에서부터 둔각으로 뻗은 가지의 끝에 후치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한 손잡이를 끼우는 구멍이 뚫어져있다. 이렇게 만든 후치는 비록 중세의것에 비하여 둔하고 미숙하지만 새 땅을 일구거나 갈이 또는 후치질을 능률적으로 할수 있게 만든 당시로서는 발전된 조립식대형농구였다.

유럽에서 후치가 처음으로 농사일에 리용된것이 18세기 중엽이였다는것을 고려할 때 조선민족이 얼마나 일찍부터 후치를 만들어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그리고 주의리니탄층에서 후치와 함께 나온 달구지바퀴는 부침땅에 거름을 내지 않고 농사를 계속 지으면 지력이 감소되고 소출이 떨어진다는것을 실천적으로 체득한 대동강류역의 고조선사람들이 개, 돼지, 소, 말 등 짐승들의 배설물을 수집하여 재와 혼합한 효능높은 거름과 돼지우리, 소외양간, 마구간 등에서 나온 진거름을 소달구지로 운반하여 밭에 뿌리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대동강류역의 고조선사람들이 밭갈이나 운반에 부림짐승을 리용한것은 평양시 승호구역 립석리(발굴 당시)유적에서 2마리분

의 길들인 소뼈가 나온것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대동강류역에서 고대농업의 발전은 다음으로 재배작물의 품종이 다양해졌을뿐아니라 특히 벼농사가 광범히 진행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앞에서도 구체적으로 고찰해보았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일대에서 벼를 비롯한 여러가지 작물을 재배한 시기는 늦잡아도 B.C. 4000년기 전반기인 신석기시대 후기이며 B.C. 4000년기 후반기인 청동기시대에는 오곡의 재배가 보다 넓은 규모에서 진행되였다.

하물며 청동이나 돌로 만든 여러가지 공구들을 가지고 나무를 가공하여 석재공구보다 발전된 경작도구를 만들어 쓰던 단군조선시기에 오곡의 재배가 이전시기에 비하여 더욱 광범해지고 그 수확량도 대단히 높았으리라는데 대하여서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조선은 지형상으로 산간지대와 벌방지대, 중간지대 등으로 구분되며 산과 강이 많고 같은 고장이라고 해도 평지와 언덕, 경사지, 습지 등 그 지형은 각이하다. 그리고 알곡작물자체도 개개의 생물학적특성과 생육조건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놓고볼 때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표대유적 단군조선시기의 집자리들인 3호, 23호, 45호집자리에서 나온 벼와 조, 콩을 비롯한 낟알자료들은 조선의 선조들이 일찍부터 작물의 종류를 늘여 지대적조건에 맞는 여러가지 알곡작물을 심었다는것을 보여주며 대동강류역일대에 살던 고대주민들속에서 농업이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생업으로 되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1980년대초에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유적에서 벼, 조, 기장, 수수, 콩 등 오곡자료가 발굴된데 이어 이웃한 표대유적에서 여러종의 낟알자료가 다시금 발견된 사실은 그것을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대동강류역에서 고대시기에 높은 수준의 벼재배가 진행될수 있었던 주되는 요인은 첫째로, 대동강류역일대에서 일찍부터 개화하였던 농경문화에 토대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잘 알려진것처럼 벼재배는 다른 작물에 비할바없이 많은 로력과 로동시간을 필요로 하며 재배공정도 복잡하다. 이는 필연적으로 다른 작물재배에 비하여 보다 발전된 농업기술력량을 요구하며 그것은 발전된 농경문화지역에서만 가능한것이였다.

그런데 대동강류역으로 말하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농업이 일찌기 발생하여 가장 높은 경지에로 발전한 지역이였던것이다.*

* 《조선고고연구》(조문) 1998년 1호, 9페지

그 요인은 둘째로, 대동강류역일대의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과 관련된다. 벼는 다른 곡식과는 달리 작물자체의 특성으로부터 온열조건과 물 및 비료에 대한 요구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발전된 농업기술력량과 함께 농사에 알맞는 기후와 토양조건이 갖추어져있어야 하며 그를 잘 리용할줄 알아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대동강류역일대는 기본적으로 절대표고 200m이하의 평지대이며 더우기 벼가 나온 표대유적주변일대의 절대표고는 50m미만이다. 뿐만아니라 이 일대는 대륙성기후가 비교적 낮은 지대로서 여름에는 더운 반면에 겨울에는 그리 춥지 않다.

대동강중하류일대의 년평균 기상기후상태를 보면 기온은 10℃, 습도는 60～70%, 강수량은 1 000 ㎜, 해비침률이 36%, 동결조건은 0.25m 이다.

이것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일대가 일찍부터 벼농사를 짓는데 알맞춤한 기후조건과 온도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이 일대는 대동강을 끼고있

으며 여름철 비내림량이 많아 물원천도 매우 풍부하다. 특히 대동강류역에 펼쳐진 넓고 비옥한 충적벌은 벼의 생육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충당하는데 유리한 토양조건을 제공하여주고있다.

그 요인은 셋째로, 대동강류역일대에서 고대시기에 벼가 기본식량원천의 하나로 되였던 사정과도 관련된다. 잘 알려진것처럼 대동강류역일대는 조선고대문화의 발원지, 중심지로서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살았다. 특히 단군조선성립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 이곳의 인구밀도는 다른 지역에 비할바없이 높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농업생산이 안정되고 단위당 수확고가 보다 높은 식량원천을 요구하게 되였을것은 명백하다.

* 《조선고고연구》(조문) 1999 년 1 호, 30 페지

그런데 여러 알곡작물가운데 벼만큼 소출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단위면적당 수확고가 높은 작물은 없다. 그런것으로 하여 벼재배는 일찍부터 널리 장려되였으며 일정한 주민집단의 안정된 정착생활과 인구증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였던것이다.*

* 《고대에 도전하는 자연과학》(일문) 1995 년, 45 페지

자료에 의하면 16세기 벼를 재배한 지역의 인구밀도는 밀과 강냉이를 주식으로 하고있던 지역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한다. 오늘날에 와서도 벼는 기본식량원천으로서 재배면적에서는 세계 알곡재배면적의 5 분의 1 정도이지만 식량소비에서는 세계인구의 절반을 맡고있다.*

* 《과학기술그림백과사전》 6 권 금성청년출판사, 1988 년, 114 페지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최고의 인구밀도를 유지하고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그 요인을 벼재배에서 찾고있다.*

* 《일본음식물사》(일문) 다께다서점, 1960년, 65페지

이렇게 놓고볼 때 대동강류역일대에서 알려진 벼자료가 부락터들의 밀도가 류달리 조밀하고 인구수도 많았던 중류일대에서 모두 발견된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는것을 알수 있다. 말하자면 대동강류역일대에서 일찍부터 진행된 벼재배가 이 일대의 높은 인구밀도를 원만히 유지할수 있었던 주되는 요인의 하나로 되였던것이다.

대동강류역일대의 고대주민들에 의하여 널리 진행된 벼재배는 점차 다른 지역으로 보급되여 해당지역의 벼농사발전에서 튼튼한 밑천으로 되였으며 이것은 조선남부의 진국을 거쳐 일본을 비롯한 주변나라의 농업발전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였다.

대동강류역에서는 고대 초기부터 콩이 대대적으로 재배되였으며 이웃나라들에 전파되였다.

대동강류역이 콩의 원산지이며 조선아종콩의 진화력사가 가장 오래다는데 대하여서는 앞에서 구체적으로 서술되였다.

표대유적 3호집자리에서 알려진 탄화된 콩자료는 콩이 대동강류역에서 국가형성의 첫 시기부터 손꼽히는 영양작물로서 대량적으로 재배된 사실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콩은 조선으로부터 중국, 일본, 유럽 등지로 퍼져나갔다.

자료에 의하면 인디아에서는 18세기 또는 19세기초에 콩이 보급되였으며 유럽에는 18세기에 콩이 들어갔다. 일본에서는 조선이주민들에 의하여 A.D. 1세기에 콩이 재배되였다.*

* 《식물작물》(일문) 요겐도, 1977년, 347페지

조의 원산지는 조선이다. 조선에는 야생조(가라지)가 널리 퍼져있는데 지금도 여러곳에서 볼수 있다.

대동강류역에서는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 즉 지금으로부터 8 000년이전부터 조가 재배되였다. 그것은 지탑리유적 2호집자리에서 탄화된 조가 발굴된 고고학적자료가 실증해준다.

그러므로 대동강류역은 세계적으로 조재배력사가 가장 오랜 고장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고대문명발상지들인 닐강류역의 고대에짚트와 량강류역의 고대메소포타미아에서 조를 재배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며 인디아에서는 고대시기에 와서야 조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인디아에서 조가 기원되였다는 견해도 있으나 인디아에는 야생조인 가라지가 없으므로 그것은 믿기 어렵다.

그러나 대동강류역에는 지금도 가라지가 남아있으며 조재배력사가 가장 오래다는것을 보여주는 고고학적자료가 있으므로 조의 원산지는 대동강류역이라고 말할수 있다.

대동강류역에서는 조와 함께 일찌부터 수수를 재배하였다. 그것은 B.C. 4000년기 후반기에 해당되는 남경유적 36호집자리에서 수수가 발굴된 고고학적자료가 잘 보여준다. 이렇게 오랜 고고학적자료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다.

고대문명발상지들인 닐강류역과 량강류역에서 수수를 재배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며 인디아에서는 B.C. 4세기경에 와서야 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며 유럽에서는 B.C. 1세기에 로마에 먼저 수수가 전파된것으로 되여있다.

이상의 자료는 대동강류역의 수수재배력사가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다는것을 말해준다.

대동강류역에서는 밀과 보리도 재배하였다.

밀은 고조선시기에 새로 들어온 알곡작물의 하나로 인정된다.

고조선시기에 대동강류역에서 밀이 재배되게 됨으로써 밭에

역전농법을 적용하기 더욱 쉽게 되였다.

후세의 농사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음력 5월∼6월에 가을밀을 수확한 다음 밭을 쉬우면서 7월에 한번, 8월에 한번 밭을 갈고 가을에 다시 밀을 파종하는 방법으로 재배함으로써 옹근해를 쉬우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수 있게 되였다.

대동강류역에서 고대농업발전수준이 높은 경지에 올라있었다는것은 다음으로 알곡생산량이 늘어난 사실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B.C. 3000년기말에 해당되는 황해북도 송림시 석탄리유적 3기층의 집자리들에서 드러난 반달칼의 수를 보면 그것은 호당 7개로서 그 이전 청동기시대에 속하는 1기층의 집자리들에서 나온것(호당 평균 2개)보다 3배이상이나 많다.*

* 《석탄리유적발굴보고》(조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년, 71페지

다른 고대유적들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반달칼은 원래 곡식의 이삭을 잘라 거두어들이는 수확도구이다. 고대시기에 이러한 반달칼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것은 곧 이시기에 농업생산이 발전하여 알곡생산량이 훨씬 늘어났다는것을 말해준다.

고조선시기 대동강류역에서 농업이 발전된 사실은 다음으로 건국초기부터 농업과의 직접적인 련관속에서 천문기상관측사업이 활발히 진행된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대동강류역의 고조선사람들은 별자리들의 위치변동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1년의 길이와 한달의 길이를 정확히 알게 되였으며 1년을 24절기로 나누고 절기에 맞게 밭갈이와 씨뿌리기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사과정을 제철에 제때에 하였다.

고조선시기 대동강류역에서 농업이 급격히 발전할수 있은것

은 또한 국가적으로 농업을 중시하고 농업발전에 큰 힘을 넣은것과도 관련된다.

고조선은 농업을 기본생업으로 하고있던 주민들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였으므로 건국초기부터 농업을 중시하면서 거기에 커다란 힘을 집중하여왔다.

《규원사화》를 비롯하여 옛 기록들에서 전하는바와 같이 고조선의 중앙관직인 8가(9가)가운데는 곡식 즉 농업을 주관하는 우가가 있었고 나라의 시책가운데서 치산치수가 중시되였다고 한것은 바로 그러한 사정을 말해주는것이다.

대동강류역에서는 이와 같이 고조선건립시기인 B.C. 3000년기초부터 문명사회에서나 할수 있는 선진적인 농법들이 도입되였으니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이야말로 세계최초 농경문화의 발상지, 고대문화중심지의 하나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

대동강류역이 고대문화중심지의 하나로 되는것은 또한 평양을 수도로 한 고조선에서 건국초기부터 자기의 고유한 글자인 신지글자를 창제하여 썼기때문이다.

생활의 교제수단이며 지식의 중요한 보급수단인 문자의 발생과 사용은 고대문화발전수준을 가늠하는데서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 된다.

최근 조선의 언어학자들은 옛 기록과 고조선유적들에서 발굴된 토기에 새겨져있는 글자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고조선 초기부터 신지글자를 창제하여 썼다는것을 새롭게 밝혀냈다.

동방에서 가장 오랜 글자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중국의 갑골문자도 고조선의 신지글자보다 훨씬 늦게 창제된것이다.

최근 중국 산동성 추핑현 정궁유적에서 글자들이 새겨져있는 도기쪼각들이 수많이 발견되였다. 중국학자들은 그 도기쪼각

들에 새겨져있는 글자들은 글씨체와 글자배렬에서 자기 나라의 갑골문자와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그 넌대를 갑골문자보다 수백년이나 앞서는 4 200～4 100년전의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그 글자를 《동이》계통의 문자라고 하였다.*

* 《고고》(중문) 1993년 4기, 296～299페지

여기서 말하는 《동이》란 고조선을 념두에 둔것이다.

력사를 거슬러서 4000여년전 중국본토의 동쪽에 살고있은 사람들의 력사를 더듬어보면 당시 자기의 고유한 글자를 창제하여 쓸수 있은 사람은 오직 고조선사람들뿐이였다.

고조선의 신지글자가 4 200년전에 중국의 산둥지방에까지 전파되였다는것은 고조선의 수도인 평양지방에서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고조선 초기부터 이미 신지글자를 창제하여 썼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신지글자가 고조선 초기에 창제되였다는것은 옛 기록들을 통하여서도 알수 있다.

《삼성기》에서는 《단군때에 신전(신지글자)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16세기초의 학자 리맥은 자기의 저서 《태백일사》에서 《단군때에 신지전서가 있었는데 그것을 태백산과 흑룡강, 청구, 구려 등의 지역에서 널리 썼다.》고 하였다. 또한 16세기말에 편찬된 《평양지》에서는 평양법수교다리에 옛 비가 있었는데 그 글자가 조선글자(훈민정음)도 아니고 인디아의 범자도 아니며 중국의 전자도 아니라고 하면서 혹 말하기를 이것은 단군때에 신지가 쓴것이라고 하였는데 세월이 오래되여 없어졌다고 전하고있다. 그리고 17세기의 북애자는 《규원사화》에서 단군시기에 신지가 사냥을 하다가 사슴발자국을 보고 처음으로 글자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일찌기 듣건대 룩진지방에는 진나라 이전 시기 바

위돌에 때로 글자를 새긴것이 나타나군 하는 데범자(고대인디아 글자의 하나)도 아니고 전자(중국한자의 옛 글자체의 하나)도 아니여서 사람들이 그 뜻을 해득하지 못한다고 하니 이것이 어쩌면 신지씨가 만든 옛 글자가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처럼 옛 기록들에서 한결같이 신지글자를 단군때에 쓰인 글자라고 전하고있는데 이것은 신지글자가 고조선 초기에 창제되여 쓰인 조선민족의 고유한 글자라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조선의 신지글자는 이웃나라들이 아직 글자를 가지지 못하였던 이른 시기에 남먼저 창제된것으로 하여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까지 전파되였던것이다.

참으로 인류문명의 려명기에 조선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창제한 신지글자는 대동강류역이 동방문명의 려명기를 빛내인 고대문명의 발상지, 고대문화중심지의 하나였다는것을 실증해주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이다.

대동강류역은 또한 세계에서 제일 먼저 고대천문학이 발생발전한 천문학의 발상지이며 중심지이다.

지금까지는 세계고대천문학에서 개, 범, 전갈, 사수 등의 그림이 그려져있는 량강류역의 바빌로니아 토지경계비를 별자리의 원형으로 보고 바빌로니아를 고대천문학의 발원지로 내세워왔다.

최근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에서는 술잔 또는 접시모양의 홈과 그것들을 홈선으로 련결시킨 별자리들이 새겨져있는 고인돌무덤이 200여기나 발굴고증되였다.

고인돌무덤의 홈구멍자리의 수(3개로부터 백수십개까지)도 각이하고 홈구멍의 크기와 배렬상태도 각이한것은 더 말할것 없다.

이 홈구멍자리들에 대하여 조선학계에서는 당대의 밤하늘에서 육안으로 볼수 있었던 별자리들을 체계적으로 관찰한데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투영하여 고인돌무덤 뚜껑돌우에 새겨놓은것으로 간주하고있다.

그 근거의 하나는 홈구멍자리의 배치상태와 별자리의 배치상태가 류사한것이 적지 않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홈구멍자리의 크기와 형태에서의 차이가 별들의 밝기 및 등급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는것이다.

사실상 고인돌무덤의 뚜껑돌에 새겨진 별자리들가운데는 고구려무덤벽화에 보이는 별자리들과 같은것이 적지 않다.

바빌로니아의 토지경계비가 지금으로부터 3200년전경에 만들어진것을 고려하면 대동강류역의 고인돌무덤에 새겨져있는 별자리들은 그보다 무려 1 800년이나 앞선다.

따라서 고대천문학의 발상지는 량강류역이 아니라 대동강류역이라고 말할수 있다.

참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은 고대문명의 모든 징표를 다 갖춘 력사의 성지이며 세계최초 고대문명발상지의 하나이다.

세계고대문명발상지들의 력사는 4 000～5 000년이며 그 발생의 기초는 신석기시대 말엽의 문화 혹은 석동기시대문화였다.

그러나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의 고대문명의 력사는 5000년이며 그 발생의 기초는 신석기시대문화나 석동기시대문화보다 발전된 청동기시대문화였다.

그러므로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은 고대문명의 발생시기로 보나 문화발전수준에서 보나 세계적인 고대문명발상지들보다 앞서거나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

조선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에 5 000년전의 노예소유자국가인 고조선이 건립되여있었으며 이 시기에 벌써 대동강류역은 고대문명의 모든 징표들을 다 갖춘 세계최초 고대문명발상지의 하나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해명됨으로써 세계최초 고대문명은 대동강문화까지 합쳐 《세계 5대문명》으로 되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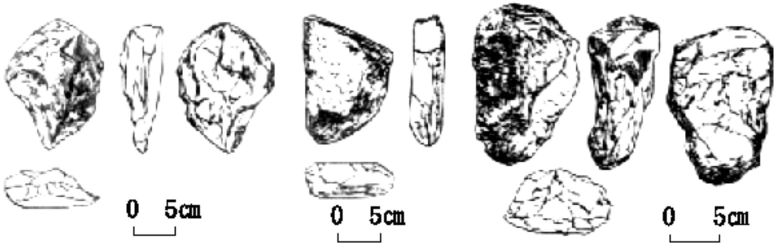


그림 1. 검은모루유적의 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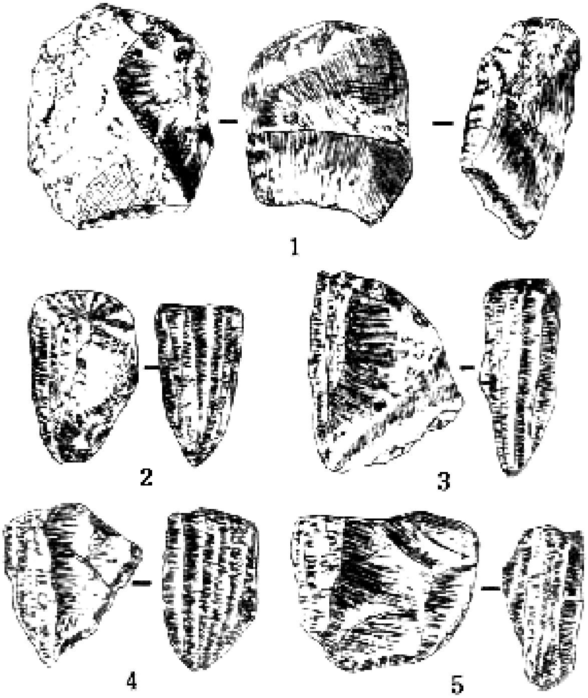


그림 2. 만달리유적의 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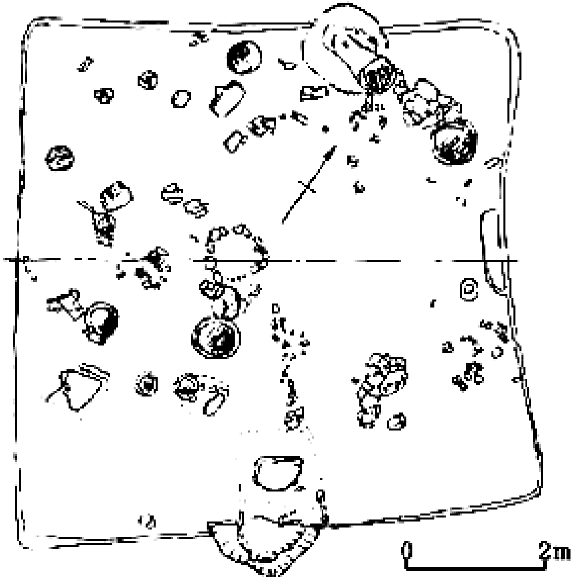


그림 3. 지탑리유적1호집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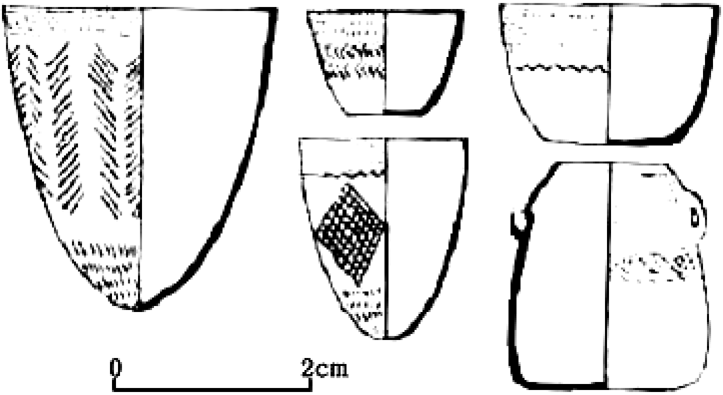


그림 4. 신석기시대 전기의 질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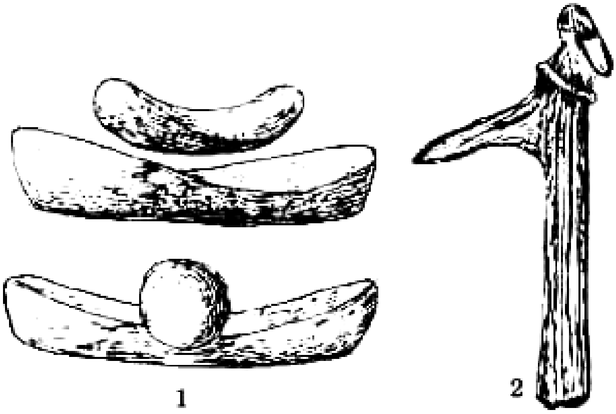


그림 5. 신석기시대 전기의 갈돌과 뿔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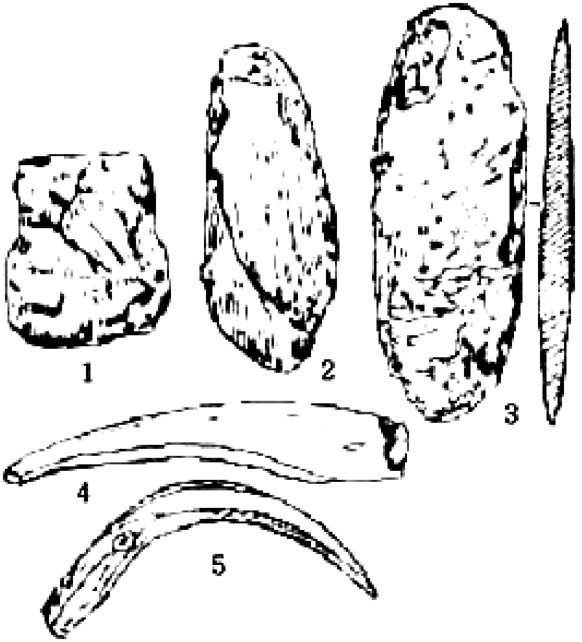


그림 6. 신석기시대 중기의 농업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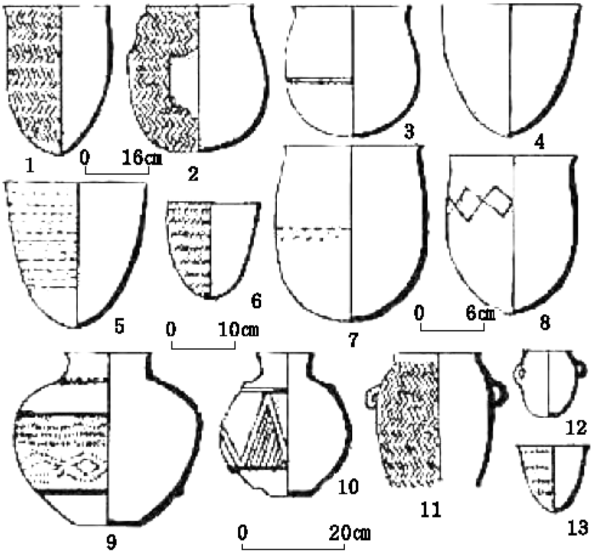


그림 7. 신석기시대 후기의 질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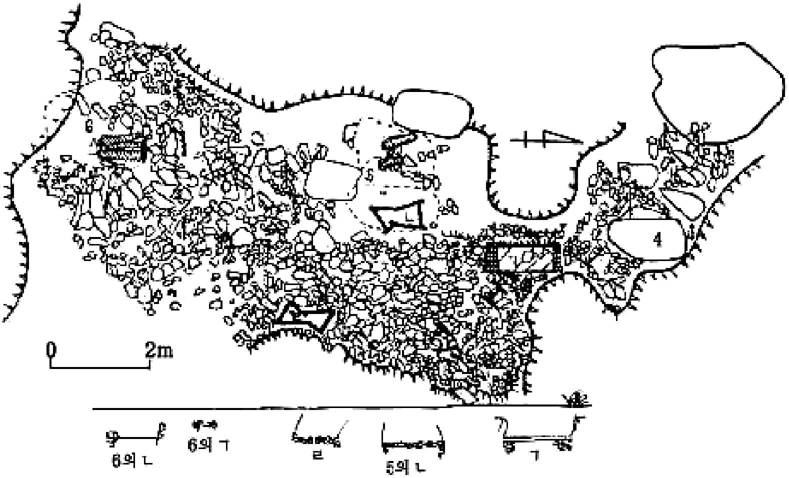


그림 8. 침촌형고인돌무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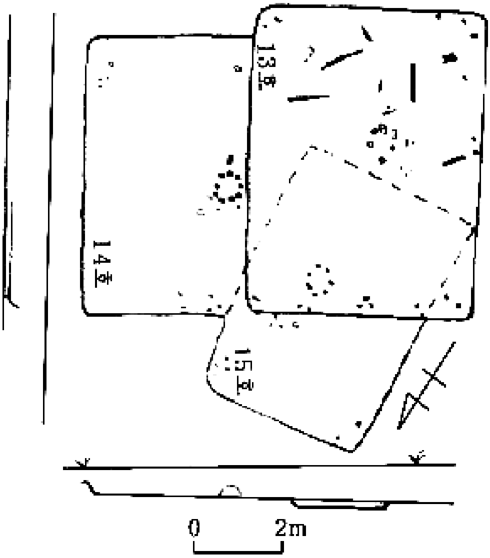


그림 9. 집자리들의 덧놓인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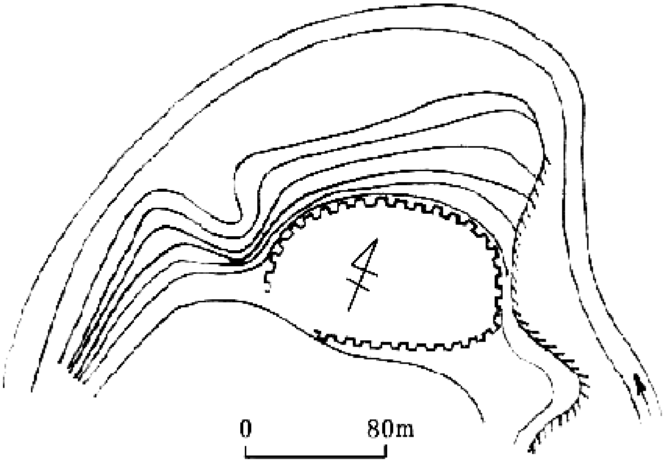


그림 10. 황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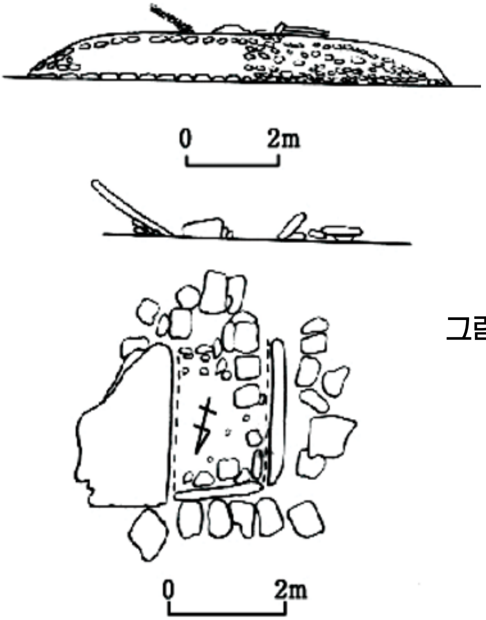


그림 11. 황대성의 성벽단면과
성벽우의 고인돌무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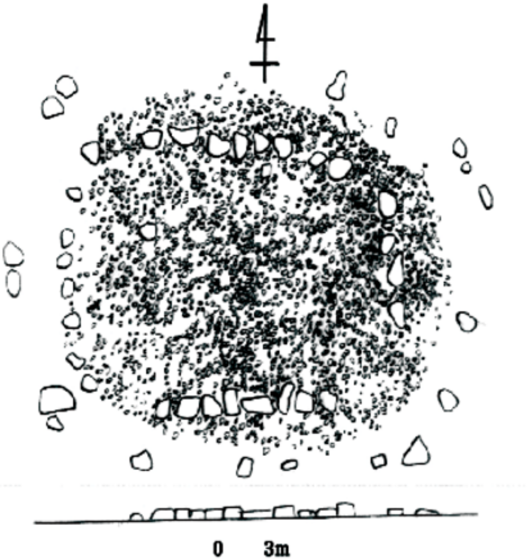


그림 12. 화성동
2 호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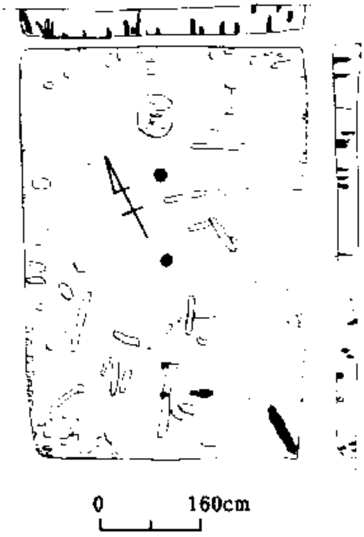


그림 13. B.C. 3000 년기초의 집자리짜임새
(남경유적 10 호집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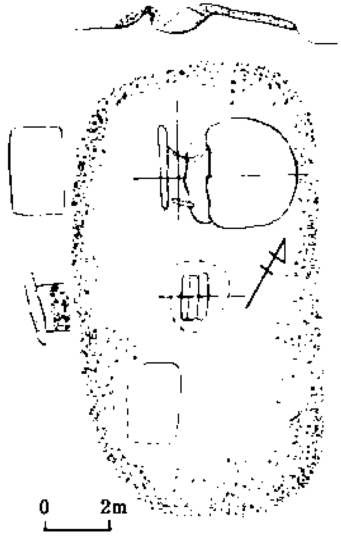


그림 14. 3 형식의 침촌형 고인돌무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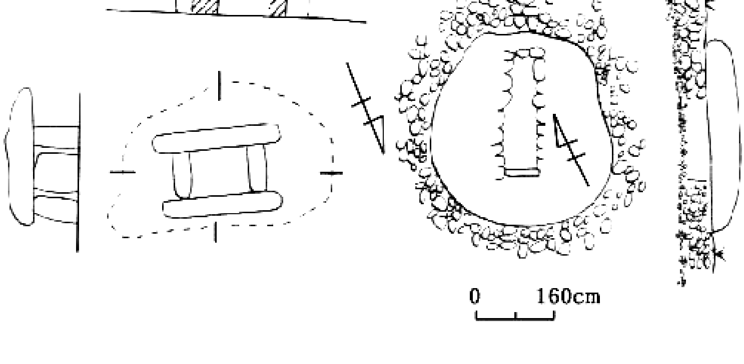


그림 15. 1 형식의 오덕형 및 묵방형고인돌무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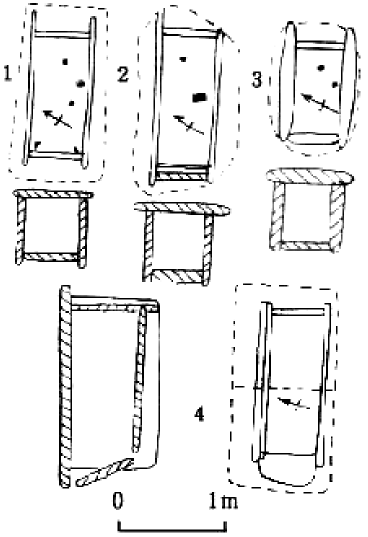


그림 16. B.C. 3000년기초 돌관무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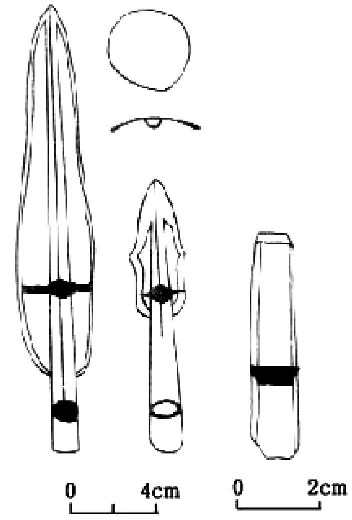


그림 17. 청동기(비파형단검, 비파형창끝, 청동단추, 청동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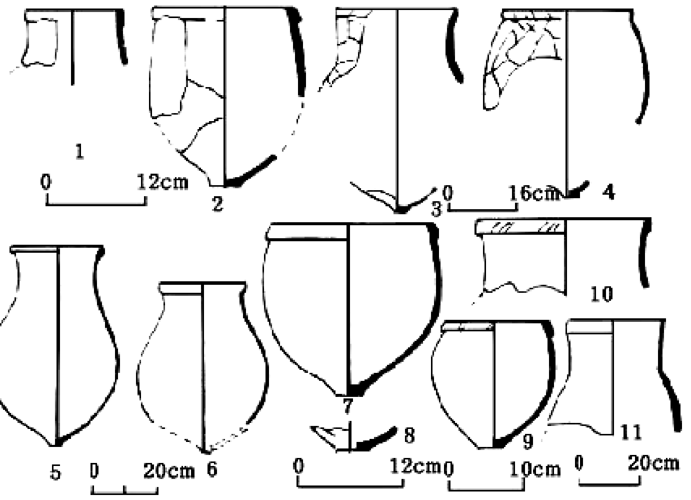


그림 18. 팽이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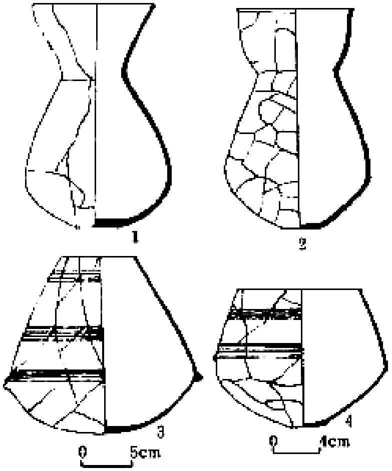


그림 19. 1류형의 조롱박형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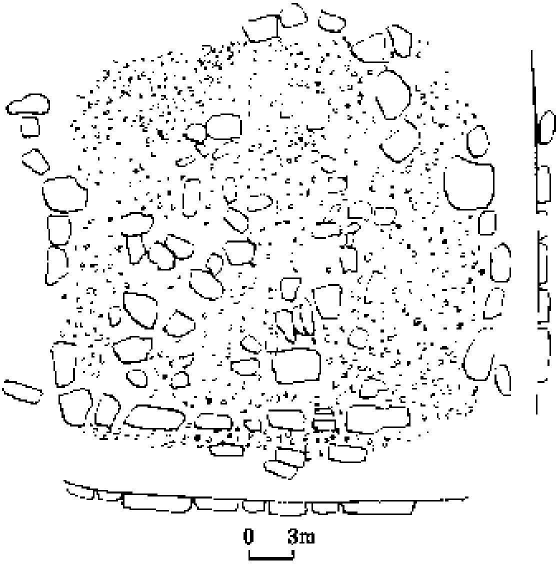


그림 20. 화성동1호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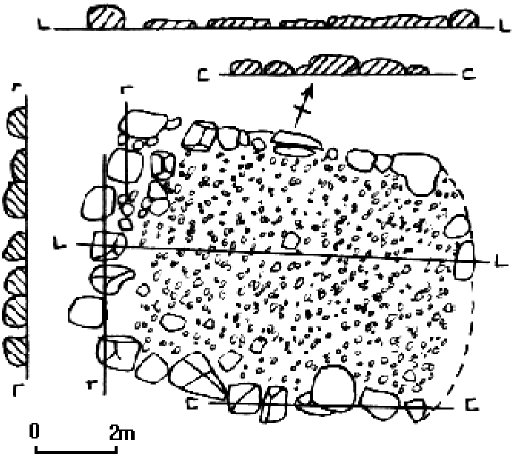


그림 21. 오덕지구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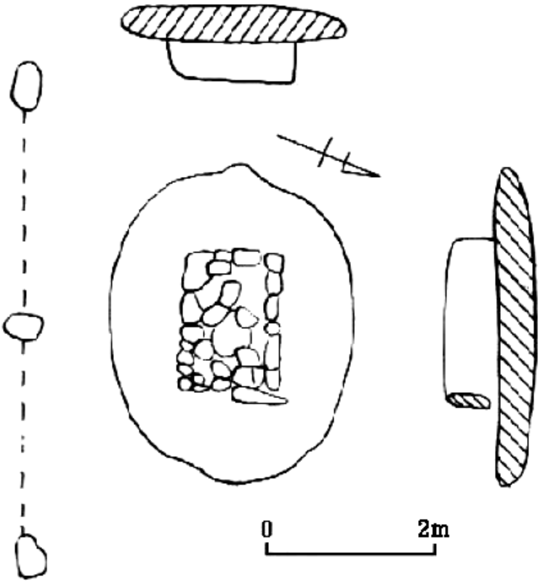


그림 22. 2 형식의 묵방형고인돌무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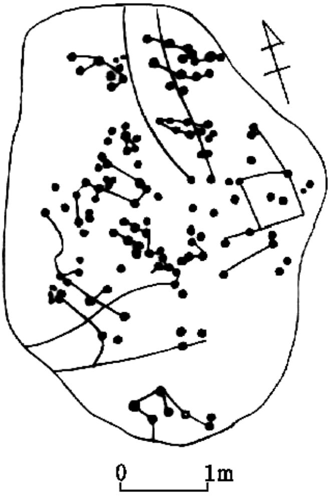


그림 23. 고인돌무덤의 별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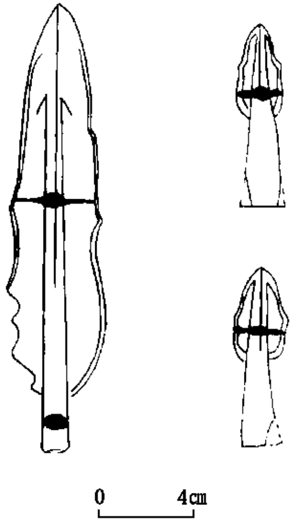


그림 24. 비파형단검과 비파형창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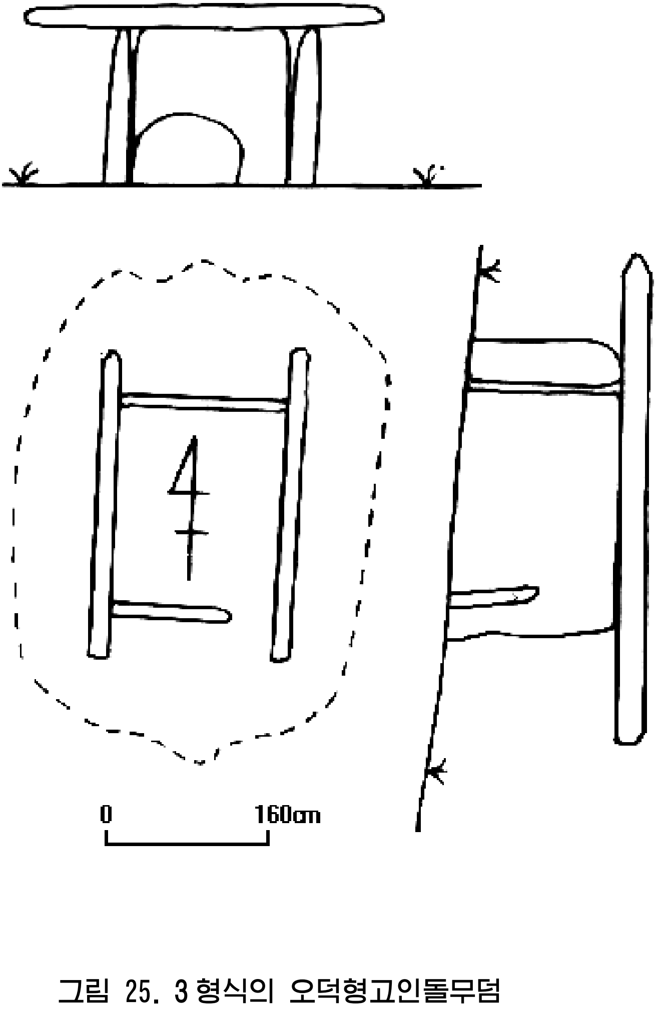


그림 25. 3 형식의 오덕형고인돌무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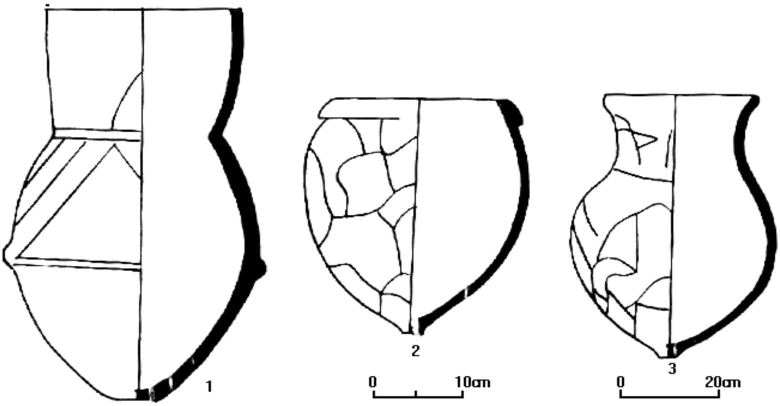


그림 26. 남양형단지와 팽이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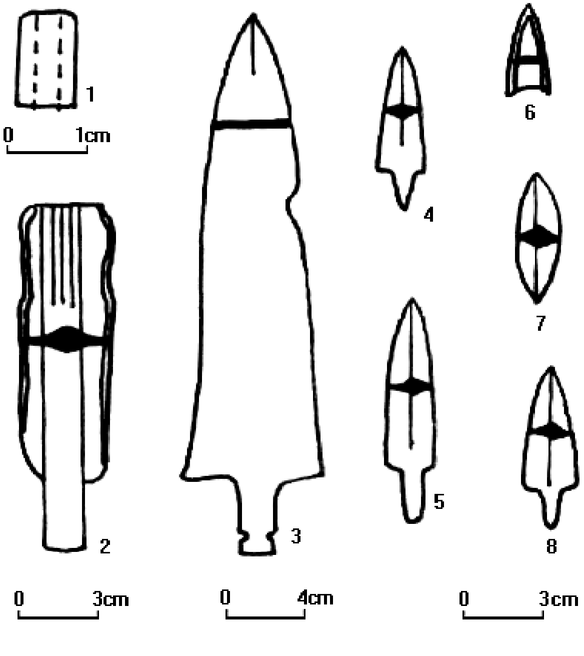


그림 27. 오산리고인돌무덤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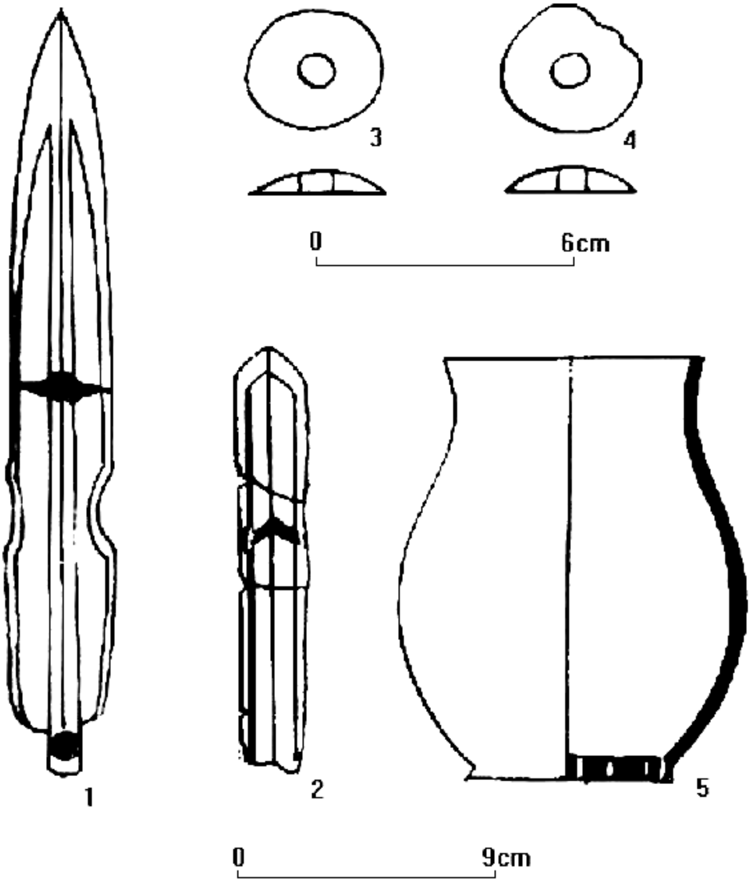


그림 28. 백원로동자구9 호고인돌무덤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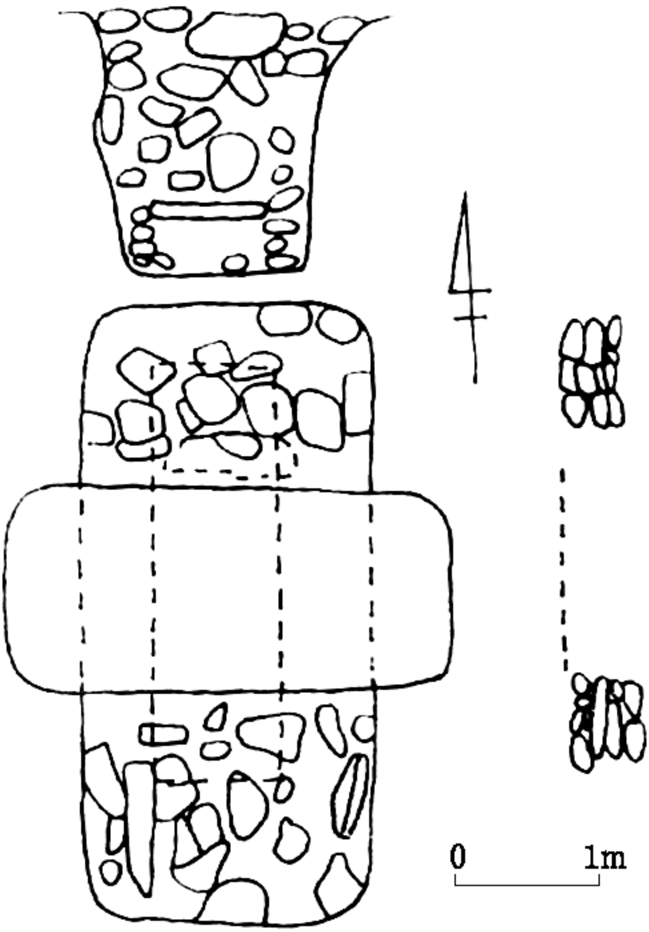


그림 29. 정봉리돌곽무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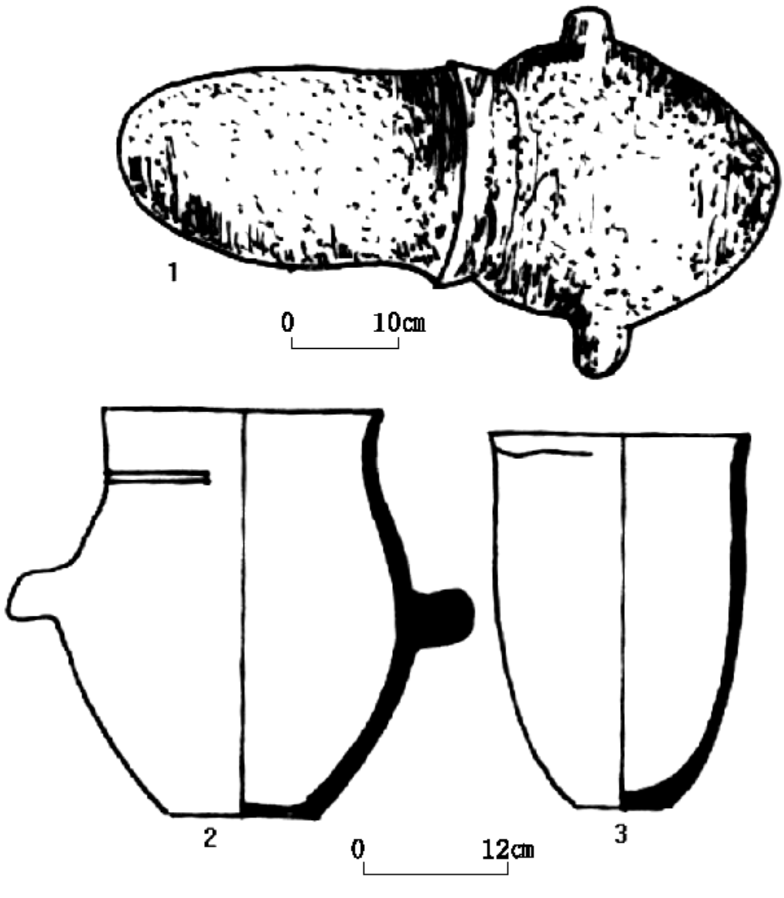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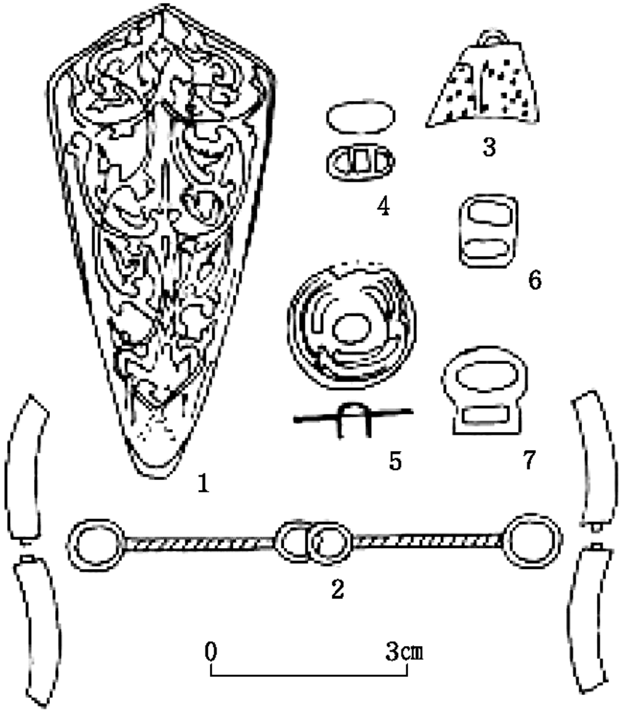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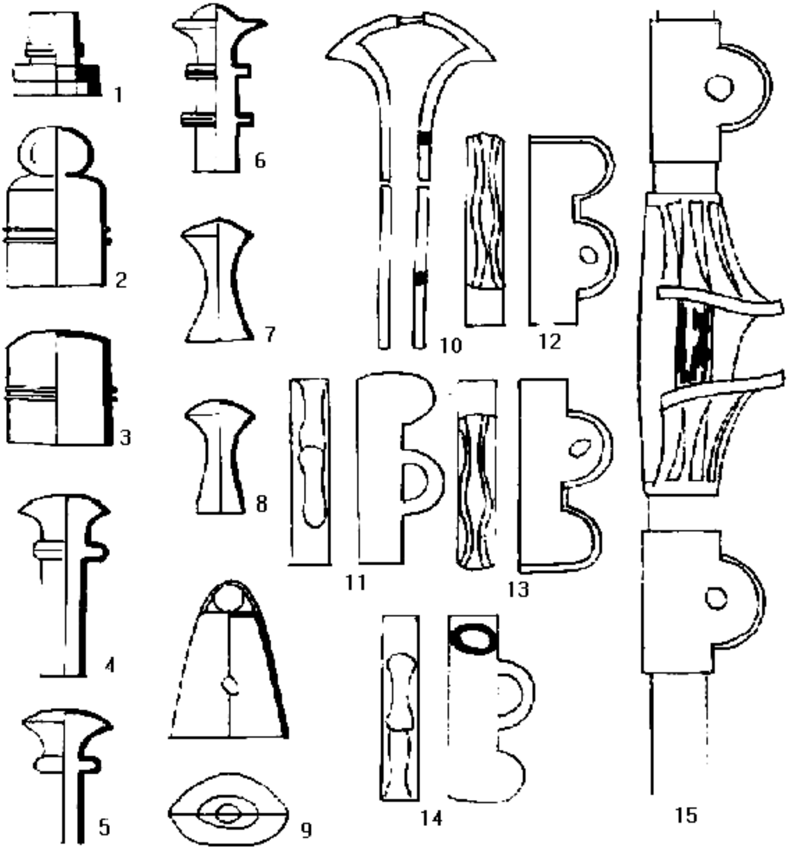


그림 30. 명사리독무덤



(1. 말관자, 2. 말자갈과 말자갈멈추개, 3. 말방울,
4~5. 말굴레장식, 6~7. 가죽끈고리)

그림 31. 마구류



(1. 굴대끌, 2～3. 굴대끌씌우개, 4～6. 삿갓모양기둥장식,
7～8. 삿갓모양말멍에꼭지장식, 9. 청동방울, 10. 을자형동기,
11～14. 멍에대끌장식, 15. 멍에대)

그림 32. 수레부속

사진 1. 검은모루유적의 원경

사진 2. 대현동유적의 《력포사람》 머리뼈화석

사진 3. 만달리유적의 《만달사람》머리뼈화석

사진 4. 지탑리유적1호집자리전경

사진 5. 신석기시대 전기의 질그릇

사진 6. 표대유적 신석기시대질그릇가마터

사진 7. 신석기시대 중기의 농업도구

사진 8. 룡산리순장무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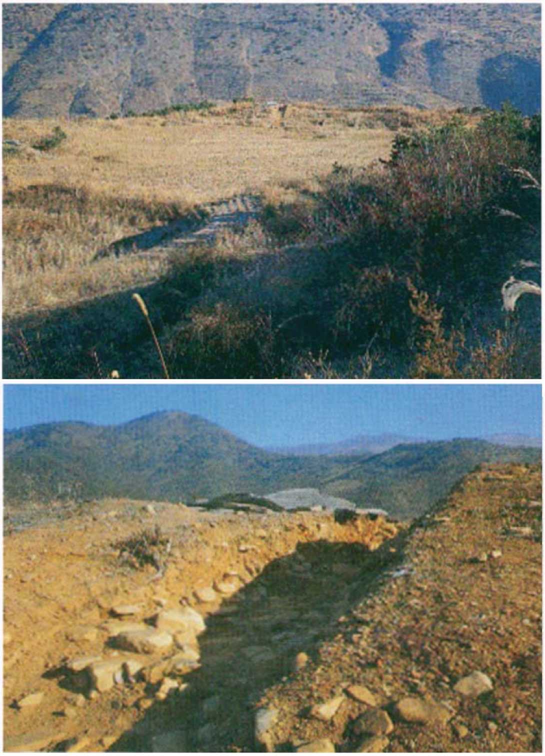


사진 9. 황대성전경과 성터

사진 10. 침촌형고인돌무덤

사진 11. 장리1호고인돌무덤의 청동2인교예장식품과 청동방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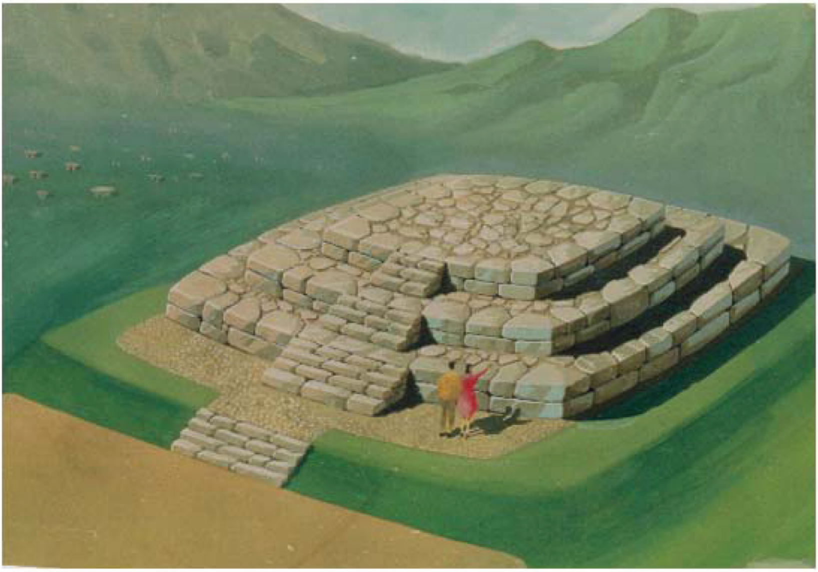


사진 12. 화성동1호제단복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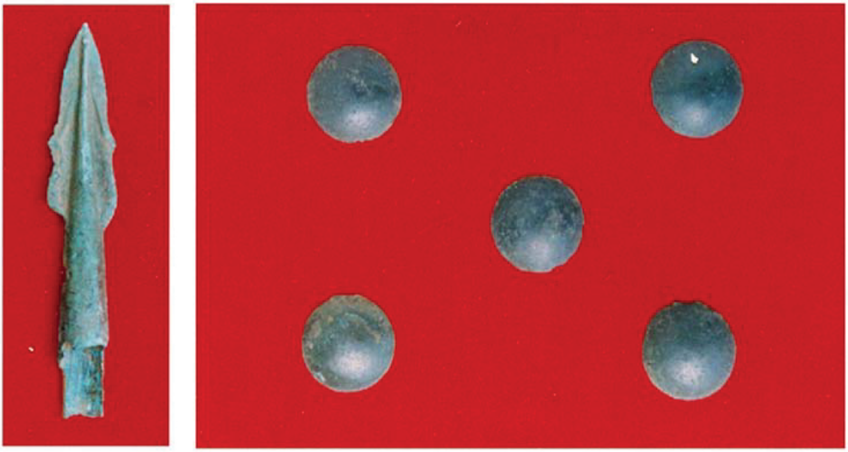


사진 13. 남양리유적의 비파형창끝과 청동단추

사진 14. 반천리움무덤에서 나온 잔줄무늬거울

대동강문화

집 필: 지화산, 서국태

편 집: 안수영

출 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 행: 주체 100(2011)년 9월 30일

ㄱ—15291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http://www.naenara.com.kp

조선•평양
주체100(2011)년

ISBN 978-9946-0-0669-7